제1편
한국전쟁과
양평의 두 전황

여 백

제1부
한국전쟁과
양평의 전란

여 백

Ⅰ. 한국전쟁(6.25)의 개요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으나 38선이 그어져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여 6.25동란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미국은 공산권으로부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유엔도 연합군을 편성하여 전쟁에 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공산 인민군은 남측의 텅빈 방어선을 넘어서 물결처럼 휩쓸어 내려왔다. 국군도 유엔군도 밀려났다. 남은 곳은 경상도를 제외한 남한 전지역을 공산군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자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는 역전되어 서울을 회복하고 북으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통일을 목전에 둔 것이다.

이 때에 공산권의 중국은 10월 8일 인해전술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여 전세는 또 역전되어 밀리기 시작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경기도 오산까지 밀려 내려왔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리던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북으로 38선 근방에서 밀리고 밀리는 전제가 거듭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1951년 7월 개성에서 미국 중공 북한이 휴전회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포로교환 문제로 1년 반 이상을 끌었다. 역시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상태였고, 입씨름 끝에 1957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전쟁은 휴전상태에서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은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이후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공산권에 편입되어 아시아의 특이한 공산독재국가로 기반을 굳히고, 남한은 미국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의 자유진영권에 편입되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전후 복구사업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II. 한국전쟁 전 남북의 동향

(풀리지 않는 의혹들)

1. 북한의 남침 준비

북한은 1948년 12월 17일 소련과 중국과 함께 3국이 북한의 군비강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추후 18개월 동안(49-50년 6월까지) 북한군 군비증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① 북한에 이미 창설한 3개 사단 1개 혼성사단 외에 새로 편성될 6개 사단과 1개 돌격사단 분, 총 10개 사단 분의 장비를 제공한다.

② 3개 기계화부대 분의 장비를 제공한다.

③ 7개 보안대대 분의 장비를 제공한다.

④ 공군창설을 위해 정찰기 20대, 전투기 100대, 중/경 폭격기 30대를 제공한다.

⑤ 120명의 군사고문단을 평양에 파견한다.

⑥ 1949년 5월말까지 북한통용화폐가치로 100억 상당의 군수품을 제공한다.

⑦ 중공은 만주 동북의용군 3만명을 무장한 채 입북시켜, 이들을 기간으로 8개 전투사단과 8개 예비사단을 편성케 한다.

⑧ 북한은 웅기, 청진, 원산 등 동해안 여러 항구를 소련의 잠수함 기지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여 보잘것없던 북한 군사력은 급속도로 확장되고, 전쟁발발 직전에는 각종 신형 무기를 보유하는 한편 16만 9000명의 대 병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소련과 중공의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바로 남침을 감행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2. 남침 징후의 증언

① **남장우**: 당시 18세, 인민군 전사는 "6.25전쟁은 소련이 주도한 것이다. 남북의 분단은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김일성과 이승만은 그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외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9. pp. 444-447〉

② **김명수**: 당시 17세, 황해도 벽성군 취야 거주자는 "6.25 전쟁은 사실상 오래 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그들은 6.25 개전 1년 전부터 해주에서 취야를 거쳐 옹진에 이르는 길을 대폭 수리하고 확장했으며 흙 길이던 것을 기계화 부대가 지나도록 포장공사를 하였다. 당시의 포장 공사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콘크리트였는데 당시 몰랐으나 훗날 이것이 전쟁준비였음을 깨달았다"고 증언했다.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9. pp. 219-226〉

③ **이상원**: 당시 20세, 황해도 해주 시내 거주는 "6.25 개전 1년 전부터 전쟁이 머지 않아 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학생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일이었고, 개전되기 3개월 전부터는 전쟁 준비가 너무도 확실하게 감지되었다. 참호는 학생들도 많이 동원하여 팠으며 물론 나도 팠다." 고 증언했다.

〈안천, 남침유도설 해부, 교육과학사, 1999. pp. 207-208〉

④ **티보 메리아**: 북한 측 종군기자로 6.25 한국전쟁 때에 참전했던 헝가리 문인이다. 그는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그는 "많은 역사가의 연구에 바탕해 한국전쟁은 남침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51년부터 1952년 11월까지 14개월 간 북측 종군기자로 활동했던 티보 메라이(81세)는 "많은 문서(연구문서)가 그것(남침)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몇몇 문서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해 스탈린이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05년 4월 12일, 27면〉

3. 참모총장 채병덕의 태도

북한이 위와 같이 남침준비를 하는 동안 남한은 1946년 1월 15일 남조선 국방경비대를 발족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대는 치안유지정도 밖에 되지 못하고, 여기에는 남로당이 침투되어 내부를 장악하고, 민주를 가장한 반란과 군사반란이 일어나고 표무원, 강태무 대대장이 자기의 대대를 이끌고 월북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이 지원한 군사원조는 6천 500명 분량이었는데 실제 군사는 10만명으로 증강되었기 때문에 물자가 태부족하고 무장이 빈약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그런데 육군 참모 총장의 태도는 의심스럽다.

① 1950년 3월 25일 북한 수 개 사단이 38도선에 전진 배치. 만주에서 입북한 전사들을 각 사단에 배치, 북한 전역에 10만에서 15만에 이르는 강제징집 실시, 3월 중순 38선 일대의 주민들을 5킬로 북쪽으로 소개시킴

② 1950년 4월 15일 북한의 전면 남침 징조 관측됨

③ 1950년 4월 28일 북한 공군 중위 YKA-9형 전투기를 몰고 월남, '몇 개월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진술.

④ 1950년 6월 10일 춘천 오대산, 강릉 해상을 통해 인민유격대 침투, 포로 심문 결과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명령하달만 기다리고 있다'는 진술 확보.

⑤ 1950년 6월 20일 정보원 김기희를 통해 북의 전쟁준비 사실 입수

⑥ 1950년 6월 22일 동두천 1연대에 인민군 전사 귀순, 남침을 위한 38선 지뢰해체 명령을 받고 탈영

⑦ 1950년 6월 22일 국군 7연대는 유천면 인민군 부대에 1개 대대의 전차가 집결하고 포 진지를 만들어 포신을 남으로 향하고 빈번한 차량의 이동을 관측 보고

⑧ 1950년 6월 24일 옹진반도 국군 17연대 전면에 인민군 증강, 모든 포신이 남쪽을 지향. 군관들이 남쪽을 지속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목격됨.

⑨ 1950년 6월 24일 국군 9연대는 양문리 38선 2킬로 전방 고지에 인민군 군관들이 지도를 펴고 남쪽 지형을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됨.

이러한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육본 정보과는 전방부대에서 오는 전화를 받느라 24시간 정신이 없었다. 육본 정보국의 장도영 국장은 각종 보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인민군의 전면 남침 가능성을 채병덕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그런데 미 군사고문단은 북한의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채병덕 참모총장은 서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전방에서 들어오는 긴급한 보고들을 묵살하고 인민군의 남침은 불가능하다는 미군의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4. 참모총장 채병덕의 인사 명령

북한에서 남침 준비를 준비중인 시기에 채병덕은 1950년 6월 10일 전쟁시에 가장 중요한 부서인 작전국의 국장, 차장, 과장을 모조리 갈아치우는 한편 각 부대를 타 부대에 배속시켜 지휘계통의 혼란을 유도했다.

그 대상은 이형근 준장, 김종오 대령, 유재흥 준장, 이상기 대령, 신상철 대령, 강문봉 대령, 김홍일 소장, 김정곤 중령, 박림항 대령, 정래혁 중령, 장창국 대령, 이종찬 대령 등이었다.

그리고 2사단 25연대를 7사단에 배속시키고, 7사단 2연대를 수도사단에, 그리고 6사단에 배속시키고, 6사단 8연대를 수도사단에 배속케 했다.

또한 육군 보유 차량 총1500대 중 500대를 정비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부평으로 후송, 중화기 일부도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부평으로 후송토록 명령 전쟁에 대처할 수 없게 했다.

5. 참모총장 채병덕의 의혹들

6월 23일 낮 미 군사고문단장 직무대리인 헨리 대령은 일본에 가 있는

브라운 준장의 전화명령을 받고 채병덕 참모총장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헨리 대령은 24일 밤 한국 육군참모학교 구내의 장교구락부 개관을 축하하는 칵테일 파티를 열도록 제안했다.

그러자 채병덕은 김백일 참모부장을 불러 6월 24일 낮 12시를 기해 전군에 내려졌던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장병들에게 휴가와 외출을 보내도록 명령을 내렸다. 명분은 농번기이므로 휴가를 나가 농사일을 돕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자 정보국에서는 참모총장에게 경계령 부활을 요청했다. 그러나 참모총장은 오전에 해제하고 오후에 다시 경계령을 내릴 수는 없다며 요청을 묵살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전방부대는 텅 비고 주말 도심은 휴가 나온 장병들로 흥청거렸다.

그리고 24일 밤 장교구락부 개관 파티가 열렸고 몇 달째 계속되었던 경계령이 해제되고 주말이라 육군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들 50여명의 고급 장교들이 참석했다. 이 파티는 밤 10시에 끝났지만 참석자들은 장소를 옮겨가며 25일 새벽 2시경까지 술을 마셨다.

이렇게 남침이 있기 2시간 전까지 군 수뇌부는 고주망태가 되어 골아 떨어졌다. 전쟁이 발발하자 각급 지휘관들이 인사불성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남침에 대해 민첩한 대응과 파악을 할 수 없었고 육본 장교들은 6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전달받고 대응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는 북한 인민군이 포천을 점령하고 의정부를 향해 진격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5. 미국 군사고문단장의 의혹

그런데 한국군을 총 지휘해야할 미 군사고문단장 브라운 준장은 6월 10일에 정년퇴임을 했고, 24일 밤에는 귀국을 위해 도쿄로 가있었다. 채병덕에게 파티를 건의했던 군사 고문단장 직무대리 헨리 참모장은 파티에 얼굴만 비추고 주말 휴가를 명분으로 밤에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떠나버렸다.

이상을 관심 있게 보면 '제2의 6.25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것을 공감한다. 군사적으로 안전조치가 없는데, 남북 도로개설, 경의선철도 연결, 전방의 지뢰제거 등에 국민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상의 글은 小題는 필자 의견대로 달고 내용은 〈www.coo2.net〉 에서 다운받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왜냐하면 필자가 공감하고 일반국민이나 양평군민들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 필자의 입장은 미국과 채병덕의 태도는 민족이 용서할 수 없다. 미국, 소련, 중공 등의 강대국의 놀음판에 남과 북이 이용되어 同族相殘의 비극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 강대국은 제 각 나름대로의 정치적 국가적 이익을 챙겼기 때문인데, 국가의 군사를 총지휘하는 채병덕은 도대체 그 정체가 의심스럽다. 미국이나 군 수뇌부가 북의 남침을 알고도 북의 남침을 도와주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남침 정보를 몰랐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허수아비일 뿐이다.

필자는 분노하고 있다. 남북의 전사망자, 학살당한 사람, 피납자,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 국토의 초토화 등 인적 물적 자연적인 피해를 생각해 보라! 결국은 누가 이런 비극에 책임을 질 것인가? 책임은 물어 무엇하나 세월이 50여년이나 흘렀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를 해체해 버려라. 국가이성은 윤리를 무시한다. 정치가는 사기꾼이다. 왕과 거지 두 목은 이름나 다를 뿐이다. 는 말들이 진리처럼 여겨진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재산을 피력한 유엔헌장은 약소국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 소련, …… 강대국들의 가증스러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전쟁 6.25참전국으로 맹방이지만, 그 이전에 약소국인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대국인 미국 스스로의 국익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한국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前 극동지역 CIA 고위간부 하리마오의 저서 『38도선도 6.25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 (Copyright ⓒ 1998 Harimao, printed in Korea 1998 by People of Fresh Mind publishing Co. Ltd)라는 그의 증언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그야말로 '病을 주고 약을 주고, 나중에 약을 팔아먹는 꼴이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인한 한국과 참전국의 희생자는 물론, 6.25전란으로

인한 양평군민 희생자 근 2000여명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부상자, 행불자, 포격 사망, 지뢰사고 사망, 행방불명, 이재민, 전쟁고아 등 무고한 희생자와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III. 한국전쟁과 양평의 인명피해

1. 한국전쟁과 인명피해

어찌되었건 38선에서 일제히 선제공격으로 기선을 잡은 인민군은 기세 등등하게 남진하였다. 북한 공산군은 지상군 10개사단, 1개 기갑사단, 3개 38경비여단 등 167,280명에 국군이 갖지 못한 전차 240여대 , 장갑차 50여대 장거리포 550여 문을 가지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때 국군의 지상군 전투병력은 8개 사단(22개연대) 67,416명이었고, 이 가운데 38선에 배치된 병력은 4개 사단(11연대) 35,950명이었다. 나머지는 서울, 대전, 광주, 대구에 1개 사단씩 주둔하고 있었다. 그나마 앞에서 언급했듯이 휴가, 외박, 외출, 파티 등으로 대책 없이 텅 비어있는 상태였다.

그러니 한달 여 만인 8월4일에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었고, 이 방어에 국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제 부산만 남은 상태였다. 미군은 하와이로 가고 국군은 제주도로 가야하는가 라는 기로에 서있었다.

열악한 병력은 손실이 많고 그 보충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강제 징집령을 내렸다. 육군본부는 7월 11일 교육연대 발족-제7교육대, 8월 14일 육군 제1훈련소 창설, 부산에 제2훈련소, 구포에 제3훈련소, 제주에 제5훈련소, 삼량진에 제6훈련소 등을 창설하면서 신병을 양성하여 병력 보충과 증강에 박차를 가하였다. 자원이 모자라자 만 20세의 징집연령은 18~30세까지 강제로 징병하였다. 그러나 18세 이하도 30세 이상도 징병되었다. 소년에서 청년 장년은 물론 때로는 나이든 사람들은 군속으로 나아가 밥을 나르거나 탄약을 나르거나 전몰한 시신을 운구하여 매장하거나 했다.

그러나 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서울을 접수하고 6월 29일과 7월 6일 사이에 평택과 충주와 울진을 잇는 방어전선을 밀치고 7월

20일 경에는 군산 대전 문경 영주를 잇는 방어전선을 붕괴시켰다. 8월 20일 경에는 마산, 창녕, 대구, 영천 경주, 포항을 잇는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부산을 사수하기 위한 결사 항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8월 13일 다부동 전투, 31일 인민군의 9월 공세가 시작되었다. 부산만 접수하면 된다는 최후의 총력공세에 밀리고 밀리는 방어선, 급기야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인민군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인민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후퇴를 하여 전세는 역전되었다.

서울탈환에 성공, 북진을 계기로 10월 19일 중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군과 중공군은 25일 온정리 전투를 치렀다. 11월 1일 운산 전투에서 중공군의 대 승리가 있었고 24-25일 총공세를 펴는 사이에 11월 27일 극비리에 소련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밀리기 시작한 아군은 장진호 전투, 군우리 전투에서 패배하고 후퇴를 시작하여 국군과 유엔군은 12월 14일 흥남 철수작전에 이어 서울에서 전면 철수를 하여 1.4후퇴를 단행했다. 이어지는 중공군의 공세는 거세졌다. 2월 전역에 공세를 하였으나 대응에 나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재탈환하고 중공군의 4월 공세를 격퇴했다. 5월 공세가 시작되자 52년 7월 11일 미군은 평양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하고 10월 31일까지 총력 대응하는 인민군과 중공군의 추계공세를 무력화시켰다.

1953년 6월 10일 중공군과 인민군의 최후의 6월 공세를 개시하였다. 38선을 경계로 누가 북으로 남으로 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다. 드디어 7월 8일부터 개성에서 시작된 휴전협정은 판문점에서 7월 27일 조인됨으로써 전쟁은 정전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55년이 지났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미국으로 인한 국군과 참전 17개국의 인명 피해를 보면 〈표-1〉 와 같다.

6.25전란시에 양평군민으로 징병되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전몰한 사람은 1007명이나 된다. 용산에 자리잡은 한국전쟁기념관에서 보내온 자료의 756명보다 251명 늘었고, 양평군청이 제공한 자료의 598명보다는 409명이 늘었다. 갈산공원 충혼탑의 624명보다는 383명이 많다.

〈표-1〉 6·25 전쟁 인명 피해현황

국 명	계	전사/사망	부 상	실 종	포 로
총 계	776,360	178,569	555,022	28,611	14,158
한 국	621,479	137,899	450,742	24,495	8,343
미 국	137,250	36,940	92,134	3,737	4,439
영 국	4,908	1,078	2,674	179	977
오스트레일리아	1,584	339	1,216	3	26
네덜란드	768	120	645	-	3
캐나다	1,557	312	1,212	1	32
뉴질랜드	103	23	79	1	-
프랑스	1,289	262	1,008	7	12
필리핀	398	112	229	16	41
터어키	3,216	741	2,068	163	244
타 이	1,273	129	1,139	5	-
그리스	738	192	543	-	3
남아프리카공화국	43	34	-	-	9
벨기에	440	99	336	4	1
룩셈부르크	15	2	13	-	-
콜롬비아	639	163	448	-	28
이디오피아	657	121	536	-	-
노르웨이	3	3	-	-	-

※ 전사/사망에는 부상, 실종, 포로 중 사망포함.
※ 한국군 포로 수치는 교환포로와 추가 송환포로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인터넷

이번에 정리된 전사자 통계 수치는 1007명이다. 이 중에 100명이 넘는

면은 양평면이 146(66)명, 양서면이 114(81)명, 양동면이 108(58)명 등 3개면이고, 용문면이 100(61)명, 서종면이 100(53)명, 옥천면이 83(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사자가 제일 적은 개군면은 49(45)명이다. 〈표-5〉 참조

이와 같은 전사자의 차이는 군청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군청자료에 없는 전사자를 전쟁기념관 자료에서 발췌하여 합산하고 다른 자료나 새로운 정보에 의한 누락자가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자료의 통계든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다. 육군전사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쟁기념관 자료는 756명, 군청의 명부는 575명, 새로운 통계는 962명이다. 이 통계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55년이란 세월이 지났고, 우리 국민이나 당국의 책임자가 일의 성과만 생각하는 적당주의에 의한 행정처리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하겠다.

그런데 1989년 다시 건립한 갈산공원 '충혼탑'에 刻字된 호국영령 624위(육군 600, 해군 5, 경찰 7, 군속;노무자 11)의 명단도 郡이 제공한 명단과 전쟁기념관이 제공 명단을 통합하여 컴퓨터에 의한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한국전쟁과 인민군의 대학살

月刊朝鮮社가 발행한 『6.25피살자59994명』(2003)에 보면, 정치학 박사 金光東 나라정책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金日成은 1950년 6월 26일 방송을 통해 "도처에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복구하라"고 남한의 공산주의 세력 및 빨치산을 대상으로 지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부수상 겸 外相이었던 朴憲永(남로당 남한총책)은 1950년 7월 1일 '반역자들을 체포·처단하여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선동했다. 북한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사회단체의 핵심요원을 남한에 파견하였던 것이다. 이래서 더 적극적인 살인행각이 벌

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이 1952년 3월 작성한 '피살자 명부'에 의하면 총 피살자는 5만9994명이다. '대한민국 통계연감'(1952)에 의하면 12만2799명이다. 그리고 국방부가 발행한 '한국전쟁사(1977)'에는 12만(男 9만7680명, 女 3만1256명)이다. 그러나 국군과 우익진영과 인민군과 남로당, 빨치산 등의 좌익진영에서 피살된 자는 이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최근 의도적인 양민 학살인지 공격중의 오판인지 이해하긴 어렵지만 대 살인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보처 통계국이 밝힌 인민군에 의한 양평군의 피살자는 337명이다. 그러나 이번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민군에 의한 학살피살자는 497명이다. 이 피살자 중에는 불가피하게 부역한 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좌익활동에 가담했던 사람이 우익 피살자명부나 강제 납북된 의용군의 전사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정부 공보처 통계국 자료 332보다는 165명이 많고 자유총연맹 자료 348보다는 149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보다 시간을 두고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면 양측에 의한 인명피해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2〉 각 道별 학살자 수

지역	총 수
서울시	1,383명
경기도	2,536명
충청북도	663명
충청남도	3,680명
전라북도	5,603명
전라남도	4만3511명
경상북도	628명
경상남도	689명
강원도	1,216명
제주도	23명
합계	5만9,932명

(별도 집계된 철도경찰 62명제외)
자료:6.25사변 피살자 명부, 2003

북한 공산집단이 6월부터 살해하기 시작한 학살은 따지고 선별하고 이유 있는 반동적 살인극이 아니라 미치광이처럼 무차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 자행된 총5만9994명의 피살자 명단에서 보면 전라남도에 4만3511명, 전라북도가 5603명이라는 사실이나 전남 영광군에서만 2만1000여명이 피살되는 등 지방간에의 큰 차이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전체 피해자 수의 83%가 전라도지역에서 피살되었다는 사실도 무차별적으로 학살이 자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2〉

경기도내 학살당한 양민은 2536명(4.2%)이다. 그 중에 양평군의 피살자는 337명(13.2%)이 된다. 양평군내의 대학살은 양평군민회관 앞 양평대교 교각 밑 근처와 상류 쪽으로 100여미터 지역의 백사장과 떠드렁산 아래 백사장이다. 그러나 지금은 팔당댐으로 침수로 인하여 학살의 현장 두 곳의 백사장은 수몰되었다. 유족이 찾지 못한 백사장에 묻혀있는 시신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소수나 개인별 피살은 자택, 내무서, 지서, 거리 등 그저 무슨 이유를 말하며 그대로 사살되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기 때문에 살인만행도 각양각색이다. 그 과정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복구사업(복구대)에 나오라 하여 나간 사람은 죽고, 의심나 피한 사람은 살았다. 의심은 하면서도 날뛰는 시국이니 나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 끈이라면 새끼줄, 철사줄, 아무것이나 닥치는 대로 다른 사람과 팔과 팔을 합하여 두 사람을 한데 묶어 꾸러미를 지었다. 사정도 없이 철사로 묶을 때는 뺀찌로 틀어 조였다.

• 백사장 구덩이를 스스로 파게 하고 들이 촘촘히 세우고는, 산채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 총을 마구잡이로 난사하여 죽였다. 실탄이 떨어지면 죽창으로 찌르고, 또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이는 등 각양각색이다.

• 자기들 말에 사정이 그렇지 않다는 말만해도 무슨 말이 많으냐며 그대로 쏘아 즉사시켰다. 그야말로 살인과 공포의 세상이었다. 그러니 피살된 경우나 장소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양평군 내 각 면별로 피살자를 보면 강상면 27명, 강하면 39명, 개군면 12명, 단월면 26명, 서종면 24명, 양동면 16명, 양서면 20명, 양평읍 144명, 옥천면 27명, 용문면 124명, 지제면 22명, 청운면 16명으로 총497명이나 된다. 〈표-5〉 참조 양평군과 용문면이 피살자 전체의 274명으로 54.3%에 이른다. 이뿐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살시기는 공보처 기록과 양평군 자유총연맹 자료에 의하면 대량학살은 9월중이지만 1950년 6월 말경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3. 한국전쟁과 강제 대량납북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된 양민에 대한 조사는 정부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6.25事變 被拉者 名簿』에 의하면 전국 8만661명으로 기록되어있다. 남자가 7만9145명이고 여자가 1,516명이다. 이 자료는 1996년 하버드대학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해 온 528쪽 문서로 6.25사변 납북자가 8만661명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대한민국통계연감』(1952)에는 6.25사변 중 피납자가 8만2959명으로 기록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 기록은 1952년 이전에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료인 『대한민국통계연감』(1953)에는 8만4532명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1989년 10월 5일 한국장서가협회 辛永吉 회장이 소장했다 공개한 『六二五事變被拉致人事名簿』에는 총 2316명의 인사가 기록되어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납북자수는 80,661명, 82,959명, 84,532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조사시기가 정부 내에서도 좌우익이 갈등을 빚고 좌익 프락치들이 활동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통계를 내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지금도 피해의식을 가지고 진실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상 밝혀진 기록 이 밖에도 더 있겠지만 정확한가에는 의문점이 있다. 왜냐하면 戰後라 정부 내에도 남북 좌우의 갈등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만약에 역풍을 염려하는 시기라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기에도 그런 염려를 하는 참전세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아무튼 지역별 납북자 수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 이북지방에 집중도고 있다. 총 8만여명에서 서울시 1만8330명, 경기도 1만5871명, 강원도 1만422명을 기록하고 있다. 피살자가 주로 전라도지방에 집중되어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납북자는 대개 청장년들로 인민군에 소속되어 전투에 투입되었는지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

다. 전국의 납북된 자를 직업별로 보면 1,000명 이상의 납북된 자의 직업을 보면 공무원 1293명, 기술자 2,032명, 노동자 2,059명, 상업 3,297명, 학생 2,043명, 회사원 1,600명, 기타가 9,901명으로 기록되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인민군의 양민 학살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듯이 양민 납치도 또한 선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음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쉽게 알 수 있다.

〈표-3〉 지역별 납북자수

지역	남	여	공란	합계
서울시	22,833	498	1,137	24,468
강원도	10,739	22	65	10,826
경기도	9,009	60	62	9,131
경상남도	1,688	12	0	1,700
경상북도	7,030	102	0	7,133
전라남도	3,327	62	43	3,432
전라북도	6,493	413	10	6,916
충청남도	9,487	315	0	9,802
충청북도	8,165	11	1	8,277
제주도	17	29	0	46
합계	78,888	1,524	1,319	81,731

자료: 6.25납북자8만2959명, 月刊朝鮮社, 2003. p. 43.

〈표-4〉 직업별 납북자 수

구분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	합계
경찰	463	24	25	30	44	35	314	268	3		1,206
공무원	1,293	102	300	8	28	41	92	115	25		2,004
기술자	2,032	76	239	10	37	7	40	112	27	1	2,581
교수	98	1	8								107
교원	313	15	116	4	47	9	21	34	11		570
군인	221	9	42	17	8	20	50	86	2		455
노동자	2,059	460	777	3	26	30	139	79	62		3,635
농업	849	9,029	5,654	1,435	6,274	1,656	5,097	7,254	7,593	44	44,885
변호사	129	1			1	1	3	3	1		139
상업	3,297	258	297	51	89	37	103	287	33		4,452
어업		202		11	183	4	1	2			403
의사	170	3	21		4		3	7	1		209
학생	2,043	203	345	18	211	41	168	205	162		3,396
회사원	1,600	61	78	4	4	4	10	25	7		1,793
기타무직	9,901	382	1,229	109	177	1,547	875	1,325	350	1	15,896
합계	24,468	10,826	9,131	1,700	7,133	3,432	6,916	9,802	8,277	46	81,731

분석자료: 6.25납북자8만2959명, 月刊朝鮮社, 2003. p. 45.

당시 양평군의 피납자는 283명(경기도 1.8%)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283명을 각 면별로 보면 양평읍 피납자가 102명(36.0%)으로 가장 많고, 지제면 46명, 옥천면 30명, 강상면 28명, 양서면 27명이고 양동면과 청운면 각각 13명 등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 있다. **〈표-5〉 참조**

이상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양평군내의 전사자, 피살자, 납북자 등 6.25 전란으로 인한 인명피해자를 보면 전사자 1,007명, 피살자 497명, 납북자 283명이다. 총 인명피해는 1,787명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파악할 수 없는 사망자가 수없이 많다. 이웃에 살던 전사자의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사간 곳을 모르거나 연고자가 없어 누락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자는 더 있다. 다음에 해당자는 어느 기록에도 포함되지 않은 인명 피해자다. 그러기에 이들에 대한 새로운 신상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사자, 피살자, 피납치자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람들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국전쟁 즉 6.25사변의 참상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① 행방 불명자: 강천봉, 김동학, 이우석, 하명룡, 장창식, 남상철, 이상준, 허단, 홍종복, 허용회, 허준, 전창근, 이의창 등등
② 폭격 사망자: 윤덕균 모친, 허무억 부친, 김창식의 형 등등
③ 지뢰, 수류탄 사고사망자: 정영수, 함원근, 장동화, 조장연 등등
④ 좌익활동 피살자: 윤○○, 이○○, 윤○○ 등등
⑤ 오인피살자: 한명교 등등
⑥ 납북자 중 누락자: 김용호, 안광순 등등
⑦ 자진 월북자: 박○○, 박○○, 이○○ 등등

위의 7개 항목의 6.25전란 피해자를 합하면 양평군 인명피해는 수백 여명이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상이용사, 전쟁 부상자,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전쟁이재민,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영아 사망 등을 합하면 양평군의 인적 피해는 2,000여 명에 이를 것이다.

〈표-5〉 한국전쟁 양평군의 각면별 인적 피해 현황

(학살시기: 1950.6.30~1950.9.30)

구분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양평	옥천	용문	지제	청운	기타	계
육군	①	45	39	2	69	83	78	60	101	52	63	54	53	57	784
	②	33	21	45	25	53	58	81	66	43	61	46	38	/	575
	③	62	49	46	31	97	104	113	127	80	98	79	76	/	962
해군	①														
	②														
	③			2	1	1	2				1			1	8
경찰	①														
	②														
	③		1			1	1	1	15	3	1	2	1		26
기타		1		1	3	1	1		4						11
계		63	50	49	35	100	108	114	146	83	100	81	77	1	1007
피살자	①	15	27	/	21	14	5	14	116	/	97	9	14	/	337
	②	18	23	/	18	23	16	9	106	25	79	18	13	/	348
	③	27	39	12	26	24	16	20	144	27	125	22	16	/	497
피납자	①	29	4	/	11	4	13	27	102	28	3	46	13	3	283
	③	28	4	1	11	4	13	27	102	30	4	46	13	/	283
계	①	89	70	2	101	101	96	101	319	80	63	54	53	57	1404
	③	118	93	62	72	128	137	161	392	140	228	149	106	1	1787

자료 = ◆정부공보처 통계국 ◆한국전쟁기념관 ◆양평군청
◆양평자유총연맹 ◆月刊朝鮮 ◆대답자 제공

◆전사=① 한국전쟁기념관 자료 ② 양평군청 자료 ③ 새로 정리

◆피살=① 공보처 통계국 자료 ② 양평자유총연맹 자료 ③ 새로 정리

◆피납=① 월간조선 자료 ③ 새로 정리

그런데도 오늘의 현실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후세대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 탓과 반공교육의 부재로 이 엄청난 죄악과 비극에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이러한 불신 풍조는 '백성은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절대군주시대의 말이나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라는 민주주의 시대의 말은 말뿐이고, 정부나 관료나 정치가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국민이나 안보를 볼모로 한 정치가나 관료들이 국민을 불신의 늪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은 국가관도 애국심도 주체성도 정체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신과 분열과 혼란의 늪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망각해버린 6.25의 참상을 다시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 6.25당시 남과 북의 군사력이 비교도 안될 정도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것이 고철덩어리라고 비웃지 말고 남한의 것이 전자시스템을 갖춘 현대화된 장비라고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평군민은 생각해 보라!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1,787명, 아니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양평군민의 고귀한 인명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일도 중요하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생전에는 불가능하다. 신의 가호가 있는 기적이 아니면 그것은 피를 뿌리는 비극의 되풀이일 것이다.

필자는 군사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2의 6.25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 백

제2부
한국전쟁과 용문산 전투

여 백

Ⅰ. 용문산 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머리글

인류가 전쟁을 통하여 역사의 기록을 시작한 이래, 전쟁의 원리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그 양상은 쉬지 않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나 민족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전쟁을 연구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를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전쟁을 도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역사는 단연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전쟁을 좋아했거나, 전쟁을 피하려고만 했던 국가와 민족은 전쟁에 의하여 멸망하고,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결코 전쟁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국가와 민족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역사의 교훈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갈수록 전쟁의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게 되고, 그 기억 또한 망각되어 전쟁의 실상이 낙관적인 면으로 잘못 인식되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전사를 통해 전쟁의 다양성, 고난성, 긴박성 등의 전쟁환경을 올바로 인식시키고, 급변하는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를 터득하게 함으로써 장차의 사태에 스스로 대비해 나가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맨주먹의 상태에서,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면서, 북괴의 기습적 남침을 물리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그러한 침략을 당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을 넓고 깊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침략에 의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러한 침략을 당하더라도 조기에 이를 분쇄하고, 안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의 주요전투 국면들에 대한 전투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 용문산 전투는 한국전쟁 전 기간을 통하여, 국군으로서는 가장 큰 전과를 거둔 대첩으로서, 적의 대공세를 물리치고, 오히려 공세이전을 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전투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권에는 이 전투에 주역으로 등장한 제 6사단 장병들이 용문산 방어전에서부터 화천 발전소까지 장장 60여km를 진격한, 장쾌하고도 처절했던 혈전기록을 담았습니다.

사료의 부족과 집필상의 여러 가지 제약이 컸으나 참전 제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하여 본 권을 편찬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끝으로 용문산 전투에서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제1장 작전 배경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만 1년째로 접어드는 1951년 5월 하순에 전국(戰局)은 서서히 결전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중순에 한국전선에 나타난 중공군이 7개월 동안에 걸친 공방전을 전개하다가 마침내 5월 하순에 이르러 그들의 재한(在韓) 총 병력 70만명 가운데 80%에 가까운 54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일대 공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1. 전국의 추이

중국대륙을 석권한 지 1년도 안 되는 중공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맞서서 감히 군사적 대결을 할 수 없으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한국 전선에 뛰어든 중공군은, 작전 초기에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병력과 산악기동 능력 및 야간전투 역량 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자못 그 위세를 떨쳤다.

즉, 195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청천강 부근에서 한·미 연합군의 주력인 미 제8군을 격파하는가 하면 장진호 부근에서 미 제10군단 예하의 미 제1해병사단을 격퇴하였으며, 이어 12월에는 다시 그 여세를 몰아 국군 및 유엔군을 38°선까지 몰아 붙였을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24일에는 오산(烏山)-제천(堤川)-삼척(三陟)으로 이어지는 황우선(黃牛線)까지 진출하는 등 참전 3개월만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사실상 무기체계와 전투편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공군에게 제2차 대전의 승전국으로 각광을 받은 미군이 그토록 무력하였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자극을 받은 워싱턴 당국은 한반도에서 철수 문제까지 고려하게 되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참전국들이 즉시 정전을 해야 한다고 휴전을 제의하는 등, 어이없는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제 미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중공군은 UN군 측의 굴욕적인 휴전 제의마저도 일축하고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야심아래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였다.

전국이 여기에 이르자 워싱턴 당국은 미국의 국가적 위신과 우방의 신뢰 그리고 군사적 주도권의 확보라는 명제아래 더 이상 철수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반면에 중공군은 병참선이 연장된데다 혹한까지 겹쳐 크게 위축된 가운데 UN 공군으로부터 연속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아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게되었다. 이와 같은 호기를 포착한 한·미 연합군은 1951년 1월 25일부터 재 반격을 단행하여 2월 10일까지

"선더볼트"(Thunderbolt)작전을 전개한 끝에 한강(漢江) 남안까지 진출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라운드업"(Round Up) 작전과 "킬러"(Killer) 작전 및 "리퍼"(Ripper) 작전 등을 축차적으로 전개하여 3월 14일에는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고, 이어 3월말에는 38°선을 넘어 "칸사스"(Kansas) 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중공군은 결정적인 새로운 공세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미 연합군이 더욱 강화되기 이전에 결전을 전개하기 위해 그들의 가용 병력 거의 전부를 동원하여 총력 공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을 그들은 제5차 작전이라고 명명하여 2개 단계로 추진하였으며, 흔히 이를 중공군의 춘계공세라고 하여 제1차 춘계공세, 제2차 춘계공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작전이 사실상 한국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다.

2. 제1차 춘계공세의 결과

1951년 4월 22일에 개시된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를 그 주공을 중·서부 전선으로 지향하여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 정면을 돌파한 다음 수도 서울을 이중으로 포위하려 하였다.

이때 임진강 부근에서 적과 접전하기 시작한 미 제1군단은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작전에서는 영 제29여단 예하 글로스타셔(Gloucestershire) 대대의 용전으로 시간을 획득할 수 있었고, 한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신속히 전선을 재정비함으로써 서울 북쪽의 이른바 골든선(Golden Line)에서 이를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금화(金化) 지구의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진출하려던 한 제6사단은 사창리(史倉里) 계곡에서 중공 제20군 및 제40군 등 6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아 전선이 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가 크게 와해되어 1/3에 가까운 병력과 사단의 주요 장비를 모두 잃고 30km 이상을 후퇴해야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

였다.

이로 말미암아 미 제9군단은 사창리-화천선에서 가평-춘천선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지켜본 미 제8군에서는 다시 전선을 정돈하기 위하여 미 제9군단을 홍천-용문산-덕소지역까지 철수시킴에 따라 전선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새로운 방어선을 "노네임"(No Name)선이라고 명명하여 미 제1군단 지역의 "골든선"과 연결함으로써 동해안의 대포리(大浦里)-홍천(洪川)-용문산(龍門山)-의정부(議政府)-구파발(舊把撥)로 이어지는 신 방어지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고 적측에서는 제2단계 작전으로 이행(移行)하여 중공군과 북괴군이 합세한 새로운 공격집단을 형성, 회심의 일전, 곧 제2차 춘계공세를 감행하였으며, 이 작전에서 그들은 현리(縣里) 지구의 제3군단을 포위하는 동시에 미 제9군단 정면의 제6사단을 다시 공격하게 되는 바 그 지역이 바로 용문산이었다.

이때 용문산 지역을 방어하던 제6사단이 중공 제63군과 일대 결전을 전개하게 되며, 이를 용문산 전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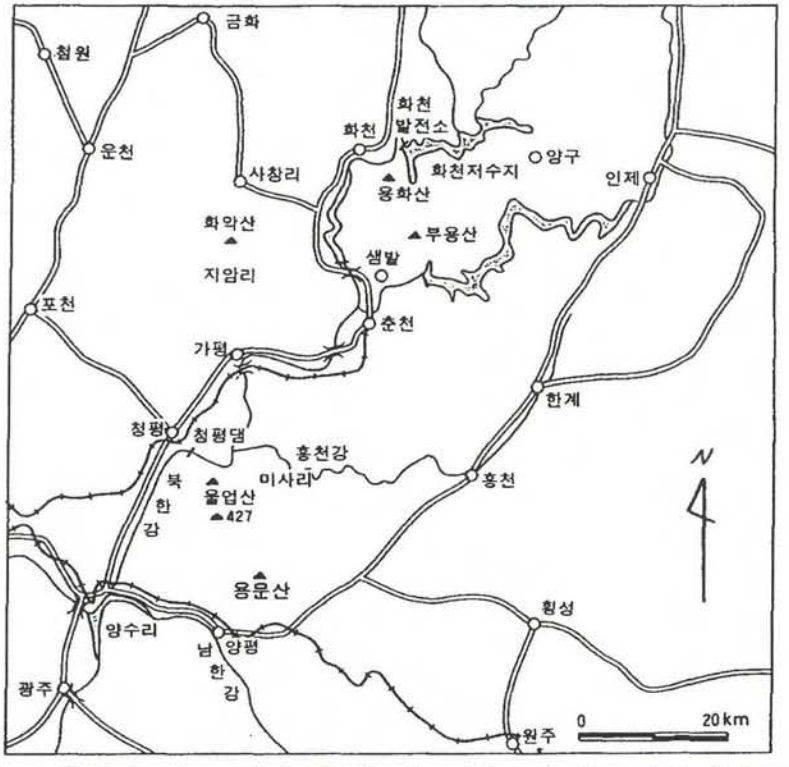
3. 용문산 전투의 의의

용문산 전투는 1951년 5월 18일에 중공 제63군의 선제 공격으로 개시되어 19일까지 2일 동안에 걸친 혈투로 점철된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진지를 지켜낸 보병 제6사단 장병들이 20일 5 : 00에 총반격을 개시하여 22일까지 당면한 적을 격멸하고 장쾌한 승리로 매듭지은 전투이다.

"노네임"선상의 방어전의 일환으로 전개된 이 전투는 미 제2사단의 778고지 전투(일명, 방카고지 전투)의 승전과 함께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를 격퇴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 호기를 포착한 미 제8군은 전 전선에서 다시 재 반격을 단행하여 일거에 60여 km를 진출, "칸사스"선까지 확보하게 되는 대승의 진격 작전으로 이어진다.

24일부터 30일까지 전개되는 이 작전 기간 중에 제6사단은 적의 집결지로 알려진 가평 북쪽의 지암리(芝岩里) 일대를 포위 공격한 끝에 2,500여명의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고, 이어 춘천 북쪽의 부용산(芙蓉山)을 넘어서 화천 발전소를 탈환하는 등 승승장구 개가를 올리면서 "칸사스"선까지 진출한 다음, 5월 30일에 이 작전을 종결짓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전은 용문산 방어전으로부터 화천 발전소 탈환전까지 일련의 연속성을 갖으면서 전개된 작전이었다.

제6사단의 작전지역



기간 중에 중공군은 10만의 병력을 잃고 주요 장비를 거의 상실하는 등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수세 일변도로 밀리게 됨으로써 마침내 공산 측에서 휴전 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때부터 전선은 제한 전쟁의 성격을

띄고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착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용문산 전투는 일개 방어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적인 작전이었으며, 이보다도 오히려 승패의 갈림길에서 적의 기도를 분쇄하여 공세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작전지역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에는 용문산(龍門山)이라는 명칭을 가진 명산이 세 곳이나 있다. 한강 유역의 경기도 양평군에 흘립(屹立)한 1,157m의 영봉이 그중 하나이고, 금강산에서 흘러내리는 금강천을 끼고 회양(淮陽) 동쪽의 대정리(大井里)에 자리잡은 1,068m의 준봉이 그 다른 하나이며, 청천강(淸川江)을 산기슭에 감고 평남 덕천군(德川郡)에 솟아오른 1,180m의 거봉이 또다른 하나이다.

이 가운데 본 전투의 결전장이 되었던 용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되는 삼각주이자 한반도의 중원인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용문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용문산은 국난이 있을 때마다 호국 의병들의 활동 근거지로 이용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 나라의 수난사에 얽힌 숱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명산이다.

멀리 삼국 시대에는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하여 삼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신라의 진흥왕(眞興王)이 남·북한강을 모두 확보하여 삼국 통일의 토대를 다지고 있을 때 이 지역에 상비군을 주둔시켰던 곳이며, 고려 시대에는 몽고군(蒙古軍)이 이 나라에 침입하여 횡행하던 고종(高宗) 40년(1253)에 충주성(忠州城)으로 진출하던 오랑캐들은 바로 이 용문산에서 산성을 쌓고 저항한 바 있는 함왕성지(咸王城址)가 지금도 옛 모습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왜란(倭亂)과 호란(胡亂)때에도 의병과 승병(僧兵)들이 용문산에 숨어서 가평, 양평, 지평 등지로 통과하는 외적들을 공격

한 항전사의 현장이기도하다. 이 의병 활동은 일제치하(日帝治下)에서도 계속되어 1896년에 의병장 이춘영(李春永) 안승우(安承禹) 김백선(金伯善) 등이 이끄는 의병 3,000여명이 청평천(淸平川)을 중심으로 한 이 일대에 집결하여 춘천을 공격한 끝에 일시 관청을 점령하고 악명 높던 관찰사 조인승(曺寅承)을 처단하였던 곳이며, 단발령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 근왕병을 집결시킨 이웅찬이 양주를 공격하여 적병 100여명의 목을 베고 총포 수십정을 빼앗기도 한 근거지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천사를 말해주듯, 지역 내의 용문면 신점리(新店里) 625번지에 호국의 기원을 담아 창건되었다는 용문사(龍門寺)가 자리잡고 있다.

신라 진덕여왕(649)때, 원효 대사가 창건할 당시에는 304간이나 되었다는 이 대찰도 의병의 은거지라고 하여 1907년에 일제의 주구(走狗)들이 불태워 버리고 지금은 대웅전과 요사(寮舍) 및 석탑 몇 개만 남아있으며, 여기에서 1.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던 상원암(上院庵)도 오랜 동안의 수난 끝에 소실되고 말았다.

그러나 호국 사찰을 복원해야 한다는 염원에서 뜻 있는 스님들이 한두 채씩 신축하여 지금은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이 경내에는 동양 최고의 수령(樹齡)을 자랑한다는 은행나무가 1,200년을 자란 오늘날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되어, 높이 61m에 둘레 14m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곳이다.

제2장 용문산 방어전

1. 일반 상황

(1) 기후 및 기상

1951년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전개된 작전 기간 중 기상을 비교적 청명

하였으며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다. 가끔 가랑비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었으나 4-5일에 지나지 않아 작전이 큰 영향은 없었다.

다만 10 : 00까지 안개가 끼는 날과 비가 오는 날에는 항공기의 근접지원에 제한을 받았으며 그밖에는 대체로 적의 접근을 용이하게 관측할 수 있었고 협조된 보·전·포·공의입체작전이 가능하였다.

5월중 양평 지구의 평균 기온과 강우량은 〈표-6〉과 같다.

〈표-6〉

평 균 기 온	섭씨 16.2도-16.6도
최 고 기 온	섭씨 23.1도
최 저 기 온	섭씨 9.3도
평 균 강 우 량	88.3-96mm
평 균 강 우 일 수	8.3-9.2일

(자료 : 육군 정보국 발행 기후 및 기상연구 제3권)

기간 중 월광이 계속되어 적의 야간 기동을 용이하게 하였고 용문산 방어전 과정에서는 아군에게도 유리하였다.

특히 격전 기간인 5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광명 제원을 보면 〈표-7〉과 같다.

〈표-7〉

일자	일출	일몰	월출	월몰
5월 18일(음4.13)	05 : 23	19 : 37	16 : 17	03 : 07
5월 19일(음4.14)	05 : 22	19 : 38	17 : 30	03 : 34
5월 20일(음4.15)	05 : 21	19 : 39	18 : 47	04 : 06

(자료 : 육군 정기 정보 보고)

(2) 작전지역의 특징

용문산을 중심으로 한 봉미산(鳳尾山)과 장낙산맥(長樂山脈) 그리고 울업산(CS 679723)과 427고지(CS 703653) 등, 본 전투의 작전 지대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 싸이 점과 기복이 심한 고지들이 급경사를 이루면서 면면히 이어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을 이루고 있다.

곧, 북쪽으로는 홍천강(洪川江)과 북한강이 동서로 가로질러 미사리(彌沙里) 정면을 제외하고는 전 정면에 걸쳐서 도섭(徒涉)이 불가능하고, 서쪽에는 청평-양수리 간의 북한강이 방파제와도 같이 좌측방을 방호하여, 남쪽에는 양수리-양평간의 남한강이 일의대수(一衣帶水)를 이루어 삼면이 모두 적의 접근을 제한하는 유리한 천연 장애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따라서 아군이 공격 작전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역시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되겠으나, 목전에 적의 공격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는 이 하천들이 본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가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적의 진출을 제한하게 될 홍천강과 북한강의 하천 제원을 살펴보면 다음 〈표-8〉 과 같다.

〈표-8〉 홍천강과 북한강 하천제원

번호	예상도하 지점	하 폭 (m)	수 폭 (m)	수 심(m)			유 속 m/sec
				최 대	평 균	최 저	
1	북한강 (CS 725890)	535	180-280	2.1	1.5		0.21
2	북한강 (CS 800585)	239.6	194-224	5.2	3.0		3.3
3	홍천강 (CS 720745)	150	80-150	3.5	2.5	1.5	1.2
4	홍천강 (CS 747762)	190	70-150	3.0	2.0	1.0	0.9
5	홍천강 (CS 786715)	160	60-150	2.0	1.25	0.5	0.6

자료:

이와 같은 제원으로 미루어 볼 때 만일 적의 도하작전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미사리 정면의 홍천강과 제2사단 정면의 청평댐을 이용할 수밖에 없

을 것이므로 방어부대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장애물이 되었다.

이 밖에도 지대 내에는 해발 1,157m의 용문산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827고지(CS 684590)-중미산-통방산 등이 줄기차게 뻗어 있고 북동쪽으로는 봉미산-나산-장낙산-559고지(CS 733737)가 산맥을 이루면서 홍천강까지 뻗어내려 급경사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계곡이 깊고 지세가 험한데다 초목까지 무성하여 나산과 용문산 봉우리를 제외한 거의 전 지역이 울창한 삼림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산악 기동을 위주로 하는 적에게는 유리한 은폐와 엄폐물로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아군은 관측과 사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면을 감제하는 용문산을 점령한 아군은 적의 동정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경계 부대의 전투전초선인 미사리와 울업산 그리고 353고지와 427고지 등은 토질이 비교적 양호하여 진지 구축에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용문산 후방의 포진지에서 경계부대 진지까지의 거리는 20km를 초과하여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였으며, 지대 내에는 도로가 발달되지 못하여 산간 소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각종 보급과 공사자제 등을 도수 운반으로 추진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청평-가평-춘천간의 46번 도로와 용문산 후방의 6번 도로는 양호하여 지원부대의 화동과 보전 협동작전에 유리하였다.

(3) 주요 접근로

적이 용문산을 목표로 침공할 경우, 예상되는 주요 접근로는 우선 도섭이 가능한 미사리 정면의 홍천강과 청평댐 인도교가 최초의 도하지점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적이 홍천강과 북한강을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통상 그들이 야간에 계곡을 따라 아군 후방으로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평댐-신천리(新川里)-창의리(倉宜里)-동면(東面)-갈고개를 거

쳐서 용문산에 이르는 소로가 가장 중요한 접근로로 예상되며, 미사리에서 송산리(松山里)-창촌(倉村)-마치고개를 넘어 국수터로 이어지는 산길도 매우 중요하였다.

다음은 좌우 인접사단의 경계부대가 철수할 경우, 중미산 계곡과 봉미산 동측방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며, 특히 용문산 정면을 담당한 제6사단은 경계부대를 철수시키지 않기로 다짐했던 만큼 통상 대병력을 투입하는 적에게 경계부대가 고립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묵안리(墨安里)와 가일리(可逸里) 일대의 계곡이 모두 적의 침투 지역으로 화하고 말 것이며, 이때에는 좌 인접인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 부근이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2. 전투전 피아의 상황

(1) 중공 제63군의 출현

지난 사창리(史倉里) 전투 당시 제6사단과 대결하였던 중공 제20군과 제40군은 아군이 "노네임" 선에서 진지를 편성하기 시작한 5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점차로 접촉을 끊는 듯하더니, 마침내 5일을 전후하여 행방을 감추고 말았다.

중공군이 통상 새로운 작전을 준비할 때에는 아군의 야포 사정기리 밖으로 물러나 대병력을 집결시킨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화 되어버린 통례이기는 하나, 제6사단에서 진지를 구축하며 수색전을 전개한 5월 9일까지도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10일에 이르러서야 가평 북쪽에 단대호 미상의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어서 수색대의 보고와 상급부대의 정보판단에 의해 이 적이 중공 제63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적측에서도 활발한 수색전을 전개함으로써 일반 전초선상에서 피아간에 대 수색전으로 대응해오다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에는 보

다 적극적인 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적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다.

1) 이동경위

용문산 정면의 적이 중공 제63군이라는 사실이 판명되자 육군본부에서는 이 부대의 이동 경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중공 제63군은 팽덕회(彭德懷)의 제의로 1950년 10월에 중국 산동성(山東省)에서 제19병단을 창설할 때 동시에 창설된 부대로서, 그 예하에는 제187사단을 비롯한 제188사단과 제189사단 등 3개 사단이 있으며 그 지휘자는 중공 제4방면군 출신의 정유산(鄭維山)이라고 밝혀졌다.

이 부대는 1951년 2월에 제19병단의 주력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정주(定州)-신계(新溪)-금천(金川)을 거쳐서 임진강 북쪽으로 이동한 후, 여기에서 제1차 춘계공세에 가담하여 4월 23일에 설마리(雪馬里)에서 영연방 제29여단을 공격한 것이 최초의 전투였고, 그 직후에 다시 중부전선으로 이동하여 제40군의 작전지역을 인수함으로써 아군 제6사단과 대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대의 구성 인원은 팔로군(八路軍) 출신이 1/3을 점하고 있으며 기타 2/3는 강제로 징모한 인원과 국부군 출신이 혼합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위원인 부숭벽(傅崇碧)이 독전 책임자로 병력을 몰아 세우고 있다 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제188사단은 설마리 전투에서 큰공을 세우고 영웅 칭호를 받은 연대장이 2명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마리 전투의 승리로 고무되어 장병들의 사기가 매우 고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병력과 장비

육군본분의 정보보고에 의하면 5월 16일 현재 제6사단과 대치고 있는 중공 제63군의 소속 사단과 병력 규모를 다음 표 〈표-9〉 와 같이 판단하고 있었다.

〈표-9〉 중공군 63군의 병력규모

제 대 / 부 대	육본 추정	8군 추정	극동사 추정	종합 판단
제 63 군본부	4,800		4,850	4,000
제 187 사 단	6,498		9,264	7,900
제 188 사 단	7,997		9,014	8,300
제 189 사 단	7,614		7,266	7,600
계	26,909	27,100	30,394	27,800

(자료 : 육군 정기 정보보고 제136호, 1951년 5월 16일)

한편 제6사단에서도 그 동안의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하여 분석한 결과 중공 제63군의 본부 및 직할대가 5,000명, 제187사단이 8,000명, 제188사단이 9,000명, 제189사단이 8,000명 등으로 도합 3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각 사단에는 다음과 같은 예하 연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 187사단 : 제559연대 제560연대 제561연대

제 189사단 : 제562연대 제563연대 제564연대

제 189사단 : 제565연대 제566연대 제567연대

이들의 주요 장비는 편제상의 포병 부대가 일제 산포와 장거리포를 장비하고 있으며, 보병부대는 60mm와 82mm 구경의 박격포 외에도 70mm 직사포 부대가 예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장비로는 소련식 장총과 다발총이 대부분인데다 체코식 경기관총과 중기관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료 : 제2연대 전투상보)

그리고 제2연대 수색대의 보고에 따르면, 그 병력 중에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중공제 방망이 수류탄과 소련제 RPG34형 수류탄만을 휴대한 자가 상당수에 달한다고 하여 개인 당 2-3개씩의 전대에 담은 비상식량을 휴대

하고 있다고 하였다.

3) 적의 기도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중소대장까지도 다 알게 되었다. 상급 부대로부터 적에 관한 첩보가 잇달아 전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 및 연대의 수색대들이 매일 적과 접촉하면서 그 동정을 낱낱이 보고함으로써 현저히 증가한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시기와 장소 그리고 목표 등 그들의 기도에 관해서는 아직도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제1차 공세에서 서울을 공략하려던 적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공격을 시도하는 현 시점에서, 그 주공이 어디로 지향할 것인지, 아군의 정보기관에서는 그 향방을 찾고자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맹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 제9군단에서는 화천(華川)-신포리(新浦里)-마평(馬坪)간의 5번 도로상에 적의 각종 차량과 우마차 부대가 밤마다 줄을 지어 남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 행방을 추적한 끝에 바로 군단 정면의 지암리(芝岩里) 일대에 적의 대병력이 집결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대 제6사단에서도 12일부터 적과의 접촉이 격증한데다 특히 강촌역(CS 798856) 부근의 북한강 대안에 도하용 자재를 집적하면서 도하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적의 활동이 확인됨에 따라 사단 정면으로 적이 침공하리라는 판단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사단은 3주전에 사창리에서 크게 패한 취약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지세가 가장 험한 용문산 정면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과 산악 기동에 능하다는 적의 역량을 고려할 때 공격 대상이 되리 라는 판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마치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려는 듯이 15일부터 적의 선두 부대가 북한강을 건너 홍천강 북안으로 진출함으로써 적의 기도는 더욱 확실해진 것이다.

즉, 중공 제63군은 용문산의 제6사단을 공격하여 용문산-청계산간의 "노네임"선을 돌파한 다음 광주-이천선으로 진출, 아군 서부전선 부대들의 철퇴를 강요하려 하였던 것이다.

(자료 : 제2연대 전투상보)

(2) 아군의 상황

한편 제6사단은 사창리 전투가 끝난 후로 가평과 청평 일대에서 병력을 수습하는 동안 사단의 분위기가 침통하기 그지없었다.

30% 안팎의 병력 손실을 입은 데다 사단장의 인책 문제가 거론되는가 하면 지난 전투에서 가장 실책이 많았던 제2연대는 연대장을 비롯한 3개 대대장과 정보 및 작전주임까지 군재(軍裁)에 회부된다는 풍문이 나돌고, 이에 못지 않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것도 또한 참기 어려웠다.

그러나 사단의 각급 지휘관과 참모들은 지치고 말이 없는 병사들을 이끌고 용문산으로 내려가며, 어떻게 이 오욕을 씻어야 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뇌이면서 설욕을 다지고 있었다.

1) 군단의 명령

바로 이 무렵인 4월 30일에 미 제9군단에서 사단의 새로운 임무를 명시한 작전 명령이 하달되었다.

「① 군단은 일반방어선 "노네임"(No Name) 선상의 덕소(德沼)-용문산-매봉산(CS 862646)간을 방어하려한다.

② 미 제24사단은 "노네임" 선상의 덕소-매곡산(梅谷山)간을 점령 방어하라. 5월 10일 06 : 00부로 영 제28여단을 배속한다.

③ 한 제2사단은 5월 2일까지 미 제24사단 예하 제21연대의 작전지역을 인수 방어하라.

④ 한 제6사단은 "노네임" 선상 866고저(CS 665590)-삼천골(CS 750600)간의 용문산 지역을 점령 방어하라.

⑤ 미 제7사단은 5월 1일 18 : 00까지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 방어하라.

⑥ 미 제187공수 연대전투단은 4월 30일 20 : 50까지 옥천리(玉泉里)부근으로 집결하여 명에 의거 전방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

이로써 군단은 병력이 종전의 2개 사단과 1개 여단에서 그 배로 증강된 4개 사단과 2개 여단의 강력한 전투편성을 갖추게 되었고, 한 제6사단은 지대내의 가장 높은 고지인 용문산 정면을 맡아 군단의 작전지역 중앙에서 중공군의 제2차 춘계공세에 대비하게 되었다.

이때 한 제2사단은 제천(堤川)에서 공비 토벌을 하다가 4월 28일 24 : 00부로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양평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며, 미 제7사단은 미 제10군단에서 5월 1일 15 : 00부로 배속이 변경되어 미 제9사단에 배속중인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지역을 인수키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곧,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당시 타격이 컸던 미 제9군단을 보다 강화하여 제2차 공세에 대비하려는 미 제8군의 작전개념에 의한 조치였으며 그 작전의 일환으로 제6사단은 용문산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제6사단장 장도영(張都暎) 준장은 곧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용문산으로 이동시켜 진지를 편성케 하는 한편 제2연대는 1개 대대를 청평강 남안에 엄호부대로 배치하고 남은 병력은 용문산 후방의 신점리(新店里)로 집결시켜 군장 검사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다시 군단에서 정찰기지(Patrol Bases) 설치 명령이 하달되었다.

5월 3일부로 하달된 미 제8군사령관의 정찰기지 설치 명령에 따라 미 제9군단은 예하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① 군단은 천마산(天摩山)-청평댐-왕터산(CS 733747)-추곡리(楸谷里)를 연하여 정찰선을 설정하고 그 북쪽에 대한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려 한다.

② 각 사단은 정찰선 남쪽에 1개 연대 전투단 규모의 정찰기지를 설치하고 가용

한 수단을 다하여 그 전방에 대한 수색과 정찰을 실시하라.

③ 미 제7사단 지역의 정찰은 미 제9, 미 제10 양 군단간의 전투지경선이 조정될 때까지 홍천강 북쪽의 정찰을 보류한다.

④ 군단은 "린디 루"(Lyndy Lou) 포병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기지작전 기간 중 외수입(CS 569672) 부근에 위치, 한 제2사단과 한 제6사단의 정찰 활동을 지원하려 한다.

⑤ 미 제24사단장은 보병 1개 대대로써 동 특수임무부대를 엄호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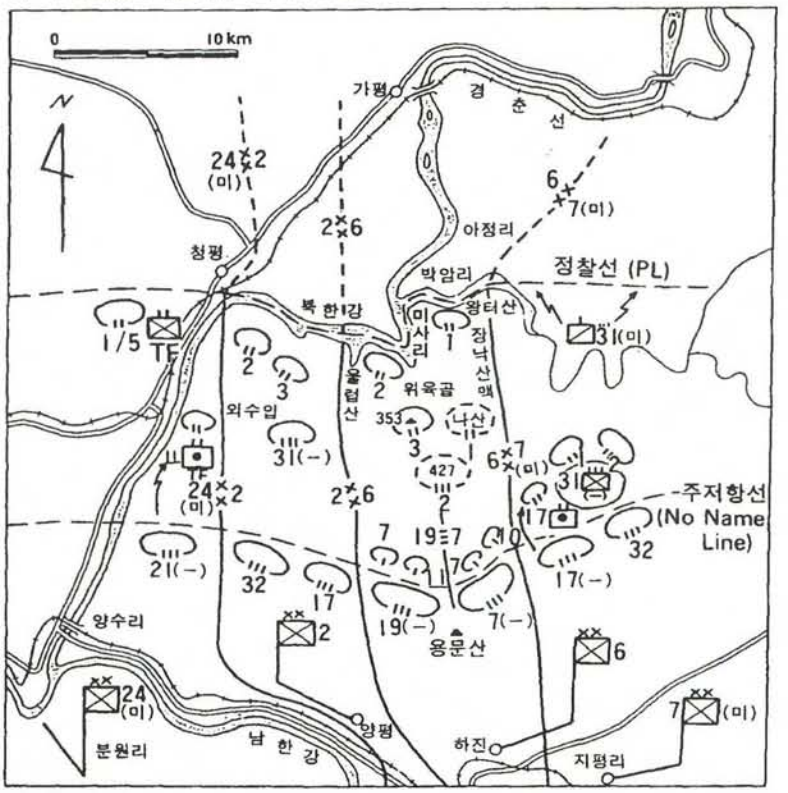
"린디 · 루" 포병 특수임무부대의 편성

한 제27포병대대 1개 포대

미 제92자주포대대 1개 포대

미 제987자주포대대 1개 포대』

미 제9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상황



이 명령에 명시된 아군의 방어개념은

① '노네임' 선상에서 강력한 주진지대를 형성하고
② 정찰선 남쪽에 정찰기지를 겸한 경계부대를 추진 배치한다.
③ 정찰선 전방에 일반전초선을 형성하여 방어종심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하달한 미 제8군사령관 벤프리트 장군은 미 공간사의 저자 허머스(Walter B. Harmes) 박사와의 대담에서 당시 정찰기지 설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자료 : 유엔군 전사,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① 정찰기지 설치 목적 : 유동적인 상황하에서 아군 주력 부대의 방어 편성을 용이하게 하고 공격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며 아군의 방어종심을 제공하는 데 있다.
② 임무 : 정찰기지에 배치된 부대는 적이 전력으로 공격해올 때를 제외하고는 기지를 고수해야 한다.
③ 위치 : 주 저항선 전방 30km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주로 주요 거점에 배치하되 거점간에는 상호지원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오늘날의 경계부대 작전과 같은 것이었으나 아직 교리의 발전을 기하지 못한 한국군으로서는 생소하였으며, 특히 제6사단은 지난 사창리 전투의 오명을 씻기 위하여 이 경계부대의 정찰기지 지대까지 사수하기로 다짐하였던 것이다.

2) 제6사단의 진지 편성

이상과 같은 명령을 받은 제6사단은 지체 없이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여 진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임익순(林益淳) 대령이 지휘하는 제19연대를 좌일선으로, 용문산 북서쪽의 866고지와 갈고개(葛峴)간에 배치하고 양중호(梁仲鎬) 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는 우일선으로, 용문산 북동쪽의 965고지와 삼천골 사이에 배치하

여 "노네임"선상의 주진지 지대에 강력한 진지를 편성토록 하는 한편, 제2연대는 경계부대로서 홍천강과 청평강 남안까지 추진하여 전초진지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옥천리에 있던 제19연대는 4월 30일에 용문산으로 올라가 담당 정면에 제2대대를 좌, 제3대대를 우, 제1대대를 예비로 각각 배치한 다음 곧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조현리(용문산 남동쪽 4km)에 있던 제7연대도 같은 날 용문산 북동쪽 능선으로 진출하여 제2대대를 좌, 제1대대를 우, 제3대대를 예비로 한 방어태세를 갖추고, 역시 진지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 제27포병대대(-)는 신점리에서 새로 수령한 M2 A1 105mm곡사포를 정비하여 기점사격을 실시하면서 주저항선 전방에 대한 화집점과 탄막 등을 구성하였으며 제27포병대대를 화력 증원케 된 미 제92 및 미 제987자주포대대도 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지원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군단의 일반지원 포병들도 대부분 용문산 후방에 포진지를 선정하여 지원태세를 갖추었는데 그 부대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 제9군단의 포병부대

한 제27포병대대(105mm)-한 제6사단 포병
한 제18포병대대(105mm)-한 제2사단 포병
미 제31포병대대(155mm)-미 제7사단 포병
미 제11포병대대(155mm)-미 제24사단 포병
미 제67포병대대(155mm)-한 제18대대 증원
미 제92자주포대대(155mm)-한 제27대대 증원
미 제987자주포대대(155mm)-한 제27대대 증원
미 제213자주포대대(155mm)-미 제187공수단 포병
미 937자주포대대(155mm)-군단 일반지원
미 제17포병대대(8″)-군단 일반지원

이와 더불어 사단 공병 대대의 기술 지원아래 주저항선상의 양개 연대는 장애물 설치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병 제3중대가 제19연대를 지원하고, 제2중대는 제7연대를 지원하는 가운데 신점리까지 차량 수송된 대인지뢰와 철조망 등의 공사자재를 각 연대 지역으로 도수운반하여 용문산에 이르는 요소에 철조망을 가설하고 지뢰를 매설하였다. 당시 주저항선 일대에 매설한 지뢰 현황을 보면 다음 〈표-10〉 과 같다.

〈표-10〉 지뢰매설 현황

위 치 (좌표)	매 설 부 대	매 설 일 자	지뢰지대 번호	지 뢰 종 류			비 고
				지뢰	기타	계	
CS644616	제2사단	51. 5. 4	2-65	30	20	50	기타는 주로 부비트랩
CS644615	〃	5. 18	2-74		70	70	
CS670606	〃	5. 14	2-66	30	19	49	
CS640572	〃	5. 17	2-69	10		10	
CS726617	제6사단	5. 7	6-49	30	21	51	
CS732600	〃	5. 13	6-59		100	100	
CS734592	〃	5. 19	6-62	34		34	
CS705596	〃	5. 20	6-74		25	25	
CS711595	〃	5. 18	6-61	91	26	119	
CS683593	〃	5. 19	6-76	12		12	
CS688595	〃	5. 20	6-78		8	8	
CS686595	〃	5. 20	6-77		8	8	
CS688626	〃	5. 17	6-66		51	51	
CS593596	〃	5. 19	6-70	17		17	
CS685592	〃	5. 19	6-75	10	25	35	

(자료 : 공병감실 지뢰매설 대장)

3) 병력과 장비의 보충

제6사단이 가평에서 용문산으로 이동할 당시, 무엇보다도 화급한 것은 전투력을 회복하기 위한 병력과 장비의 보충 문제였다.

각 연대가 모두 30-35%의 병력 손실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병 제27대대는 단 1문의 포도 철수하지 못한 채 병력만 이동한 실정이었다.

육군본부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4월 27일에 인사국장 오덕준(吳德俊) 준장이 직접 대구의 제1보충대로 나아가 1,044명의 보충병을 모은 다음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열차편으로 양평까지 1차 수송한데 이어 4월 29일에는 530명을 같은 방법으로 편성하여 2차 수송하였으며 그 뒤로도 속속 병력을 보충한 끝에 이 전투가 개시되기 직전인 5월 16일에는 편제상 병력의 88%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포병대대도 대대장 박정호(朴晶浩) 소령이 포병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운전수와 정비병을 대동하여 대구로 직행, M2 A1 105mm 곡사포 18문과 견인차 등을 수령한 다음 대전-안성-여주를 거쳐서 양평으로 올라와 기름도 채 마르지 않은 신형포로써 새로이 정비하게 되었으며 개인화기와 박격포 등도 우선적으로 보급되었다.

상하간의 이 같은 노력으로 5월 5일에는 부족했던 병력과 장비를 거의 충당하게 되었으며, 당시 실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참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육군 병원에서 갓 퇴원하여 중대장 요원으로 보충된 후에 제2연대 제2대대의 중대장으로 임명된 지석우(池錫祐) 대위, 이좌균(李佐均) 대위, 송병희(宋炳熙) 대위, 윤희철(尹熙澈) 중위 등은,

"당시 우리들 중에는 아직 상처가 다 아물리 않은 사람도 있었으나 인사국장 오장군이 갑자기 우리를 방문하여 전방에 중·소대장 요원이 모자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기에 우리들은 모두 제6사단에 보충되기를 희망하였다. 그 직후 개인 화기와 배낭 그리고 3일분의 비상식량을 휴대하고 소대, 중대, 대대를 편성하여 양평으로 이동한 다음 바로 제2연대 제2대대의 중대장으로 보직을 받았다.

보충 병력을 인솔하여 제2대대에 가보니, 대대장 김경철(金京哲) 소령은 전상으로 후송되고 그 후임으로 김덕복(金德福) 소령이 대대장으로 부임하여 부대 실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4개 중대가 모두 선임장교들이 중대장 대리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중대마다 100명 내외의 중대원들이 사창리 전투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듯, 이곳 저곳에 흩어져서 산나물을 삶아 먹거나 힘없이 그늘 밑에 누워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중대의 재건이 절실함을 느꼈다"라고 술회하였다. 지난 전투에서 제2연대가 가장 피해가 컸던 만큼, 중·소대장 요원은 제2연대에 우선적으로 보충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제7연대와 제19연대도 속속 충당되었다.

4) 전초진지 사수 명령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주 저항선에서 진지 공사를 시작한 뒤로, 제2연대는 경계부대로 진출하기 위해 5월 1일 10 : 00에 사단장의 군장 검사를 받았다. 엄호부대로 울업산에 나가있는 제2대대를 제외한 1,800명의 연대 병력이 군장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점리에서 정열하고 있을 때, 사단장이 보급품을 실은 트럭 2대와 함께 예정시간에 현지에 도착하였다.

흙으로 쌓아 올려 만든 단상에 오른 사단장은 그의 경호 헌병들에게 연대장 김봉철(金鳳喆) 대령과 제1대대장 이성훈(李星薰) 소령을 즉각 사단 사령부로 호송하라고 지시한 다음 전 장병들에게 "지금부터 제2연대는 부연대장 송대후(宋大厚) 중령이 지휘한다" 라고 발표하고 신임 연대장을 소개하였다. 이어 신임 연대장의 취임사가 끝나자 사단장은 다시 전 장병들에게 강경한 어조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훈시를 겸한 구두 명령을 하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청성부대(靑星部隊)는 단 한번도 패한 일이 없는데 너희들이 사창리 전투에서 망쳐놓았다. 이 오명을 씻기 위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것이다……

이제 후퇴는 없다. 한 발자국도 물러설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며 전초진

지를 사수해야 한다. 진지를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최대한으로 지원하겠다. 너희들에게 지급할 무기와 보급품을 여기 트럭에 싣고 왔으니 고장난 무기는 모두 새것으로 바꾸고 비상식량도 충분히 가지고 가라."

군장 검사와 훈시를 끝낸 사단장은 신임 연대장에게 다시 "최대한으로 지원할테니 꼭 설욕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사단장을 수행한 작전참모 박창원(朴昌源) 중령은 제2연대가 배치해야할 투명도형 작전 명령을 전달하였다.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5월 1일 14 : 00에 이동을 개시하여 5월2일 24 : 00까지 2개 대대를 미사리와 울업산 진지에 배치하고 나머지 1개 대대는 예비로 후방의 353고지에 배치하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을 전달하면서 작전참모는 연대장에게 장차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차 전지로 철수시킬 예정이라는 사단의 계획을 미리 알려 주었으나 연대장은 내심으로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리라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5) 설욕의 결심

전초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제2연대장은 일단 전 병력을 위육골(CS 694679)로 이동시킨 다음, 제1대대는 홍천강 남안의 미사리에, 제2대대는 청평강 남안의 울업산에, 그리고 제3대대는 그 직후방의 353고지에 각각 배치하여 진지를 편성하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하달하는 자리에서 연대장은 각 대대장들에게 진지를 사수하려면 전면방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이 진지를 지키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자고 비장한 결의를 보였다.

사실상 이 전투의 주역인 제2연대는 당시 연대장의 교체와 동시에 정보, 작전주임마저도 해임되어 그 후임으로 정보주임에 하상철(河相哲) 대위, 작전주임에 이영배(李榮培) 대위가 각각 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 3개 대대장이 모두 후송되거나 군재에 회부되어 그 후임으로 제1대대장에 사단 수색 중대장에서 발탁된 홍재익(洪載翊) 대위가, 제2대대장에는 연대 군수주임으로 있던 김덕복(金德福) 소령이, 제3대대장에는 사단 작전참모 보좌

관이던 김두일(金斗逸) 대위가 각각 새로 임명되었으며 중대장이나 소대장들도 새로 전임된 장교들이 태반이었다.

이와 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연대의 장병들은 어느 사이에 설욕을 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로 뭉쳐져 가고 있었으며, 더구나 각급 지휘관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진지를 사수하자고 단결을 촉구함에 따라 정신전력의 토대가 이루어져가고 있었다.

제2대대장 김덕복 소령은 위육골에서 3일분의 비상식량과 탄약을 수령한 다음 울업산 진지로 떠날 대, 대대의 장병들에게 "결사"라는 머리띠를 두르자고 제의하며 이를 시행함으로써 이때부터 대대는 결사부대로 불리어졌으며, 제1대대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신점리에서 위육골로 이동하면서 더 강한 결의를 보인 바 있었다.

즉, 신점리에서 출발하여 용문산 서쪽의 "물래재"를 넘을 때, 대대장이 부임하기 직전까지 대리 근무를 하고 있던 부대대장 진명섭(陳明燮) 대위가 대대의 전 장교들을 집합시켜 놓고 "드디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가 다가왔다. 이 설욕의 기회를 깨끗이 장식하자. 뜻을 이루지 못하면 깨끗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지한 물품들을 모두 이곳에서 불태워 버리고 손톱과 머리털을 잘라서 보내도록 하자. 그리고 훗날 국립묘지에서 만나자"고 격정어린 결의를 보였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중·소대장들은 한결같이 사창리 전투의 설욕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당시 참전자들은 훗날 증언에서 "고등학생 티를 채 벗지 못한 신임 소대장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깨끗이 죽자고 하며 단합되는 모습을 보고 강개함을 금치 못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사단에서도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민족의식 고양주간(民族意識高揚週間)으로 설정하여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단장이 수시로 경계부대를 방문하여 "똘똘 뭉쳐서 싸워야 산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부사단장 임부택(林富澤) 대령은 사단 일반참모부 보좌관들을 대동하고 괘도까지 작성하여 차에 싣고 다니면서 "대대 단위로 전면방어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제2연대는 이제 병력과 장비도 보충하였지만 장병들의 정신면에 있어서도 권토중래(捲土重來)를 기필하려는 설욕의 염원에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6) 전투 준비 명령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적의 공격 기도가 점차로 밝혀지자 미 제9군단에서는 5월 12일부로 전투 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다. 즉 "2-3일 내로 적의 공격이 예상되므로 각 사단은 현 "노네임"선상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며 정찰기지 지대에 강력한 엄호부대를 운용, 적의 공격을 조기에 경고하고 이를 지연 와해시키면서 축차로 철수토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찰기지 전방의 수색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평-청평간의 46번 도로상에 미 제24사단 소속의 미 제6전차 대대와 영 제28여단을 지원중인 미 제72전차 대대(-)를 교대로 진출시켜 이를 엄호토록 하는 동시에 항공 근접지원을 요청하여 적의 집결지로 예상되는 지암리와 화천 일대를 강타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에서도 13일부로 사단 작전명령 제159호(51. 5. 13)를 하달하여 다음과 같이 경계부대 운용 계획을 명확히 밝혔다.

『① 사단은 현 "노네임"선상의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정찰기지 지대에 강력한 엄호부대를 운용하려 한다.

② 제2연대는 명에 의거, 다음의 축차진지를 점령, 적을 포착 격멸하라.

최초진지 : 울업산-미사리

축차진지 : 353고지(CS 683676)-나산

최종진지 : 427고지(CS 703653)

③ "린디·루"포병 특수임무부대는 제2연대의 최초진지와 축차진지 전투를 지원하며, 사단의 제27포병 대대는 최종진지 전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명령에서도 사단장은 경계부대의 마지막 철수를 허용치 않았으며, 더구나 적과 정면으로 대결하여 이를 포착 격멸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경고된 이 시점에서도 제2연대장은 현 진지를 사수하기로 다짐하고 있었으며, 장병들의 정신이 이완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단의 축차진지 점령 계획 자체를 예하 대대에 하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전방에 수색대를 진출시켜 적정을 탐색하면서 진지를 보다 강화하였고 사단에서도 대대당 30명씩 노무자를 할당하여 이를 지원케 하였다. 그리고 대대당 1,000발 정도의 81mm 박격포탄과 1인당 5기수 이상의 실탄을 지급하는 동시에 3일분의 비상식량 외에도 1주일 분의 식량을 비축토록 미리 보급하였으며 통신선도 지하에 매설하여 다가올 전투에 대비하였다.

결국 중공 제63군이 병력을 이동하여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 제6사단도 어느덧 전투력을 회복하여 설욕 일념에 뭉친 단결력으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었다.

3. 대 수색전(對搜索戰)

경계부대와 주저항선의 각 연대가 진지 편성을 하는 동안, 사단 및 연대의 수색대들이 정찰선 전방으로 진출하여 대 수색전을 전개하였다.

지난 사창리 전투에서 적정을 파악하지 못하여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던 사단은 다시 적의 제2차 공세가 있으리라는 군단의 첩보에 따라 사단 정면의 적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5월 6일부터 시작된 수색대의 활동은 사단의 철저한 통제하에 실시되었다. 즉, 홍천강과 청평강으로 이어지는 경계부대의 배치지역선단을 출발선으로 하여 가평-강촌(江村)간의 북한강 남안을 전진 한계선으로 설정하였으며 다시 이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가평-홍천강 하구(河口)간의 북한강을 경계로, 그 서쪽지역을 맡아 각각 지대내의 적정을 조기에 경보토록 하였다.

이 수색대들은 주저항선 북쪽 25-30km 전방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무렵 좌인접인 제2사단과 우인접인 미 제7사단에서도 거의 동일선상에 수색대를 진출시킴으로써 사실상 군단의 일반전초선을 형성하여 활동하게 되었으며, 이때 적측에서도 역시 수색대를 투입하여 진로를 탐색함에 따라 피아간에 대 수색전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1) 사단 수색 중대의 활동

당시 사단 수색중대는 임시로 대대 편성 형태를 갖추어 2개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1중대는 전주열(全鑄烈) 대위가 지휘하고 제2중대는 박노영(朴魯榮) 대위가 맡아 상호 교대하며 수색과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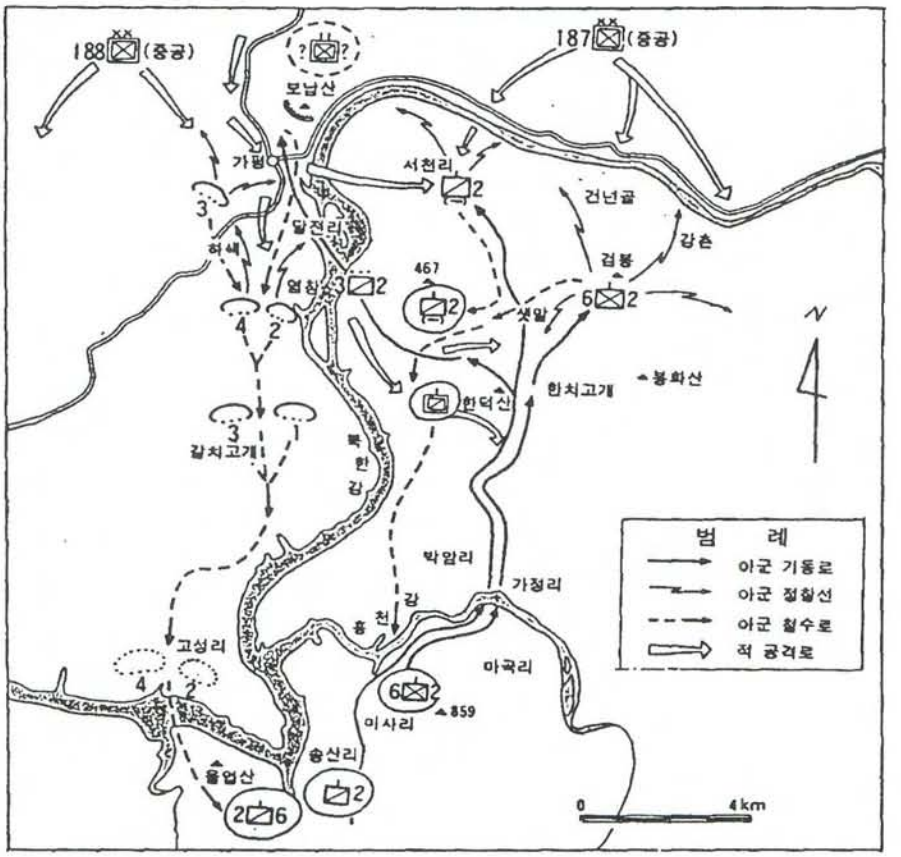
그러던 중, 이 전투에 임하여 제2중대가 수색임무를 맡고 출동하였던 것이다.

5월 5일, 양평(楊平) 부근의 집결지에서 제2중대가 출발하기에 앞서 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가평(加平) 남방까지 진출하여 사단 일반전초선 전방에서, 적의 공격을 조기에 경고하고 그 전진을 지연시키다가 상황에 따라 경계부대 지역으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 기본 임무의 수행과 아울러 사단 정보참모로부터 수시로 지시되는 전초선 북쪽의 주요 접근로에 대한 수색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임무를 맡은 제2수색중대장은 가평 남쪽의 담당지역으로 진출키 위하여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가벼운 공용화기만을 휴대한 4개 소대를 일단 경계부대 지역인 송산리(松山里) : CS 7071)까지 이동시킨 다음 5월 6일 08 : 00에 청평강을 건너 가평쪽으로 진출하였다.

청평강을 건너면서 중대장은, 만일 적의 공격에 직면할 경우, 신속히 철수하기 위해서는 도하 장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중인 20인용 나룻배 2척 이외에 2인용 소형어선 10여 척을 더 수집하여 청평강 대안에 대기시켜 놓고 2명의 감시병을 배치, 이를 확보토록 조치한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였던 것이다.

수색대의 활동상황



그리하여 "갈치고개"(CS 690809)를 넘어서자, 제1소대와 제3소대를 바로 그 북쪽의 좌우측 능선에 배치하고 제2소대와 제4소대는 북쪽으로 3km를 더 추진시켜 가평 읍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219고지-167고지간에 배치한 다음, 장차 축차로 지연전을 전개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와 같이 병력배치를 완료한 중대는 5월 7일부터 배치선 북쪽의, 주로 가평 일원에 대한 수색 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색임무는 제2선에 배치된 제1소대와 제3소대가 교대로 맡아 사단에서 지시하는 경로를 따라 실시하였는데, 8일까지 2일 동안에 걸쳐서 양소대가 수색해 본 결과 가평 북쪽의 보납산(寶納山)일대에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들도 수시로 가평 읍내까지 넘나드는 것으로 보아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아간에 정면 충돌을 피하며 산발적인 소총 사격으로 상호 견제하는 상황하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특별한 상황 없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 동안에 중대는 매일 사단 정보참모로부터 지시되는 지역을 수색하고 그 결과를 무전으로 보고하는 비교적 단조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15일로 접어들면서 적의 수색활동이 갑자기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제1소대장 최소위가 가평 남단의 하색(下色)에서 한복으로 변장한 3-4명의 중공군을 발견하고 사격을 가하자 이들은 읍내로 도주하였으며, 그 뒤로 다시 달전리(達田里) 강변에서 10여명의 적이 강변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격퇴하는 등 심상치 않은 기미가 엿보였다.

이로부터 경계를 더욱 강화하며 적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던 16일 석양에 전방 진지에 배치된 양개 소대장으로부터 "가평 읍내에 적이 집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중대장은 사단에 적정을 보고하는 한편, "갈치고개"의 제1소대와 제3소대로 하여금 엄호 태세를 갖추게 하고 전방의 소대장들에게는 적이 공격을 개시하면 사격으로 저지하면서 "갈치고개" 후방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집결중인 적은 계속 병력을 증강하면서도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더니, 이윽고 날이 어두워 20 : 00가 되자 전방소대 지역에서 요란한 총성과 함께 "적이 진지 전방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잇달았다. 이로부터 20여분이 지나자 다시 교전 지역 부근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그 뒤를 이어 적의 박격포 사격이 가해지고 있었다. 이 불꽃은 제4소대장 황진태(黃振太) 소위가 전지 전방 500m 지점에 미리 모아 두었던 40여개의 벼 짚단을 쌓아 놓고 석유를 끼얹어 불을 질러 적을 혼란케 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적의 침투상과 화력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지로 적의 병력이 연대 규모에 달한 데다 수십필의 군마(軍馬)가 야포까지 견인(牽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적정을 중대에

보고한 다음 곧 제2, 제4소대는 철수를 개시하여 2시간 후에 "갈치고개"에 당도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즉시 제2, 제4소대를 청평강 북안의 도선장(渡船場)으로 내려보내 그 부근의 엄호 진지를 점령케 한 다음 자신은 현지에서 남은 2개 소대를 지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정을 넘어 01 : 00가 되어도 적정은 없이 초조하고 지루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물론 중대장에게는 상황에 따라 임의 철수(任意撤收)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만 적을 보지 않고 철수한다는 것은 임무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더욱 초조하였다. 그러면 그 많은 적인 이 시간 현재 어디에 있었을까? 뜻밖에도 그들이 출현한 곳은 제2연대의 수색대가 활동하고 있는 북한강 동쪽 지역이었다. 그들은 기동로가 험하고 도하 장비가 뒤따라야 하는 청평강 도선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섭이 가능한 홍천강을 건너기 위하여 미리 염창에서 북한강을 건너 남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7일 02 : 00에 중대(-)의 진전에 나타난 적은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후속 부대였고 그 주력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전진(轉進)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한 중대(-)는 이 적과 한 차례 교전을 치른 뒤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사단에 보고한 다음 현재의 배치 지역에서 철수를 개시하였다. 17일 05 : 00에 4개 소대가 차례로 도강을 완료, 제2연대 제2대대 진지 부근인 송산리로 이동하였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3명의 부상병을 먼저 후송시킨 다음 피로에 쌓인 병력을 잠시 휴직시키면서 정보참모에서 중대의 철수상황을 보고함과 아울러 차후의 임무를 문의하자, "양평으로 철수하여 다음 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로써 임무를 마친 중대는 제2연대 제2대대에 적정을 통보하고 그 지역을 통과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다가 "위육골"에서 제2연대장 송대후 중령으로부터, 연대 지휘소 경계 임무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제2연대는 3개 대대를 모두 일선에 배치한데다 연대 수색 중대도 홍천강 북쪽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부족하여 이렇게 요청하던 것이며, 사단 수색 중대장 자신도 "결사"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전투태세를 취하고있는 제2연대 장병들의 시선을 받으며 후방으로 나가기가 민망하여 사단 정보참모에게 이 같은 정황을 보고하자 쾌히 승낙함으로써 이때부터 제2연대의 지휘소 경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제2연대 수색 중대의 활동

한편, 북한강9가평-홍청간 하구) 동쪽 지역을 담당한 제2연대는 연대 수색 중대를 가평 동쪽 4km의 서천리(西川里) 부근으로 진출시켜 수색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연대는 경계부대로서 당면한 적정 파악이 더욱 절실한 까닭에 포로 획득에 중점으로 두고 맹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수색중대의 성과가 여의치 못하자 다시 소총중대로 전투정찰대를 편성하여 홍천강 북쪽에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2개 중대가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 적중에 고립된 수색중대(-)

5월 6일 08 : 00에 미사리(彌沙里)에서 홍천강을 건너 서천리를 목표로 출발한 제2연대 수색 중대는 유남희(柳南熙) 중위의 지휘하에 경장비를 갖춘 3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중대는 "위육골"의 집결지를 떠날 때 연대장으로부터 "적정 파악이 시급하니 빠른 시일 내에 중공군을 포로해 오라"는 임무를 받고 사단의 통제선 부근인 서천리까지 진출하였다. 여기에서 중대는 가평으로 건너가는 도하지점을 비롯한 북한강 남안 일대를 오르내리며 3일 동안 수색하였으나 포로를 획득하지 못하고, 다만 강촌역(CS 798855) 대안에 적의 도하용 자재인 것으로 추측되는 통나무가 쌓여있다는 것과 북한강 북쪽에 중대 규모의 적이 배치되어 있다는 상황만 확인하여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좌인접인 제2사단에서 1명의 포로를 획득하였

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대장에게 엄중한 질책과 함께 "즉시 전원 복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제2대대장에게 대대의 실정에 따라 소대 또는 중대 규모의 전투정찰대를 투입하여 포로를 획득해 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소총 중대에서 전투정찰을 실시하고 (본절 제2항참조) 수색중대는 22km나 떨어진 위육골의 연대 지휘소로 복귀하였다. 9일 낮과 밤을 강행군한 끝에 10일 아침에 위육골에 당도한 중대는 연대장에게 복귀 신고를 하자 연대장은 중대원 전원과 참모들을 집합 시켜 놓고 다음과 같이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너희들은 연대의 장차 작전을 위하여 포로를 잡아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서도 이를 망각하고 무사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 책임을 완수치 못한 중대장을 이 자리에서 마땅히 엄벌해야 하겠으나 일단 보류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앞으로 1주일 이내에 포로를 꼭 잡아와야 한다. 지금 즉시 출발하라." 어이없게도 수색중대는 다시 20여 km를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때 연대 정보주임이 중대장을 위로하면서 "가급적이면 경장비를 갖추고 수류탄과 비상식량만을 휴대하여 목적을 성취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중대장은 "자결하고 싶은 생각이 앞섰으나 비장한 결의를 하고 다시 떠났다"고 회고하면서 그때의 심정을 증언으로 토로하였다.

전방으로 다시 진출하는 과정에서, 제3소대장 주소위는 손가락을 깨물어 태극기에 "책임 완수"라고 혈서를 써서 소총에 메어 단 다음 "가평으로 건너가서 꼭 포로를 잡아 오겠다"고 자청하고 나섰다. 이에 중대장은 제3소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덕산(寒德山)을 넘은 후에 가평쪽으로 분진(分進)토록 지시하고 자신은 남은 2개 소대를 지휘하여 서천리로 향하였다.

11일 10 : 00에 서천리에 도착한 중대(-)는 다시 북한강 남안의 주요 고지와 계곡을 누비며 보다 적극적인 수색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역시 포로는 잡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적이 출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강을 건너 적의 배치 지역으로 침투한다는 것은 사단의 수색통제선을 뛰어넘은 결과이기도 하려니와 설사 초월한다 할지라도 적을 포

로하기에 앞서 자신이 오히려 포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결국 이러한 상태로 다시 4일이 지나고 15일 석양이 되자 이윽고 "주을길"(CS 727894) 부근에 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적은 증강된 중대 규모로서 도하 지점을 물색하는 듯, 강변을 따라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유유히 정찰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중대장은 사격을 가하여 이적을 물리친 다음 연대에 적정을 보고하였더니, 연대에서는 여전히 포로 획득 여부에 대한 추궁이 대단하였다.

이때 중대장은 적의 동정으로 보아 불원간 그들의 정찰대가 다시 출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1개 소대를 강변에 잠복시키는 한편 서천리의 중대 지휘소에는 1개 소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등 오직 포로의 획득에 진력하고 있던 중, 16일 03 : 00에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적이 침투한 장소는 전방이 아닌 서측방으로서, 깊은 밤에 어두움을 이용하여 불시에 기습해옴에 따라 한때 큰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겨우 이를 수습하여 사격과 육박 대결로 맞서보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한 상태로 기울어져 갔다.

이에 중대장은 후방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3km 남쪽의 백양리(白楊里)에서 병력을 수습하다가, 16일 아침에 다시 배후에서 나타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퇴로마저 잃어버리고 그 서쪽의 298고지로 올라갔다.

이 무렵 제2연대 정면의 상황을 사단 수색 중대의 경우와는 달리 적이 공격을 앞두고 북한강 남안에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16일 밤에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도처에서 이들 적과 종우전을 벌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알 길이 없는 중대(-)는 16일까지 현 위치에서 30여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철수하려 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적의 주력이 진출하여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적중에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중대(-)는 포로를 잡지도 못한 채 1주일간을 산 속에서 굶주리며 버티다가 끝내 본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아군이 반격을 개시한 이후에야 구출되었던 것이다.

2) 분대장의 적진 탈출

한편 가평으로 진출한 제3소대는 11일 밤에 북한강을 건너 가평 남단의 "비석거리" 부근으로 잠입하였다. 일단 가평으로 침투하는데 성공한 소대는 오직 포로를 잡겠다는 일념에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날이 밝기 전에 적의 예상 출몰지역에다 병력을 배치할 예정으로 개울을 따라 중촌마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무모한 짓이었다. 가평 일원은 피아간에 주시하는 주요 접근로일 뿐만 아니라 보납산 일대에 배치된 적이 일부의 경계 병력을 바로 그 개울가에 잠복시켜 놓고 있었으니 필연적으로 이와 격돌케 되었으며 그 상황을 소대에 지극히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여명과 더불어 중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은 소대는 제대로 응사도 하지 못한 채 분산되어 비석거리까지 후퇴하였을 때에는 10여명의 병력밖에 남지 않았다.

다행히 적측에서도 추격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소대는 대부분의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으나 결국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대와도 교신이 두절되어 몇 명의 실종자만을 적중에 남긴 채 사단수색중대 지역을 통과하여 복귀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교전 과정에서 제3분대장 박태달(朴泰達) 하사가 적의 포로가 되었다. 분산된 직후에 위급한 상황을 피하여 어느 민가로 들어갔다가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포로가 된 뒤, 계급장을 떼버리고 문맹자 행세를 하며 중공군 복장으로 변장한 북괴군 통역의 신문에 끝까지 허위 계급과 허위 군번 그리고 성명과 연령만을 대답하고 신병이라 속이면서 탈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중공군 중대장인 듯한 자가 북괴군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길을 묻거나 이동간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그들 본부와 연락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의 정찰대인 듯 하였으나 박하사는 당장에 어찌할 도리가 없어 따라 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3일째인 16일 14 : 00경, 중공군 중대장을 비롯한 정치지도원과 북괴군 통역, 무전병, 박하사 등 일행이 중공군 첨병소대의

뒤를 따라 방하리(芳荷里)에서 한덕산쪽으로 올라가다가 아군의 사격을 받아 분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중공군 중대장이 아군의 사격에 명중되어 쓰러지자 박하사는 부축하는 체 하면서 권총과 지도 및 암호철 등 일곱 가지의 소지품을 탈취하여 초연에 싸인 교전 지역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17일 아침에 미사리의 제1대대 지역으로 복귀한 그는 곧 연대에 노획문서를 제출하고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였다. 이로써 연대는 제6중대의 보고와 함께 당면한 적정을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 박하사도 자신을 구출한 병력이 제2차로 전투정찰에 나선 제6중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제5중대 제3소대의 전투정찰

연대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포로를 획득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연대 수색중대의 활동이 여의치 못하자, 제2대대장에게 전투정찰대를 투입하여 포로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 명령을 받은 제2대대장은 휘하의 소대장들 가운데 일어(日語)나 중국어에 능하고 지도 판독 실력이 뛰어난 소대장을 물색한 끝에 제5중대의 제3소대장 함세영(咸世永) 소위를 선발하여, 동 소대에 대대 수색대와 제5중대 화기소대의 기관총 1개 분대를 배속시켜 주면서 적의 출몰지역으로 지목된 가평으로 나아가 포로를 잡아오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임무를 받은 소대장은 자기의 소대병력 이외에 대대 수색대원 30명과 기관총 분대 등 사실상 2개의 병력을 지휘하여 5월 13일 08 : 00에 울업산의 도선장을 출발하였다. 이때 철모에 "결사"라는 표지를 두른 중대원들과 대대 본부요원들까지 도열하여 환송하는 가운데 마치 결전장으로 나가는 특공대장처럼 굳은 결의를 하고 청평강을 건넜다. "갈치고개"의 사단 수색중대 지역을 통과하여 가평에 다다른 소대(+)는 46번 도로 서쪽의 204고지에 병력을 배치한 다음 가평 일원을 굽어보면서 우선 적정을 살펴보았다. 소대장은 2개 분대의 수색대를 조심스럽게 비석거리 부근까지 진출시켜 적

정을 탐색하는 한편 민간인 3명의 협조를 얻어 적의 동정을 알아본 결과 이날 새벽에 연대 수색소대가 가평 북쪽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분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중공군은 기마대를 포함한 중대규모의 병력이 가평 북동쪽 1km의 밤나무골에 집결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대대 수색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확보토록 지시한 다음 자신의 소대와 기관총 분대를 지휘하여 밤나무골 부근까지 접근할 예정으로 진출하던 중, 보납산 서쪽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보납산의 적은 지형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소총 사격을 집중할 뿐만 아니라 박격포 사격까지 가함으로써 소대로서는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잠복 상태로 대기하거나 적과의 접촉을 회피한다는 것은 부여받은 임무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깨달은 소대장은 진지에서 도발하는 적을 견제하고서라도 수색활동을 계속 전개키로 다짐하고 중대본부에 3.5″로켓포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5월 14일 아침에 중대 선임장교 이종순(李鐘順) 중위가 직접 인솔한 3.5″로켓포조가 도착하여 화력이 증강되자 204고지의 병력을 선임장교에게 맡기고 증강된 수색소대는 함세영 소위가 지휘하여 가평읍으로 돌입, 그 일원을 낱낱이 수색하였다. 이대 수색대는 민간인 복장으로 변장한 4명의 중공군이 따발총을 난사한 다음 읍내의 개울을 건너 보납산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사살해 버렸으며, 그 뒤로 역시 보납산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2시간 동안에 걸친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소대(+)는 이날도 포로를 잡지 못하고 204고지로 되돌아 왔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대대장은 가평 지역에서는 중공군을 사로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는 한편 제6중대장 이좌균(李佐均) 대위에게 중대 병력을 이끌고 적의 예상 도하지점인 강촌지역으로 진출하여 포로를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5중대 제3소대(+)는 철수하게 되었으며, 204고지를 떠나 이

화리(梨花里)쪽으로 내려오다가 도중에서 미 제5공군 소속의 전방항공통제장교 샌더(Sander) 중위를 가평 남쪽 3km지점의 46번 도로상에서 만났다. 여기에서 함소위가 가평 부근의 적정을 도상으로 설명하자 그는 즉시 직접 항공지원본부에 연락하여 보납산 일대의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그 뒤로 함소위는 본대로 복귀하여 그간의 경위를 보고하고 울업산 진지로 돌아가 전투에 대비하였다.

4) 제6중대의 전투정찰

경장비를 갖추고 일반 전초선에서 민활하게 활동하다가 적의 공격을 조기에 경고해야하는 수색중대의 경우와는 달리, 전투정찰 임무를 맡은 제6중대는 중대의 전 병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60여발의 총류탄까지 특별히 지급하여 포로 획득의 임무를 완수키로 다짐하고 15일 08 : 00에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출발하기에 앞서 중대장은 대대 작전장교 도회방(都會邦) 중위로부터 강촌 지역에 대한 그 동안의 적의 출몰 상황과 수색지역 및 중대 관측소의 위치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미사리(彌沙里)의 제1대대 정면에서 홍천강(洪川江)을 건넌 중대는 "한치고개"를 지나 봉화산(烽火山) 북쪽 골짜기를 우회하여 12km를 도보 기동한 끝에 13 : 00에 강촌 남서쪽의 제일 높은 고지인 검봉(劍峰 : CS 773845)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3개 소대를 전면방어 태세로 배치하여 일단 검봉을 확보한 후에, 중대 선임하사관 이영복(李永復) 상사에게 500m 후방의 독립가옥에서 식사를 준비토록 지시한 다음 3개 소대장을 집합시켜 다음과 같이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제1소대는 강촌지역을 포함한 강촌리 일대의 지역을 수색하라.

② 제2소대는 "건넌골"을 중심으로 한 그 좌우의 북한강 남안에 매복하여 가능한 한 적을 사로잡도록 하라.

③ 제3소대는 현위치에서 중대 관측소를 경비하면서 다음 명령에 대비하라."

이와 같은 명령이 하달된 뒤로 이덕희(李德熙)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담당 지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특별한 상황이 없으므로 18 : 00에 이날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였으며 김천수(金天壽) 소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매복 기도를 비닉하기 위하여 날이 저문 후인 19 : 00에 "건넌골"로 올라갔고, 관측소를 경비하던 제3소대는 제1소대가 복귀한 그 임무를 제1소대에 맡기고 소대장 이관영(李寬榮) 소위 지휘 하에 검봉 남서쪽에 있는 290고지 일대에서 야간매복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23 : 00경, 290고지의 제3소대 지역에서 상상을 초월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백양리 계곡을 따라 남하(南下)하는 중공군 대열이 처음에는 소대 규모에서 중대 규모로, 다시 대대규모로 이어지며 계속 남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품을 운반하는 대열이 그 뒤를 따랐고 어떤 자는 긴 장대의 양끝에 보급품을 매어 달고 어깨로 운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방망이 수류탄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장총이나 따발총을 휴대한 자는 10명당 2-3명 꼴에 지나지 않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소대원들은 겁에 질려 공격할 생각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었으며, 보고를 받고 현지로 달려온 중대장도 달빛 아래 나타난 적의 대열을 보고 중과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 야간공격을 피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적은 통상 날이 밝으면 아군의 관측을 피하여 은폐된 지역으로 숨는 반면에, 아군은 항공 및 포병화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까닭에 주간의 유리한 상황 하에서 작전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이다.

16일 날이 밝자 "건넌골"에 매복중인 제2소대를 검봉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한 중대장은 제1소대와 제3소대를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전날 밤에 적이 지나간 백양리 일대를 수색하던 중, 298고지 부근에서 적과 조우하여 사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적은 298고지뿐만 아니라 그 북쪽의 서천리 계곡에서도 나타나고 남쪽의 "샛말" 부근에서도 출현하여 이 일대가 온통 누런 중공군 복색으로 뒤덮임으로써 철수로까지 차단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초조하고 불안하여져 더 이상 수색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중대장은 일단 검봉으로 철수토록 명령하고 중대 관측소에 올라와

보니, 중대 선임하사관 이영복 상사가 취사반원들을 이끌고 허둥지둥 검봉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중공군에게 습격을 받아 부득이 총류탄과 박격포탄만을 챙겨서 올라왔다"고 보고한데 이어 "지금 적이 남쪽 골짜기까지 몰려왔다"고 지적하면서 겁에 질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상황이 이와 같이 돌변하자 중대장은 위기를 직감했다. 이미 적이 공격을 개시하여 경계부대 지역전방으로 전진하고 있음을 볼 때, 포로는 고사하고 본대로 철수가 시급한데 이 철수로마저 차단되었으니 스스로 이를 타개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대대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적과의 교전을 회피하여 신속히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중대는 검봉의 서쪽 능선을 따라 철수하기 시작하여 유일한 기동로인 "한치고개"를 피하면서 계속 이동한 끝에 방하리에 다다르자, 여기에서 다시 한덕산을 우회하여 박암리로 이동할 예정으로 274고지를 넘은 다음 남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중대는 철수를 계속하던 중, 이날 14 : 00경 선두인 제2소대가 한덕산 서쪽의 "큰골"로 들어서다가 중대 규모의 적과 조우하였다. 이에 중대는 소총과 기관총은 물론 60mm 박격포까지 동원하여 치열한 사격을 가한 끝에 중공군 10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아울러 소총 4정과 수류탄 등을 노획하였다.

이때 잡은 포로가 사단에서 획득한 유일한 포로로서, 그는 키가 크고 흰색 얼굴에 얼룩무늬의 위장복을 입고 있었으며 일어까지 아는 것으로 보아 적의 간부급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떻든 중대는 이 적을 격퇴한 직후에 다시 철수하기 시작하여 296고지라 향하다가 뜻밖에도 우군 항공기의 기총사격을 받았다.

이 무렵 연대에서는 "한치고개" 부근에 적이 출현한 뒤로 근접항공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는데, 바로 이 전폭기들이 한덕산 일대의 적을 공격하다가 큰골 부근에서 출수중인 아군을 발견하고 적으로 오인하여 기총소사를 가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적중에서 병력이 분산 상태에 이르자 중대장은 각 소대별로 철수하여 미사리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은 제2소대 및 본부 요원과 함께 박암리로 내려와 홍천강을 건넌 다음 제1대대 지역인 미사리에서 병력을 수습하였다.

여기에서 중대장은 포로를 먼저 압송하고 제1대대장에게 적정을 보고하는 한편 계속 병력을 수습한 끝에 대부분의 병력을 모아 본대로 복귀하였다.

그 뒤로 일부 분산된 병력이 속속 복귀함으로써 중대는 거의 손실이 없이 임무를 완수하고 전과까지 거두는 개가를 올렸으며, 그 공로로 전투 직후에 부대 표창까지 받았다.

5) 미 제7사단과의 협조

일반전초선에서 수색대들이 활동하는 동안 제2연대는 인접사단의 경계부대와 협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좌인접인 제2사단과는 별 어려움이 없이 작명상에 명시된 협조지점에서 접촉을 유지하였으나 우인접의 미 제7사단과는 장낙산맥(長樂山脈)이 가로 막혀 있는 데다 언어 소통마저 불편하여 접촉이 지연됨으로써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 사창리 전투 당시 우인접이었던 미 제1해병사단과 간격이 생겨 적의 침투를 자초한 전례를 되풀이할 우려가 없지 않았다.

이 취약점을 알고 있던 연대장은 미사리에 위치한 제1대대장에게 협조를 유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제일 우측에 배치된 제1중대장에게 다시 지시함으로써 결국 동 중대의 제1소대장 전제현(全濟鉉) 소위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소위는 소대병력을 이끌고 장낙산맥을 넘어 마곡리(馬谷里)로 진출하여 접촉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미 제31연대 수색중대와 연결하는데 성공하여 8일 이후부터는 유선망까지 가설하고 수시로 적정을 교환하면서 협조를 유지하였다. 이 접촉 과정에서 미군 수색대가 대부분 한국인으로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1950년 12월 21일에 미 제

7사단이 홍남에서 철수하면서 함경도 출신의 반공청년들을 수색대원으로 현지 편입시킨 뒤, 지금까지 훌륭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미사끼"라고 하는 일본인 2세가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이들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계급이 없는 군속 신분의 한국인들이 분대장과 선임하사관 직책까지 맡아 수색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협조하기가 매우 편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의 공격이 시작된 18일 석양에 예고도 하지 않고 철수함으로써 통신마저 두절되었으며,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상호 협조의 보람도 없이 인접사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었고 끝내는 측방으로 적이 침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통상적인 예로 보아 경계부대의 접적시 철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나 제6사단의 경계부대인 제2연대로서는 현 진지를 고수하기로 다짐했던 만큼 인접사단의 상황 파악이 매우 아쉬웠던 것이다. 어떻든 이로써 제6사단 수색대의 활동은 끝나고 본 전투로 이행하기에 이르렀다.

4. 미사리(彌沙里)의 서전(緖戰)

1951년 5월 18일, 이날은 서풍이 불고 잔뜩 찌푸린 날씨에 가랑비마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용문산의 제6사단은 비상태세로 돌입하였다.

전날까지 전초선 북쪽에서 활동하던 사단 및 제2연대의 수색대가 철수한 뒤로 한치고개(CS 750818)와 갈치고개 (CS 691809)에서 남진중인 적의 대열을 확인하고, 또한 사단 수색중대가 마지막으로 청평호(淸平湖)를 건너온 이날 05 : 00에는 홍천강(洪川江) 대안에서 도하지점을 정찰중인 그 일부의 선두부대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사단에서 종합한 각 수색대의 활동 보고 분석과 특히 전날 제2연대에서 사로잡은 포로(중공군 제187사단 예하 560단 소속)의 진술에 의하면, 당면한 적은 중공군 제63군으로서 이들의 16일 밤부터 전술 기도를 개시하여 서천리(西川里, 가평 동쪽 4km)-한치고개-가정리(柯亭里)축선과

대보리(大報里)-덕현리(德峴里)-청평(淸平) 축선으로 각각 분진해옴으로써 시간상으로 보아 그 선두가 진전에 가까워진 것만은 분명하였다.

따라서 사단에서는 이 같은 적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예하의 각 연대로 하여금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하였으며 특히 경계부대인 제2연대에는 더욱 경계를 강화형 조기에 적을 포착 격멸토록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어전에서 경계부대란 적의 공격을 저지, 와해하고 주진지를 기만하면서 직접 철수하는 것이 통례이나, 사단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제2장 제3절 참조)전초진지의 고수 개념아래 결전을 감행하기로 하였던 만큼, 제2연대의 전투준비 태세에 완벽을 기하도록 더욱 강조하였던 것이다.

제2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지시가 있기 전부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연대장 송대후(宋大厚) 중령은 각 대대장을 전화로 불러 그 특유의 강경한 어조로 현 진지의 사수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부터 중대 단위의 취사를 중지하고 행정요원까지 모두 진지에 투입할 것과 사격 통제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특히 강안의 도하지점에 경계를 강화토록 지시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용문산 전방에는 전운이 감돌고, 홍천강과 청평호 차안에는 제2연대의 제1대대와 제2대대가 하천선에서 진지를 편성한가운데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1) 제1중대의 전초전

홍천강 남쪽의 미사리 정면을 담당한 제1대대는 홍재익(洪載翊) 대위의 지휘하에 대대 지휘소를 559고지(CS 732737)에 두고 제1중대(-)를 동, 제2중대를 서, 제3중대를 남으로 배치한, 대대 전면 방어태세를 취한 가운데 1개 소대를 강안으로 추진하여 하천선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 전초소대는 제1중대 제1소대로서 홍천강 차안의 돌출 고지인 왕터산 기슭에 산개하여 하천선 일대를 감시하던 중, 이날 새벽에 그 대안의 "벌

박암"골짜기에서 수 미상의 적이 출현하여 한 차례 강변으로 나왔다가 사라진 뒤로 계속 침묵을 지킨 후 10 : 00가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기마병이 나타났다.

이 적이 출현한 장소는 '벌박암' 동쪽의 가정리로서 속칭 '골안터'라 일컫는 강변 마을인데, 이곳은 춘성군 남면과 홍천군 서면간에 이어지는 나루터 북쪽 마을이었다.

이 지역은 적의 예상 도하지점으로 판단되어 바로 그 건너편의 "떼네" 마을 어귀에 분초까지 배치하여 주의 깊게 경계하고 있던 까닭에 출현 단계에서부터 이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여느 때와는 달리, 백주에 그것도 10여명의 기마병이 동시에 나타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강둑을 오르내리면 도하지점을 물색하는 듯, 강변 정찰을 계속하였다.

이를 목격한 동 소대장 이윤기(李潤基) 소위는 즉시 전 소대원에게 "명령이 있을 때까지 사격을 금한다."라고 지시하는 한편, SCR536 무전기로 이 같은 적정을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현임(現任) 출신인 제1중대장 김규병 중위는 "가능한 한 적을 생포(生捕)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적은 바로 강을 건너려 하지 않고 계속 그 수효만 증가하므로 소대도 역시 이를 계속 감시하던 중, 11 : 00에는 이들 기마병이 사라진 반면에 병력 수효가 중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14 : 00에는 다시 500여명의 규모로 늘어나는가 하면 이후에도 계속 병력을 증가하여 17 : 00에 이르러서는 가정리 일대에 1,000여명, "벌박암" 골짜기에도 600여명 등, 연대 규모의 병력으로 점증(漸增)하였다. 이과 같은 적의 움직임은 도하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윽고 19 : 00를 기하여 가정리 일대의 적이 먼저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이 곳의 수심은 1.5m 내외로서, 도하 장비를 이용치 않아도 직접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100여명이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하자, 부임한 지 1개월밖에 안 되는 소대장 이소위는 내심으로 당황하여 포로 획득을 단념하고 소대의 철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중대장 김규병 중위는 "현 진지의 고수와 적의 도하 저지"를 강

조하면서 60mm 박격포 사격을 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대대에서도 제1중대 지역으로 추진한 81mm 박격포 제1반장에게 사격을 집중토록 지시하니, 이윽고 강안을 진동하는 포성과 함께 비로소 침착성을 되찾은 소대장은 예광탄 4발의 신호를 울려 일제히 사격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강폭 300m 내외의 강심(江心)에 뛰어든 적은 무수히 수장(水葬)되어 갔으나 이들은 아랑곳없이 속속 강을 건너 마침내 왕터산 동쪽의 마곡리(馬谷里) 계곡으로 그 선두가 들어서고 있었으며 진지가 폭로된 소대의 배치 지역에도 적의 82mm 박격포탄 10여발이 낙하하여 소총수 1명이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이 시각에도 적의 후속 부대가 계속 강을 건너고 있으니, 만일 이 상태로 한 시간만 더 경과한다면 소대는 완전히 적중에 고립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소대장은 재차 소대의 철수를 건의하였으나 중대장의 강경한 어조는 "육탄 대결을 해서라도 적을 격퇴하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더구나 적측에서는 아군의 포격과 소대의 계속적인 사격에도 불구하고 직접 공격이나 이렇다 할 응사도 없이 마곡리 계곡으로 계속 병력이 밀려들게 됨으로써 이를 목격한 소대원들 동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소대의 선임하사관 손영수(孫永壽) 상사는 "중대장에게 항의하고 자살해버릴 테니 병력을 뽑자."고 항변하면서 진지를 뛰어 나가다가 소대장의 만류로 되돌아서기도 하였다.

이 무렵 중대 OP에서도 전초 소대의 철수 문제를 놓고 중대장과 견해를 달리한 선임장교이자 화기 소대장인 전제현(全濟鉉) 소위가 "더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무모한 희생만 있을 뿐이니 병력을 철수하는 것이 옳다."고 건의하였으며 특히 적이 계속 침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왕터산 남쪽의 일부 진지가 공백 상태인 점을 지적하자 마침내 이 건의를 받아들인 중대장은 이미 대대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약정에 따라 "1개 분대의 경계 분초를 남겨 놓고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기에 이르렀다.

이 명령을 받은 이윤기 소위는 제1분대장 강중순(姜仲淳) 하사에게 현

진지 남쪽 50m의 능선을 가리키며, "저 능선에게 적정을 계속 감시하다가 명에 의거 철수토록 하라."는 임무를 부여하는 즉시 다른 전 소대원들에게 "휴대한 모든 실탄을 사격하여 엄호하라."고 외치며 자신고 함께 "떼네" 마을쪽으로 사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엄호아래 제1분대가 진지를 점령하자 약정된 철수 신호를 울린 소대는 제2분대, 화기분대, 제3분대 순으로 철수를 개시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면서(EENT-19:37) 비까지 내렸으나 소대장은 잔류 분견대인 제1분대의 배치 상태를 확인한 다음 곧 손상사가 이끌고 떠난 소대의 후미를 따르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상황을 중대에 보고하였다.

그 뒤로 지정된 통로를 따라 속속 철수한 동 소대(-)는 20 : 30을 전후하여 410고지 전사면에 미리 구축한 본래의 진지를 점령하였는데, 여기에 당도하고 보니 실탄 부족 문제가 앞섰다. 이에 이소위는 곧 중대에 보급을 요청하는 한편 우선 조치로 동기생이자 인접소대장인 제2소대장 서계순(徐桂舜) 소위의 협조를 얻어 일인당 1기수씩의 소총탄을 나누어 받았다.

이상과 같이 전초소대가 철수하는 동안 중대 정면의 적은 왕터산 동쪽의 마곡리 계곡으로 계속 침투하여 21 : 00에 이르러서는 그 선두가 제2소대 진지 정면의 410고지로 기어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대대의 81mm 박격포를 비롯한 각 중대의 60mm 박격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어 여기에 집중사격을 가하는가 하면 중대에 배속된 기관총 소대장 정상천(鄭相千) 소위도 동쪽 계곡으로 지향한 최저표척사격을 개시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제3소대의 청음초선에도 적 발견 신호탄이 오르면서 수류탄 폭음이 연발하였다.

바로 이 무렵, 왕터산의 최북단 진지에 홀로 남아 있던 제1소대 제1분대의 경계 분초 초소에서도 폭음과 함께 소총 사격이 불을 뿜고 있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뒤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때 동 분대장 강중순 하사는 어두움을 틈타서 10m직전방까지 접근한 적이 고개를 들자 세열 수류탄을 던지면서 일제히 사격을 가하였으나, 적측에서도 방망이 수류탄으로 맞섬으로써 분투한 보람도 없이 밀리게 되어, 결국 강

하사와 분대원 1명이 부상을 입고 TS-10전화기는 파괴되었으며 소총수들은 끝내 분산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선을 뚫고 복귀한 소총수의 보고에 따르면, 분대장은 계속 사격을 가하면서 중대 진지쪽으로 향했으나 다리의 파편상으로 말미암아 장낙산맥(長樂山脈) 골짜기에서 낙오되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제1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한 적은 위치가 노출된 제2소대의 진지와 그 남쪽의 제3소대 진지 정면으로 밀려들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수류탄에 의한 파상 공격으로, 한 제대가 방망이 수류탄을 던지고 물러서면, 또 다른 제대가 그 뒤를 이으면서 중대의 진지를 휩쓸고자 하였다. 더구나 22 : 00를 기하여 우인접인 미 제7사단 예하의 제31연대가 경계 부대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후방으로 철수하게 됨에 다라 대대의 동 측방이 완전히 공백상태에 놓이게되자 기동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적은 더욱 기세를 높이며 공격력을 증강하였다.

그러나 3.5″로켓(Rocket)포에 의한 사격개시신호가 오른 뒤로 중대의 장병들은 유리한 진지를 점령하고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제2소대장 서계순 소위는 소대원을 독려하여 가파른 능선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수류탄 투척과 자동소총 사격으로 계속 물리쳐 나갔다. 이 과정에서 제1분대의 자동소총 사수인 이기원(李基源) 상병은 왼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도 연속 사격을 퍼부어 적에게 발붙일 틈을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은 치열한 응전으로 410고지 정면의 적은 격퇴하였으나 남쪽의 제3소대는 이와는 달리 격전을 전개하였다. 마곡리에서 차츰 남쪽으로 이동한 적이 장낙골 계곡으로 넘어가려 하자 이 계곡을 차단한 제3소대가 소대 지역에 배치된 기관총 제2소대의 중기관총 제1반과 함께 그 선단을 제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제2파인 수류탄 돌격조를 진출시켜 돌격을 감행함으로써 끝내 기관총 진지가 폭파되고 사상자가 속출하여 동 소대는 대대 지휘소가 있는 559고지 쪽으로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가 24 : 00를 조금 지난 깊은 밤이었는데, 제3소대는 2명이 전사하

고 5명이 부상을 입는 고전을 치르게 되었으나 동 소대장이 이동환(李東煥) 소위의 노력으로 병력을 수습하여 559고지의 동쪽 능선에서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고 중대와 다시 통신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이 대에 적은 진지의 탈취보다도 전진 기동에 주력한 듯, 보다 적극적인 공격 행위가 없이 남진을 재촉하였으며, 그 기동 대열이 연대 규모를 헤아려 중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적은 이렇다 할 도발이 없이 계속 진출함으로써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며 19일 03 : 00 이후에는 접촉마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결국 진로를 타개한 적은 남쪽으로 침투하였고, 장낙 산맥 동쪽에 홀로 남은 중대는 불안한 가운데 다음 명령을 대기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2) 제2중대의 분투

이상과 같이 왕터산의 제1중대가 마곡리 계곡으로 침공한 적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대대의 북서쪽 진지를 점령한 제2중대는 미사리(彌沙里) 계곡에서 대대 규모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동중대는 왕터산에서 남서쪽으로 1km쯤 떨어진 281고지에 OP를 선정하고 그 서쪽 사면의 W자형 능선에 3개 소대를 배치한 다음, 중앙의 제2소대에서 1개 분대를 뽑아 박암리의 도하지점인 속칭 "앞버댕이" 강변에 경계 분초로 추진하여 미사리 계곡을 중점 감시하던 중, 여기에서는 제1중대의 경우보다 1시간 뒤인 22 : 00에 접적이 있었다.

만일 적이 홍천강 대안을 LD로 선정하였다면 거리상으로 보아 제1중대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접적이 있었을 것이나, 이같이 지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지역 내의 홍천강은 수심이 더 깊은 강 하류라는 점과 도하 장비의 동원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이들은 강을 건너는 즉시 공격을 가하지 않고 22 : 00에 경계 분초와 교전이 있은 뒤로도 두 시간 가까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 때에 중대장 황태액(黃台益) 중위는 제1중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전상황과 중대 정면의 상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필시 저들은 교두보의 확보와 주력의 도하 추진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화기 소대장 조동현(曺東鉉) 소위를 불러 1km 전방의 나루터일대에 60mm 박격포 사격을 가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대대에 포격을 요청코자 전화기를 들었다.

바로 이 때에 대대의 작전장교 김학철(金學哲) 중위가 제1중대의 경계분초가 1시간 전에 전원 전사했다는 내용을 통보함과 아울러 제2중대의 분초는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왔다. 이에 중대장은 "22 : 00에 적이 강을 건너왔다."는 보고가 있은 뒤로 "분초와의 교신이 끊겨 버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강변 일대에 적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니 포격과 아울러 조명탄을 투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24 : 00가 가까워지면서 제2소대의 청음 초소에서 접적 신호가 오르고 뒤이어 체코식 기관총 사격과 함께 수류탄 폭음이 들려왔다. 그리고 중공군 특유의 피리와 나팔 소리에 탁탁 울리는 목판 소리까지 겹치면서 동 소대 지역에서 수류탄 폭음이 연발하고 또한 미사리 계곡으로 직면한 제3소대 지역에서도 기관총 사격이 연속되었다. 이때가 19일 0시 30분으로 교전이 시작된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적은 벌써 중대 정면의 거의 전 지역에서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특히 제2소대 지역에서는 치열한 수류탄 전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진지가 돌파되어 일부의 병사들이 281고지 남서쪽으로 몰리고 있었다.

이에 중대장은 150m 전방의 현지로 달려가 소대장에게 "다시 올라가서 막아라"고 엄명을 내렸으며 이때서야 정신을 차린 소대장은 32명의 소대원 가운데 겨우 2개 분대의 병력을 수습하여 중대 관측소가 위치한 281고지의 서쪽 능선으로 올라가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2소대는 여기에서 이제 죽기를 다짐하고 소지한 모든 실탄을 다 쏘아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중대 본부 요원들이 철모에 수류탄을 담아다 주면서 스스로 전투에 가담하는가 하면 하사관이나 장교들까지도 일개 소총수가 되어 힘을 모았다.

바로 이 무렵 중대의 좌일선 진지를 지키고 있던 제3소대가 소대장 임도

련(林道鍊) 소위의 지휘아래 미사리 개활지로 밀려드는 적은 저지하다가, 소대 지역에 배치된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제2반이 적의 수류탄 공격에 제압 당한 뒤로 밀어닥치는 공세에 밀려 559고지 서쪽 능선으로 분산 철수하기에 이르게 됨으로써 전황은 절망적이었다.

이렇게 되자 중대장 황태익 중위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 나머지 제2소대장 김정중(金正中) 소위에게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으니 함께 자결해 버리자"고 어이없는 제의를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소대장은 평소에 존경하던 고향 선배이자 직속 상관인 중대장의 강직한 성격을 익히 아는 까닭에 "기왕 죽을 바에는 끝까지 싸우다가 죽자"고 위로하며 수류탄을 집어들었다. 이와 같은 촌극은 지휘관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드러낸 한 단면이기는 하나, 당시 장병들의 책임의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결의가 바탕이 되어 분산된지 30분만에 큰 손실 없이 다시 병력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코 그 의지만으로써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이때에 적은 제1중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로를 타개한 뒤로 고지의 공격을 중지하고 오직 병력의 진출에 주력함으로써 중대는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획득하였고, 여기에 장병들의 불퇴전의 의지가 배합되어 초전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겨우 병력을 수습하였으나 적을 저지하지 못한 중대장은 불안과 초조 속에 현 상황을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별 명이 있을 때까지 현 진지를 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으며, 이로부터 미사리 계곡에도 차츰 총성이 멈추고 소강상태로 이어지다가 03 : 00이후에는 완전히 접적이 끊어져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한편 제3중대는 559고지 남쪽 사면의 6부 능선상에 2개 소대를 배치하고 이동군(李東君) 소위가 지휘하는 제1소대는 대대 관측소를 방호하도록 조치한 다음, 철야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전방의 제1, 제2중대의 경우와는 달리 접적이 거의 없었고 다만 장성배기(CS 715734) 동쪽 계곡으로 추진된 제3소대의 경계 분초가 송산리(松山里)쪽으로 내려가는 연대 규

모의 적을 확인할 뿐이었다.

결국 이 날 잠에 침공한 적은 홍천강을 도강한 뒤로 대대의 일선양개 중대를 공격하여 진로가 타개되자 중공군의 항용전법(恒用戰法) 그대로, 우회하여 전방 배치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우인접인 미 제7사단 정면에서 홍천강을 건넌 연대규모의 병력이 어느 사이 3km 후방의 장낙골까지 침투함으로써 전방 진지의 공격보다도 이를 견제(牽制)하는 정도에 그치고 오직 기동 전진에 주력하여 직접 용문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후로 대대지역에서는 접적없이 이날 잠을 보내게 되었지만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3) 대대장의 조치

이상과 같이 일선 양 중대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대대장 홍재익 대위는 연대장 송대후 중령에게 수시로 전황 보고와 아울러 포병의 지원과 항공 지원을 요청하고, 이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81mm 박격포 화력을 최대한으로 운용하여 일선 중대를 지원하였다. 특히 적의 도하 지점과 제1중대 정면의 마곡리 계곡에 화력의 우선권을 두고 도하 단계에서부터 집중사격을 가하였는데 이날 밤에 소모한 탄약이 무려 1,000발에 가까웠다. 81mm 박격포 6문을 보유한 대대장은 그 가운데 2문을 동 소대장 고기철(高基哲)소위로 하여금 제1중대 지역으로 추진케 하여 현지에서 "골안터"와 "떼네" 부근의 적의 집결지대에 집중사격을 가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4문은 중화기 중대장 정진수(鄭鎭秀) 중위에게 직접 지휘케 하여 559고지 남서쪽 계곡에서 대대를 일반 지원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19일 새벽까지 사격한 실탄이 고소위가 300발, 중대장이 650여발로 총950여발을 헤아렸으며, 그 중에는 100여발의 조명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1중대에 배속한 기관총 제1소대와 제2, 제3양 중대에 각각 1개반씩 배속한 제2소대의 경우도 기관총 1정당 5상자씩의 실탄을 소모하여

대대 정면의 화망 구성과 함께 일선 소총 중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렇듯 1개 중화기 중대가 하룻밤 사이에 이같이 많은 탄약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벤프리트 로드(Van Fleet Load)를 연상케 하거니와, 중공군이 5인당 1~2정씩의 소화기에 수류탄만을 들고 덤벼든 경우와 비교한다면 화력의 우세함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어떻든 대대장은 이와 같이 일선 중대를 지원하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였지만 적은 이미 측후방으로 침투, 통과하고 대대는 점차로 적중에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대대는 사단의 배속 포병인 제27포병대대와 증원포병인 미 제92포병대대가 용문산 남쪽 4km의 신점리(新店里)에 포진하고 있었지만 20,000m이상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포병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또한 추진포병인 린디·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Lindy Lue)도 명덕골(CS 612621)에서 사단을 일반지원하고 있었으나 이 또한 18,000m나 후방에 위치하여 사정 거리가 미치지 못함으로써 대대는 오직 자체의 화력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했다.

따라서 처음부터 포병 연락장교나 관측장교가 배치되지 않아 모든 긴급조치를 연대에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날 불순한 일기인데도 불구하고 미 극동 공군의 출격 횟수가 군단 정면에 24회를 기록하였지만, (미 제10군단 정면은 72회임) 대부분이 청평댐(Dam) 북쪽의 적 밀집지대와 청평호 대안에 우선권을 두게 됨으로써 대대 정면의 적이 도하 단계에서 집결하고 있을 때 이들을 공격하지 못한 점은 대대로서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며 각 중대장들에게 "별명이 있을 때까지 현 진지를 고수하라"고 강조한 다음 차후의 대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어느덧 날이 밝아 19일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날의 일출 시간은 05 : 22으로, 지난밤의 강우(降雨)는 멈추고 날씨는 청명하였으나 짙은 안개가 골짜기에 깔려서 시계가 매우 불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적의 행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 정보장교 김학구(金學求) 중위가 559고지에서 안개가 걷힌 사이로 남쪽 골짜기를 관측하다가 적 발견 신호를 보내와 확인하여보니, 대대 후방의 송산리와 미 제7사단 지역의 모곡리(牟谷里)쪽에서 2개 연대 규모의 중공군이 장낙산맥을 따라 남하하고 있었다. 이 곳은 연대 지휘소가 위치한 "마치고개"로 통하는 소로로서, 대대 후방의 4km 거리이며, 이제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에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기를 들자 연대에서도 이미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작전주임 이영배(李榮培) 대위가 대대장을 부르고 있었으며 이어 연대장이 전화로 직접 철수준비 명령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를 보면 차후진지는 나산(CS 710673) 이라는 점과 철수 시간은 공군의 근접 지원으로 퇴로를 타개한 직후가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철수 전에 박격포탄을 사격해버리고 신속히 기동할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대대는 철수 준비에 들어가 기동 계획을 준비하고 각 중대는 17일 동안에 걸쳐서 구축한 진지를 떠날 정리 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4) 축차진지의 점령

559고지 남사면의 제3중대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인 19일 06 : 00에 장낙골(CS 743920)에서 중대 규모의 적이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559고지를 향하여 공격을 감행해 왔다.

이에 중대는 즉시 전투태세로 전환하여 사격을 가했으며 특히 제1소대장 이동군 소위는 골짜기로 밀려드는 적에게 격심한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08 : 00가 되자 미 제5공군의 F-51 전폭기 1개 편대가 상공(上空)에 나타나 네이팜(Napalm)탄과 기총소사로 이 일대를 제압함에 따라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어서 날아온 또다른 1개 편대가 대대의 유일한 철수로인 송산리 부근과 홍천강의 도하지점을 강타하고 있을 무렵인 09 : 30에 연대 작전주임 이영배 대위로부터 대대 작전장교에게 "제1대대는 10 : 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송산리와 위곡리(位谷里)를 경유, 15 : 00까지 나산의 축차진지를 점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 홍재익 대위는 전투가 치열했던 제1중대를 선두로 하여 제2중대와 중화기 중대, 대대 본부, 제3중대 순으로 철수하도록 명령하는 동시에 제3중대장 김종해(金鐘海) 중위에게 "1개 소대를 잔류접촉분견대로 남겨, 후위로서 엄호하다가 주력이 송산리를 통과하면 신속히 후속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다음, 중대별로 즉시 시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어 대대장은 다시 용문산 후방에 있는 보급관 하태욱(河泰旭) 중위를 전화로 불러, "도중에 위곡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한 다음 연대에 철수 개시를 보고하였다.

이로부터 각 중대는 60mm 박격포탄 10여발과 기관총 실탄 5박스, 그리고 소총탄 1인당 10크립(80발) 정도의 탄약을 휴대하고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12 : 00에 첨병중대인 제1중대가 송산리 입구를 통과할 무렵 돌연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 무렵 적은 미 제5공군의 대지 공격으로 말미암아 장낙산(CS 723707) 골짜기로 잠입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대대의 철수 대열이 목전에 이르자 이를 와해시키려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 병력은 중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으나 불시에 기습을 당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되어 제1중대 제1소대와 제2중대 제3소대가 분산되고 철수 대열이 무너져 한때 혼란을 빚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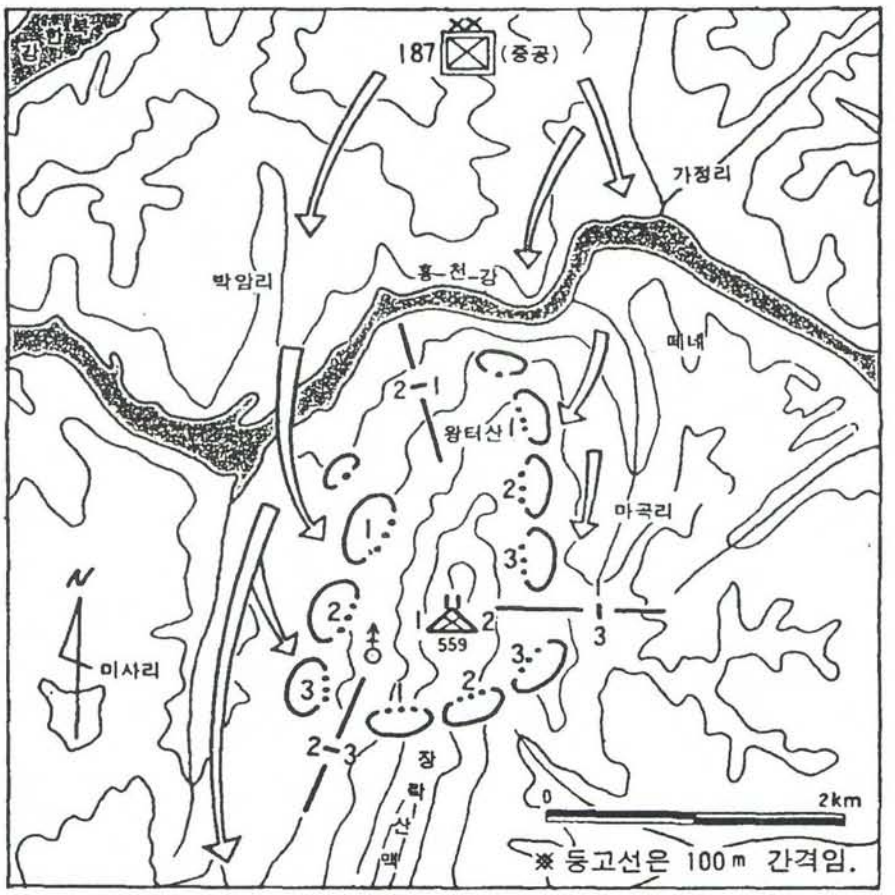
이에 대대장은 첨병 중대로 하여금 이 적을 견제케 하는 한편, 병력의 수습에 힘써 본대의 철수를 독려한 끝에 마침내 228고지를 넘어 위곡리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 때 작전주임 이영배 대위를 비롯한 본부 요원 10여명이 송산리 남쪽 1.2km의 "도곡" 다리 앞까지 나와 행군중인 장병들을 격려하며 나산으로 통하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결국 대대의 주력은 예정된 시간에 나산으로 올라가 진지를 점령하게 되었지만, 송산리에 남아있던 엄호 부대인 제1중대는 마지막으로 철수하면서 나산 정면의 "늑미재" 골짜기로 향하다가 500m 전방의 627고지에 잠복한

적으로부터 다시 기습 사격을 받아 또 한차례 교전을 치르고 예정된 시간보다 한시간 반이나 늦은 16 : 30에야 현지에 도착하였으며 송산리에서 분산된 2개 소대는 아직도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대대장은 현지에 당도하자마자 곧 진지편성에 착수하여, 나산을 중심으로 다시 전면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는데, 진지 작업은 여의치 못했다.

제1대대의 19일 상황



칼날과 같은 능선과 돌출부가 이어져 암석투성인데다 10km를 강행군으로 적진을 돌파한 장병들은 지쳐 있었으며 그것도 30시간 가까이 급식을 받지 못함으로써 어떤 병사는 아예 판초우의를 깔고 드러눕기도 하였다. 그 뒤로 20 : 00에 이르러서야 유중사(본명 미상)가 인솔한 20명의 노무대가 탄약과 주먹밥을 운반해 왔으나 수량이 매우 부족하였다. 그 까닭은 당초 50여명의 노무 대원이 탄약과 주먹밥을 짊어지고 전방으로 운반하다가 엄소리(嚴沼里) 부근에서 적의 사격을 받아 분산되는 바람에 반 수 이상을 잃고 말았으며, 겨우 20명을 수습한 유중사가 다시 위곡리로 향하던 중 "위육골"에서 제2대대장을 만나 그의 요구로 또 일부를 나누어주고 난 다음, 여기에서 대대장이 나산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현지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같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무렵 제2중대의 제3소대장 임도련(林道鍊) 소위가 소대원을 이끌고 복귀하였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송산리에서 분산된 뒤로 북한강 강변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진로를 잘못 잡아 제2대대 진지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다시 동 대대의 철수 대열에 끼어 남진한 끝에 중대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1중대 제1소대와 일부의 분산 병력을 복귀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상황아래 대대는 다시 나산의 축차진지에서 연대와 통신을 유지하고 야간전투에 대비하기에 이르렀다.

5. 제2대대의 지연전

제1대대가 18일 18 : 00부터 미사리의 최초진지에서 지연전을 전개한 경우와는 달리, 제2대대는 이보다 5시간 뒤인 18일 23 : 00에야 진전에 적이 나타났다.

이미 제2장 제3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제2대대는 대대장 김덕복(金德福) 소령의 지휘아래 청평강 남안의 울업산(CS 679724)을 중심으로 대대 전면방어진지를 편성하여 연대의 좌일선 진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곳은

천연 장애물인 청평강이 평균 5m의 수심에 800m의 강폭으로 가로질러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적의 진출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1) 진전 도하의 거부

서신(徐信)이 이끄는 중공 제187사단이 제1대대 정면의홍천강 북안에서 도하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인 18일 08 : 00에 장영휘(張英輝)가 지휘하는 제188사단도 역시 청평강 북쪽의 제2대대 진전에서 강을 건너려고 120mm 박격포와 10여문의 야포로서 엄호사격을 가하면서 나룻배를 띄웠다. 그러나 대대의 81mm 박격포를 비롯한 기관총과 3.5″로켓포 등 전 화력이 여기에 집중되고 또한 적 출현 보고에 따라 지원된 미 제5공군의 F-51 전폭기 편대들이 청평강 북안의 고성리(高城里)와 호명리(虎鳴里)는 물론, 제2사단 정면의 청평 일대에 이르기까지 10여회에 걸친 대지공격을 가하였으며, 특히 공군기들은 적들이 수집한 나룻배까지 모조리 파괴함으로써 도하수단을 잃고 말았다.

따라서 이들은 유일한 기동로인 청평댐 제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도 격심한 타격을 받으면서 건너야했고, 강을 건넌 직후에도 다시 제2사단의 경계부대인 제31연대의 저항에 부딪쳐 이날 12 : 00에 이르러서야 그 선두가 회곡리(檜谷里 : CS 635727)에 다다랐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동 연대의 제1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어 13 : 00에는 527고지(CS 621733)의 백병전으로까지 격전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이날 주간에는 제2연대 방어지대에 발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 후 병력을 계속 증강한 적은 다시 제2사단의 경계부대에 압력을 가하여 동 연대가 22 : 00에 곡달산(鵠達山)-화야산(禾也山)간의 "배치고개" 부근으로 철수하게 됨에 따라 마침내 제2연대 제2대대의 서측방인 신천리(新川里)로 진출하게 되었으며, 이 사실을 확인한 제5중대의 경계 분초가 접적 신호를 올린 것은 23 : 00가 다된 깊은 밤이었다.

대대는 2주 동안에 걸친 진지 작업으로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대장의 착상으로 대대를 결사 부대라 명명하여 장병 모두가 저마다 철모에 "결사"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이 진지를 사수키로 다짐했던 만큼 각자가 이미 계획된 사격구역에서 사격개시 신호가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때 대대는 최초 임무가 적의 도하작전을 거부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제7중대를 청평강 남안에 배치하고, 제5중대와 제6중대는 394번 도로에 직면한 남향 진지를 편성케하여 화력의 중점을 강북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적이 이제 측후방으로 침투하고 보니, 대대의 방어진지는 남으로 지향한 배수진으로 변하였으며, 이때부터 사격 방향도 남쪽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중화기 중대장 송병희(宋炳熙) 대위에게 강안으로 지향한 포구를 남으로 돌려 신천리 상공에 81mm 박격포 조명탄을 발사토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포병 연락장교 하태환(河泰煥) 소위를 불러 속히 포격을 요청하도록 독촉하고, 한편으로 192고지(CS 684706)에 위치한 제5중대장 지석우(池錫祐) 대위에게는 "현 진지를 사수해야 한다"고 서릿발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제5중대의 진지가 개활지로 직면한 길목이기 때문에 요지이기도 하려니와, 만일 적이 이곳을 통과한다면 대대가 적중에 고립될 우려가 있을 까닭에 평소부터 대대장은 이곳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적의 선두가 "사근내 다리"를 건너 제5중대 정면으로 밀려들자, 산야를 밝힌 조명아래 미리 계획된 최후저지사격으로 통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린디·루 포병의 지원사격이 시작되어 적의 후속 부대를 강타함으로써, 일순간에 신천리 일대가 초연에 뒤덮이고 말았다.

그런데 적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한차례 교전이 있을 뒤에 점차로 접촉을 단절하고 물러서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간단없는 포격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24 : 00를 넘어서게 되었으나 적은 자취를 감추고 다시 나타나지 않아 그 행방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만일 저들이 진로를 바꾸어 남쪽으로 직행하였다면, 곡달산 동쪽에서 제

2사단의 저지를 받거나 제2연대의 제3대대가 점령중인 353고지에서 교전이 예상되나, 이후에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15km가 넘는 험로를 뚫고, 그것도 거듭되는 타격을 받으면서 진출한 나머지 휴식과 재편성 상태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대를 포위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중대는 초 긴장리에 이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대대장은 울업산 신선봉(神仙峰)의 대대 관측소에서 각 중대장들에게 "사격 통제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한 진지가 폭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와 함께 차후 지휘소는 이미 계획한 대로 219고지(CS 687707)로 옮긴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특히 강변 진지를 담당한 제7중대장 윤희철(尹熙澈) 중위에게는 "계속 적의 도하 여부를 감시하라"고 강조한 다음 고지에서 내려왔다.

당초에 암석투성이인 울업산 신성봉에다 대대 관측소를 선정한 것은 대대의 최초 임무가 적의 도하를 저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부근 일대를 감제하는 제일 높은 고지인 신선봉에다 선정하였으나 이제 적의 공격 방향이 전환되고 보니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관측소는 대대 전면방어 진지의 중앙에 있는 219고지 정상에 설치됨으로써 각 중대가 500m 안팎에 배치되어 작전 지휘가 용이하고 화력 운용에 적절한 곳이었으며, 송산리에서 대대 방어지역에 이르는 접근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요지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다음날 03 : 30에 관측소를 이동한 대대는 제7중대의 제1소대를 송산리 정면으로 재배치시켜 남쪽으로 지향한 방어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2) 3 간의 주간전투

이와 같이 제2대대가 방어태세를 재조정하는 동안, 청평강 부근과 신천리 일대에는 조명탄이 계속 떠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제1소대의 병력을 송산 부락 남쪽으로 조정 배치한 제7중대가 마지막으로 한 척 밖에 남지 않

은 감시용 나룻배를 175고지 북쪽 개울 골짜기까지 끌어올리고 있던 04 : 00까지도 적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듯 침묵을 지키던 적은 이윽고 04 : 30에 이르러 재공격을 감행해왔다. 미원천(美元川) 제방으로 추진 배치한 제5중대의 청음초소에서 접적 신호가 오르고, 이어 중대 규모의 적이 미원천을 건너고 있다는 보고가 뒤따랐으며, 그 뒤로 차츰 날이 밝아지면서 500m 전방의 사근내 개활지에 대대 규모의 적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그들은 피리와 나팔을 불어대며 평소에 보기 드문 여명 공격을 감행하여 왔으며 특히 제5중대 제2소대 지역인 "신포 부락"부근으로 500여 명의 적이 집중하였다.

이때 대대는 적절한 사격통제를 가해 적의 집단 병력이 개활지에 나타나자 주로 60mm와 81mm 박격포에 의한 제압사격을 가하였으며, 이들이 다시 미원천을 넘어서면서부터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이동걸(李東傑) 소위가 지휘하는 기관총 소대의 중기관총을 비롯한 대대의 모든 화가가 동시에 불을 뿜어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무수히 쓰러지면서도 계속 밀려들어 수류탄을 연속 투척함으로써 마침내 돌출 능선(신포부락 남쪽 200m)의 기관총 진지가 폭파되고 이어 제2소대 진지가 끝내 돌파되어 192고지에서는 백병전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중대장 지석우 대위는 적의 배후인 신포부락 일대에 60mm 박격포 사격을 집중토록 하는 한편 제3소대로 하여금 측방에서 이를 역습토록 하였다. 제3소대장 함세영(咸世永) 소위가 소대원을 이끌고 192고지로 뛰어올라 함성을 지르면서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적은 당황하여 물러서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제1소대 정면의 적도 한양부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2소대장이 포로 2명을 끌고 중대 관측소로 올라왔다. 이를 본 중대장은 "즉시 소대 지역으로 내려가 진지를 재편성하라"고 크게 꾸짖었으며, 이 순간에도 중대의 모든 화기는 숨돌릴 사이 없이 도주하고 있는 적을 향해 불을 뿜어대고 있었다.

이 교전에서도 화기 소대의 60mm 박격포와 대대 81mm 박격포는 큰 위

력을 발휘하여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제5중대가 신천리에서 적을 물리치고 있는 동안, 255고지의 제6중대 지역에서도 수류탄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 적은 제1대대 지역을 통과한 중공 제187사단의 선두 부대로서, 지난 밤에 미사리 계곡을 지나 송산리 고개를 넘어선 다음 송산(松山)과 창촌(倉村)간의 중대지역으로 접근하다가 여기에서 아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교전 초기에 적의 병력규모가 1,000 여명을 헤아려 중대는 크게 당황한 바 있었으나 전투가 시작된 지 30분만에 UN 공군의 F-51 전투기 편대가 이들을 강타함으로써 이에 고무된 중대의 장병들이 용기백배하여 분투한 끝에 이를 물리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공군은 진로의 타개에 주력하는 듯, 보다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고 장낙산쪽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으며, 그 후속 부대도 송산리 고개를 넘어서다가 중대의 집중사격을 받게되자 이 역시 진로를 바꾸어 남동쪽의 장낙산 계곡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결국 이들은 강변에 배치된 제2대대를 공격하기보다는 대대를 고착, 견제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들 주력의 남진을 엄호하는 듯 하였으며, 09 : 30에 제5중대 지역의 148고지(CS 678708) 전방에서도 또 한 차례 공격을 시도하다가 스스로 물러선 점 등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적의 기도를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대대는 전면 방어 태세로 진지를 편성한데 힘입어 일단 이 진지를 고수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적의 주력이 이 시간 현재에도 계속 남쪽으로 전진함에 따라 점차로 적중에 고립되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대장은 제2대대의 지연전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속 현진지를 확보토록 강조하였으며, 특히 미사리의 제1대대가 철수하기 시작한 10 : 00 이후에는 이를 엄호하라는 임무까지 추가되었다.

이로부터 접촉선이 차츰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제3대대가 배치된 353고지

(CS 683677)에서 사격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좌인접인 제2사단 정면의 곡달산 계곡에서도 포성과 총성이 연속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 무렵 제2사단은 제31연대가 철수한 뒤로 이날 08 : 00에 역습을 개시하여 한무재(CS 659674)를 목표로 공격한 끝에 곡달산 계곡까지 장악함으로써 제2연대의 지연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 두 계곡은 모두 용문산으로 이어지는 가장 가까운 접근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의 기도는 분명히 용문산을 목표로 지향되고 있음이 확연해졌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방에 남게된 제2연대 제2대대는 차츰 접적이 끊어지고 끝내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3) 지원 부대의 활동

이상과 같이 제2대대가 지연전을 전개하는 동안, 미 제5공군의 근접지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져, 08 : 00부터 18 : 00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다.

군단 정면에 무려 52회의 출격으로 공지협동작전의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특히 적의 밀집 지대인 신천리 계곡을 비롯한 곡달산 계곡과 창의리(倉宜里) 일대는 물론, 송산(松山)과 도곡(道谷) 등 적의 출몰지역을 모조리 휩쓸어 제1대대의 철수로를 타개해 주고 적의 증원부대가 집결중인 청평 일대를 불바다로 만드는 동시에 그 보급 수단까지 끊고 말았다.

이는 실로 통쾌무비한 장면으로서,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중공군에게는 결정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제1대대가 무사히 나산(羅山)까지 철수하고 제2대대는 송산리 정면의 적을 격퇴할 수 있었으며 이와 아울러 적의 주간 행동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그 예기를 꺾어놓고 말았던 것이다.

군단의 특수임무부대인 린디 · 루(Lyndy · Luo) 포병 대대 또한 이 무렵에 최대의 화력을 발휘하여, 주로 용문산의 접근로인 창의리와 신천리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 105mm 1개 포대와 155mm 2개 포대로 구성된

동 대대가 효력사를 가하는 위력은 마치 산허리를 도려내는 듯, 신천리 일대의 적을 완전히 제압하였다. 당초에 동 대대는 사단의 배속 포병인 제27대대의 1개 포대와 증원포병인 미 제92야포 대대의 1개 포대 및 동 제987자주포 대대의 1개 포대 등 3개 포대로 편성하여, 군단 포병의 사정거리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계부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주진지 전방의 외수입(CS 572672)까지 추진된 바 있었다. 여기에서 미 제24사단 예하의 보병 1개 대대가 엄호하는 가운데 주로 제2사단과 제6사단의 경계부대를 지원하다가 이날 제2연대가 홀로 전초진지를 고수하게 되자 집중적으로 연대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동 대대는 적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에 제31연대가 철수함에 따라 포진지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자 외수입에서 그 남동쪽의 명덕골(CS 610621)로 진지를 이동하여 스스로 방호 태세를 취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계속하였다.

이날 하루 동안에 통상가용량의 3배가 넘는 포탄을 사격함으로써 뜨거워진 포열을 물을 떠다 냉각시켜야 했고, 포의 가신(架身)이 땅에 박힌채 빠지지 않아 애를 먹기도 하였다.

당시의 포대장 장덕랑(張德琅) 대위는 후에 증언하기를 "나의 군인생활 가운데 이렇게 장쾌하고 치열한 사격전을 실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술회한 점으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이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아군의 맹렬한 포격과 공군의 효과적인 근접지원으로 말미암아 적은 공격을 중지하고 엄폐된 장소를 찾아 피신하기에 정신이 없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2대대 장병들은 참호속에서 12시간을 지탱한 지루함을 이기지 못하여 한두 명씩 호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아군의 낙오탄이 제5중대 지역에 낙하하여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를 목격한 중대장 지석우 대위는 관측장교를 쏘아 죽이겠다며, 대대 관측소로 뛰어 올라가는가 하면 대대장도 이 사실을 알고, 하태환 소위(당

시에는 보병대대에 포병 연락장교 겸 관측장교로 1명이 파견되었음)를 불러 꾸짖은 다음 참모들에게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하였다.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가열된 포신과 포가의 변형된 위치 때문에 발생한 낙오탄으로 확인되었으나, 교전 상황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고 하여 병사들의 노출된 행동을 단속치 않았던 소대장이나 중대장의 잘못도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격동 속에서 적이 돌연 행방을 감추자 포병은 차츰 요란사격으로 전환하고, 대대에서도 일부 진지의 조정과 아울러 연대에 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날 12 : 30에 미군 수송기편에 10여 개의 보급품이 투하되었는데, 풍향 때문인지 이중에서 2개만 대대진지 주변에 낙하하고, 나머지는 모두 강물 속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연대와 대대간의 유선 통신망도 이날의 포격으로 말미암아 끊기고 말았다. 5월 초순에 연대의 통신장교 김치봉(金致鳳) 중위가 "마치고개"에서 "울업산"까지 150-200m 간격으로 2회선을 매설한 바 있었는데, 이 일대가 모두 적의 활동지역이 되고 보니 포격이 집중되어 그 직격탄에 맞아 절단됨으로써 대대에서는 부득이 SCR 694에 의한 무선통신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연대에서도 유선회복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대대는 제1대대의 경우와는 달리 포병과 공군의 입체적 지원하에 전면방어태세로 완강히 버티면서 적을 물리친 끝에 진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전방의 철수부대를 엄호할 수 있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적이 대대의 측방을 통과하여 남쪽으로 침투한 후 아직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으니, 연대의 차후명령을 고대하는 실정이었으며 더구나 적이 접촉을 끊고 울창한 삼림지대로 숨어든 위치가 3km 내외의 거리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차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무렵, 제7중대의 제1소대 지역인 송산부락 북쪽 하천선에서 돌연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까닭은 동 소대진지 전방의 177고지에서 정체불명의 병력이 불시에 나타나 강변으로 뛰어내리자 부지불식간에 사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소대장 박상호(朴商浩) 소위가 피아간의 총성이 M-1 소총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곧 사격 중지명령을 내려 확인한 끝에 제1대대 제2중대의 낙오병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뒤로 대대는 특별한 상황이 없이 계속 진지를 확보하고 있다가 제1대대가 철수한 직후인 17 : 00에 통신통(通信筒)에 의한 철수 명령을 수령하였다.

(4) 247고지로

이 명령은 사단의 L-19 정찰기에 의하여 통신통에 담아 대대 지휘소 부근에 투하되었는데, 대대 작전장교 도회방(都會邦) 중위가 회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이동 목표와 철수 경로 등을 투명도에 그려 하달된 약식 명령이었다.

즉, 19일 18 : 00에 철수를 개시하여 위육골과 마치고개를 경유, 동일 21 : 00까지 427고지(CS 707643)로 철수, 신진지를 편성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곧 각 중대장들에게 동시청취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철수명령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제7중대를 선두로 병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통신통을 투하했던 L-19 정찰기는 대대 진지의 상공을 선회하다가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위육골 계곡을 오르내리면서 철수로 주변은 정찰하는 듯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린디·루 포병은 포격을 증가하여 적의 잠복 지대로 예상되는 신천리 일대에 집중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 하에 제7중대의 뒤를 이어 중화기 중대와 대대 본부 그리고 제5중대 및 제6중대 순으로 속속 진지를 이탈한 대대는 적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신속한 기동으로 철수하던 중, 첨병중대인 제7중대가 창의리를 지나 위육골로 접어 들 무렵에 그 남동쪽 400m 지점의 향원사 입구에서 중공군 특유의 외투복 차림을 한 5-6명의 적을 발견하였다. 이에 중대는 곧 60mm 박격포로 일격을 가하자 이들은 응사도 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그 뒤로 F-51 전폭기 1개 편대가 나타나 신천리와 엄소리(嚴沼里)간의 산간 소로 일대에 기총소사를 가하여 철수로의 서측방을 엄호하는 가운데 계속 기동한 대대는 일몰 무렵인 19 : 30에 마치고개를 넘고, 다시 "활골"을 지나 예정 시간보다 40분 뒤인 21 : 40에 목적지에 당도하여 427고지를 점령하였다.

기동간에 대대의 장병들은 도로 주변에서 아군의 포탄에 의해 폭사한 것으로 보이는 적의 두개골과 핏자국 등을 도처에서 목격하였는데, 그 혈흔이 위육골 골짜기까지 미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적은 이미 제3대대 진지 부근까지 침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들이 버린 신발이나 깡통, 보릿가루 등에 一八八이라는 숫자가 보이는 것은 그 소속의 단대호인 것으로 추측되었다.

이렇듯 적은 섣불리 주간 공격을 전개하다가 큰 피해를 입고 일단 물러섰지만 그들의 항용 수법인 야간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축차진지를 점령한 대대는 이제 427 고지에서 새로운 진지를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지대내에는 용문산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접근로인 두 줄기 소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 또한 해발 고도에 비하여 산세가 험준하고 계곡이 깊은데다 북동쪽의 나산과 북서쪽의 353 고지가 양 날개처럼 뻗쳐 있어, 이곳은 피아간 공방에 요지가 되는 곳이었다.

따라서 대대는 목전에 다가온 새로운 전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진지 작업을 서둘러야 하였고 부족한 실탄의 절약과 사격통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그러나 28시간 동안을(18일 18 : 00-19일 22 : 00) 건빵 한두 봉지로 허기를 메운 병사들은 지쳐 있는 데다, 날이 저물자 일부의 병사들은 진지 작업에 앞서 대검을 빼들고 잣나무 껍질을 벗겨 목을 축이기도 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소대장이나 중대장들은 "이 이상 철수가 불가능하니 죽지 않으려면 호를 파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다.

(5) 연대장의 조치

이상과 같이 제일선의 2개 대대가 최초 진지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지연전을 펴면서 축차진지로 철수하는 과정에서 연대장 송대후 중령은 부대를 강력히 통제, 지휘하였다. 18일 밤을 철야로 새우면서 자신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전황을 확인하는가 하면 현 진지를 사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는 목이 쉬어가고 있었으며, 또한 사단 화력지원과 보급추진을 요청하고 차후 대책을 협의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결과로 병력의 손신이 없이 양 대대를 적시에 축차진지로 철수시키는데 성공하였으며 아울러 초전에 적의 예기를 꺾어놓고 말았다. 그리고 일선 양 대대의 철수와 더불어 연대의 지휘소도 위육골에서 "마치고개"로 이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그는 연대 참모들을 수시로 제일선에 파견하여 철수 부대의 진입로를 안내케 하고 적정을 통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생사를 함께 한다고 격려하였다.

그 후 "마치고개"로 이동하여 다시 사단과 통신을 유지한 19일 11 : 30에 사단 작전참모 박창원(朴昌源) 중령과 제2대대의 철수문제를 협의하고 있을 때, 사단장 장도영 준장이 직접 전화기를 받아들고 연대장을 불렀다.

사단장 : 2연대장, 송중령!
연대장 : 네, "마치고개"에 있습니다.
사단장 : 끝까지 진지를 사수해야 한다.
연대장 : 네, 알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사단장 : 최대한으로 지원할테니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
연대장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군수참모 황필주(黃弼周) 중령이 "야! 송중령! 동기생 좋다는 게 뭐냐. 공수 보급할 테니 대공포판을 깔아놓고 신호탄을 터뜨려라"라고 제3기 동기생으로서 우정어린 격려와 함께 최선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대체로 사단의 분위기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으며 모든 시선이 제2연대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제1대대가 나산으로 철수완료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동 대대장 홍재익 대위와 353 고지의 제3대대장 김두일 대위를 전화로 연결하여 "울업산의 제2대대가 철수하고 나면 적의 야간 공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현 진지를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연대에 배속된 사단 수색 중대장 박노영 대위에게는 제2대대의 철수병력이 마치고개를 통과하면 신속히 427고지 남쪽의 "왕방이"로 이동하여 차후 지휘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하는 등 축차진지의 점령에 따른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날 18 : 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제2대대가 "마치고개"를 넘어서자 연대장은 다시 동 대대가 점령 예정인 427고지 남쪽의 "왕방이"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설하고 야간 전투에 대비토록 독려하였다.

6. 353고지의 혈투

이상과 같이 제일선의 제1, 제2, 양 대대가 철수함에 따라 청평호(淸平湖)에서 남쪽으로 6km 떨어진 353고지의 제3대대가 이제 연대의 좌일선이 되고, 그 동쪽 3km의 나산으로 철수한 제1대대가 또다시 우일선이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울업산을 떠난 제2대대는 이 양 대대 진지간의 계곡을 막아선 427고지로 철수하여 3.5km 후방에서 새로운 진지를 편성함으로써 연대는 다시 대대 단위로 V자형 거점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요도 제8호 참조)

그런데 이 가운데 353고지의 제3대대는 직전방의 제2대대가 18일 밤부터 중공 제188사단과 일주야에 걸친 교전을 치른 뒤, 19일 18 : 00에 후방으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당장 이 적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으며, 그것도 이들이 지금 목전의 신천리(新川里)와 곡달산(鵠達山) 일대에 수림을 등지고 잠복한 상태이고 보니 일촉즉발의 초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더구나 이 353고지는 직후방의 427고지와 묵안리(墨安里), 그리고 "갈고개"를 넘어 용문산으로 직행하는 두 줄기 접근로를 양 측방에 끼고 타원형

으로 높이 솟아올라 사면을 감제하는 주요 고지인 까닭에 적의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특히 적이 19일 주간에 접촉을 끊은 뒤로 19 : 00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야간 공격이 있으리라는 것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1) 제3대대의 전투 태세

이에 제3대대장 김두일(金斗逸) 대위는 적의 동향을 예의 경계하면서 야간전투 태세로 서서히 전환하고 있었으며, 예하의 각 중대로 하여금 청음초와 국지경계조를 추진 배치토록 하는 동시에, 이미 마련한 내외곽 진지에 화력과 병력을 조정 배치토록 하고 또한 행정요원을 포함한 노무자까지도 진지에 투입하여 총력전을 전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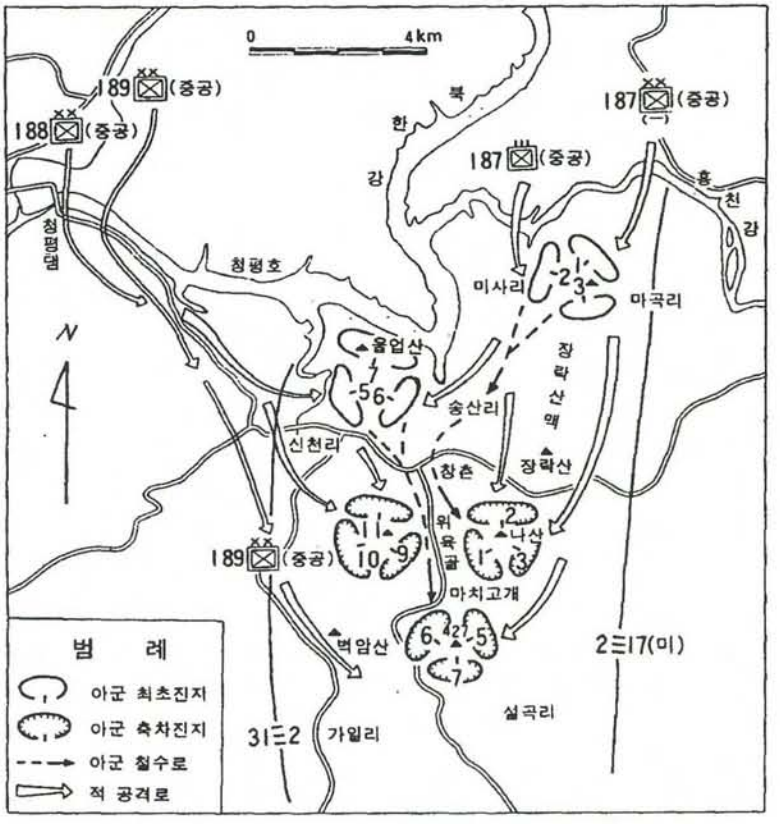
대대는 여기에서 사실상 용문산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일대의 격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작전에 대비한 대대의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병력과 화력의 배치 문제로서 353고지를 중심으로 하여 제11중대를 동, 제10중대를 서, 제9중대를 남으로 한 대대 전면방어 태세를 취하였으며, 각 중대는 600-700m 정면의 외곽에 2개 소대를 배치하고 1개 소대는 그 500m 후방의 내곽에 배치토록 하는 동시에 60mm 박격포는 중대 관측소 정상에서 100m 전방까지 고각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그리고 81mm 박격포는 353고지의 남서쪽 계곡과 고지 반사면 등 두 곳에 포진지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기관총은 모두 반별로 외곽의 소총소대에 배속시켰다.

둘째는, 입사호와 교통호의 구축 형태로서, 2인용 입사호를 1.5m 깊이로 파올려 위장을 철저히 하되, 교통호와 연결 방향은 반드시 전방으로 향해 이어져 야간전투에 대비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사격 통제를 철저히 하여 중대장이 3.5″로켓포로 사격개시신호를 올릴 때까지 일체의 사격을 금하도록 통제하였고,

제2연대의 축차진지의 점령상황



넷째로 각 중대마다 나팔수 1명씩을 배치하여 전투간에 계속 나팔을 불어 중대원의 전의를 고취(鼓吹)토록 할 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통상 수법인 돌격간의 나팔 소리에 맞서서 함께 불어대여 혼란을 야기하도록 교육시켰다.

그리고 다섯째는 각 중대에 2명 1개조의 정훈조를 고정 파견하여, 평소에는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 보고토록 하는 한편 일단 교전이 벌어지면 전우를 격려하고 지휘관의 의도를 전파하여 전투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훈련시켰다.

이와 같은 사항은 대체로 연대나 사단에서 지시한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각 대대가 다같이 시행하고 있었지만, 제3대대의 경우에는 지형과 대대의 실정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였다는 점과, 특히 독창적인 나팔수의 활용 문제나 호 구축 방안 등 세부 사항까지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기필코 이 고지를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었던 것이다.

(2) 적의 파상 공격

이와 같이 대대는 이미 계획되고 훈련된 상태에서 즉각 전투태세로 돌입하여 적의 동향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던 중, 19 : 30에 좌인접인 제2사단 지역에서 먼저 교전이 벌어졌다.

즉, 동 사단의 제31연대는 통방산(650고지) 북쪽의 "하우재 고개"에서 일몰(日沒)과 더불어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니, 이곳은 대대 진지 남서쪽 3km의 측후방으로서 이제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듯 하였다.

그런데 바로 이 무렵, 대대의 취사장이 혼란 속에 휘말렸다. 저녁식사가 끝난 뒤로 대대 보급관 안청호(安晴護) 소위를 비롯한 보급계통의 사병들과 30여명의 노무자들이 그 뒷정리를 하고 있던 중, 제2사단 지역에서 침투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소대 규모의 적이 불시에 기습함으로써 3명의 병사가 현지에서 쓰러지고 노무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일시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는 적이 흔히 후방 교란을 책동할 목적으로 사전에 침투시킨 소수의 병력으로 판단되어, 이를 간파한 대대장은 안소위에게 "즉시 취사장을 폐쇄하여 용문산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식사는 별도로 준비하여 추진토록 할 것이니, 남은 병력과 노무자를 인솔하고 올라와 지정된 진지를 점령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이 시간 이후에는 엄소리(嚴沼里)의 취사장 부근에 단 한사람의 병력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대대장은 이 같은 사실을 연대에 보고하는 한편, 예하의 각 중대장에게 적이 목전에 다다랐음을 경고하고, 현 진지의 사수를 거듭 강조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어느덧 20 : 00를 넘어서자 산간 계곡에는 성큼 어두움이 깔리고 대대의 취사병과 후방의 보급 추진 병력들을 기습했던 적도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로부터 더욱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 : 30에 이르자 제10중대의 경계분초가 추진된 224고지(CS 666684)에서 최초로 적 출현신호가 오르고, 이어서 각 분대장으로부터 TS-10전화기로 보고하기를 "적의 기마병이 계곡을 따라 속속 남하하고 있으며 보병은 중대 정면으로 새까맣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날은 음력 4월 14일로 월광이 밝은데다 조명탄이 계속 투하됨으로써 적은 은밀한 접근을 꾀하는 듯 쉽사리 진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침내 22 : 00를 전후하여 제10중대의 제1, 제2 양 소대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접적 신호가 오르고 다시 5분도 채 못되어 수류탄 폭음이 연발하였다.

50m 전방까지 적을 접근시켜 진전에서 섬멸키로 한 대대장의 사격통제는 어두움을 틈탄 적의 돌연한 출현과 수류탄 공격으로 말미암아 최초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이로부터 중대는 3.5″로켓포 1발에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화력 동시집중의 효과를 높이고, 여기에 수류탄 투척과 측방의 기관총 사격이 종횡(縱橫)으로 전방을 제압함으로써 적은 무수히 쓰러져 갔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인해전술이라고 하는 소모전(소모전)을 서슴지 않고 강행하여, 소총도 없이 방망이 수류탄만 휴대한 소위 수류탄 공격조를 앞에 몰아 세우고 빨간 완장(腕章)을 두른 독전대가 전진을 강요함으로써 이후 30분 동안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에 적의 시체가 눈더미처럼 불어만 갔다.

이 과정에서 중대의 장병들이 효과적으로 실시한 사격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반복되었다. 즉 한사람의 분대원이 수류탄을 던질 때마다 그 폭발과 때를 같이 하여 분대의 소총수와 자동소총수가 동일한 방

향으로 일시에 화력을 집중시키면 적은 쓰러지거나 공포에 질려 도주하는 반면에 아군은 공포심을 억제하고 사기를 되찾아 전투의지를 불러 일으켰고, 이 같은 타격방향이 좌우로 반복될 때마다 적은 더욱 의자가 꺾이어 마침내 무수한 시체만을 남긴 채 퇴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적은 포병 화력이 미약한 반면에 대대의 60mm와 81mm 박격포는 100m 직전방까지 고각사격을 실시하고 또한 사단과 군간의 포병들도 이제 사정 내에 들어온 엄소리와 방일리(訪逸里)일대의 적의 밀집 지대에 집중 포격을 가함으로써 2중, 3중으로 맹렬한 타격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적의 공격도 집요하여 수류탄 공격조가 물러선 지 20여분이 지난 22 : 50에 그 제2파인 다발총 사격조가 다시 침투하였다.

이번에는 중대의 외곽 소대 지역을 전면에서 에워싸고 일제히 연속 사격을 가하면서 진전으로 육박하여 주로 화기진지에 방망이 수류탄 공격을 가해올 뿐만 아니라 소총사격을 집중하는 등, 중대의 자동화력을 제압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치열한 사격전이 전개되었는데, 아무리 격멸해도 숫자상으로 우세한 적은 무섭게 밀려들어 마침내 제1소대의 진지 일부가 무너지고 동 제1분대장 손기섭(孫基燮) 하사와 자동소총 사수 김선중(金善中) 병장이 전사하는가 하면, 잇달아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 때에 제3소대 진지 좌하단에서 이를 지원하던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제1소대장 박원종(朴源鐘) 소위가 사격을 지휘하다 적탄에 쓰러지게 되었으며, 이를 목격한 기관총 사수 계광순(桂光淳) 병장이 사격을 멈추고 소대장을 부축하려고 하자 소대장은 "나를 내버려두고 사격을 계속하라"고 외쳤다. 이에 분개한 계병장은 다시 기관총을 움켜잡고 20분 동안에 걸쳐 치열한 사격을 가했다.

이에 고무된 소대원들이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분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적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이 전공으로 계병장은 전투 후에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박소위는 끝내 현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소대원들은 적이 맹목적으로 휘두르는 사격과 수류탄 투척의 명중도가 10%도 못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입사호에 의지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는데 이 때부터 소대원들은 심리적으로 적의 수적 위력에 압도되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제2소대의 경우도 같았으며 이 양 소대가 다 같이 상당한 병력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때에 중대장 최영운(崔永雲) 중위는 양 소대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자 "호 밖으로 뛰어 나오면 적에게 발각될 우려가 있으니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다음, 대대장에게 이상 더 현 진지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보고와 함께 병력의 철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대대장 김 두일 대위는 "날이 밝을 때까지 현 진지를 사수해야 한다"고 엄명을 내리는 동시에 "반드시 적의 재공격이 있을 것이니 당장 그에 대비 할 것과 이제부터는 실탄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에는 대대장으로서도 사실상 사수 이외에는 다른 묘책이 있을 수 없었다. 그것은 23 : 00를 전후하여 북동쪽의 제11중대가 또 다른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이 시간 현재 격전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일방의 병력을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하였고, 또한 현 진지의 철수는 곧 자멸(自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으며, 만일 돌파구가 생기더라도 이를 막아내는 길은 오직 내곽으로 진지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제11중대장 이복우(李福雨) 중위에게도 현 진지의 사수를 거듭 강조하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후 약 50분 뒤인 23 : 40에 이르러 적의 제3파(弟三波)인 장총돌격대가 또 다시 제10중대의 정면으로 공격해 왔다.

이번에는 돌격 나팔을 불어대면서 진지 전방 10-20m의 거리까지 육박하여 돌격 사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겹겹이 진내(陣內)로 밀려들면서 총검으로 마구 산병호 속을 찔러대니 수류탄 투척으로 맞서오던 병사들도 마침내 겁에 질려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 중대와 대대의 관측소 쪽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제2소대장 이민철(李敏哲) 소위는 "참호를 지켜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대를 지휘하다가 위치가 폭로되어 적의 총검에 전사하고 제1소대장 이흥길(李興吉) 소위도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 "진지를 사수하라"고

외치다가 적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이로부터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비명과 폭음이 뒤섞였다.

이와 같은 혼전 속에 적도 엄청난 피해를 당했으나 인적인 수효만을 유일한 무기로 삼은 적은 아랑곳없이 계속 돌진해 왔다. 이렇듯 상황이 급전하자 중대장 최영운 중위도 엉겁결에 수습할 방도를 잃어버리고 중대의 주력을 현지에 남겨 놓은 채 일부의 밀리는 병사들 틈에 섞이어 300m 후방의 대대 관측소로 올라갔다.

이를 지켜본 대대장은 준엄한 질책(叱責)과 함께 "즉시 중대로 돌아가 병력을 수습하라"고 대갈 하였으며, 이때에야 비로소 정신을 되찾은 중대장은 자책감을 느낀 나머지 전령을 대동하고 다시 중대의 관측소로 내려왔다.

이 때에 대대장은 작전장교 김종덕(金鐘德) 중위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연락병과 본부 요원으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제10중대의 돌파구를 막으라고 지시하였으며, 명령을 받은 김중위는 연락병은 물론 위생병까지 포함한 15명의 병력을 뽑아 2개 분대를 편성한 다음 제10중대장의 뒤를 따랐다.

이 역습 소대(-)가 현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제10중대 진지에서는 실로 경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소대장과 중대장을 잃어버린 병사들이 처음에는 크게 동요하여 그 일부가 참호 밖으로 뛰어 나오기도 하였으나 공격선상에 노출된 자가 적의 표적이 되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대부분의 병력이 참호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중대장이 나타나자 제3소대 지역에서 정훈 요원인 서기종(徐基鐘) 일병이 뛰어나와 칼빈 소총 사격의 연발과 함께 진지가 돌파된 제2소대 지역으로 달려가면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기를 "중대장님이 건재하다. 물러서면 전부 죽는다. 지원 부대가 곧 온다. 똥띄놈들을 무찔러라"는 등 사격과 고함으로 외쳐댔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중대의 나팔수가 또한 아예 음률 같은 것은 고려할 필요도 없이 연속적으로 나팔을 불어대니 일순간에 상황이 돌변하였다.

고지를 탈환한 것으로 착각하였던 적은 당황하여 몸을 움츠리거나 도주

하는 반면에 공포에 사로잡혔던 아군은 용기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동료의 죽음 앞에 적개심이 불타올라 이곳 저곳에서 함성을 지르며 적을 무찌르기 시작하였으니 당시 제2소대의 소총수였던 정병찬(鄭秉燦) 일병은 후에 증언하기를, "그때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전우가 죽는 것을 보고 마치 머리가 돈 사람같이 변했으며, 초인간적인 힘이 솟아올랐다. 총검술 따위는 아예 문제도 아니다. 치고 받고 하다가 소총 개머리판이 부러졌는데도 남은 착검 부분으로 마구 찔러대 나갔다. 야전에서는 습관적인 빠른 동작으로 선수를 치는 것이 제일이다. 우리는 이 전투가 끝난 뒤로 서기종 일병을 군신처럼 생각했다."라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이 극적인 장면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서 과연 돌격 단계에서 이같은 현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一抹)의 의구심이 없지도 않으나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서일병이 "피아간에 한계점에 달한 공방전 과정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우를 독려하여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전공으로 병으로서는 군내에서 최초로 미 은성훈장(美銀星勳章)을 받았으며, 33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2연대의 참전 장병들이 그의 전공을 높이 찬양해 마지않았다.

어떻든 이와 같은 분투의 결과로 적을 물리치고 중대의 진지를 모두 회복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당시 정훈조 활동의 실상(實相)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제2연대는 재반격(再反擊) 시기인 1951년 2월에 장호원(長湖院)에서 연대 정훈장교 장근환(張根煥) 대위가 당시의 연대장 김봉철(金鳳喆) 대령에게 건의하여 40명의 정훈요원을 양성한 뒤로, 각 중대에 2-3명씩 파견하여 평시에는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지휘관에게 건의케 하고 전투시에는 그들에게 전의를 고무토록 교육시켰다. 이 정훈조의 활동을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중대장들이 백안시(白眼視)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없었으나, 이 전투 이후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휘관들이 협조해 줌으로써 이후 백암산(白岩山) 전투나 818고지 전투 및 교암산(轎岩山) 전투 등에서 크게 활약한 바 있으며 이때부터 제6사단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창안자인 장근

환 대위는 후에 정훈감까지 역임하였으며 정훈조 활동도 전군에 시행되어 결국 "전투력의 원천은 정신력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준 한 국면이었던 것이다.

(3) 제11중대의 위기

제11중대는 대대의 북동쪽 진지에서 이날 밤 23 : 00부터 대대 규모의 적과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에 중대는 353고지에서 북동쪽으로 600m쯤 떨어진 250고지에 중대 관측소를 위치시키고 그 북쪽 능선에 제3소대를 배치하는 동시에 그에 연한 동쪽 능선에는 제2소대를 배치하여 위육골 계곡으로 직면한 측방 진지를 점령, 방어하였다. 그리고 남은 제1소대는 이 양 소대 지역의 직후방에서 250고지의 8부 능선상에 제2선의 내곽진지를 편성하고 중대의 모든 중화기는 위육골 계곡으로 지향한 화망을 구성케 하여 여기에 경계의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제10중대의 경우보다 대체로 40분쯤 늦은 22 : 40부터 적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의 공격개시 시간이 20 : 00였다면 당연히 중대 지역에서도 거의 동시에 접적이 있어야 마땅하겠으나, 중대 정면의 적은 이 시간에 제2대대의 방어지역이었던 394번 도로를 통과하여 다시 중대의 제1소대 지역을 동측으로 우회한 다음 위육골에서 돌연 측방 공격을 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동쪽의 제2소대 지역에서 불시의 격돌(激突)을 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지역은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353고지의 바로 북동쪽 계곡인 까닭에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때에 이 지역을 담당한 제2소대는 소대장 유영수(柳永洙) 소위를 비롯한 34명의 소대원들이 이 같은 경황(驚惶) 속에서도 사격 군기를 엄수하여 적의 전개 병력을 진전 50m 내외의 지근 거리로 접근시켜 3.5″로켓포의 발사를 사격개시신호로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여 제1파를 격멸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불어대기 시작한 중대 나팔수의 나팔소리를 신호로 하여 중화기

중대 기관총 제2소대장 최병창(崔秉昌) 소위가 지휘하는 중기관총 제2반이 또한 동시에 최후저지사격을 가함으로써 이들은 방망이 수류탄을 휘두르거나 머뭇거리는 사이에 대부분이 쓰러지고 남은 그 일부는 도주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시 그 특유의 파상 공격을 감행하여 연속적으로 제2, 제3의 돌격조가 공격해옴으로써 여기에서도 23 : 00를 넘으면서부터 심야의 혈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때부터 위육골 계곡에는 적의 시체가 무수히 쌓여가고 있었으나 아군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기관총 소대장 최소위는 제3분대의 기관총 사수가 적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사격을 계속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의해 파괴된 기관총을 안은 채 현지에서 전사하고 같은 분대원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제2소대의 병력도 20%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소대는 힘겨운 분투를 거듭하였지만, 끝내 진지는 무너지고 이를 돌파한 적은 다시 관측소로 밀려들었으며 또한 그 일부는 대대 지휘소가 위치한 353고지로 침투하였다.

이 때가 대체로 20일 00 : 30을 전후한 깊은 밤이었는데, 이 같이 위기를 맞이한 중대는 내곽의 제1소대 지역으로 진지를 축소하면서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9중대의 제3소대도 소대장 안창진(安昌振) 소위의 지휘하에 353고지의 동쪽 계곡에 맹화력을 지향하였다.

바로 이 무렵에 제10중대 지역으로 역습차 출동했던 작전장교 김종덕 중위가 2개 분대의 병력을 인솔, 복귀하자 예비대를 갖지 못한 대대장은 다시 그에게 노무자까지 무장시켜 제11중대와 제9중대간의 계곡을 막으라고 긴급 지시하였으며, 이어서 중화기 중대장 김상배(金相培) 대위에게도 "지금 353고지 후사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81mm 박격포 소대원을 소총병으로 전투 편성하여 동측방에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침 중화기 중대장은 353고지 남쪽의 엄소(嚴沼) 마을에서 대대를 일반지원하던 81mm 박격포 소대가 반당 600여발에 달하는 포탄을 모두 소모하여 지원 능력을 상실하자 동 소대를 고지 후사면으로 끌어올리고 있던

차에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 이에 중대장은 박격포 소대장 이태규(李台圭) 중위와 함께 전투 편성을 하다가 제1반에서 철수간에 적의 사격을 받아 81mm박격포 포신을 현지에 남겨 놓고 온 사실을 확인하고, 제1반장 명만원(明萬元)소위에게 "즉시 포신을 가져오라"고 꾸짖어 돌려보낸 다음 남은 병력으로 1개 소대(-)를 편성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결사대다"라고 임무를 환기시키면서 작전장교가 먼저 떠난 계곡으로 달려갔다. 그 뒤로 포신을 찾아다 놓은 명소위도 칼빈 소총으로 무장한 제1반원을 점검한 다음 중대장의 뒤를 따랐다.

결국 포탄을 다 쏘아버린 81mm 박격포 소대원들은 감시병만을 남겨놓고 이제 소총수가 되어 내곽 진지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에 제11중대는 중대장 이복우 중위의 지휘 하에 내곽의 제2선으로 진지를 축소하여 분투를 거듭하고 있었다. 제1소대장 이계종(李繼鐘)tdnl가 직접 경기관총 사수 노릇을 하는가 하면, 중대장 자신도 수류탄을 가마니에 담아다 놓고 직접 던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라본 소대원들은 물론이요, 전령이나 위생병, 통신병 할 것 없이 전 장병이 혼연 일체가 되어 위육골 정면의 적을 격파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방어전에서 흔히 병사들은 뒤를 돌아본다. 분대장이나 고참병들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분대장은 소대장을, 또 소대장은 중대장을 보는 것이다. 하물며 이렇게 독려하고 생사를 같이 하니 여기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하였다.

그것은 60mm 박격포 소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박격포 분대장 김종환 하사가 10m 전방에 나타난 적을 보고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포진지를 이탈하려 하자 소대장 이재모(李在模) 소위가 수류탄을 던져 이 적을 쓰러뜨리고 "김하사 떨리느냐, 여기까지 침투한 적은 한두 명뿐이다. 다시 포를 쏘아라"고 독려하였으며 기관총 분대에서도 실탄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자 적은 마침내 20일 01 : 00를 전후하여 퇴각하고 말았으며 여기에는 포병의 지원이 뒤따라준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 위육골 계곡은 전면방어 태세를 취한 양 대대간의 공간 지역일 뿐만

아니라 연대 정면의 최단거리 접근로로서 이 계곡에는 미리 화집점과 화력군을 선정하여 포병화력으로써 이를 제압토록 계획함으로써 교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일대는 효과적인 살상지대가 되었다.

공식 기록에는 없으나 당시의 사단장 장도영 준장과 제27포병 대대장 박정호(朴晶浩) 중령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이날 밤에 30,000발의 포격을 가하였다고 하는데 사단의 포병과 증원포병인 미 제92, 제987포병 대대는 물론이요, 군단의 일반지원 포병인 미 제17, 제937포병 대대와 인접 사단의 포병 부대인 미 제31, 제67, 제213포병 대대까지 동원되어 용문산 정면의 접근로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격지휘본부에서 포병 고문관 카스트로(Castro) 소령의 협조아래 사격을 직접 통제한 제27포병 대대의 S-3인 김정희(金貞熙) 대위도 동일한 내용의 증언과 함께 "인접 사단의 포병연락장교들이 자진해서사격지휘본부로 찾아와 협조해주고 군단 포병이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우리 천막은 초만원을 이루었으며 나도 그때서야 비로소 포병은 매스(Mass : 집중)가 제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 포병 부대는 얼마나 많은 사격을 가했던지 포열이 뜨거워지고 또한 완충기가 망가진다고 포대장들이 아우성을 친 일도 있었다"라고 술회하였다.

결국 353고지를 목표로 침공하였던 적은 이 같은 포병의 제압 사격과 제3대대 장병들의 정신력으로 뭉쳐진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며, 위육골과 엄소리 일대에 무수한 시체를 버려 둔 채로 마침내 20일 01 : 00를 전후하여 물러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은 비록 공격을 중지하였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양 계곡의 화망을 빠져 계속 남하하는 대열이 명멸(明滅)하는 조명아래 목격되었고, 특히 남서쪽의 엄소리 개활지는 그들의 기마병까지 남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대대는 예상되는 적의 포위와 측후방의 기습에 유의하면서 다음 전투를 대비하였는데, 여기에 제일 큰 문제가 실탄 부족이었다. 특히 격전을 치른 제10중대와 제11중대는 대체로 20% 정도의 병력 손실을 본 데다 실탄이 거의 소모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중화기 중대의 박격포탄도 제2반장 남태희(南泰

熙) 소위가 비상용으로 보유한 20여발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심야에 대책을 강구할 수도 없으려니와 연대나 사단의 추진 보급 기능도 적의 침투로 말미암아 마비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대장은 각 중대장으로 하여금 사격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20여명의 노무자를 사상자의 무기로 무장시켜 전투 요원으로 편성케 하고 제9중대에서 기관총 실탄을 할애하여 제10, 제11, 양 중대에 할당하는 동시에 본부에서 보유한 모든 수류탄을 소총 소대에 지급하도록 지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으며, 또한 중대장이나 소대장은 물론 소총수에 이르기까지 이 실정을 익히 알고 있는 까닭에, 스스로 실탄을 아낄 뿐 아니라 참호를 정비하고 사격 구역을 조정하는 등 전력 정비에 진력하였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노획한 적 장비의 활용 문제다. 적의 제1차 공격을 물리친 직후에 지속되는 접적 상황과 야암(夜暗)으로 말미암아 아직 전장 정리는 하지 못하였으나 재편성 과정에서 참호주변에 흩어져 있는 적의 장총과 다발총 그리고 수류탄과 소총탄 등을 각 소대마다 상당한 수량씩 노획하였지만 이를 조작할 줄 아는 장병은 별로 없었다.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천 발의 실탄과 두 종류의 소총을 눈앞에 쌓아 놓고서도 활용할 수가 없으니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 가운데 방망이 수류탄만은 250개 정도를 다시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도 유의할 점은 있었다. 사전에 교육을 받지 못한 병사들이 아군의 세열 수류탄처럼 착각하여 방망이 끈에 달린 점화선(點火線 : 노끈으로 뽑아 놓은 부분)을 미리 뽑고 던지면 곧 폭발해 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각 소대에 전파하여 "투척과 동시에 손끝으로 점화선을 잡아 뽑도록" 요령을 숙지시킴으로써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3대대는 재편성 단계로 접어들어 다음 전투에 대비하고 있을 때 정유산(鄭維山)이 지휘하는 중공군 제63군은 마침내 그들의 총 병력을 투입하여 결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들은 최초에 제187사단을 미사리의 제1대대 지역으로 투입하고, 청평댐을 건너선 제188사단은 바로 제3대대

정면의 신천리로 진출시켰음은 이미 앞에서 상술한 바 있거니와, 이제 353고지에서 한 차례 격전을 치른 뒤로 이 일대를 사단의 주 저항선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들의 예비인 제189사단까지 투입하여 총공격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 353고지에서 다시 심야의 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지역으로 침투한 선공부대(先攻部隊)인 제188사단이 여기에서 재공격을 가하는 사이에 그들의 예비인 제189사단은 초월공격(超越攻擊)을 감행하여 엄소리와 방일리 일대의 후방으로 침투함으로써 용문산 전투의 승패를 가름하는 결전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밤 자정을 넘어선 뒤로 353고지의 제3대대 진지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전투 후에 다시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때 제3대대의 제9중대와 제10중대 장병들은 조명탄의 조명과 희미한 달빛 아래 집단적으로 방일리 쪽으로 내려가는 적의 보병과 기마병의 기동 제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항공기의 조명탄이 연속적으로 투하되고 사단 및 군단의 포병이 최대 발사속도로 사격하는 가운데, 마침내 적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전투는 제2연대의 3개 대대가 거의 동시에 교전이 시작되므로 353고지에서 전개되는 제2차 공방전 과정을 먼저 기술하고 다시 제1대대의 나산 전투를 살펴 본 다음에 연대의 주력이 전개하는 427고지의 전투를 알아보기로 한다.

(4) 3시간의 혈투

353고지로 지향한 적의 제2차 공격은 제1차 교전이 끝난 2시간 뒤인 20일 03 : 00에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북서쪽의 제10중대 진지를 공격하였으며 그 일부는 제11중대의 제3소대 진지인 224고지(CS 687684)로 침공하였다. 이들은 전반야(前半夜)의 공격부대와는 다른 새로운 부대인 듯, 아군의 병력 배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그 공격 방향도 창의리와 엄소리 부근에서 353고지의 정상으로 지향한 방향으로 기동하여 집중 돌파를 시도하였다.

이 때에 제10중대는 2명의 소대장이 전사 또는 중상을 입은 까닭에 선임하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소총수까지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먼저, 240고지(CS 675678)로 추진한 경계분초에서 "적이 상촌(上村) 계곡으로 새까맣게 올라온다"는 보고가 있은 뒤로 20분도 채 못되어 제2소대의 진지 전방에 중대 규모의 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어서 제1소대 지역에서도 "창의리 일대에 2개 중대 규모의 적이 출현하였다"는 보고가 뒤따랐다. 그러나 양 소대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사격개시신호가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적이 40~50m 직전방까지 접근한 뒤에야 쏘아 올린 3.5″로켓포의 사격을 신호로 중대 나팔수의 나팔 소리와 같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였다. 적측에서도 이번에는 공격 속도가 빠르고 그 수법(手法)도 더욱 가열(苛烈)하여 예의 파상 공격이 계속 이어짐으로써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치열한 격전이 전개되었다.

이로부터 산야(山野)를 가르는 포성과 총성이 뒤덮인 가운데 중대장 최영운 중위는 화기 소대의 60mm 박격포를 연속적으로 발사토록 하는 한편, 양 소대의 교전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던 바, 20여분이 지난 03 : 20에 제2소대 진지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던 동 소대의 선임하사관이 "5m 전방에 적이 침투하였다"는 보고를 마지막으로 통화가 끊기고 말았으며 이후에는 수류탄 폭음만이 연속 들려왔다.

이에 중대장은 전화기를 들고 제2소대를 계속 부르고 있었으며 이 정경을 목격한 정훈병 서기종 일병이 또 다시 그 육중한 체구를 날려 300m 전방의 제2소대 지역으로 달려갔다. 서일병이 현지에 다다르자, 동 소대 지역에서는 돌격 사격을 가하던 적이 어느새 진내(陣內)로 뛰어들어 일부는 백병전(白兵戰)을 전개하는 가운데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때 마침 남쪽 능선의 제1분대 지역에서 자동소총 사격을 가하던 사수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서일병은 단장(斷腸)의 함성과 동시에 현지로 달려가 주위의 적병에 대해 자신이 자동소총을 움켜잡고 서서 쏴 자세로 사격했다. 이로 인해 용기를 얻은 소대원들이 과감함 육박전을 전개하니 겁에 질린 적

은 마침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서일병도 전신에 일곱발의 총상을 입고 끝내 쓰러지게 되었으며, 전우들이 부축하여 참호 안으로 운반하는 순간까지도 그는 백수(百獸)의 왕처럼 "적을 무찌르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같은 용전으로 일단 이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적들은 좀처럼 공격기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04 : 00를 전후하여 제3, 제4의 파상 공격이 연속됨으로써 끝내 제2소대 진지가 와해(瓦解)되고 내곽의 제2선으로 밀리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제1소대 지역에서도 혼전을 거듭하다 돌파됨으로써 이제 중대는 내곽의 제3소대 지역으로 진지를 축소하여 반복되는 혈전을 전개케 되었으며 이때부터 월광(月光)마저 기울고(月沒 03 : 34)칠흑 같은 어두움과 섬광(閃光) 그리고 조명탄 등이 명멸하는 가운데 육박 대결로 이어져 갔다. "노출되면 죽는다. 소극적으로 주저하거나 회피하면 더욱 위험하다. 오직 과감히 선수를 쳐라"하고 중대장 최영운 중위와 제3소대장 박형욱(朴炯旭) 소위 그리고 선임하사관들이 하나같이 외치며 독려하는 가운데 적에 계속 대항했다. 이 과정에서 제3소대는 2명이 전사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6명이 경상을 입는 등 12명의 병력 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필사적인 결의로 뭉쳐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제1선에서 철수한 병력도 방어정면을 축소하여 제3소대의 진지에 이른 서측(西側)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중대는 353고지의 6부 능선상에서 상호 연결된 진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때에 제11중대도 두 차례나 제3소대 진지를 빼앗기고 빼앗아가며 격전을 거듭하다 끝내 진지가 돌파되어 내곽의 제2선으로 축소하였다. 이제 대대는 353고지를 중심으로 방어 정면을 축소한 가운데 사활을 걸고 마지막 결전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전 장병은 결사대원이 되어 전우가 쓰러지면 내가 막고 어두움 속에 피아를 식별할 수 없을 때는 머리를 만져 보아 까까머리인 자를 무찌르는가 하면, 위생병과 노무자가 제11중대 OP까지 침투한 3명의 적을 사

살하는 등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렇듯 혼전과 격투를 반복하다가 05 : 30에 이르러 여명(黎明)과 함께 적이 마지막 돌격을 감행하였을 때 제10중대의 진지가 돌파되자 전상자(戰傷者)를 제9중대 지역으로 대피시키던 인사장교 조태호(趙泰鎬) 중위도 들것 병을 대동하고 전지로 뛰어들었으며, 대대장 김두일 대위는 "대대장이 여기 있다"고 외치면서 장병들을 고무했다. 그리하여 이미 생사를 초월한 제10중대의 전 장병이 이에 힘입어 역습을 가함으로써 마침내 이 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아간에 한계점에 달한 이 결정적인 시기에 대대장이 보여준 이 같은 용기와 슬기를 높이 평가하여 사단장은 이 전투가 한참 진행중인 21일 13 : 00에 김두일 대위에게 임시 계급 소령 계급장을 손수 달아주고 또한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제3대대는 야간에 두 차례에 걸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353고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날 밤에 "마치고개"와 427고지에서 시종(始終) 이 전투 광경을 지켜보았던 당시의 사단 수색 중대장 박노영(朴魯榮) 대위는 33년이 지나 자신이 대장에까지 오른 후에도 이때를 회고하며 "내 평생에 그렇게 치열한 사격전을 목격한 것은 전무후무하였다. 전쟁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불꽃튀는 장관(壯觀)을 도저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마치 그 대대는 불사신(不死神)과도 같이 버티고 있었다"라고 술회하기도 하였다.

결국 적인 이 고지의 공격을 단념하고 직접 용문산으로 직행하기 위해 남진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5) 철수

20일 새벽에 날이 밝으면서 적과 접촉이 끊어지자 제3대대는 진지의 회복과 함께 재편성을 실시, 일부의 진지와 병력 그리고 화기 등을 재조정 배치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대는 놀라운 전과(戰果)를 확인하였다.

우선 무기와 탄약 및 수류탄 등 노획 물자가 한 트럭 분이 넘었으며, 적

의 시체는 온통 산야(山野)를 덮었다고 하는 바, 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여기에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6사단 전투 상보 : 제2연대 제3대대의 353고지 전투 전과 : 적사살 500명, 추정 살상 600명

2. 육본 정기 작전보고 143호 19일부터 20일까지 제2연대 전과 : 적사살 2,000명

3. 미8군 정기 작전보고 19일 05 : 00-23 : 00 제2연대 전과 : 적사살 1, 128명

4. 한국 전쟁사 제6권 용문사 전투 19일 07 : 00-20일 18 : 00사단 종합전과 : 적사살 4,912명, 포로 9명

이상의 기록은 시간과 종합 부대가 서로 다른 만큼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다만 이날 제2연대의 교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대, 이 전과의 대부분이 353고지의 전과라는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어떻든 이와 같은 전과를 확인한 제3대대 장병들이 격전의 고달픔을 잊고 사기가 충천하여 어떤 병사는 노획 무기를 몇 자루씩 어깨에 메고 있는가 하면, 방망이 수류탄을 참호에 쌓아 놓기도 하고, 노획한 콩가루와 보릿가루를 먹어보기도 하였다.

이때 대대에서는 수류탄을 제외한 모든 노획 장비를 353고지 후사면으로 집결시키면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고 있던 중, 08 : 30에 사단의 L-19 정찰기가 날아와 동 고지 상공을 한 바퀴 돈 다음 통신통(通信筒)을 떨어뜨렸다. 이를 목격한 작전장교 김종덕 중위가 재빨리 회수하여 대대장 앞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철수 명령이었다. 투명도상에 약식 명령으로 하달된 이 철수 명령의 요지(要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당면의 적은 횡좌표 63°선까지 침투하였음.

② 대대는 20일 09 : 00에 철수를 개시하여, 투명도(透明圖)상의 축자진지를 점령한 다음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라.

③ 철수간에 적의 기습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라.
④ 가능한 방법으로 철수 완료 보고를 신속히 하라.』

이 명령으로 보면 적의 선두는 이미 4km 후방의 방일리까지 침투하였으며 대대의 축차진지는 바로 그 북동쪽의 427고지에 연한 연대의 주력이 있는 곳으로서 사단에서는 이 거점을 확보하여 적을 크게 포위 격멸하려 함이 분명하였다.

즉 중공군 제63군이 그들의 예비대인 제189사단을 초월 공격시켜 주저항선 전방의 3-4km 지점까지 침투하였지만, 이들은 사단 주력의 방어 지대를 오인한 데다 아군의 포격과 항공 폭격으로 인해 공격 개시 3일째 되는 20일까지도 산곡간(山谷間)에서 헤매는 꼴이 되고야 말았으니, 이 호기를 포착하여 공세이전으로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려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전투력이 약화된 제2연대의 잔여병력을 427고지로 집결시켜 연대 전면 방어 태세로 이 거점을 확보케 하면서 적의 퇴로를 막아 장차 섬멸전을 전개하려 계획한 것인데 연대의 실정은 아직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첫째가 연대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점이다. 전날(19일) 석양에 "마치고개"에서 427고지 동쪽 계곡의 왕방이(CS 707650)로 이동한 연대 지휘본부는 동면으로 내려가는 어귀에 위치한 독립 가옥에서 통신을 유지하며 예하 대대를 지휘하다가 이날(20일) 아침 07 : 00에 적의 기습을 받아 분산됨으로써 연대장과 연대고문관은 2km 후방의 동면까지 내려오고 작전주임과 통신대장은 3km 후방의 묵안리(墨安里)까지 내려옴에 따라 모두 통신이 끊기고 말았던 것이다.

이날 12 : 00경에 연대장이 작전주임과 통신대장을 만나 크게 꾸짖은 다음 사단과 SCR 694에 의한 무전 교신을 재개할 때까지 전방대대는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때에 연대장은 연대의 주력이 위치한 427고지로 다시 북상(北上)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제3대대가 철수명령을 받고 축차진지를 점령할 때까지 연대와 대대간에는 유무선(有無線)이 모두 두절(杜絶)되고 사단과도 철수명령 이외에는 교신이 막혀 대대장 단독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둘째는 나산에서 우일선을 방어하고 있던 제1대대의 문제이다. 다음 항에서 그 교전 상황과 철수 및 상호 협조 관계 등을 상술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거니와 다만 동 대대도 교신이 끊겨 행방을 잃고 혼선을 빚다가 20일 하오에 427고지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기대에는 미흡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3대대는 이 같은 상황 하에서도 승전에 고무된 사기를 살려 축차진지로 철수하기 위한 준비 명령을 하달하고, 그 시행을 독려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대대에서 당면한 문제는 철수로상의 적정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4km후방에 적이 침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제3대대가 철수 예정인 427고지는 이미 적의 포위권(包圍圈) 내에 들어있음이 분명하며 위육골과 엄소리 일대까지 적이 발사한 연막탄으로 인해 시야가 차장됨으로써 1km 전방의 적정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대대장은 전투력이 온전한 제9중대로 하여금 기동로를 타개토록하여, "마치고개"를 넘어 엄소리를 횡단한 다음 지시된 진지를 점령할 예정으로 복안(腹案)을 세우고 각 중대장에게 그 요지를 설명하는 즉시 제9중대, 본부 및 중화기 중대, 제11중대, 제10중대의 순으로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9중대장 박홍기(朴洪基) 중위에게는 철수간에 특히 "마치고개"를 경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10중대장 최영운 중위에게는 철수 엄호를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계획한대로 09 : 00부터 철수하기 시작한 대대는 첨병중대인 제9중대가 연막 차당된 위육골 개활지를 우회하여 직후방의 296고지를 동측(東側)으로 돌아선 다음, "마치고개"로 올라가던 중 이 고개의 서쪽에서 뻗어 오른 능선에서 돌연 적의 기관총 사격이 가해지면서 첨병 분대의 선단이 무너지고 이어서 적의 소총 사격이 296고지 쪽으로 집중하였다.

이에 첨병소대장 장천(張天) 소위는 즉시 병력을 공격대형으로 전환하여 포복 전진하면서 적의 화력을 제압하려 하였으나, 지형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대는 좀처럼 이 철수로를 타개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10 : 00를 넘어서서 후속 병력이 당도하니 점점 혼란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

무렵 제9중장은 다시 안창진(安昌振) 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를 공격에 투입하였으나 역시 "마치고개"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본 대대장은 제9중대장 박홍기 중위에게 이 적을 계속 견제하라고 지시한 다음, 후속 병력을 296고지 서측방으로 우회시켜 엄소리 계곡을 따라 구간 약진토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작전 장교 김종덕 중위에게 제9중대의 전진 지연으로 인한 진지 투입의 변동 사항을 조정하여 대대 OP를 341고지 북쪽의 무명 고지(CS 695655)에 개설토록 지시하였으며, 통신장교 권영원(權寧遠) 소위에게는 통신 두절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차후 진지에서는 기필코 소통하도록 하라고 각각 지시한 다음 먼저 떠나도록 앞서 보냈다.

그 뒤로 대대장은 대대의 주력이 통과한 후에 제10중대장과 함께 엄소리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제9중대장에게 "대대의 주력이 통과한 다음 신속히 현지를 이탈하여 뒤를 따르라"고 지시하였다. 제9중대장 박홍기 중위는 이 접적 과정에서 "마치고개"를 뚫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최초에 무리한 공격을 시도하다가 2개 분대 규모의 병력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마지막 철수시에는 중대장 자신이 중상을 입고 말았다. 철수 명령을 내린 중대장은 296고지 남쪽 능선의 돌출부에서 중대를 지휘하다가 적의 기관총 사격에 왼쪽 대퇴부(大腿部) 의 국소(局所)를 맞아 쓰러지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같이 있던 연락병 박태근(朴泰根) 상병은 복부에 관통상을 입고 현장에서 전사하였던 것이다.

이에 중대장은 선임장교인 장천 소위에게 중대를 지휘하여 신속히 철수토록 명령하고 자신도 그 뒤를 따르려 하였지만 한 발자국도 옮겨 놓을 수가 없었다. 이를 목격한 중대 취사병이 중대장을 들쳐업고 뛰기 시작하였다. 이 병사는 장사(壯士)와 같은 거구였으나 적의 감제 사격 하에 이동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렸다. 이에 중대장은 "나를 버려 두고 가라"고 지시하였으나 듣지 않아 부득이 권총으로 위협하여 그를 돌려보내고 자신은 포복으로 기어 나오다가 출혈이 너무 심하여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 뒤로 박 중위는 하루가 지난 21일에 반격 부대인 제19연대의 선두 중

대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구출되었고, 그가 지휘하던 제9중대를 비롯한 제3대대는 전 병력이 예정대로 20일 12 : 00까지 축차진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한 진지 작업에 들어갔다. 이로써 제3대대는 최초 진지인 353고지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치르고 이제 427고지로 철수하여 그 서쪽 능선에 새로운 진지를 편성한 가운데, 연대의 주력과 함께 다시 연대 전면방어 태세를 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7. 나산(羅山)의 파탄(破綻)

미사리에서 철수한 제1대대가 나산을 점령하여 진지편성을 완료한 19일 20 : 00현재, 제2대대도 후방의 427 고지로 철수하게 됨으로써 이제 연대의 방어 정면에는 나산의 제1대대와 여기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353고지의 제3대대가 다시 제일선 부대가 되어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 양 고지는 제6사단 방어정면의 최북단에 위치한 주요 거점으로서, 사단에서는 이를 중요시하여 제2연대로 하여금 여기에서 적의 진출을 지연, 와해시키고, 타격을 가하면서 계속 접촉을 유지하다가 명에 의거 427 고지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연대에서는 이 양 고지의 사수를 다짐하였고, 그 좌일선을 담당한 제3대대는 353 고지에서 혈전을 치른 뒤, 다시 사단의 명령에 의거 427 고지로 철수하게 되었음은 전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면 이때 나산을 점령한 제1대대의 상황은 과연 어떠하였는가?

(1) 나산의 진지편성

먼저 제1대대의 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당시 대대의 일반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19일 하오에 동 대대가 위육골에서 나산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지역 전방에는 그 북동쪽 3km의 동막리(東幕里) 일대에 이미 중공군 제187사단

의 주력이 진출하여 그 일부가 나산으로 통하는 놀밋재 고개(CS 730691) 부근까지 침투하고 있었으며, 장낙산(長樂山) 서쪽 계곡인 채석장 부근에도 대대 규모의 적이 집결중임을 사단의 항공정찰장교가 확인하였다.

이에 사단에서는 미 제5공군에 근접지원을 요청하고, 군단의 155mm 포병들도 요란사격으로부터 제압사격으로 전환하여 이제 사정거리 내에 들어온 이들 적에게 포격을 집중함으로써 적은 감히 주간공격을 하지 못하고 날이 어둡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산악 기동과 야간 침투를 위주로 하는 적은 용문산을 탈취하기 위한 돌파구를 형성하고자 이 시간에도 그들의 선두 부대는 길잡이를 앞세우고 산길을 찾아 침투하고 있었으나 아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연대나 사단에서는 이 나산이 비록 암석투성이고 경사가 급한 곳이기는 하나 용문산에서 봉미산(鳳尾山)과 장낙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돌출부라는 점과 사면을 감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적의 산악 기동에 대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대는 표고 628m인 이 나산에 오르자마자 그 정상에 대대 관측소를 개설하고 동쪽의 동막리 정면에 제3중대를 배치하는 동시에 494번 도로에 직면한 북쪽 능선에는 제2중대를 581고지 부근까지 추진 배치하였으며, 최초 진지에서 격전을 치른 바 있는 제1중대(-)를 남서쪽의 "활골" 정면으로 전개시켜 다시 대대 전면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포탄 30발밖에 남지 않은 81mm 박격포는 고지 후사면에 포진지를 선정케하고 기관총 소대는 제2중대와 제3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하였다.

이렇듯 진지 편성을 완료한 대대는, 곧 야간전투에 대비하였으나, 제2대대의 경우와는 달리 장병들이 모두 지쳐 있는 데다 주변일대가 온통 암석으로 뒤덮여 마땅한 진지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대대 지휘소도 노출된 채로 암벽에 의지하여 통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연대 통신대에서도 아직 유선을 끌지 못하여 연대와는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대대와 중대간에는 유선을 깔았으나 이 역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날 진지 편성 과정에서 대대장은 바로 북쪽의 장낙산 봉우리에 도사리고 있는 적이 아군을 한 눈에 바라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중대로 하여금 기도비닉에 유의토록 강조하였으나 이도 또한 여의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아래 어느덧 날이 저물고 산야에 어두움이 깔려오자 대대는 야간 경계 태세로 들어갔는데, 22 : 00를 전후하여 353고지의 제3대대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되더니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특히 위육골 계곡에 포격이 집중하는 것으로 보아 적이 곧 목전에 다다랐음을 말하여 주는 듯하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인접의 미 제7사단 정면에도 아군의 포격이 증가되어 바로 동측방의 길곡리(吉谷里) 부근까지 VT탄이 작렬함으로써 온통 계곡과 능선이 불꽃으로 뒤덮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대대 정면에서는 아직도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보다 1시간 뒤인 23 : 00에 돌연 동측방의 제3중대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제3중대는 북동쪽의 동막골 부근에 적이 출현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여기에서 설곡리(雪谷里)로 통하는 소로 일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그 마을 어귀인 점말 부근으로 추진한 국지경계 초소에서 접적 신호가 오른 직후 수류탄 투적 거리 내에까지 침투한 적과 백병전이 전개되었다.

(2) 제1대대의 위기

이곳은 급경사로 이어진 산맥이 남북으로 뻗쳐 종격실을 이룬데다 산길이 외줄기로 가로질러 고개 너머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암벽을 기어오를 수밖에 없는 험한 곳이었다.

따라서 중대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김재욱(金在旭) 소위가 지휘하는 제3소대를 여기에 배치하고 중화기 중대의 기관총 1개반을 배속하여 이 요지를 고수토록 하였다. 그런데 적측에서도 이 지역을 중시하여 야음을 이용, 은밀히 접근한 다음 불시에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접적 신호와 동시에 돌연한 격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적은 우인접 미 제7사단 정면으로

침투한 무리들로서, 동사단의 경계 부대가 철수함에 따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밀려들어 공격을 가하자, 소수의 병력으로 힘겨운 교전을 반복하던 동 소대는 끝내 진지를 지탱하지 못하고 교전이 시작된 지 30분만에 돌파되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혼전이 야기되어 피아간에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특히 제3중대의 화기소대장 이동군(李東君) 소위는 적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기관총 사격을 가하다가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말미암아 현지에서 전사하고 제3소대 제2분대의 자동소총 사수 김상기(金相基) 병장도 연속사격을 가하다가 진지가 폭파되어 전사하는 등 아군은 몸을 던져 혼신의 분투를 거듭하였지만, 보람도 없이 끝내 밀리고 말았다.

이에 중대장 김종해(金鐘海) 중위는 선임장교인 이재설(李在卨) 소위에게 화기소대를 수습하라고 지시하고, 그 자신은 현지로 달려갔으나 제3소대는 이미 지리멸렬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 무렵 중화기 중대장 정진수(鄭鎭秀) 중위도 대대장의 명령을 받고 제3중대 지역으로 내려왔으나 연속적으로 밀어닥치는 적의 강한 압력과 혼란 속에 빠져버린 병사들이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어두움에 쌓인 위육골 계곡으로 질주함에 따라 수습할 길이 없었다.

이를 지켜본 중화기 중대장 정진수 중위는 분을 이기지 못하여 중기관총 진지로 달려가 자신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면서 적진에 무차별 사격을 가하던 중, 동 반장 최하사(본명 미상)가 "중대장님 위험합니다"라고 외치며 중대장을 밀어버리고 뛰어드는 순간 적의 수류탄이 폭파하여 최하사는 현지에서 전사하고 기관총도 파괴되었으나 중대장은 위기를 모면하였다. 제3중대의 선임장교 이재설 소위도 화기 소대의 경기관총 진지에서 기관총 삼각대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중공군을 목격하고 이를 무찌르다가 안면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었다.

이렇듯 혼전과 난투를 벌이는 사이에 어느덧 24 : 00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바로 이 무렵 대대 지휘소에서도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예배대를 갖지 못한 대대장 홍재익 대위는 위기에 직면한 제3중대의 전황을 지켜보며 초

조한 마음으로 연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던 중, 제3중대의 진지를 휩쓸고 나산의 9부 능선까지 침투한 적이 어느덧 정상으로 뛰어오르며 수류탄 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이에 본부중대 장병들이 일제히 수류탄과 소총으로 대응하고 대대장 자신도 암벽에 의지하여 수류탄을 던지면서 막아보았으나, 적의 연속적인 수류탄 공격으로 말미암아 대대 영현장교 임수경(林洙慶) 소위가 바위틈에서 전사하고, 작전과 선임하사관 김중사(본명 미상)가 부상을 입는가 하면, 대대장까지도 중상을 입고 쓰러지게 되었다. 이 위급한 고비에서 마침 제2중대의 기관총 분대장이 경기관총을 가슴에 안고 북쪽 능선으로 뛰어올라 측방에서 10여분 동안에 걸친 연속 사격을 가한 끝에 겨우 이 적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대대장의 중상과 무전기의 파손, 그리고 분산 병력의 혼란 등, 와중에 휘말려 지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이때에 대대장은 왼쪽 팔의 관통상과 안면의 파편상을 동시에 맞게 되어 바위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이 순간에 통신병이 겁에 질려 "대대장 전사"를 외치자 이 바보가 곧 각 중대로 전파되면서 나산의 제1대대는 마침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분산 상태에 놓인 제3중대는 물론이요, 남서쪽 진지의 제1중대도 배후에서 적이 밀려오자 전투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로 우왕좌왕하다가 분산 병력 속에 섞이어 고지를 뛰어 내리고 있었으며, 중화기중대나 일부의 본부 요원들 까지도 앞을 다투어 "마치고개"쪽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는 실로 어이없는 일이었다.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공군의 숫접 압력에 밀려 대대의 3개 중대 병력이 어두움 속에서 분산되고 말았다.

이 무렵 북쪽 능선에 홀로 남아 있던 제2중대도 점차로 적중에 고립된데다 대대와의 교신마저 끊어지자 중대장의 단독 결정으로 철수하기 시작하였는데, 동 중대는 직후방의 적을 피하여 향원사 골짜기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대대의 주력과 이탈되고 말았다.

그 후 철수를 계속한 제2중대는 위육골로 들어서다가 다시 대대규모의

적과 교전 중에 분산 상태에 이르자 이때부터 분대 또는 소대단위로 흩어져서 산 능선을 따라 "마치고개"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결국 대대의 전 병력이 분산되어 제각기 남쪽으로 철수하기에 급급한 상화이었다.

한편 대대 지휘소에서는 작전장교 김학철(金學哲) 대위가 유혈이 낭자한 대대장을 우선 안전 지대로 옮기게 한 다음 각 중대와 교신을 유지하려 시도해 보았으나 적의 수류탄 공격으로 유무선이 모두 두절되어 전방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대와 교신하던 SCR 694 무전기마저도 반파되어 송신은 되지 않고 수신만 가능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더욱이 혼전중에 일부의 본부 요원이 현지를 이탈하여 철수 대열에 뛰어들게 됨에 따라 남은 병사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적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 다음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에 그는 일단 "마치고개"로 내려가 병력을 수습하기로 결정하고 실신한 대대장을 운반하여 고지를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2시간쯤 지난 03 : 00경에 대대장은 의식을 회복하였다. 신음소리와 함께 눈을 뜨자 위생병과 통신병이 동시에 "대대장님"하고 부르면서 부축하니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다. 위생병은 울먹이며 안면에 붕대를 감고 왼쪽 어깨에 지혈대를 묶었으며, 작전장교 김대위도 함께 부축하면서 후송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대대장은 이를 거절하고 대대의 당면한 상황을 물었으며, 전 병력이 분산된 사실을 보고 받은 후에도 의연한 자세로 우선 연대와 교신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다음 "마치고개"로 올라가 병력을 수습하자고 결의를 보이면서 몸을 일으켰다. 다행히 결정적인 상처를 입지 않은 대대장은 점차로 원기를 회복하자 주위의 부축도 뿌리치고 "마치고개"로 올라갔으며, 여기에서 40여명의 장병들이 모여 각각 소속 중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선 이들을 수습하여 "마치고개"에 배치하였다.

이때가 20일 05 : 00로, 대대는 분산된 지 4시간이 지난 이 시각에야 겨우 명맥을 되살리게 되었으나, 성패를 책임진 한 지휘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국면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 중화기 중대장과 제1중대장은 "마치고개"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엄소리에 있었다. 분산 병력이 앞을 다투면서 "마치고개"를 넘어 이곳 엄소리에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린 양 중대장은 여기에서 100여명의 병력을 수습하여 다음 대책을 협의한 끝에 일단 "마치고개"로 다시 올라가 대대의 병력을 수습하자고 결론짓고 발길을 되돌렸다.

이 병력의 대부분이 제1중대의 장병인 까닭에 기동간의 지휘는 동 중대장이 맡기로 하고 중화기 중대장은 후미에서 이를 도우면서 이동한 끝에 06 : 00에 "마치고개"로 올라와 대대 본부의 병력과 합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대대는 최소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가운데 계속 병력을 수습한 대대는 07 : 00에 이르러 300여명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때부터 활기를 되찾고 부대를 재편성하면서 대대의 당면한 임무를 확인하게 되었다.

(3) 임무의 전환

나산에서 분산된 뒤로 통신수단을 잃어버린 대대장은 우선 병력의 수습에 힘쓰면서 통신장교 박성환(朴成煥) 소위에게 교신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 이날 07 : 10 경 박소위가 "연대장님이 나왔습니다"라고 환성을 지르면서 SCR 694 무전기를 안고 달려왔다. 수신만 가능한 이 무전기에서 연대장은 목이 쉰 음성으로 제1대대장과 수색중대장을 부르고 있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대답을 해도 송신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 연대장은 제1대대와의 교신을 단념한 듯, 사단수색중대장 박노영대위에게 명령하기를 "나산의 제1대대장과 협조하여 사투중인 제3대대를 구출하라"고 하였으며, 또 이어서 "제3대대의 퇴로를 타개하면 그 철수를 엄호한 후 신속히 427고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이 명령을 통하여 대대는 당면한 임무를 알게 되었으나 연대는 물론, 수

색 중대와도 교신이 불가능하여 모든 사항을 대대장 단독으로 판단,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곤경에 처한 대대의 실정을 알지 못하는 연대장은 차후의 임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대장으로서는 제3대대의 퇴로를 타개한 다음 427고지로 철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곧 그 시행에 착수하였다.

사단 수색중대는 연대장의 요청에 따라 연대에 배속된 뒤로 위육골과 "마치고개"에서 연대지휘소의 경계임무를 수행하다가 동 지휘소의 이동과 함께 427고지 남쪽의 "왕방이"(CS 706647)로 이동하여 임무를 계속 수행하던 중 제3대대가 적의 포위 속에서 혈투를 벌이게 되자 이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개 대대가 모두 교전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위기를 직감한 연대장은 우전방의 제1대대로 하여금 제3대대의 퇴로를 타개케 하여 연대의 전 병력을 427고지로 집결시켜 연대 전면방어 태세를 갖추려 하였으나 제1대대와 통신이 두절되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사단 수색중대를 출동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명령이 하달된 직후인 07 : 30에 연대 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아 상황이 돌변하고 말았다. 즉, 연대장을 비롯한 참모진과 고문관 등은 동면을 거쳐 그 남쪽의 묵안리로 철수하고 수색중대는 본래의 임무로 되돌아가 이 적을 격퇴함으로써 4시간 뒤에야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결국 수색중대의 출동 계획은 지연되고 연대의 통신망까지 마비되어 이때는 이미 제3대대가 사단에서 직접 하달한 철수명령을 받고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제1대대는 비로소 진로를 찾아 제3대대와의 연락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병력을 "마치고개" 남쪽 골짜기로 집결시켜 각 중대별로 재편성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대대장은 훈시를 통하여,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터이니 너희들은 나라를 위하여 힘껏 싸워달라"고 결의를 보이면서 "뭉쳐야 산다"고 단결된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재삼 강조하였다.

이 무렵 제3대대는 제1대대의 경우와는 달리 철야로 두 차례에 걸친 적

의 공격을 물리친 후에 고조된 사기를 유지하며 다음 전투에 대비하다가 사단으로부터 철수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제1대대와의 횡적인 협조를 이루지 못하여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단독으로 철수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양 대대는 끝까지 협조를 이루지 못한 채 각각 다른 방향에서 독자적인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제1대대는 "마치고개"에서 353고지로 향하다가 그 서쪽 800m의 무명고지(CS 691655)에서 적의 저항에 부딪혀 사격전을 전개하게 되었고, 제3대대는 남쪽으로 철수하다가 역시 이 일단의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게 되자 남서쪽의 엄소리로 우회 기동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1대대는 이 적을 견제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였다.

이 무렵 적의 주력은 4-6km 남쪽의 묵안리와 가일리(可逸里) 일대에 있었고, 이들은 후속부대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나 어이없게도 양 대대가 이를 격파하지 못하고 우회하는 현상이 야기되었으며, 이것은 곧 협조되지 않는 작전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한 단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1대대는 이날 11 : 30에 이르러서야 교전 중에 분산된 제3대대 제9중대의 일부 병력과 합류하여 비로소 제3대대가 철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때부터 급전진(急轉進)하여 427고지로 향하였다. 기동간에 특별한 적정은 없었으나 "활골"계곡으로 들어서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중공군 2명을 사로잡고 또 다른 1명이 아군 대열에 섞여 함께 행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포로로 하여 계속 전진한 끝에 15 : 00에 427고지에 당도하여 제2대대와 합세하였다.

8. 마지막 보루 427고지

제2연대는 작전개시 첫날인 18일에 미사리의 제1대대와 울업산의 제2대대 등 2개 대대만이 최초 진지에서 교전이 있었으나, 2일째인 19일에는 시간의 차이만 다를 뿐, 353고지와 나산 그리고 427고지에서 3개 대대가 같은 날 밤에 대대 단위로 거점 방어형태의 공방전을 각각 전개하게 되었다.

울업산에서 철수한 제2대대가 427고지에서 새로운 진지를 점령한 19일 22 : 00 현재, 353고지의 제3대대는 벌써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1시간 뒤인 23 : 00에는 나산의 제1대대도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 427고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1) 427고지의 진지편성

이대 427고지의 제2대대는, 지석우(池錫祐) 대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를 북쪽 능선의 "활골" 정면에 배치하고 이좌균(李佐均) 대위가 지휘하는 제6중대는 "활골"과 258고지(CS 695658)간의 북서쪽 능선에 배치하는 한편 제7중대는 남쪽 능선의 "왕방이"마을 정면으로 배치하여 대체로 그 7부능선상에 각각 진지를 구축케 하였으며 제8중대는 중앙 공간지대에 81mm 박격포진지를 선정케 하고 2개 기관총 소대는 제5중대와 제6중대에 각각 1개 소대씩 배속시켜 삼면을 에워싼 타원형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예비대도 없이 전 병력을 전개하여 1개 대대의 통상적인 방어 정면보다 넓은 3,5000m 이상의 전투 정면을 장악해야하는 대대는 서쪽의 공백지대는 메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의 341고지와 남서쪽의 무명고지에는 경계분초를 추진하여 배후의 기습에 대비토록 한 가운데 연대에서 요망하는 전면방어 태세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전방대대의 교전 상황이 최고조에 달한 이날 밤 42 : 00에 뜻밖에도 산줄기로 가로막힌 "활골" 마을 동쪽 계곡에서 적이 출현하였다.

적이 공격한다면 당연히 기동로가 양호한 엄소리나 최단거리 접근로인 "마치고개"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로 표고가 500-600m를 헤아리는 첩첩 산중인, 그것도 암석과 급경사로 면면히 이어진 산맥을 넘어서 측방 공격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이때 잣나무 고지(당시 참전 장병들이 이름 붙인 무명고지 : CS 700685)에 있던 제5중대의 제3소대장 함세영 소위는 동 고지우 하단으로 추진한 청음초소에서 집적 신호가 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곳은 곧, "활골"에서 "왕방이"로 넘어가는 산길 어귀로서, 만일 이곳이 돌파된다면 427고지는 물론, 그 후방의 연대지휘소까지 위협을 받게 되므로 최초부터 이 지역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예상 밖의 지역으로 적이 침투하여 측방공격을 가해오자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소대장은 곧 중대에 적의 공격 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전 소대원들을 독려하여 전투태세로 돌입하였는데, 이곳을 점령한 지 2시간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각개병사들은 벌써 개인호를 거의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서 이에 맞서게 되었다.

(2) 제5중대의 분투

보급이 두절되어 세 끼니를 굶었고 일주야(一晝夜)에 걸친 교전과 기동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대대장이나 중대장들이, "이제는 더 물러설 곳도 없다. 이곳을 우리의 무덤으로 알고, 죽지 않으려면 호를 파자"고 하는 격려에 힘입어 각개병사들은 개인호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전이 시작되자 7부 능선상의 유리한 진지를 확보한 소대원들은 가파른 능선을 기어오르는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김석율(金錫律) 소위가 지휘하는 중화기중대 제2소대의 중기관총 2개반이 좌우 양측방에서 교차사격으로 "활골" 개활지를 휩쓸자 공격해오던 적은 무수히 쓰러지면서 개울을 따라 서쪽으로 도주하고 남은 일부는 "활골" 뒷산 계곡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이때에 잣나무 고지 서쪽의 제1소대가 소대장 장희덕(張熙德) 소위의 지휘 하에 개울 쪽으로 밀리는 적에게 다시 집중사격을 가하자 이들은 어둠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산산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 무렵 81mm박격포 소대는 10여발 밖에 남지 않은 조명탄을 시차로 발사하는 동시에 "활골"계곡에 30여발의 집중포격을 가하였으며, 사단의 제27포병대대에서도 그 후방의 576고지 일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적측에서도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다. 그 후속 부대들이 계속 "왕방이 고개"로 몰려들어 집중공격을 가함으로써 이후 3시간 동안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담당한 제5중대는 실탄이 모자라 2중의 난관을 극복하면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이 정면에는 사단포병의 지원이 적절하여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20일 03 : 00을 전후하여 적이 물러설 때까지 간단없는 포격지원이 계속되었다.

(3) 지원부대의 활동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가 바로 이 포병활동의 공헌이었다.

당시 사단에서는 1,157m의 용문산 봉우리에서 적의 움직임을 낱낱이 살펴보며 연속 부단한 포격으로 그들의 기도를 여지없이 분쇄하였는데, 특히 제27포병대대의 고문관 카스토로(Castro) 소령은 전방대대나 연대에서 사격요청이 없을 때는 자신이 직접 교전상황을 가늠하여 보고 임의로 사격제원을 제공하여 제2연대의 전면 방어진지 외곽에다 포격을 유도함으로써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 포대장으로 참전한 바 있는 그는 경계부대인 제2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다고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철야로 사격지휘본부에서 밤을 세우며 전방대대가 움직일 때마다 민완하게 대처하였다고 하니, 그가 이 전투 후에 본국의 은성무공훈장을 받은 것은 그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기 때문이었다.

그 반면에 적측에서 생각한다면 실로 탄식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최초에 도하작전에 성공하여 일선방어부대의 배후를 찔러 보았지만 종전과는 달리 분산되지 않고 축차로 철수하면서 계속 저항하는 데다, 제공권과 포병화력을 수반하지 못한 취약성 때문에 개활지로 나서지도 못하고 산악기동과 야간침투를 시도해 보아도 이와 같은 포병화력으로 말미암아 제압 당

함으로써 밀림 속에서 병력만 사분오열되어 병력손실만 가중되는 가운데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4) 427고지의 확보

사실상 이때부터 중공 제63군은 패전의 낙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공격개시 3일째가 되는 20일 새벽,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에 그들은 예비인 제189사단까지 투입하여 초월공격을 감행하였지만, 이도 또한 사단 주 저항선 전방의 가일리-방일리-묵안리 일대에서 군단 포병의 집중포격에 휩쓸려 주진지대까지 단 한발자국도 발을 붙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력지대를 벗어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427고지는 마치 바다 위에 솟아오른 작은 섬처럼 사면이 포화로 뒤덮이고, 특히 후방의 사단 주 저항선에 이르는 공간지대에는 무수한 포격이 가해지면서 전선은 점차 남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주저항선 전방에는 항공 조명이 이어지고 천지를 뒤흔드는 포성이 메아리치는 가운데, 427고지를 공격하던 적도 이미 전의를 상실하여 독전대의 총부리 앞에 무작정 밀려드는 군상에 지나지 않았다. 즉, "왕방이 고개"로 오르려던 적이 수류탄 몇 발을 던지자 흩어지는 양상이 그러했고 제7중대의 제1소대장 박상호(朴商浩) 소위가 사로잡은 포로는 탈진한 상태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결국 이들은 제2대대 장병들의 분투와 지원 포병의 효과적인 근접지원으로 끝내 427고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산악지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날이 밝아오자 포격은 주저항선 전방에 집중되고 07 : 00부터 UN공군의 전폭기 편대가 날아와 남쪽의 설곡리(雪谷里)와 묵안리 일대의 골짜기 상공을 선회하면서 기총소사와 네이팜탄 공격으로 적의 간담을 녹이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뜻하지 않게 연대 지휘소가 적의 기습을 받아 혼란이 야기되었다. "왕방이" 마을 남단의 독립가옥에 위치한 지휘소에서 연대장은 353고지의 제3대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부심 하던 중, 산 능선을 따라 측방으로 침투한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분산됨으로써 일시에 지휘기능이 마비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단 수색중대의 노력으로 이 적을 격퇴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427고지의 제2대대는 현 진지를 확보한 가운데 더욱 진지를 보강하고 있었다. 이때에 사단의 L-19 정찰기가 427고지의 상공에 출현하여 확성기를 통해 장병들의 분투를 고무 격려하였다.

이미 유선통신은 두절되고 무선 통신마저 폭음과 잡음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가운데 사단의 이 같은 배려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주효하였으며, 그 효과는 곧 진지를 보강하는 병사들의 손길에서 나타났다.

더욱이 이날 10 : 00에는 사단장 장도영 준장이 제19연대 관측소에서 직접 무전기를 들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사단장 : 2연대장인가?

제2대대장 : 네,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단장 : 조금만 참아라. 곧 실탄을 보급해 줄 것이다. 그때까지 뚫리지 말아야 한다. 내가 여기서 내려다보고 있다.

제2대대장 : 알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대화가 오고 갔을 때에는 환성을 지르며 모두 기뻐하였다.

사단장은 기도비닉때문인지 사단 주력의 공세이전 사실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 여운으로 이를 직감할 수 있었으며 연대장을 대신하여 대화에 나선 제2대대장은 일부러 수신기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개방하여 주위의 장병들이 다같이 듣게 됨으로써 환성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사단에서도 이와 같이 제2연대에 못지 않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패색이 짙어지는 적에 대한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날 05 : 00에 제7연대와 제19연대로 하여금 이미 반격을 단행케 하였던 것이다.

이로부터 대대의 장병들은 진지를 재정비하면서 전방에 흩어진 무수한 적의 시체를 확인하고 3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때에도 남쪽에서는 미 제5공군의 대지공격과 포격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주로 포병 사격은 묵안리 계곡에 집중하고 전폭기들은 가일리(可逸里) 서쪽의 개활지 일대를 강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이에 어느덧 정오를 지나 13 : 00가 되자 353고지의 제3대대가 철수하여 공백지대로 남아있던 서쪽의 341고지를 점령하고, 이어서 15 : 00에는 제1대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하여 합세하게 됨으로써 연대의 전 병력이 427고지로 집결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3개 대대장이 한자리에 모여 선임자인 제2대대장 김덕복 소령의 지도 하에 진지를 조정하고 상호 협조하며 차후의 작전에 대비하니, 이제 연대는 427고지를 확보하여 완전한 전면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제1대대는 병력이 300여명밖에 안되어, 제일 크게 타격을 받고있었으므로 427고지 남쪽 능선의 제7중대 진지를 인수하여 설곡리 정면으로 지향한 800m의 방어 정면을 담당하였으나 이 병력마저 견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대체적인 소속을 가름하여 10m의 간격을 두고 3선의 종심을 갖도록 중복 배치하였다.

이는 적이 아직 427고지 남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진지를 튼튼히 하고자 함이었으나 반격부대인 제19연대와의 연결과정에서 아군의 소총탄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제1대대의 진지점령을 끝으로, 사선을 물고온 제2연대의 장병들이 이제 마지막 보루인 427고지를 사면으로 에워싸고 이를 고수하자고 다짐하고 있을 때, 돌연 제3대대 진지 전방의 328고지(CS 684645)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10여분 동안의 교전이 이어지는 사이에 남쪽에서 날아온 총탄이 제11중대 진지에까지 미치자 동 중대는 사격개시 신호를 울리고 일제히 응사하였다.

이에 이르러 피아간에 박격포 사격까지 가하면서 사격전을 벌이는 동안

에 엉뚱하게도 제8중대에서 2명의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지켜본 제3대대장 김두일 대위가 상대방은 적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사격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상대편에서도 사격을 중지함으로써 마침내 제2연대의 제11중대와 제19연대의 제3중대가 동면(CS 695645)에서 서로 연결을 이루게 되었다. 이때가 20일 19 : 00로서 실로 필사의 방어 46시간만에 만나는 감격 어린 장면이었다.

그 뒤로 20 : 00에 이르러 사단에서 추진된 탄약과 식사가 200명의 노무단에 의해 427고지로 운반되었으며, 선두에서 달려온 제2대대 부대대방 송기덕(宋奇德) 대위가 실탄과 주먹밥 및 레이숀 등을 분배할 때 각개병사들은 제일 먼저 실탄을 가져가려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병사들은 저마다 일인당 8크립들이 포제용 탄띠를 3-4개씩 어깨에 둘러메고도 모자라는 듯, 5-6발씩의 수류탄을 챙긴 후에야 주먹밥을 받아먹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대대장은 "강한 전투의지 앞에 탄복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소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사실상 이때 대부분의 병사들이 허기를 메우려고 잣나무 껍질을 벗기어 목을 축임으로써 하얗게 변한 나무를 보고 전투 후에 어느 기자가 "이 감투정신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사진을 찍어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투의지를 보여준 것은 당시 제2연대 장병들의 감투정신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제 충분한 실탄을 소지한 장병들은 마음도 든든히 야간경계 태세로 들어가 연일 겹친 피로를 풀고자 교대로 경계근무를 하는 여유를 보이면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다.

9. 공세이전(攻勢移轉)

1951년 5월 16일부터 시작된 적의 제2차 춘계공세, 즉 그들의 이른바 제5차 제2단계 작전은 19일을 고비로 하여 그 역량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시

작하였다. 비록 동부 전선에서는 제3군단의 전선을 돌파하여 공격 개시 3일만에 40km 후방까지 침투하였으나 중부전선, 특히 용문산 정면에서는 겨우 12km를 진출한 후, 제6사단의 경계부대인 제2연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주 저항선에는 단 한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 채 미로를 헤매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동부 전선에서는 미 제2사단 예하의 제38연대가 현리(絃里)에 형성된 돌파구의 좌측 견부(肩部)를 확보하고 홍천 북쪽 16km의 778고지(일명 방카 고지 : DS 037876)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진 진로를 봉쇄함으로써 효과적인 전과 확대를 기하지 못하고 오직 이 양 지역을 돌파키 위하여 총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귀중한 시간을 획득한 미 제8군에서는 군의 예비인 미 제3사단을 비롯한 미 제187공수연대 전투단과 제8사단을 이천(利川)과 양평(楊平) 그리고 전주(全州) 지구에서 각각 긴급 출동시켜 이에 대비하니, 적의 공격 기세는 점차로 약화되어 마침내 전기(戰機)가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1) 사단의 실정

용문산 지역을 담당한 제6사단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른 채, 주 저항선 전방으로 7km나 떨어진 제2연대가 353고지와 427고지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전황을 지켜보면서 이 고립된 부대와 연결 작전을 실시할 반격의 시기가 과연 언제일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부심하여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특히 정보참모 최택원(崔澤元) 중령과 작전참모를 겸임하고 있는 인사참모 박창원(朴昌源) 중령은 공세이전 문제를 놓고, 적의 공격력이 약화된 시기를 포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제2연대를 구출키 위하여는 "포병 화력으로 적을 제압한 다음 20일 이후에 반격을 결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이를 사단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공세이전 문제는 사단장이나 군단장의 결심으로 시행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노네임"(No Name) 선상의 반격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까닭에 어느 국부적인 전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일선 사단의 건의나 전황 보고가 군단을 거쳐서 속속 종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급 부대 참모들의 반응은 곧 어떤 지시가 있으리라는 암시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그렇지만 사단으로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19일 밤에 제2연대가 무전으로 아직도 혈투중임을 보고해 왔을 때, 사단 지휘소에서는 일반 및 특별 참모는 물론이요 고문관이나 지원 부대의 장교들과 인접 부대의 연락 장교들까지 상황실의 안팎에 모여서서 군단 정면에 홀로 남아있는 동 연대의 전황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금치 못했다. 이 광경을 회고한 당시의 사단 의무중대장 윤봉찬(尹奉燦) 대위는 그 수기에서 밝히기를, "몇 끼니를 굶고 실탄도 다 떨어져 가는 상태에서 아직도 사투중이라는 무전 보고를 받았을 때 천막 안팎을 가득 메운 장교들이 탄성을 금치 못했으며, 너무 초조한 나머지 한두 번 빨다가 버린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갔고 어떤 장교는 동쪽 하늘을 향하여 어서 날이 밝으라고 외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대체로 이와 같은 상황이니, 상하급 부대나 인접 부대 및 지원 부대 간에는 신속한 협조가 이루어져 항공 조명 및 포병 화력 지원이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특히 포병 제27대대의 사격지휘본부에서는 자대의 포병 뿐만 아니라, 증원 포병과 인접 부대의 포병 연락장교에게까지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며 연속적인 포격을 가하였다.

(2) 공격 계획

이상과 같이 제6사단이 적중에 고립된 제2연대를 구출키 위하여 부심하고 있던 19일 밤에 전격적으로 군단에서 공격 명령이 하달되었다.

우선 이 명령이 하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 제8군 사령관 벤프리트 대장의 주재로 군단장급 이상의 야전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미 제8군의 공격 계획인 확정되었던 것이다. 군단에 해당되는 이 계획상의 명령을 보면,

「① 각 군단은 현 "노네임" 선으로부터 "토페카"(Topeka)선 (군단정면에는 수덕산(修德山)-가덕산(加德山)-소양강 하구로 이어지는 선)으로 협조된 공격을 실시할 준비를 하라.

② 토페카 선에 도달하면 명에 의거 계속 "칸사스"선 [화악산(華岳山)-화천(華川)-유촌리(楡村里)] 으로 전진할 준비를 하라.

③ 제1군단 및 제9군단의 공격 개시일은 5월 20일이다. 군단장은 공격개시 시간, H시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즉, 상급 사령부에는 이미 적의 역량을 헤아린 나머지 "칸사스"선을 목표로 반격작전을 탄행키로 결정하고 그 중간 목표를 "토페카"선으로 선정하여, 먼저 중서부 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으로 하여금 바로 다음날인 20일에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이 명령을 받은 미 제9단장 홋지(Hoge) 소장은 본 작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 작전으로 "토페카"선을 확보한 다음, 명에 의거 "칸사스"선에 이르는 제2단계 작전을 전개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토페카"선까지 도상거리 40km에 달하는 기동축선을 검토한 끝에 두 개의 통제선을 설정하여 청평강과 홍천강으로 이어지는 제1차선을 "죠지아"(Georgea)선으로, 가평-북한강-의암(衣岩)간의 제2차선을 "미시시피"(Mississippi) 선으로 각각 명명한 다음 우선적으로 "죠지아"선을 확보하는데 주력키로 하였다.

이것은 곧 당면의 적을 우선적으로 격멸하려는 의도이거니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휘하의 4개 사단으로 하여금 현 접촉선에서 병행 공격으로 "죠지아"선까지 동시에 진격토록 하였으며 공격개시 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은 사단장들의 건의를 참작하여 20일 05 : 00로 결정하였다.

성문화된 명령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시각

을 다투는 이 시점에서 그는 개략적인 선만을 그어주고 일선 사단장들에게 제량권을 부여하여 각각 선정된 목표를 탈취토록 명령하였을 것이며, 일단 "죠지아"선을 확보하면 상황에 따라 대응키로 하고 우선 예하 부대에 가용 시간을 더 주도록 배려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어떻든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제6사단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2연대를 구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실정에 비추어 연결 작전에 최우선권을 두고 20일 02 : 00까지 각 예하대에 투명도형의 약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런데 사단 작명 제160호로 하달되었다는 이 명령 역시 원문이 없으므로 체계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전개된 상황으로 보아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 사단장의 작전 개념은, 제7연대를 우, 제19연대를 좌로하여 현 배치선에서 공격을 개시, 제2연대와 연결한 다음 당면의 "죠지아"선으로 진출토록 한다.
② 경계 부대인 제2연대는 전 병력을 427고지로 집결하여 전면방어 태세로 이를 확보하면서 적의 퇴로를 차단토록 한다.
③ 현 주저항선은 공병 대대와 사단 교육대로 하여금 인수케 하여 우발 사태에 대비하면서 사단 예비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시킨다.
④ 포병 대대는 현 제압사격으로부터 공격 준비사격으로 전환하여 중간 목표에에 대한 충분한 포격을 실시토록 한다.
⑤ 각 연대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연결작전 과정에서 상호 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⑥ 탄약과 식사를 준비하여 제2연대에 추진할 수 있도록 대비시킨다.』

이상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으나 공격 목표의 선정과 기동 계획이 불투명하고 더욱이 적정 판단에 있어서는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명령을 받고 03 : 00부터 곧 시행에 착수한 것은 제7연대와 제19연대 및 사단 교육대 등이며, 다른 부대 특히 경계 부대인 제2연대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음날인 20일에 이르러서야 동 연대의 제2대대장 김덕복 소령이 사단장으로부터 "탄약과 식사가 곧 추진될 것이다"라는 무전 통보를 받음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암시적으로 추측할 따름이었다.

이 같은 차질은 19일 밤에 제2연대가 아직도 격전 중에 있었으므로 포격과 혼전으로 말미암은 통신의 두절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적을 포위 격멸키 위한 기도비닉에서 의도적으로 유보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결국 이로 말미암아 연대간의 연결 과정에서 우군끼리 충격전을 벌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야 어떻든 이제 대망의 공격 작전으로 이행케 된 것만은 확실하며, 제2연대와의 연결이 곧 눈앞에 다가서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공격과 연결

5월 20일 05 : 00, 제7연대와 제19연대는 용문산 좌우의 주진지를 공병대대(대대장, 朴正采 중령)와 사단 교육대(대장, 田東植 소령)에 각각 인계하고 주 저항선의 철조망 통로를 빠져나가 일제히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양연대는 급경사를 이룬 용문산의 북쪽 능선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2km를 전진하는 동안 적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제19연대의 선두가 묵안리(墨安里) 계곡으로 들어서면서 "조항" 마을 일대에 버려져 있는 적의 시체와 흩어진 보급품들을 보고 곧 병력을 전투대형으로 전개시켜 마을 주변을 수색한 다음 계속 전진하였다.

1) 제19연대의 공격과 연결

연대는 당초에 제3대대를 우, 제1대대를 좌, 제2대대를 예비로 하여 427고지 서쪽의 벽암산(霹岩山)을 목표로 용문산 진지를 박차고 나섰는데, 기동로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최초에는 대대 단위의 전술 종대로 전진하다가, 바로 이 묵안리 계곡에 이르러 병력을 전개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좌일선인 제1대대가 "조항" 마을에서 포격에 격멸 된 적의 양상을 목격하고 제2중대와 제3중대를 좌우로 전개, 그 북쪽의 방일리로 진출하던 중, 속칭 "샘골" 부근에서 수 미상의 적이 사격을 가해옴으로서 반격이후 최초로 사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때에 대대장 김준교(金俊敎) 소령은 적을 증강된 소대 규모의 정도로 판단하고 일거에 이를 격멸한 다음, 신속히 제2연대와의 연결을 기하고자 제2중대장 장갑석(張甲錫) 중위로 하여금 좌측 능선을 따라 이 적을 공격케 하는 한편, 제3중대장 송복섭(宋福燮) 중위에게는 계속 전진하여 중간 목표인 328고지(CS 684645)를 탈취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은 빗나가고 말았다. 사실상 이때 적은 제2연대가 전면 방어중인 427고지를 우회하여 용문산으로 직행하기 위해 묵안리 계곡으로 들어섰다가 사단의 탄막 지대에서 포격을 받은 뒤로, 다시 좌인접인 제2사단과의 전투지경선상에 돌파구를 개척할 목적으로 여기에 집결 중이었던 만큼 그 병력이 연대 규모에 이르고 상당한 지원화기도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전이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도 제2중대는 293고지에서 돈좌된 채로 전혀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328고지로 향하던 제3중대 역시 283고지(CS 693637)의 서쪽 계곡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뒤로 밀리고 있었다. 이때 대대장은 "조항" 마을 서쪽의 무명 고지에서 무전을 통하여 일선 양 중대장에게 엄중한 질책과 함께 돌격을 감행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연대장 임익순(林益淳) 대령도 또한 용문산 서쪽의 827고지(CS 683591)에서 이를 지켜보며 "전진 속도가 늦다"고 꾸짖었지만, 사실상 이 양 중대의 공격으로는 쉽사리 적을 파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e대장이나 연대장이 이 같은 적정을 간파한 것은 이로부터 40여분이 더 경과한 11 : 40에 이르러서이며, 대대는 이미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난 뒤였다.

이에 연대장은 사단에 포격을 요청하여 283고지와 340고지간의 "샘골" 일대에 집중포격을 가하는 한편, 제1대대장으로 하여금 주력으로써 "샘골" 북쪽의 무명 고지를 탈취케 하고 제3대대장 박종길(朴鐘吉) 소령에게는 1개 중대를 설곡리(雪谷里) 정면으로 진출시켜 283고지를 탈취토록 명령하였다.

그런데 이 양 고지는 연대의 중간 목표인 328고지에서 남쪽으로 1~1.5km쯤 떨어진 방일리(訪逸里)의 남쪽 고지군으로서 주위의 높은 고지에

비하여 표고는 낮으나 이를 탈취하면 서쪽으로 개활지가 전개되고 삼면으로 통로가 연결되어 전투 전개가 용이한 이점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적측에서도 이 지대의 확보를 위해 완강히 저항을 시도함으로써 이후에도 2시간 동안이나 격전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대 적은 이미 저항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으며, 그들 주력의 철수를 엄호키 위한 마지막 수단을 구사하고 있었던 만큼 14 : 00를 넘어서면서부터 점차로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진지를 이탈하여 북서족의 천안리(天安里) 계곡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호기를 포착한 제1대대장 김준교 소령은 중화기 중대장 조천성(曺千成) 대위에게 포격으로 도주하는 적을 격멸케 하는 한편, 제1중대로 하여금 돌격을 감행케 하여 연대장이 지시한 무명고지를 탈취한 다음, 15 : 00까지 그 주변 일대의 고지들을 수색하였다.

이 무렵 제3대대의 제10중대도 김창영(金創英) 중위의 지휘 하에 283고지를 점령하고 목표 점령 신호를 올렸다. 그런데 이 교전 과정에서 제1대대장은 진두에서 직접 중대장들을 독려하며 대대를 지휘하여 목표를 탈취하고, 그 직후에 무명고지로 올라섰다가 적의저격을 받아 하퇴부에 두 발의 관통상을 입게 되었다. 이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선임중대장인 제1중대장 최재균(崔在均) 대위에게, 부대대장이 도착할 때까지 대대를 지휘하여 중간 목표인 328고지를 탈취하도록 명령하고, 용문산 후방의 대대 본부에 있는 부대대장 임완식(林完植) 대위에게는 즉시 현지로 부임토록 지시하였다.

이대부터 제1중대장의 지휘 하에 공격을 계속한 제1대대는 이제 제3중대를 우, 제1중대를 좌, 제2중대를 예비로하여 328고지를 목표로 그 양쪽 능선상에 병력을 전개하고 공격을 계속하였으며 동고지의 6부 능선에서 소대규모의 적이 일시 저항하였으나 좌우 일선의 양 중대가 협공을 가하여 가볍게 이를 물리친 다음, 18 : 00에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로써 대대는 연대의 중간 목표를 탈취하게 되었으나, 여기에서 뜻밖의 불상사가 야기되었다. 17 : 30경, 제3중대가 동 고지 중복에서 정상을 향하

여 공격하고 있을 때 돌연 북동쪽의 무명 고지에서 총탄이 날아오자 순발적으로 이에 응사하여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5분이 지난 후에 다시 81mm 박격포탄 2발이 낙하하여 중대의 60mm포수와 무전병이 현지에서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피아간에 총성과 포성을 듣고 우군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사격을 중지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부대간의 협조 결여에 기인된 실로 아까운 손실이었다. 그 후 조심스럽게 상호 접촉하여 확인한 결과 이 병력은 제2연대의 제3대대로서, 사주의 적과 싸워야 했던 동 대대는 진전으로 다가오며 사격을 가하는 제19연대의 병력을 보고 적으로 오인하여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 불상사는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지만, 마침내 양개 연대가 상호 연결을 이루게 되었다. 19 : 00에 제19연대의 제3중대장 송복섭 중위와 제2연대의 제11중대장 이복우(李福雨) 중위가 동면 북쪽의 무명 능선(CS 695645)에서 상호 연결함으로써 제2연대의 경계지대 작전이 성공리에 끝났으며, 이 소식은 곧 전 연대에 전파되어 희비가 엇갈리는 일순간이 지나갔다.

한편, 제19연대장 임익순 대령은 주공인 제1대대가 중간 목표를 탈취한 뒤로 적의 저항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대장을 대리하고 있는 제1중대장에게 계속하여 최종 목표인 벽암산을 탈취토록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최재군 대위는 때마침 제3중대가 제2연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으므로 연결 임무를 동 중대에 부여하고, 이 공격은 제1중대의 선임장교인 정시흥(鄭時興) 중위에게 특공대를 편성하여 중대 단독으로 벽암산을 탈취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일견 무리한 듯 하나, 사실은 제1중대의 진출 선단이 벌써 "양방" 마을에 다다라 벽암산 남서쪽 700m의 거리에 육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기슭에 흩어진 적의 시체와 보급품들이, 정신 없이 달아난 적의 양산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는 까닭에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이를 기습적으로 탈취키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과연 이 판단은 적중하였다. 2개 소

대의 특공대로 급변한 제1중대가 18 : 50에 과감히 벽암산 정상으로 돌진하였을 때 이곳에는 분대규모의 경계병밖에 없었고, 단숨에 이를 소탕하고 난 직후인 19 : 10에 그 북서쪽 능선을 기어오르고 있는 소대 규모의 적을 격퇴한 것을 끝으로 이 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대대는 성공리에 이 날의 작전을 종결짓고 22 : 00부터 적의 역습을 대비한 경계태세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사단에서 지원된 헬리콥터편에 대대장 김준교 소령이 17 : 00에 후송되고 19 : 00에는 제2연대와 연결되었으며, 이어 20 : 00에는 부대대장 임완식 대위가 현지에 당도하여 대대를 지휘하게 되어 다음 전투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우일선인 제3대대도 큰 교전이 없어 목표선까지 진출하여 묵안리 북쪽의 423고지와 283고지에서 다음 전투에 대비함으로써 연대의 이날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결짓게 되었다.

2) 제7연대의 공격

사단의 우일선인 제7연대는 연대장 양중호(梁仲鎬) 대령의 지휘 하에 제2대대를 우, 제3대대를 좌, 제1대대를 예비로 하여 봉미산(鳳尾山)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05 : 00부터 주 저항선상의 철조망을 통과하기 시작한 연대는 일선 양 대대가 예정 시간에 729고지의 제1대대 진지를 초월하여 08 : 00에 686고지(CS 730610)와 국수터(CS 710620)간의 묵안리 일대에서 병력을 전개한 다음, 주공인 제2대대는 비치고개(CS 733619)를 넘어 봉미산으로 직진하고 조공인 제3대대는 그 서쪽 1.5km의 596고지를 목표로 병행 공격하였다.

그런데 이 양 대대가 "비치골" 계곡을 횡단하여 목표의 1km 전방으로 접근할 때까지 진출 정면에는 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다만 북서쪽의 설곡리(雪谷里) 계곡에서 11 : 00부터 시작된 UN 공군의 대지공격이 1시간 이상이나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대지 공격이 가해지는 장소는 제2연대가 전면 방어중인 427고지의 동쪽 고지 일대로서, 바로 연대의 공격 목표인 596고지와 접경 지대이고 보

니 머지 않은 거리에 적이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나 아직도 연대 정면에는 접적이 없었다. 그리고 표고 500내지 800m를 헤아리는 산악 지대를, 그것도 수림이 우거진 험로를 헤치며 계속 전진한 양 대대가 각각 목표를 무혈 점령한 15 : 00까지도 역시 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연대장은 596고지를 점령한 제3대대로 하여금 대지 공격을 가하던 설곡리의 453고지(CS 713646)를 탈취케 하였다.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동 대대가 17 : 00까지 아무런 적의 저항이 없이 453고지를 점령하고 보니 능선과 계곡에 적의 시체와 휴대품들이 흩어져 있을 뿐 생존자는 이미 도주하고 없는 상황이었다.

동 고지를 점령 후 주변을 수색하던 중, 그 북동쪽 1.5km의 632고지(CS 721654)에서 적의 포탄이 날아와 제11중대 제1소대에서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대장 송광보(宋廣保) 소령은 제11중대장 정세영(鄭世永) 중위에게 632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로부터 공격을 재개한 제11중대가 18 : 30에 632고지의 서쪽능선으로 진출하자 뜻밖에도 적의 저항이 강력하였다. 선두에서 약진하던 제1소대가 적의 집중사격에 부딪혀 그 중복에는 돈좌되는가 하면 후속한 제2소대도 역시 그 이상 진출치 못하고 사격전을 전개하였으며, 뒤따르던 화기 소대장 김성진(金星珍) 소위가 60mm 박격포 사격을 연속적으로 가하여도 그 기세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이 같은 돌연한 상황에 직면한 중대장은 적의 저항 양상으로 보아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중대 단독 공격이 불가능함을 건의하였으며, 대대장도 또한 대대 규모 이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하고 연대에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공격 병력을 증강키 위하여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연대장은 곧 공격 중지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미 일몰이 가까운데다 1개 대대가 단독으로 돌출부를 형성하는 것을 경계하여 일단 현 진출선에서 다음 전투에 대비키로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제3대대는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진출선을 재정리하여 453고지를 중심으로 방

어태세를 취하고, 제2대대는 봉미산과 596고지간에 급편 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대체로 횡좌표 64선에서 다음 전투에 대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공격을 끝으로, 중공 제187사단의 주력을 격멸할 수 있는 호기는 놓치고 말았다. 사실상 이 때 632고지의 적은 대대 규모의 엄호 부대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주력은 바로 그 북쪽의 동막리(東幕里) 계곡에서 집결 지대를 설정하고 3,000여명이 집결하여 퇴로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당시 산악기동으로 용문산을 향하여 침투하다가 나산과 427고지에서 제2연대로부터 타격을 입고 다시 설곡리와 묵안리 일대에서 아군의 포격과 대지 공격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데다 새로이 나타난 일단의 공격부대를 보고 퇴각하기 시작하였으며, 더구나 3일 동안의 연속적인 기동과 교전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날의 아군 진격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시간 여유를 허용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이것으로 20일의 작전을 종결짓게 되었으나, 여기에서 사단의 반격 시기, 진격 속도, 그리고 전과 확대에 관한 문제는 차후 작전을 수행하는데 평가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19연대의 연결과, 고립되었던 제2연대에 실탄과 식사 등을 추진한 쾌거는 다음 전투를 위하여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4) 작전 지역의 회복

중부 전선에서 용문산으로 침공한 중공 제63군은 20일 밤부터 접촉을 단절하고 분산 철수한 후, 21일 03 : 00을 기하여 전면적으로 철퇴를 개시하였다.

따라서 21일 06 : 00에 공격을 재개한 제7연대와 제19연대가 당일에 494번 도로까지 진출하는 동안 일부의 엄호 부대만이 산발적으로 저항할 뿐 특기할만한 교전이 없었으며, 다시 22일에 최종 목표인 "죠지아"선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일방적인 소탕전으로 일관되었다.

제7연대는 21일 06 : 00에 공격을 재개하여 08 : 00에 632고지를 손실없이

점령한 뒤로 계속 전진한 끝에 나산을 경유, 22일 13 : 00에 홍천강 남안의 죠지아 선까지 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낙산에 잔류한 적의 엄호 부대와 경미한 교전이 있었을 뿐, 아무런 적의 저항없이 12km를 북상하여 사단의 작전 지역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이 진출 과정에서 선두에 선 제1대대가 22일 07 : 00에 장낙산 서쪽 능선에서 증강된 소대 규모의 적을 격파하여 대부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였으며 특히 나산과 미사리 지역에서는 110여구의 적의 시체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는 벽암산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제2연대 제3대대의 격전장이었던 353고지와 곡달산간의 야산 지대를 답파한 끝에, 신천리를 점령하고 이어 청평강 남안의 울업산까지 위력수색대를 진출시킴으로써 21일에 당면의 "죠지아"선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6사단의 용문산 방어전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무려 827구의 적의 시체를 확인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제2연대의 전과로 판명되었으며 연대에서도 이날 4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제2연대의 낙오 병력 6명과 중상을 입은 동 연대의 제9중대장 박홍기 중위를 구출하여 호송하였다.

그 후 22일에 제2대대가 보납산(寶納山)을 공격하여 중대 규모의 적을 격멸하고 7명의 포로를 획득하였는데, 이들은 청평댐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후까지 남은 엄호 부대인 듯, 3시간 동안을 저항하다가 대부분이 사살되고 그 일부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나룻배로 강을 건너 도주했다.

한편 제2연대는 427고지를 계속 확보하면서 부대를 정비하던 중, 21일 하오에 사단에서 나산과 353고지 및 328고지를 수색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각 대대장이 지명한 3개 중대가 각각 담당 지역을 수색하였는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나산으로 올라간 제2중대는 4시간 동안을 수색하였으나 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아군의 시체 2구를 찾아내어 들것으로 연대까지 호송하였으며, 353고지로 나간 제7중대는 퇴로를 잃고 방황하는 10명의 적을 사살하고 1명의 포로를 잡아 복귀하였고, 328고지로 나간 제10중대는 유기된 적

의 시체만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단은 "죠지아"선 남쪽의 전 지역을 확보하고 다시 수색대를 강북으로 진출시켜 적의 동정을 살펴보면서 다음 명령을 대기하게 되었다. 그동안에 용문산 주봉에 예비로 남아있던 사단 교육대가 위육골 부근으로 이동하고 공병 대대는 본래의 임무로 복귀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은 필사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제2연대 장병들을 직접 격려하기 위해 험준한 산길을 따라 21일 하오에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왕방이 마을에 위치한 제2연대의 지휘소를 방문하였다. 그는 도착 즉시 수훈의 제3대대장과 부상을 무릅쓰고 대대를 지휘한 제1대대장에게 각각 임시 소령계급장을 손수 달아주고, 전투전대수색전 과정에서 공을 세운 바있는 제7중대장 이좌균(李佐均) 대위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을, 그리고 그가 지휘한 중대에는 부대 표창장을 수여한 다음, 제2연대 장병들의 전공을 높이 치하하였다.

그 후 제2연대는 22일 21 : 00에 청평강 남쪽의 송산리(松山里) 부근으로 전진하여 다음 전투에 대비함으로써 제6사단은 용문산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종결짓고 고도의 사기를 유지한 가운데 추격전에 임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한국전쟁전투사용문산전투,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pp. 7-155)

II. 용문산전투의 전략적 의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문위원 정 석 균

용문산전투는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으로서는 가장 큰 전과를 거둔 전투로 중공군의 최후의대공세를 물리치고 공세 이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용문산에서 화천발전소까지 약 60km를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던 작전이었으며, 이 전투과정에서 수많은 중공군을 사살하고 아군도 많은 피를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였다.

1951년 소위 중공군의 "춘계공세 2차 작전"에서 큰 손실을 보고 국군과 유엔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공산군은 용문산 전투 후 1개월도 못되어 주 유엔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하여 휴전을 제의해 왔고 전쟁은 잠시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용문산 전투는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고 작전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전략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전훈(戰訓)을 발굴하고 이를 후세에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1951년도 춘계공세 이전까지의 전황

1950년 중순에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온 중공군은 초기작전에서 수적으로 월등히 우세한 병력과 산악기동 능력 및 야간전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서부전선에서는 10월과 11월에 청천강 일대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으로 구성된 미 제8군을 격파하고,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 소속의 미 해병 제1사단의 북진을 장진호 부근에서 격퇴하였으며, 12월에는 그 공세를 계속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38돈선 이남으로 몰아 부치고 수도 서울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인 1951년 1월 24일에

는 오산(烏山)-제천(堤川)-삼척(三陟)을 연하는 북위 37도선까지 남하함으로써 그들은 참전 3개월여 만에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무기체계와 편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공군에게 그토록 무기력하였다는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워싱턴 당국은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문제까지 고려하게 되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참전국가들이 "정전을 해야 한다"고 제의하는 등 어이없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은 중공군은 유엔군 측의 휴전제의마저도 일축하고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려는데 야심을 품고 있었다.

전황이 여기에 이르자 워싱턴당국은 미국의 국가적 위신과 우방의 신뢰 그리고 군사적 주도권의 확보라는 명제아래 더 이상 철수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반면에 중공군은 병참선이 연장되고 혹한까지 겹쳐 동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수만 명으로 늘어나 크게 위축되었으며 유엔 공군기의 적극적인 공중공격으로 그 피해가 아군보다 훨씬 많았다.

이러한 전황을 판단한 국군과 유엔군은 1951년 1월 25일부터 재 반격 작전을 단행하여 2월 10일까지 "썬더볼트(Thunderbolt)작전"을 전개한 끝에 한강(漢江) 남안까지 진출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라운드 업(Round Up) 작전"과 "킬러(Killer)작전" 및 "리퍼(Ripper)작전" 등을 전개하여 3월 15일에는 수도서울을 재탈환하고 이어 3월 말에는 38도선을 넘어 화천저수지와 발전소를 연결하는 칸사스(Kansas)선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 중공군은 새로운 공세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적을 충분히 끌어들이고 부대위치와 규모, 국적을 파악한 후 그들은 한반도에 들어와 있는 70만 병력의 80%에 달하는 50여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동원하여 대공세를 전개하게 된다. 이 작전을 중공군은 제5차 작전 또는 중공군의 "춘계공세"라고 하여 4월의 제1차 춘계공세와 5월의 제2차 춘계공세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작전이 사실상 한국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제1차 4월 춘계공세의 결과

중공군이 1951년 4월 22일 전개한 제1차 춘계공세를 그 주공을 중·서부 전선으로 자향하여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 정면을 돌파한 다음 서울을 2중으로 포위하려 하였다. 이 때 임진강 부근에서 적과 접적하기 시작한 미 제1군단은 적에게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지연전을 전개하였으며 이 작전에서는 영국군 제29여단 그로스타셔(Gloucestershire) 대대의 용전(勇戰)으로 시간을 획득할 수 있었고 국군 제1사단과 미 제3사단이 신속히 전선을 정비함으로써 서울 북쪽의 이른바 골든선(Golden Line)에서 이들을 격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금화(金化)지구의 와이오밍선(Wyoming Line)으로 진출하려던 국군 제6사단은 사창리(史倉里) 계곡에서 중공 제20군 및 제40군 등 6개 사단의 집중공격을 받아 전선이 돌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가 크게 와해되어 1/3에 가까운 병력과 사단의 중요장비를 모두 잃고 30km이상을 후퇴해야하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미 제9군단은 사창리-화천선에서 가평-춘천선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를 지켜본 미 제8군사령부에서는 전 전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미 제9군단을 홍천-용문산-덕소 지역까지 철수시킴에 따라 전선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중공군 측은 5월의 제2단계 춘계공세작전을 계획하였으며 중공군과 북한군이 합세한 새로운 공격집단을 형성, 제2차 춘계공세를 감행하고 이 작전에서 그들은 현리(縣里)지구의 제3군단을 포위하는 동시에 미 제9군단의 제6사단을 재차 공격하게 되는 바 그 지역이 바로 용문산이었다.

전투경과

용문산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삼각주이자 한반도의 중원인 경기

도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표고는 1,157미터로 수도 서울의 동쪽을 방호해 주는 주요한 요충지이다. 용문산전투는 1951년 5월 18일에 중공 제63군의 선제공격으로 개시되어 국군 제6사단의 일반전초부대인 제2연대가 5월 19일까지 2일 동안에 걸친 혈투로 전투진지를 사수하였고, 5월 20일 05 : 00를 기하여 바로 연결된 사단 주방어부대인 동측의 제7연대와 서측의 제19연대가 총반격작전으로 이어져 5월 22일까지 중공63군 예하 187사단, 188사단, 189사단 등 3개 사단을 격퇴시킨 전투이며, 호기를 간파한 국군과 유엔군은 곧바로 전과확대와 추격작전으로 이어져 일거에 60여km를 진출, 칸사스선까지 확보하였다.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개되는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 중에 제6사단은 가평 북쪽 지암리에서 중공군 집결지를 기습적인 포위공격 끝에 2,500여 명의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고 춘천 북쪽의 부용산(芙蓉山)을 넘어 화천발전소를 탈환하는 등 승승장구 개가를 울리면서 '칸사스'선까지 진출한 다음 5월 30일에 이 작전을 종결하였다. 따라서 이 작전을 용문산 방어작전의 성공으로 공세 이전하여 화천발전소 탈확작전까지 일련의 연속된 전과확대 및 추격작전으로 연결된 것이었다. 작전기간 중 중공군은 1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의 손실을 보았으며 주요 장비를 거의 포기하고 패주하기에 바빴고,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 수세 일변도로 몰리게 됨으로써 공산측에서 휴전회담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전선은 제한전쟁(制限戰爭)의 성격을 띠고 정치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고착전(固着戰)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용문산전투는 일개지역의 방어전투의 승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공세이전하는 호기를 포착, 칸사스선까지 60여km를 진격하여 크게 성공한 작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작전분석 및 교훈

(1) 철저한 전투분비와 진지고수정신

중공군의 1차 춘계공세시 사창리에서 대패한 제6사단은 참패를 설욕하기 위해 철저한 방어준비를 중공군의 공격 전에 완료하였다. 육군본부 인사국장 오덕준(吳德俊)준장이 대구의 제1보충대로 찾아가 1,044명의 보충병으로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양평까지 열차편으로 수송하는 등 총 2,000여 명에 가까운 병력보충이 있었으며 포병도 105미리 곡사포 18문을 새로이 지원받았다. 여기에 미 제9군단 예하 105미리, 155미리 포병과 8인치 포병 등 총10개 포병대대가 직접지원 및 일반지원 그리고 화력증원 형태로 화력지원이 가능하였으며 근접항공지원도 가능하였다.

또한 장병들의 진지사수정신은 대단하였으나 제2연대장 송대후 중령은 사단장의 진지사수 지시에 의거 전면방어형태의 방어편성을 강조하였고, 최초 연대 좌전방 방어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는 철모에 "결사(決死)"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전투에 임했다. 연대 우전방 대대인 제1대대는 사창리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깨끗한 죽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소지한 물품을 모두 태워버리고 손톱과 머리털을 잘라 고향으로 보내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다짐하였다. 제2연대는 이제 병력과 장비도 보충하였지만 장병들의 사기와 정신전력 면에서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진지사수(陣地死守)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5월 18일부터 중공군을 맞아 싸우는 장병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전을 시도함으로써 사단 경계부대인 제2연대가 주 방어진지가 아닌 경계부대지역에서 중공군 3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 끝에 이들을 격퇴하고 승리로 이끌었다.

(2) 적절하고도 강력한 화력지원

제6사단이 사창리에서 중장비를 적에게 피탈당하고 곡사포 한문도 없는 상태에서 105미리 1개 대대 18문을 신장비로 받고, 인접 국군 제2사단과 미 제7사단의 포병 그리고 군단에서 155미리 곡사포와 자주포 5개 대대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8인치 포병대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6사단에게는 커다란 전투력이 되었으며 수천 명의 중공군 사상자가 포병화

력에 의해 발생하였다. 가평군 설악면에 당시 거주한 전장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현 면소재지가 전쟁터였는데 폭격으로 숨진 중공군 시체 때문에 악취가 대단해 보리를 수확하지 못 할 지경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양평에서 가평군 설악면으로 산고개를 넘어와 청평댐으로 이어지는 남북을 횡단하는 도로가 미군 공병부대에 의해 개설되어 포병기동이 가능하였으며 비교적 전장지대를 감재할 수 있는 양호한 위치에서 화력지원이 최대로 이루어졌던 것도 승리의 한 원인이 되었다.

(3) 정찰기지편성과 수색부대의 사전 정찰활동

제6사단의 전승의 원인에는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손자(孫子)의병법도 인용되었다. 벤 프리트 미 제8군사령관의 정찰선 전방에서 '정찰기지(偵察基地)' 편성운용지시가 있었으며 연대수색중대가 북한강과 홍천강을 건너 전투 이전에 적의 활동에 관한 충분한 정찰활동을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시행함으로써 적의 공격준비 활동 등 그들의 공격기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어부대인 제6사단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방어준비에 임하였으며 심지어는 부사단장 임부택 대령이 전면방어에 대한 교육 내용을 괘도로 만들어 대대단위로 순회하면서 전면방어 진지편성 및 전투요령 등을 교육하여 만반의 방어준비에 임함으로써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전과 및 피해

(1) 전과 (1951.5.19~5.30, 12일간)

- 적 사살 : 21,550명
- 포로 : 2,617명
- 박격포 : 71문
- 기타 포 및 로켓 : 15문
- 기관총 : 189정

· 자동소총/기관단총 : 606정
· 각종소총 : 1,900정
· 트럭 4대, 실탄/포탄 : 54상자
· 군마 : 349필

(2) 피해 (1951.5.19~5.30, 12일간)
· 전사 : 107명
· 부상 : 494명
· 실종 : 97명
· 기관총/소총 : 170정
· M-7/8 발사기 : 123개
· 대검 : 323자루
〈자료 : 제6사단 전투상보〉

용문산전투의 의의

서울 동측방 방어와 공세이전(攻勢以轉)에 크게 기여

중공군은 2차 춘계공세의 주공을 중·서부지역인 용문산지역 돌파에 두고 양평 여주를 점령하여 수도권 방어부대의 퇴로를 차단 섬멸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그들의 기도를 꺾어버리고 오히려 인접부대와 협조된 공격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지암리(芝岩里)에서 중공군 포로 2,500여 명을 획득하였으며 화천발전소라는 전략목표까지 60km에 걸친 추격작전을 전개한 것은 한국전쟁사에 영원히 빛날 전투였다.

공산측이 휴전제의를 하도록 전황조성에 기여

중공군이 한반도에 있는 전투병력 70만명의 80%에 해당하는 50만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결전을 시도하였던 춘계공세가 2차에 걸쳐 실패로 돌아가고 오히려 국군과 유엔군에게 밀리고 있는 전장상황에서 그 이상 전투를 계속하여도 승산이 없음을 깨달은 공산군은 지칠대로 지친 그들의 전투력을 정비하고 정세를 재 판단하기 위하여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를 통해 휴전협정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만큼 중공군의 2차에 걸친 춘계공세는 동부지역의 현리를 제외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서울을 다시 탈환하고 남쪽으로의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더욱 강해진 국군과 유엔군에 의해 좌절되고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휴전을 제의해 왔다.

국군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

제6사단의 전초부대(경계부대)인 제2연대가 필사의 항전으로 중공군 3개 사단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은 국군의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중공군에게는 국군을 약적(弱敵)으로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원래 일반전초(一般前哨. General Of Post)는 사단급에서 운용하는 경계부대로서 연대규모가 되며 사단 주 방어진지 정면에서 능력범위 내에서 적의 공격을 지연, 저지, 방해하다가 철수하여 사단예비임무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어작전에서 사용하는 전투부대 운용방법이다. 그러나 용문산 전투에서는 경계부대인 제2연대가 적의 막강한 주력을 경계진지에서 격퇴시켰다는 뜻에서 그들의 결사항전의 정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군 제6사단이 전투력이 약화된 중공군을 공세 이전 하에 바로 뒤쫓는 전과확대와 추격작전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전쟁의 원칙을 최대로 활용하였던 군사전략을 전투지휘의 우수성을 과시하였고 장병들은 사창리 전투의 패배감을 설욕하는 통쾌감을 느꼈던 것이다.

(鄕防저널, 향토방위연구소, 2005년 1월, pp.20-25)

III. 용문산 전투 현장 답사기

-(화야산-고동산 전선)-

참전 군속 강태진씨의 증언

1950년 庚寅 6월 북괴의 불법남침으로 인한 6·25전란은 우리 민족사상 유례가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끔직한 변괴였다. 삼천리 방방곡곡 쓰라린 상처와 단절의 고통이 휘몰아치지 않은 곳이 없듯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일대에도 적지 않은 상처와 고통이 스쳐갔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생존하고 있는 것은 당시 국군과 유엔군의 조국과 민족을 위한 장렬한 희생의 대가임을 필자는 알고 있다.

소야산 전투는 중공군의 제2차대공세에 대한 용문산 전투의 일부요. 한강고수 저지선의 격전으로서 중공군을 격퇴시킨 업적이 작게는 우리 마을이, 크게는 남한이 자유와 민주의 땅이 되게 한 결정적 승리이기도 하므로 그 산하에서 자란 필자는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6·25전란 때에 9살이었다. 철없는 시절에 겪은 전란이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다. 사라져 가는 6·25전란의 참상과 함께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하며 무모한 통일론에 빠져, 좌경·용공화되어 가는 전후 세대들이 참으로 북괴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날뛰는 이때에 필자는 소야산 전투에서 위대한 공적을 남긴 장병돌에게 감사하고 희생된 이름 모를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며 그분들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려 전적비를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소야산 전투상황을 추적하던 중, 당시 노문리 벽계에 살았고 군속으로 이 전투에 조력하였던 강태진씨(66)의 증언을 들었다. 서울 동대문구 망우1동에 사는 강태진씨는 소야산 전투에 참전하여 전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시에 남침을 자행한 북괴는 남쪽을 향해 진격을 가속화했다. 그러자 젊은 남자들은 제2국민병을 갔고 집에 남아 있던 사람들은 산 속에서 움을 만들고 피신했다. 동리에 있다가는 부역행위를 강요당하거나 붙들려 학살당하는 것이 그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동부 중부 서부 전선일대에 인해전술로 나온 중공군과 인민군의 반격이 가해지자 벽계, 능골, 수입, 갈문 사람들은 남쪽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대부분 늙은 노인들은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늙었으니 나가서 죽으나 집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이다. 너희들이나 어서 떠나거라』 울음 섞인 말이었다. 늙으신 부모만 남겨두고 우리만 살자고 떠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렇다고 온 가족이 남아서 함께 죽을 수도 없는 일이다.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려는 이들의 생이별이 6·25의 탓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죽이나 죄스럽고 가슴아픈 일이던가. 나는 죽더라도 가족들은 살려야 된다는 천륜의 정이 넘쳤던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피난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구진회(具津會) 이성대(李成大) 김종윤(金鍾允) 강덕여(姜德與) 등의 노인들이었다.

강태진(姜太鎭)씨는 강노인의 차남이다. 강씨는 형님 강태석(姜太錫)과 장남 종식군(4세)과 종순양(1세)남매를 업고 이 마을 이재원(李載元), 이창원(李昌遠), 박득용(朴得龍) 등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쪽을 향해 마을을 떠났다. 남한강을 건너 강하면에 이르렀다.

여기서 강씨 등은 북진해 가는 국군 수색대에 동원됐다. 이재원·이창원·박득용씨등 7,8명이 국군을 따라가야만 했다. 살려고 피난 가는데 군에 붙들려 싸움터에 가게 됐으니,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가족과 눈물로 헤어진 이들은 군명(軍命)에 움직여야만 했다.

그 길이 싫든 좋든, 자의든 타의든 택할 수밖에 없었다. 강씨 등은 국군 선발 수색대와 함께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조창순씨 집에서 하루저녁을 자고 각각 적군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군을 따라 출발하였다. 각각 다른 부대에 소속돼서 한치도 안되는 연필 토막 1개와 <G-2>라는 메모가 쓰인 종이 쪽지 한 장을 감추고 갔다. 이 종이 쪽지는 임무를 띈 증명서가

된다. 국군을 만났을 때 그것만 보이면 무사 통과되었다. 가평면 복장포에서 1박을 하게 됐다. 복장포는 장씨(張氏)가 많이 사는 고장이다.

장교가 배치해주는 방에서 각각 나누어 잤다. 강씨는 장기석씨 집에서 지내게 됐다. 다음날 임무수행을 위해 지역별로 배치 됐으니, 이창원씨는 가평군 북면 화창리, 박등용씨는 북면 묵적리, 그리고 강씨는 북면 싸리재로 각각 떠났다. 강씨는 마침 싸리재고개 입구에서 피난길에 오른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에게 물었다. 그 노인은 중공군·인민군 1개 중대와 말 150여필이 3일간 주둔하다 떠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떠났다고 했다. 강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작별인사를 나누고 본부인 묵안리로 돌아왔다. 보고를 마친 강씨는 수색대를 떠나 벽계 집으로 귀가 길에 올랐다. 방일리서 영천벌로 통하는 길을 따라 곡달산 중턱에 이르자 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국군은 강씨를 붙들고 같이 가자고 하였다.

또 참전으로 집 앞을 지나는 마음

이미 국군에 의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말을 하고 부대에서 만들어 준 증명서를 보였으나 계속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에는 노부모가 홀로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정을 하고 국군을 벗어나 집에 이르게 됐다. 부친 강석여 노인은 무사했다. 강노인은 『가족은 어찌하고 혼자 왔느냐?』고 했다. 자초지정을 말씀드렸다. 살아 돌아온 것만도 다행이었다.

강씨는 헤어진 가족을 찾아 남쪽을 향해 피난길을 다시 떠났다. 강씨는 강하면서 헤어진 가족들은 어찌되었나? 궁금했다. 그리고 피난길에서 강씨와 헤어진 가족들은 강씨가 궁금했다. 정배리를 지나 서후리에 도착했다. 피난 가던 가족들은 국군의 북진을 따라 마을로 돌아오는 도중, 서후리에 머물고 있었다. 기쁨과 눈물어린 만남의 순간이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지요?』『고생은 난리 중에 다 그런 것이지』『그래, 넌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형님 강태석씨와 아우간에 주고받는 말이다. 강씨의 부인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기쁨에 벅차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또다시 헤어져야만 했다. 국군들은 강씨 등에게 국군을 도와야하겠다고 했다. 즉 후방군으로 탄약·식사운반·환자후송 등등을 하며 국군의 전쟁을 돕는 일이다. 그리하여 동면의 김복길, 벽계의 이복화, 정배리의 김순경·박왕희(용원씨의 자), 여주에 사는 김씨, 현리사람등이 제2사단 32연대에 배속되어서 국군을 돕게 됐다. 당시 제2사단은 제17연대, 제31연대, 제32연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때 김복길씨는 17연대로 배속되고 강씨와 박득용씨는 32연대 1대대 2중대에 배속됐다. 당시 중대장은 박승권(박승권) 소대장은 손정일(손정일) 선임하사는 안익수(안익수)였다. 3월 17일인가 오후 4시경 국군을 따라 서후리를 떠나 정배리를 지나 명달고개를 넘어 속샛으로 해서 강씨가 살던 벽계마을 앞산 (안산)에다 진지를 구축하고 하루 밤을 지냈다.

일부는 진대고개를 넘었다. 옆에는 동면, 개울을 건너면 강씨의 집에 있다. 집을 눈앞에 두고도 찬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밤을 보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이 작전중의 군이었다. 날이 밝으면서 1㎞남짓한 갈문마을 자작고개(현 국민학교 앞)로 이동해서 소야산을 쳐다보며 주둔하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소야산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작고개의 길은 갈문마을 뒤로해서 다락재를 지난 굽이굽이산굽이를 돌아 배치로 통하는 길이다. 갈문마을 뒷산들은 소야산이 솟기 전에 그 산자락이 옆으로 뻗어온 산들이다.

자작고개에서 조금 소야산 쪽으로 내려가면 6·25때 추운 겨울에 국군이 새로 뚫어 놓은 능골서 배치고개를 넘어 설악면으로 통하는 직선길이 있다. 소야산은 배치고개에서 북편으로 솟은 산으로 고개를 분수령으로 해서 서편으로 10여리 되는 수입리를 지나면서 북한강에 입수되고 동쪽으로는 10여리 배치골짜기를 지나 솔고개에서 휘어져 왼쪽으로 흘러 청평에서 북한강에 입수된다. 그리하여 소야산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와 노문리,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삼회리, 외서면 회곡리를 끼고 그 중간에 솟은 산이다.

이 소야산 755고지(속칭 돛대봉)는 옛날 나라의 안위를 알리는 봉화대가 있었던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산이다. 그렇듯 정상에 헤리곱터가 내리는 장소가 있다. 정상 봉우리에서는 양주군 가평군 홍천군 양평군 등의 일부가 보이는 데 지도상에는 화야산 (和也山, 755고지)이고 일명 수야산(水也山)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국군 유해 7구나 끌어내려 묻어

화서선생 문집에는 소야산으로 기록돼 있다. 또 배치에 살던 염운섭씨는 이 산의 이름을 따서 호를 소산(소산)이라고 했다. 소야산과 이에 딸린 고동산(고동산)은 조선조 말기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은 화서 이항로 선생이 그의 제자인 성재 유중교·면암 최익현·괴원 이준·의암 유인석 등과 같이 유람하며 자연을 즐기던 곳이기도 하다.

화서 이항로(李恒老,1792-1868)선생은 벽계에서 문도들에게 애군여부 우국여가(愛君如父 憂國如家)를 역설하고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주창하여 의병운동·독립운동의 주역들을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화서 문인 홍승오(洪承五)는 벽계는 어진 사람이 많고 국가의 원기(元氣)가 되는 곳이라고 하였다. 소야산 최고봉 남쪽 일대는 평퍼즘한 새발을 이루고 있어 일명 『새덕』으로 불리는데, 화서의 장자 괴원(槐園) 이준(李埈)은 문집에서 신덕산(新悳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새덕엔 옛날 벽계 능골 갈문마을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어 콩과 조를 심기도 했었다.

국군들은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 밤 7시경에 소야산 정상을 향해 능골 강문인씨 집 뒤 골짜기로 들어섰다. 9시 반경에 골짜기 중턱에 이르자 고동산 쪽에서 미군 1개중대가 하산하고 있었다. 국군통역이 물으니 적이 없어 그냥 내려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군은 고동산 반대방향 소야산 최고봉(돛대봉)을 향해 올라갔다. 언덕 300m지점에 이르러 선발대가 쫓겨 내려왔다. 중공군이 개미떼처럼 공격해 온다는 것이다. 결국 국군은 능골까지 후퇴를 해야만했다. 이때 중대장 박승권은 공포를 쏘면서 후퇴하는 자는

총살하겠다며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밤 11시부터 재차 공격을 가했다. 혈전은 밤새도록 계속됐다.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민군과 중공군도 마찬가지였다.

인민군 1명이 생포됐다. 국군이 전사했다. 1구의 시체를 박등용씨와 능골까지 후송하고 산중턱에 후송해 논 또 1구의 시체를 후송했다. 새벽 4시반경 755고지는 탈환하였다. 사상자를 낸 적군은 후퇴한 것이다. 아침 7시경 오나전 사수하여 보니 아군 사망 3명, 부상 19명, 중공군, 인민군 포함 27명 사상, 1명 생포하였다. 그러나 고지 동북편 회골(회곡리)에는 중공군의 시체가 엄청나게 널려 있었다. 중공군은 청평댐을 건너와 소야산에서 국군과 격전 끝에 패주한 것이다. 산골짜기와 벌판에는 적군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인 것이다.

피난 갔다 돌아온 강한식 등 능골 마을 주민들이 밭에 묻은 것을 파보았다. 그 구덩이 속에는 7구의 국군 시체가 묻혀 있었다. 이 7구의 시체는 어느 집에선가 금이야 옥이야 사랑 받던 한국의 아들들이다. 이제는 그 시체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 팻말도 없이 사라져간 일곱 전우의 시체가 누구인지 참전용사라는 것은 알고 있으련만! 누구인지 알고 싶다.

다음 해 봄에 동네 사람들이 나물 뜯으러 그 골짜기를 갔을 때에는 처참한 인간의 죽음과 부패해 가는 악취로 뒤돌아 내려왔고 그 후 인간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다고 소문에 떠돈다. 최고봉을 탈환한 국군은 그 날로 삼회리 큰 골로 해서 강을 건너지 않고 청평 발전소 근처에 주둔해 1박을 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숲 속에서 곤하게 잠이 들었다. 머리가 불편해 벨 것을 찾아 끌어 당겨 베고 잔 것이다.

주먹밥을 먹고 청평댐을 건너 북진해갔다. 그 후 강씨는 1개월이 넘도록 군속으로 명지산, 광학산, 화학리, 구망봉, 대성산 등 격전지를 돌면서 인간 시체의 바다를 오가며 처절한 6·25의 현장을 체험했다. 금화에서 귀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건빵 두봉을 비상식량으로 품에 지니고 귀가 길에 올랐다. 수입리 나루터에서 김복길씨를 만났다. 김씨도 금화까지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돈도 없으니 나루를 어찌 건너느냐고 했다. 그러나 전쟁터

에 갔다오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사정을 해서 나루를 건널 수밖에 없었다.

37년 전 상처는 아직도 남아

지치고 지친 의복이 남루한 거지와 다름이 없는 신세였다. 『홍준 아버지 시장하시지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오는 것만 다행이요.』 『이제 십리 남았으니 용기를 냅시다.』 김씨와 주고받는 말이다. 『이것 요기나 하시지요.』 강태진씨는 주머니에서 말라빠진 건빵조각을 꺼내 주고받았다.

동이에 들어서니 오동단 밑에 박점석씨 집과 홍순용씨 집이 불타고 재만 남아 있었다.

1942년 소야산화 벽계에 살면서 소야산을 등정한 적인 없는 필자는 강태진씨으 증언을 돋고 37년 전의 6·25전란 현장을 찾아 소야산에 올라갔다. 지난 11월 7일 형님(張上鉉)과 이영렬 기자와 함께 3명이 현장을 찾아갔다. 9시에 벽계 집에서 출발 관광 개발을 해도 좋을 리만큼 산수가 어울린 골짜기를 따라 덤불을 헤치며 올라갔다.

안개 속에 이슬비를 맞으며 참나무숲 등성에 간혹 눈에 띄는 더덕을 캐면서 장등에 오른 것은 11시 15분이었다.

장등에 오르니 경춘가도를 달리는 자동차 기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왔다. 청평쪽(서북쪽)에서 치불어 닥치는 바람은 어찌나 차가운지 흐르던 진땀과 더위가 단번에 사라졌다. 간식을 하며 잠시 쉬고 봉화대가 있었던 755고지 삼각점에서 도착한 것은 11시 47분이었다. 그러나 구름 속에 뜬것인지 안개 속에 파묻힌 것인지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다. 안개 속에 방향을 잘못 잡아 얼마쯤 내려오다 다시 정상을 되돌아 간 길을 되찾아 왔다. 1시 20분에 중간지점 봉우리 노송 밑에서 점심을 먹고 고동산에 도착한 것은 3시 30분 경이었다. 소야산 정상 봉우리에는 빵빵 돌리 방공호가 파져 있었다. 그리고 산장등 군데군데에 방공호가 파져있어 6·25때 격전지였음을 알 수 있다. 한 방공호를 파 보았다. 37년전 방공호는 형상뿐 낙엽이 쌓

이고 쌓여, 썩고 썩어서 흙으로 변해 버렸다. 부패해 가는 탄피가 보였다. 콩 볶듯이 퍼붓든 총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밝은 대낮에 빈 몸으로 올라오기도 이렇게 힘든데 깜깜한 밤에 완전무장하고 중공군과 싸우면서 올라온 국군을 생각해 보라고 형님이 말을 꺼냈다. 그리고 요즈음 대학생들 고생을 안 해보고 6·25가 뭔지 몰라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데모들만 한다고 했다. 영렬이는 『할머님이 그러시는데요. 이곳에 6·25후에 해골이 나뒹굴고 하이바 군화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했다.

필자는 『참으로 기막힌 일이지요. 국군도 유엔군도 그리고 중공군이나 인민군 모두가 고귀한 생명이요. 집에서는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자식들이지요. 6·25때 소야산하에 사는 고장사람 중 군대 나가 전사한 사람만도 11명이나 되더군요. 동면의 윤병환, 벽계의 노경복·이우근·구자열, 갈문의 강금식·이평진, 능골의 이종필, 수입리의 함수영·함수화·이용신, 바치울의 백승옥 등이구요,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지요. 아무튼 6·25때 300만이 희생됐으니까 참으로 인류의 비극이지요……』하며 말을 이었다.

고동산에는 유엔군이 진을 쳤던 곳이다. 무덤 같은 봉우리를 중앙에 두고 역시 빵돌리 방공호가 파져있어 6·25때의 격전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사용된 군용품이나 군인이 휴대했던 물건은 발견하지 못했다.

소야산 하에서 자란 필자가 모처럼 소야산을 등정하니 궁금증이 풀렸다. 그러나 화서선생과 성재선생이 시를 지은 '혁희대'는 찾지 못해 유감이다. 산을 내려오면서 움푹움푹 파놓은 방공호와 대포알이 떨어진 곳은 6·25가 남긴 소야산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음을 말해 주고 있다.

필자가 강씨로부터 소야산 전투의 증언을 듣고 격전지를 답사하여 기록을 하는 것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절은 크건 작건 지나쳐 버릴 수 없고 후세의 귀감으로서 높이 평가되는 것이기에 전사자에 대한 감사함과 명복을 빌기 위함이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계속되는 북괴의 만행을 함께 규탄하고 무모한 공상적 통일론, 민족동질성 회복론에 빠져들지 말아야함을 다소나마 인식시키려는데 있다.

〈장삼현, 경원학보사 주간, 1987.12.28〉

제3부
한국전쟁과 지평리 전투

여 백

Ⅰ. 애플만이 쓴 지평리 전투

◆일러두기◆

다음 두 자료들은 주한미군 제8군에서 1992년 8월에 발간한 비상업용 자료집, 『1951년 2월 13-15일의 지평리 전투(Battle of Chipyong-ni 13-15 Feburary 1951)』에 실려 있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전과 관련된 자료집을 일곱 권이나 발간했었다. 일곱 권의 자료집 모두 한국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 일곱 가지 전투에 대한 것이다. 이 일곱 전투들 중에는 인천상륙작전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평리 전투가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평리 전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지평리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은가?

지평리 전투에 관해 제8군이 만든 자료집은 5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평리 전투가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군이나 유엔군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1950년 늦은 10월에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이 최초로 심각한 패배를 경험했던 전투가 바로 지평리 전투이다. 둘째;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미군과 유엔군은 계속되는 패배로 위축되었던 사기를 한 번에 끌어올리게 된다. 셋째; 지평리 전투에서 미군과 유엔군이 승리하지 못했다면, 원주를 포함한 중부전선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지평리 전투에 관한 이 자료집에는 20개의 기록들과 자료들이 실려 있는데, 모두 지평리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미군이나 유엔군들과 관련된 것이다. 아쉽게도 지평리 전투에 관여한 국군은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의 부대원으로서 일부만 속해 있었거나, 혹은 크롬베(Crombez) 대령이 이끌었던 전차부대에 4, 5명 정도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아마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평리 전투가 한국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되어버린 것 같다. 만약 지평리 전투가 우리 국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승리한 전투였었다면, 아마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 전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평리 전투 자체가 한국전에 끼친 영향을 비추어본다면, 현재 우리는 지평리와 그곳에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이 만든 지평리 전투에 대한 자료집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여 개의 자료들 중 지평리 전투를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 두 자료들이다. 하나는 "지평리"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자료이다. 이 자료는 가장 간략하게 지평리 전투를 소개하고 있다. 비록 간략하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지평리 전투의 중심부에 있던 미군 제23전투 보병연대(RCT)의 연대지휘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자료는 호주의 애플만(Roy E. Appleman) 중령의 저서, 『리지웨이, 한국을 위한 결투(Ridgeway Duels for Korea)』 속의 11장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애플만 중령의 저서 중 11장은 「핵심적인 전투: 지평리(The Key Battle: Chipyong-ni)」를 제목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애플만 중령의 자료는 자료집에 실려 있는 다른 모든 기록들에 비해 지평리 전투를 가장 입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리고 흥미진진한 문체로 설명해 주고 있다. 앞의 자료가 기본적으로 미군 제23전투 보병연대의 입장에서 지평리 전투를 기록하고 있다면, 애플만의 자료는 제23전투 보병연대의 시선,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의 입장, 제5기갑연대를 이끌고서 제23전투 보병연대를 구해내 명실공히 지평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크롬베 대령의 입장, 나아가 중공군의 입장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의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가장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자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는 유명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지평리 전투의 실상과 그 의미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전의 의미 그리고 미군과 유엔군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끝으로 주한미군 제8군에서 발간한 지평리 전투에 대한 이 귀중한 자료집, 『1951년 2월 13-15일의 지평리 전투(Battle of Chipyong-ni 13-15 Feburary 1951)』는 현재 양평문화원(楊平文化院) 향토사료조사연구위원(鄕土史料調査硏究委員), 지평의병정신선양회 방홍규(方弘奎) 회장님이 소장하셨던 것임을 밝혀둔다. 이 귀중한 자료를 필자에게 친절하게 제공하여 주신 방홍규 회장님께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II. '지 평 리'

저자 불명

유엔군의 반격은 원주를 관통하는 북위 37도에서 1951년 2월 5일에 시작되었다. 이 때 프리만(Paul Freeman) 대령이 지휘하던 미군 제23전투 보병연대는, 아군 전선 너머 20마일 밖으로 9군단과 10군단의 경계선에 있던 지평리의 중요한 교차로로 진주하라고 명령을 받게 된다.

2월 11일, 중공군은 횡성과 원주의 두 방향으로 10군단을 공격해왔다. 강력한 공격이 두 사단에 가해지자, 10군단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제23전투 보병연대는 고립을 면할 수가 없었다. 이 때 리지웨이(Ridgway) 장군은 보병연대가 진지를 사수해야만 한다고 명령한다.

2월 13일 밤, 중공군은 공세의 방향을 서쪽에서 제23전투 보병연대의 중심부로 돌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평리에 자신들의 전투력을 집중시켰다. 만일 이 마을이 함락되어 교차로를 잃게 된다면, 전체 중서부 전선이 위기에 빠지게 될 상황이었다.

지평리는 횡으로 3마일, 그리고 종으로 6마일의 크기를 가진 달걀 모양의 계곡 안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원만한 언덕은 400미터에서부터 100미터에 이르는 고도를 가지고 있었다. 중공군은 마을을 둘러싼 우뚝 솟은 언덕을 점령하여 모든 보급로와 퇴로를 차단시켰다. 이 때문에 방어선은, 사격하기 좋은 완만한 경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평리 둘레에 촘촘히 그어지게 되었다. 지평리에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수비하기 더 좋은 언덕들보다 사실 실제로는 더 낮은 언덕들이 이용되었다. 왜냐하면 수비하기 더 좋은 언덕들은 더 많은 병력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 구축된 시계 모양의 방어선은 12시 방향에서부터 1시 방향까지의 방어선에 A중대와 C중대로 구성된 제1대대를 배치했다. 제3대대는 2시 방향에서부터 5시 방향까지의 방어선에 배치되었는데,

이 제3대대는 I중대, L중대 그리고 K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E중대, F중대 그리고 G중대는 제2대대를 구성했는데, 이 제2대대는 5시 방향에서부터 7시 방향까지의 방어선을 지켰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프랑스대대가 7시 방향에서부터 11시 방향까지의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연대 예비부대로는 B중대가, 그리고 얼마 뒤에 제1특공중대가 A중대 및 C중대가 지키는 방어선 뒤에 함께 배치되었다.

2월 13일, 많은 조명탄들이 23시 방향의 방어선의 늦은 오후와 밤을 강렬하게 비추었다. 소총의 탄알과 박격포가 북서쪽에서부터 22시 방향과 23시 방향 사이의 지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강력한 박격포와 포병들의 사격이 제1대대가 지키고 있었던 북쪽 방어선에 집중되었다. 집중 사격이 끝나자마자, 오랫동안 예기되었던 공격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나팔소리, 호루라기소리, 그리고 함성소리가 차가운 겨울 밤 하늘에 가득 찼다. 흐릿하고 붉은 그리고 푸른 조명탄들이 갑작스럽게 터져서 하늘을 물들였다. 예광탄들이 빛을 발하면서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다녔다. 자정쯤,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직 싸움을 개시하지도 않았던 제3대대에게로 가해졌다. 박격포탄과 대포의 포탄이 연대 지휘소와 포병부대에 날아들었다. 제1대대 지휘소는 중공군의 예광탄으로 인해 그들의 사격 표적이 되어버렸다.

자정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투는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공격이 다시 새벽 01시에 북쪽과 북서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함성소리를 내면서 돌격해 들어오는 중공군은 격퇴되었다. 그렇지만 사격이 잦아들었을 때, 방어선의 아군 병력들은 중공군이 참호를 파고 있는 야전삽의 계속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K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던 남서쪽과 동쪽의 방어선에 대해 치열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중공군은 자신들의 공격 병력을 02시 15분에 교대하였다. 남쪽에서 계속 공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어선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중공군은 아군이 배치한 둥근 방어선을 뚫기 위해서 먼저 북쪽에 있는 프랑스대대의 방어선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중공군의 강력

한 공격이 프랑스대대를 공격하였을 때, 제1대대의 C중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반격을 개시하여 잃었던 땅을 다시 되찾았다. 포병들이 광포한 중공군들에게 방어선 전체를 시계처럼 돌면서 포격을 가했기 때문에, 전체 방어선은 계속되는 사격으로 인해 대낮처럼 밝았다. 연이어 아군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대규모의 중공군들에게 쏟아 부었다. 05시 30분 무렵, 중공군의 압박은, 프랑스대대와 K중대가 지키는 방어선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프랑스대대와 K중대도 중공군의 거듭된 공격을 마침내 격퇴하게 된다.

2월 14일 날이 밝자, 중공군들은 K중대와 I중대를 통과해서 지평리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아군이 배치한 시계 모양의 방어선이 도처에서 굳건히 지켜지자, 방어선을 공격했던 중공군 5개 사단은 타격을 받았던 것이다. 중공군은 박격포와 대포 그리고 소총 사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낮이 되자 중공군의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대낮의 정확한 아군의 대포 공격과 공습을 두려워한 중공군이 몸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서 간헐적으로 아군의 방어선에 박격포 사격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했던 것이다.

14일 오후에 23번째로 사망한 병사가 적의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후 20시 30분에 중공군은 K중대에 박격포 사격을 다시 시작했고, 한 시간 뒤 C중대도 사격을 받았으며, 적들이 참호를 파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공중에서 투하된 수많은 탄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중대들의 대원들 손에 들려 있는 M1소총의 탄약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다. 밤이 되어 아군의 정찰기들이 더 이상 정찰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직 후, 이 날 밤의 첫 번째 공격이 제2대대가 지키고 있던 방어선에 가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대 지휘소는 박격포, 대포, 그리고 소총의 집중 적인 사격 표적이 되었는데, 중공군의 집중 사격은 한 시간 뒤 프랑스대대의 박격포 중대와 병참 중대로까지 너 넓게 확대되었다. 중공군이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자 제2대대와 제3대대는 그들과 치열한 백병전을 전개했고 이에 따라 방어선에서의 전투는 더욱 더 치열해졌다. 나팔소리가 새롭고 더 광포한 공격을

개시했던 셈이다.

K중대는 01시 30분에 공격을 받았지만, 남쪽과 북쪽에서 다시 감행된 두 차례의 공격을 모두 격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군은 탄약이 떨어지는 위기를 맞게 되자,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무전이 사단본부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일본에 있던 병참 사령부는 밤 사이에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 탄약을 싣고 출발하여 날이 밝을 무렵 공중에서 보급품을 투하해줄 수 있었다.

그런데 20시 30분 무렵이 되자 방어선이 처음으로 뚫리게 된다. 대량의 중공군이 I중대가 맡고 있던 방어선에 난입해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I중대와 L중대의 즉각적인 반격이 이루어졌고, 중공군과의 참혹한 백병전을 통해서 방어선은 잠시 후 다시 복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수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던 중공군들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방어선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03시 15분 C중대는 두 번째로 방어선이 뚫렸다고 알려왔다. 방어선이 뚫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던 C중대의 모든 노력이 좌절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C중대는 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프리만 대령을 대신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날아온 연대 사령관 칠스(John H. Chilles) 중령은, 임시로 구성된 연합부대로 하여금 다시 반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제1특공중대, F중대 소속의 어떤 소대, G중대의 잔여 병력으로 구성된 연합부대가 모여서 방어선을 뚫은 중공군을 공격하고 있었을 때, 북쪽에서 A중대와 C중대는 중공군의 몇 차례의 공격을 모두 격퇴하고 있었다.

방어선을 뚫은 중공군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던 연합부대는 06시 15분 그들을 물리치고 방어선을 복원하려는 전투를 개시하였다. 중공군은 자신들이 얻은 아군의 방어선을 사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공군과 아군 사이의 치열한 백병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연합부대는 많은 사상자들 냈고, 전진하려는 그들의 노력은 중공군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유일한 예비부대였던 B중대가 08시에 연합부대에 가세해서 중공군을 공격하게 되었지만, 중공군의 가공할 만한 사격 속에서 땅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

다. 이렇게 되자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 치달았다. 12시 30분 구조부대가 연합부대로부터 9,000야드 바깥에 있었지만, 모든 방향에서 적의 사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14시에 B중대가 적의 사격으로 인해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어야만 했을 때, 방어선의 틈에 고립되어 있던 중공군들에 대한 공습이 요청되었다. 네이팜탄이 매우 작열하여, 아래쪽에 확고하게 버티고 있던 중공군 부대를 모조리 태워버릴 수 있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으로도 충분해보였다.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중공군들이 후퇴했고, B중대는 일어서서 퇴각하는 적들에게까지 사격을 가했다. 이 때 더욱 더 전진해서 마침내 잃어버렸던 방어선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광포한 전쟁 속에서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가 간신히 사수되고 있던 방어선에 간간히 탄약을 투하했다. 그러나 방어선 안 깊숙이 떨어지는 중공군의 박격포탄은 많은 사상자들을 만들어냈다. 왜냐하면 아군들은 수송기가 하늘에서 투하해주는 귀중한 탄약들과 보급품들을 얻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조차 자신들의 몸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16시 30분에 B중대는 잃었던 방어선을 마침내 확보하였다. 곧 이어 방어선을 구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전차부대의 선두를 보았다고 기쁨에 찬 보고가 날아들었다. 아군 전차부대의 포격에 직면하자 이제 중공군들은 공격을 중지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증원부대가 도착한 것을 보자, 방어선의 포병들은 도망치는 중공군들에게 포격을 가해서, 상당히 많은 적들을 사살할 수 있었다.

제5기갑연대로부터 파견되어온 20대의 중전차와 약간의 보병은 17시 25분 방어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자 어렵게 승리를 하긴 했지만 피해가 막심했던 방어선의 아군들은, 이제야 조금 위기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전투로부터 살아났다는 안도와 이상한 침묵이 전선 도처에 내려 앉았다. 전쟁사에서 가장 위대한 연대 방어 작전들 중 하나였던 지평리 전투는 이렇게 해서 막을 내렸던 것이다. <끝>

Ⅲ. '핵심적인 전투-지평리'

애플만(Roy E. Appleman) 중령

쌍둥이 터널에서 중공군 125사단 소속 373연대와 374연대가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한 뒤 3일째 되던 날, 즉 2월 3일에 제 2사단의 23전투 보병연대(RCT)는 쌍둥이 터널로부터 5마일 떨어진 지평리라는 마을로 들어서게 된다. 중공군 125사단 본부 부대원들과 같은 사단 소속의 375연대, 그리고 373연대와 374연대의 생존 병력들은 지평리 북동쪽으로 2마일 부근에 있는 자신들의 요새로 구축한 506고지로 후퇴하게 되었다. 중공군들은 옛날 금광으로 쓰였던 많은 버려진 터널들을 확보했고, 이곳은 쌍둥이 터널 전투가 있기 이전에 중공군 125사단의 거점지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제는 바로 이곳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중공군 사단의 피난처가 되었다. 23RCT는 얼마 되지 않아 이 중공군 사단을 그 요새로부터 축출해내기에는 그들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피난처에서 쉬고 있는 이 중공군 잔여 사단 병력은 결코 전투력이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월 3일 이후 23RCT의 임무는 지평리 내의 도로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지평리 주변의 고지대를 장악하는 것, 9군단의 우측 측면과 10군단의 좌측 측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지평리는 미래에 8군단이 북쪽으로 공격을 개시하는 출발점으로 계획된 거점이기도 하였다. 23RCT 사령관인 프리만 대령은 지평리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언덕들이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어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3RCT는 프랑스 대대와 지원화기대대를 포함한 네 개의 보병 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접 지평리를 둘러싸고 있는 낮은 언덕들 바깥에는 높은 언덕들이 다시 원환처럼 이 낮은 언덕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높은 언덕들은 중

공군들이 소총사격을 하기에는 너무 멀리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은 지원화기로 쓰일 예정인 프리만의 박격포나 대포 공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다. 또한 공습을 통해서도 이 고지대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리만은 낮은 언덕들을 자신의 방어선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프리만은 매일 아침 새벽에 자신의 위치로부터 북쪽, 서쪽, 그리고 남쪽으로 대략 1,000야드 바깥에 전초 병력들을 배치했다. 한 밤에 이 병력들은, 부비트랩과 지뢰가 설치된 관측초소를 남겨두고 철수하였다. 그리고 전투 정찰대는 매일 이 전초기지를 넘어서 정찰작전을 수행하였다. 8일 동안 프리만의 군대는, 탄약, 식량, 가시철사, 지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보급품을 원활히 공급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있었다. 그 때 제2공병대대의 B중대가 지평리로 와서 이 마을의 남서쪽 끝에 임시활주로를 만들었다. 프리만 대령은 저자에게 자신은 도로 북쪽 방어선에 있는 F중대 후방에 자신의 지휘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프리만은 5,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지평리 방어선을 지켰다. 제9보병연대의 제2정찰중대와 제3대대는 원주로 가는 남쪽과 동쪽 방향의 보급로를 순찰했다. 남쪽으로 8마일이 되는 위치에 제24보병사단 소속인 한 개의 대대가 한강의 북쪽 둑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9군단 산하로 여주에 머물던 영국 제27연방여단은 프리만의 정찰부대와 접촉하는 정찰부대를 북쪽으로 매일 파견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이 시기 동안, 프리만은 506고지에 있는 중공군 125사단의 잔여 병력들을 제거하려고 매번 시도하고 있었다. 중공군들은 쌍둥이 터널 전투 뒤에 이 고지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선 그는 제1대대에게 임무를 부여했는데, 정상 근처의 매복에 빠져버려 겨우 공습으로 구조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2대대의 임무는, 협소한 길이 끝나는 상고송을 통과해서 이루어졌던 적의 동쪽 공격에 대해 반격을 가하는 것이었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제3대대도, 전차와 AAA AW 장갑차의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자동화기로 무장한 중공군들은 이런 모든 노력을 좌절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단호했고 절대로 1인치도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에는 공습마저도 그들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통과할 수조차도 없게 되어버렸다. 이 때 아군의 피해는 부상병들을 옮기는 데만도 여덟 시간이 걸렸을 정도였다. 제9보병연대 소속 제1대대가 남쪽에서 이루어진 공격에 가담하였지만, 이들도 똑같이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에 봉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 506고지를 사수하려는 중공군에게 가해진 효과는 미미했기에, 아군의 모든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아군들은 더 이상 506고지에 대해 신경을 쓸 여유조차 없어지고 만다.

지평리로부터 남서쪽으로 5마일 거리에 있는 커다란 583고지에 적의 활동이 매우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 고지 너머는 한강 방향이었는데, 이 때 24사단의 한 대대는 중공군 부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프리만 대령은 프랑스대대 소속의 중대규모의 정찰대를 파견해서 583고지의 적을 소탕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틀이나 전투를 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제23보병연대 소속의 제2대대는 2월 12일 그 지역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지평리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이 임박하자 이 명령은 곧 다시 취소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엄청난 적들이 방어선을 공격할 때 모든 23RCT 부대원들이 지평리로 복귀해 있었다는 점이다.

정찰기들은 2월 11일 낮 동안 대규모 중공군들이 이동했다고 알려왔다. 지평리 북동쪽으로 향하는 산악 오솔길을 따라 움직이는 대규모의 중공군들은 완전한 사단 병력 규모라고 평가되었다. 밤늦게 지평리를 우회한 뒤에, 이 중공군 사단은 횡성 북쪽에 있던 국군 제8사단을 공격해왔다. 이곳은 지평리로부터 동쪽으로 수 마일 떨어질 곳이었다. 다른 중공군 부대들은 지평리 동쪽으로 전진한 다음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고룬리 북쪽의 원천과 자음리에 있던 보급로를 끊어버렸다. 지리적으로 고룬리에서 원주로부터 이어지는 길은 한강에 이르게 되고 북쪽으로는 지평리에 이르게 된다. 중공군은 지평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에 앞서 23RCT의 후방퇴로를

차단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언제쯤 리지웨이(Ridgway) 장군이 23RCT와 프랑스대대가 지평리에 있는 자신의 방어선에 머무르면서, 2월 11일 밤에 그들을 포위하게 되는 거대한 중공군들과 싸워야만 한다고 결정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10군단의 전략 지휘소에서 2월 12일 오전쯤 열린 회의에서 그는 알몬드(Almond) 장군에게 23RCT를 지평리에 계속 주둔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같은 회의에서 리지웨이는 알몬드와 자신의 참모들에게 작전 통제를 위하여 23RCT에 제187공수연대를 붙이고, 동시에 국군 제1군단을 미군 제10군단 예하에 두어 국군 제3사단과 제5사단을 통제할 책임을 주겠다고 알렸다. 그런데 마침 심각한 문제가 이 당시에 발생했는데, 그것은 국군 부대들의 지휘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미군 제10군단의 처우 방식에 심하게 불만을 토로해왔고, 자신들을 통제하는 명령 체계에 반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국군의 낮은 작전 수행 능력도 이런 문제를 더욱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하게 몰고 갔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리지웨이는 계속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10군단 전략 지휘소에서 열린 2월 12일 회의에서, 대략 원주에서부터 지평리까지 이어지는 미8군의 약 12마일이나 되는 전선은 사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바로 이 때 중공군 진영이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을 괴멸시켜 많은 사상자를 내고 그들을 강제로 남쪽으로 퇴각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횡성을 점령했으며, 원주로 전진하여 지평리를 포위해버리고 말았다. 그 때 제9보병연대와 제2정찰중대는 10군단 소속의 이 지역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를 따라서, 중공군들과 중대규모의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단단위의 중공군 진영이 지평리의 동쪽 아무런 저항이 없는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분명한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행 방향은 그 때까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군 전선의 큰 틈으로 몰려 들어왔고, 만일 그들이 결정할 수만 있었다면, 별다른 저항 없이 남쪽으로 전진해서 제10군단의 전선을 붕괴시키고 그 후방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리지웨이 장군은 서둘러 제9군단 소속의 영국의 제27연방여단과 국군 제6사단을 이 지역으로 파견해서 제10군단에 소속되게 하였다. 그 당시 만일 중공군들이 계속 남쪽으로 전진했다면, 제9군단 부대들은 손을 쓸 겨를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운 좋게도 이 지역에 전진해 있던 중공군 두 개 사단, 즉 제115사단과 제126사단은 이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지평리를 지나쳐서 서쪽으로 우회하였고, 남쪽으로는 한강에까지 이르는 두 길을 끊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길은 지평리에 갇혀 있는 부대들에게 탈출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 동안 지평리에서 프리만(Freeman) 대령은 즉시 자신의 부대를 퇴각시키려고 하였다. 그리고 제2사단 사령관 루프너(Ruffner) 장군도 이런 입장에 동의했다. 이런 요청은 알몬드 장군에게도 전해졌는데, 이를 듣자 그도 역시 동의했다. 그렇지만 알몬드 장군은 퇴각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리지웨이 장군이 방금 자신에게, 23RCT는 지평리를 지키면서 바로 이곳에서 전투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이었다.

2월 12일 오후 4시 10분, 제2보병사단 참모는, 자기 부대원들이 퇴로가 차단되어 전멸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부대를 지평리로부터 퇴각해야 한다는 프리만 대령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무전을 보내왔다. "제8군 총사령관은 대령이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른 두 연대가 남쪽으로 퇴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사령관이 돌아오는 대로 이런 결정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프리만 대령은 자신이 밤에 퇴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다시 무전을 보낸다. "나는 오늘밤 퇴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퇴각한다면 우리 부대는 적들에게 완전히 노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밤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심하게 공격당한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는 제24사단이 있는 곳으로 퇴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설명: 아마도 쌍둥이 터널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 같다]으로 퇴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한다면, 공중 경호가 우리를 반드시 보

호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2월 13일 오후 2시 22분, 제2사단 참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전을 프리만 대령으로부터 받게 된다. "대략 한 시간 반 이전에 알몬드 장군이 우리가 언제 여주로 퇴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침에나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오늘밤에라도 이곳을 떠났으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제2정찰대대의 보고 때문입니다. 이 요청을 제10군단 총사령관에게 전해주시고 가능한 한 빨리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사단 참모는 프리만 대령에게 새로운 요청을 알몬드 장군께서 전할 것이라고 알려주겠지만, 아마 알몬드 장군도 제8군 총사령관으로부터 대답을 얻어야만 할 것이라고 무전을 보내왔다. 이 요청이 알몬드 장군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프리만의 요청을 리지웨이 장군에게 전했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해주었다.

저자는 지평리를 사수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리지웨이 장군 및 알몬드 장군과 논의했던 적이 있엇다. 리지웨이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제9군단과 제10군단의 요충지인 지평리를 사수해야만 한다고 확고하게 결심하고 있었다. 설령 자신이 모든 제8군 예비부대들과 제9군단의 부대들을 지평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파견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 점에 대해 알몬드 장군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던 적이 있다. "내 생각에 지평리를 사수하자는 리지웨이의 고집에 관한 당신의 의문은 매우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얻었던 것을 확고하게 사수하기를 원했고, 자신의 오른쪽 측면에 중공군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저도 동의했지만, 그 당시 우리는 그가 원하던 대로 확고하게 그곳을 사수할 수 있는 예비부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은 23RCT를 구조할 수 있다고 저를 확신시켰을 때, 나도 그에게 우리는 마침내 그곳을 사수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위험을 무릎 쓰고 지평리에 머물러 방어선을 사수하라는 리지웨이의 명령은 장군으로서의 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말할 수 있다. 몇 가지 이유로 지평리 전투는 전쟁 자체의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프리만 대령은 지평리에서 전투에 직면하고 있는 자신의 23RCT 산하에 다음과 같은 부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 제2보병사단 소속의 제23보병연대
- 105mm 곡사포 부대 소속의 제37야포 대대
- 유엔군 소속의 프랑스대대
- 해병정찰대 제82 AAA AW 장갑차 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
- 155mm 곡사포 부대, 제503야포 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
- 제2의무중대, 야전중대 소속의 제2야전소대
- 제1보병특공중대

모두 합해서 그는 5,000여 명의 부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던 셈이다.

23RCT는 처음에 지평리에 많은 참호를 파지는 않았지만, 중공군의 병력이 증가됨에 따라 전투는 참호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결국 참호의 필요성에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미군들은 겨울의 언 땅에 참호를 많이 파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포병중대는 자신들의 총을 묻기 위해서 많은 참호들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땅은 8인치에서 10인치까지 얼어 있었다. 그래서 땅 표면의 작업은 너무 힘이 많이 들었다. 땅 구멍을 12인치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야전삽이 땅에 별다른 자국도 남길 수가 없었다. 포병부대원들은 썰매를 이용하여 언 땅에 쇠지레를 쑤셔 넣고 윈치를 이용하여 땅을 파냈다. 그렇지만 보병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드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자가 1951년 8월에 지평리의 유엔군 방어선을 거닐면서, 별로 참호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방어선의 남동쪽 방향으로 지평리에 들어가는 도로 위에 있었던 K중대의 자리에는 몇몇 참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는 부대 주둔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비상식량을 담았던 깡통들과 쓰레기들

이 한 더미 가득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쓰이지 않았지만 그 당시 중대와 소대를 연결시켜주었던 전화선들이 끝없이 그곳에 널려 있었다. 또 어느 보병부대의 자리에 있는 낮은 난간에는 작은 돌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참호들이 파여진 자리는 G중대가 있던 언덕이었는데, 이 참호들 대부분은 중공군들이 언덕을 점령하기 위해서 역경사면에 만들었던 것들이었다.

지평리는 길쭉한 마을인데, 동서로는 반마일 정도였으니까, 양쪽으로 한두 블록 정도의 거리였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몇 건물만이 벽돌과 철제로 지어진 건축물들이고, 대부분의 건물들은 전형적인 초가집들이었다. 단선 철로는 북서쪽 원주로부터 이어져서 지평리를 지나서 남쪽으로는 서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새롭게 준비된 활주로는 마을 남서쪽 끝에 있었는데, 이 활주로는 북서쪽-남동쪽 축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쪽 부분의 철로와 거의 평행하게 맞추어져 있었다.

지평리 방어선은, 그 중간 가장 넓은 부분으로 보자면, 동서로 대략 2마일 반이고 남북으로는 2마일 정도 되었다. 이 방어선은 동쪽 끝에서는 대략 1마일로 좁아지는데, 이 부분은 서쪽 끝보다는 그래도 더 넓은 축에 들었다. 지평리의 마을들은 남서쪽 원호 방향으로 완전히 방어선 안에 들어와 있었다. 제37야포대대, 그리고 제503포병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는 마을과 철로의 남쪽 부분인 방어선의 남서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이어서 보병부대들이 정돈되었는데, 제1대대는 북쪽, 제3대대는 동쪽, 제2대대는 남쪽, 그리고 프랑스대대는 서쪽을 맡게 되었다. 방어선의 북서쪽 부분에서 시작하면 소총 중대들은 다음과 같은 시계 방향 순서로 배치되었다. C중대, A중대, L중대, I중대, K중대, E중대, F중대, G중대, 프랑스1중대, 프랑스-국군 중대, 프랑스2중대, 프랑스3중대 등이 바로 시계 순서대로 배치되었다. 처음부터 프리만 대령은 B중대, 제1특공중대, 그리고 본부중대를 예비 병력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A중대와 C중대 후면에 위치했다. 전투를 하는 도중에 항상 가변적인 예비 부대들이 유지되었다. 그래서 방어선의 각 부대들은 자신의 양쪽 부대들에게 화력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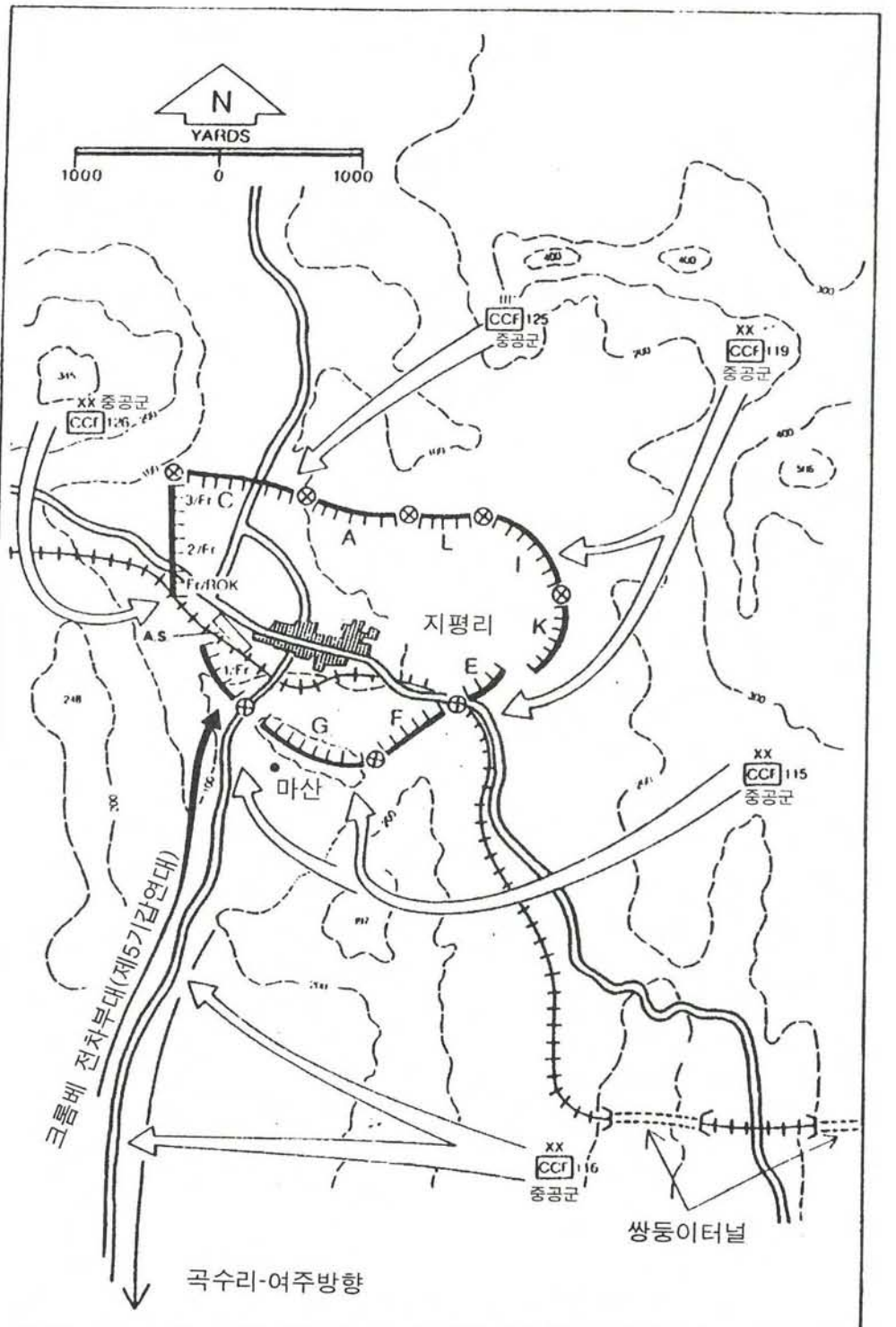
다섯 도로가 방어선을 지나쳤다. 남북으로 이어진 주도로는 북쪽의 C중대가 맡은 부분을 지나서 남쪽의 G중대와 프랑스1중대 사이를 지났다. 동쪽과 남동쪽의 두 도로는 남동쪽의 E중대와 F중대 사이를 지나서 프랑스대대에 예속된 국군 중대가 맡고 있던 서쪽 지역을 지났다. 곡수리로부터 여주로 이어지는 지평리 남쪽의 주도로는, 지평리로부터 남쪽으로 반마일 거리에 있었던, 마산이란 작은 마을을 지나서 G중대와 프랑스1중대 사이를 지났다.

지평리는 제10군단 전선 내부에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제9군단의 전선과 맞닿아 있었다.

지평리를 통과하는 다섯 도로는 동쪽으로는 홍천 유역으로 가는 관문이고, 서쪽으로 한강 유역으로 가는 관문이었으며, 남동쪽으로는 원주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다. 이렇게 도로가 집중되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군이나 중공군 양쪽에게 모두 지평리는 매우 중요한 지역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곳을 점령하면 서쪽과 남서쪽 방향에 있는 한강 남쪽의 모든 중공군 병력들을 위협할 수 있었고, 동시에 홍천에 집중되어 있었던 중공군을 유엔군이 공격할 때 지평리는 착수지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었다.

지평리의 부대원들은 2월 12일 조용한 밤을 보냈지만, 동쪽의 제3대대와 방어선의 북쪽에 있던 C중대에 가해진 공격을 확인하려는 불빛은 예외였다. 두 지역에 가해진 중공군의 공격은 쉽게 격퇴되었다. 중공군의 조명탄들의 활동은 방어선에서 쉽게 관찰되었던 것이다. 지평리에 있던 포병 부대는 밤 동안 중공군의 가능한 접근로와 예상 집결지역에 가공할 만한 포격을 계속 감행했고, 레이더로 통제되는 B26폭격기가 적의 지역에 야간 공습을 감행하였다.

2월 13일 낮에 프리만 대령은 모든 방향으로 정찰대를 파견했는데, 그 정찰대 중 일부는 방어선으로부터 5,000야드 바깥까지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쪽, 동쪽 그리고 서쪽에서 적의 활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해 왔다.



<지도1> 1951년 2월 13에서 15일까지, 제2사단 제23보병연대와 프랑스대대의 지평리 방어선

방어선에서 훨씬 더 멀리 출격했던 정찰기들은 북쪽과 동쪽에서 대규모의 중공군들이 지평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했던 것이다. 포병 부대와 40여 대의 공습기들은, 중공군들이 방어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들에게 먼저 포격과 공습을 감행했었다. 몇몇 정찰대들은 적의 사격에 고립되었지만 적의 연이은 포격과 공습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2월 13일 저녁 어둠이 다가올 때, 중공군들은 조명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서 자신들의 집결지로 동료 부대들이 모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모든 징후들이, 야간 공격을 위해 자신들의 집결지로 중공군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낮 동안 리지웨이 장군은 2월 15일까지 제1해병사단과 충주에 있던 한 개 전투연대에게 전투지역으로 출동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어서 제9군과 제10군에게는 본부 지휘소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해병사단은 제9군에 소속될 예정이었다. 이 사단의 최초 임무는 충주로부터 중공군에게까지 이르는 동쪽과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완전히 어두워졌던 8시에, 중공군의 나팔소리와 호루라기소리가 방어선 북서쪽과 남서쪽에 울려 퍼졌다. 그 지역에 있던 부대들은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소음 소리에는 사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 다음 두 시간 동안은 방어선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렇지만 오후 10시 15분, 중공군 부대는 공격을 개시하려고 하였다. 우선 중공군의 박격포와 야포의 포탄들이 북쪽, 북서쪽, 그리고 남서쪽에서 날아들어 방어선과 그 안에 있는 중심부를 강타했다. 동시에 중공군 보병부대들은 북쪽 끝에 있었던 C중대 앞에 설치된 섬광탄, 대인지뢰 그리고 부비트랩의 방어물들로 돌진해 들어왔다. 기다리던 군인들은 중공군들이 아군이 쳐 놓은 가시철사에 걸리자마자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그 때 C중대는 155mm 조명탄을 자신의 위치로 쏘아달라고 요청했고, 그 즉시 바로 조명탄들이 날아들었다. C중대의 자동화기는 완전히 불빛에 노출된 중공군들을 향해 불을 뿜기 시작했다. 프랑스대대 옆 서쪽 도로 근처에 있던 자동화기들과 전차들은 노출된

중공군들을 향한 자동화기 공격에 함께 가세했다. 그러자 첫 번째 공격에서 생존한 중공군들은 재빨리 시야에서 도망쳐 사라졌다.

이 때 방어선 중심부로부터 각각 북서쪽으로 반마일과 서쪽으로 2마일 떨어져 있었던 345고지와 248고지 뒷면에 중공군이 설치했던 소련제 120mm 중박격포가 방어선 중심부로 포탄들을 날리기 시작했다. 두 곳의 박격포가 사격을 시작하자 적과 근접한 지역이 환하게 밝혀졌다. 중공군의 정확한 박격포 사격은 방어선 안의 지휘소, 그 근처 박격포와 야포 부대, 보급품 창고, 그리고 응급 치료소 안에 있던 많은 인명들을 한꺼번에 앗아갔다. 중공군은 곡사포 사격과 소련제 76mm 대포 사격을 개시하면서, 박격포 포격에 함께 가세했다.

자정 쯤, 23RCT 지휘소를 강타한 박격포 포탄의 파편이 프리만 대령의 다리에 상처를 남겼다. 프리만 대령은 자신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피난하길 거절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알몬드 장국은 제10군단 참모인 칠스(John H. Chilles) 중령을 지평리로 파견하여 23RCT의 지휘를 대신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프리만 대령은 다음 날 24시간 동안 지평리에 계속 머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2월 15일 정오 헬리콥터가 와서야 겨우 지평리를 떠났다. 그는 자신의 종아리에 난 상처는 짧은 시간 내에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뒤 그는 미국으로 가는 수송 비행기를 얻어 타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다. 이 상황에서 칠스 중령이 전투를 변화시켰다는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정이 되기 전에 방어선을 따라 짧은 고요함이 흘렀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중공군의 공격은 다시 제1대대에게 가해지기 시작했고, A중대도 동시에 강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오전 2시 15분에 중공군은 제3대대 방어선의 남동쪽 부분에 있던 K중대를 결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중공군의 공격은 이 지역에서부터 방어선의 남쪽에 있었던 제2대대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2월 14일 오전 3시 45분에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이 중공군에게 처음으로 방어선을 뚫리게 되었다. 이 공격은 방어선 남쪽에 있는 397고지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러나 얼마 후 F

중대 제3소대의 한 개 분대와 K중대의 지원부대가 G중대를 도와서 뚫고 들어온 중공군을 격퇴하고 원래 방어선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중공군은 오전 5시 30분에 뒤로 퇴각했다. 구겔러(Russell A. Gugeler) 대위는 자신의 저서 『한국에서의 전투 활동(Combat actions in Korea)』이라는 책에서 지평리 전투에서의 G중대의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정이 지난 얼마 뒤 중공군은 자신들의 공격을 집중할 수 있는 아군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서쪽의 프랑스대대가 맡았던 부분과 남쪽의 제2대대가 맡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부분들에서 방어선으로 접근하는 가장 좋은 진출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345고지는 거의 중공군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 고지는 방어선 북서쪽 부분으로부터 단지 1,200야드 거리에 있어서, 프랑스대대에 대한 내리막길 공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그들이 갖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대대 앞의 가시철사 전방에 있는 넓은 개활지였다. 이 개활지는 프랑스대대가 자동화기로 수비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어선 남서쪽에 있는, 남북으로 뻗어 있는 좁은 능선에 불과했던 248고지도, 방어선 남쪽 끝에서부터 단지 1,200야드의 거리 밖에 되지 않았다. 대규모 중공군 병력들이 248고지 반대편 경사면에 모여들었다. 이 능선 북쪽 끝에서부터 중공군은 프랑스대대를 공격하였지만, 가시철사 앞에 설치된 자동화기로 인해 결국 공격은 좌절되었다.

제2대대가 맡고 있던 지역, 특히 G중대의 지역에서 중공군 제115사단은 397고지가 남쪽으로부터 방어선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런 접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97고지 정상은 G중대 위치로부터 남쪽으로 단지 1,200야드 거리에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G중대의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능선의 북서쪽 돌출부까지의 거리가 단지 400야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곳이 바로 중공군의 접근로였기 때문이다. 2월 13일에서부터 14일까지의 밤 동안 전투가 진행됨에 따라, G중대의 위치는 방어선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되어버렸다. 방어선의 다른 지역보다는 가장 오랜 동안 지평리에서 그것도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남쪽 방어선을 중공군이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확보된 중공군 기록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9군단 소속, 제115사단과 116사단은, 적의 퇴로를 막고 적의 재무장을 간섭하기 위해서, 지평리에 주둔했던 다른 적병들을 고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

1951년 2월 14일 새벽, 제116사단은 (자음리로) 전진했고, 미군 제23연대의 두 중대[해설: 아마도 제2사단 제9보병연대 소속의 제2정찰중대와 L중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를 괴멸시켰다. 제115사단도 또한 적과 어떤 접촉도 없이 구돈에 도착하였다. 같은 날 밤, 제115사단은 포위 전략을 실행에 옮겼다. 지평리에 있는 적의 병력을 압박하여, 제119사단, 제126사단 그리고 제125사단에 소속된 한 개 연대와 협동 작전을 벌여 지평리 지역을 완전히 포위했다."

인용된 중공군의 언급에 따르면 중공군 제39군단 소속의 제115사단과 제116사단은 2월 13일과 14일 밤 동안에 지평리를 지나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지평리 후방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15사단은, 쌍둥이 터널 바로 남쪽에 있었는데, 지평리로부터는 남쪽으로 4, 5마일 거리에 있었던 구둔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밤 사이에 23RCT의 남쪽 방어선에 도착했다. 중공군 제116사단은 구둔에서 남쪽으로 2.5마일 거리에 있던 자음리로 전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제116사단은 제2사단 제9보병연대 소속의 제2정찰중대와 L중대와 조우했고, 이들을 함께 괴멸시켰다. 그 다음 제116사단은 남쪽으로 지평리로부터 여주에 이르는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서 몇몇 부대를 서쪽에 있던 곡수리로 파견했다. 사단 병력 일부분은 후방에 남아서 고룬리와 한강 북쪽의 23RCT의 보급로에 가까이 있는 고지들을 점령하였다. 이 고지들은 자음리, 구돈, 그리고 쌍둥이 터널을 지나서 지평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밤 사이에 중공군 두 개 사단은 남쪽에서 지평리에 대

한 병력 투입을 완료했던 것이다. 한 개 사단은 방어선 공격에 참여했고, 다른 사단은 지평리로부터 남쪽과 남서쪽으로 이르는 두 도로를 봉쇄했고 아군에 대한 포괄적인 사격망을 설립했다. 따라서 중공군 제116사단은 23RCT의 퇴로를 봉쇄했고, 동시에 어떤 원군들의 접근도 막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공군 제116사단의 활동과 관련해, 23RCT 참모였던 두메인(Dumaine) 소령은 제2정찰중대로부터 2월 14일 오전 6시 30분에 다음과 같은 무전을 받게 된다. 즉 제9보병연대 소속의 제2정찰중대와 L중대는 지평리에서 남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자음리에서 세 방면으로부터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2월 13일에서 14일 사이의 밤 동안 해병정찰대 제82 AAA AW 장갑차대대 소속 B포병중대의 네 정의 M19와 여섯 정의 M16이, 보병들이 적의 공격을 격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방어선에 투입되었다. 제503야포 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는 100여 명의 부대원과 기본적인 두 박스의 포탄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도 일단 양은 충분했다. 하더웨이(Clyde T. Hathaway) 대위는, 윌슨(James C. Wilson) 대위를 참모로 해서, 제1소대 지휘관 세이무어(Joe W. Seymour) 중위, 제2소대 지휘관 헤어(George Hair) 중위, 제2소대 참모 포크너(William Faulkner) 중위와 함께 포병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AAA 장갑차의 첫 번째 막중한 임무는 방어선의 남동쪽을 맡고 있던 K중대를 엄호하는 것이었다. 이곳에서는 보급로가 남동쪽으로부터 지평리로 들어왔고, 단선 철로가 터널을 지나서 지평리 동쪽 끝에서부터 대략 600야드 거리에 있던 임시교량 위의 보급로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중공군은 오전 2시 30분에 397고지에서부터 이곳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반 시간이 안 되어 M19 기관총은 40mm 포탄을 580통이나 발사했고, 두 대의 M16 기관총은 50개의 탄알이 들어 있는 탄창을 2,200통이나 발사했다. 중공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K중대를 뚫었고, 제3대대 후방에 도로봉쇄선을 만들었다. 이 상황에서 결국 K중대의 몇몇 부대원들은 고립되고 말았다. 한 개의 보병 분대가 M16 기관총과 전차, 그리고 수송지프차로 부상자들을 옮기려

고 시도하였지만, 중공군들이 전차와 지프차의 진행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시도는 무산되었다. 탄약을 완전히 탑재한 한 대의 M19 기관총 차량이 방어선을 뚫은 중공군에게 돌진해서, 포위된 두 대의 M19 기관총 차량과 한 대의 M16 기관총 차량과 합류할 수 있었다. 고립된 지역의 제3대대와 AAA 장갑차가 새롭게 배치되어 터널과 철로 임시교각 동쪽에 있는 지평리로 들어오는 도로를 따라 전진하려는 중공군에게 엄청난 화력을 뿜어냈다.

2월 14일 오전 3시, 중공군은 거의 모든 방어선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프랑스대대는 탄약이 떨어졌을 때, 중공군과 총검으로 백병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 때 중공군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곧바로 달아났다. 방어선 북쪽을 맡고 있던 C중대는 또 다른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었다. 남쪽에 있던 G중대는 자신이 맡고 있던 지역을 다시 탈환했지만, K중대는 여전히 백병전을 펼치고 있었다. 남동쪽 부분에서 방어선에 접근하려는 중공군들은 계속 터널과 철로 임시교각을 통해서 투입되었다. 방어선의 서쪽 부분에서 프랑스대대는, 제37야포 대대 소속 C포병중대와 제503야포 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로 향해졌던, 중공군의 새로운 공격을 격퇴하였다. 전투는 프랑스대대가 맡고 있던 지역에 있던 두 대의 M16 기관총 차량 한 대로부터 약 20야드 안의 가까운 거리에서 치러졌다. 그러나 프랑스대대는 마침내 오전 7시에 중공군의 공격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M16 기관총은 이 때 2,000통의 탄약을 발사했다.

그렇지만 백병전이 치열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G중대의 고지만큼 더 치열했던 전선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곳에서 중공군은 한 때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 후방에 있던 제503야포 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의 155mm 곡사포가 있던 지역을 점령했던 적이 있었다. G중대와 155mm 곡사포를 지원했던 M16 기관총은 이 때 10,000통이라는 엄청난 탄알을 쏟아 부었을 정도였다.

지평리 전투를 설명하면서, 프리만 대령은 2월 14일 새벽의 전투의 치열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다. "2월 14일 아침 세 곳에서, 중공군

들은 프랑스대대와 제2대대 사이의 도로와 철로 임시교각 아래에 있었던 제2대대와 제3대대 사이의 도로를 뚫으려고 했다. 이곳에서 중공군들은 전차와 곡사포 운반차량으로 만들어진 도로 바리케이드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들은 기다란 막대 모양의 폭약과 소화탄으로 이 차량들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두 대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화염이 발생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월 14일 오전 5시 30분, 중공군들의 압박은 방어선의 모든 부분에서 약화되었다. 그렇지만 K중대는 여전히 도로 장애물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중에 날이 밝았을 때, 중공군들은 프랑스대대가 맡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프리만 대령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프랑스대대는 자신들의 참호로부터 나와서 소총에 검을 꽂은 채, 언덕을 달려 내려와 적들이 진형을 갖추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개시했다. 그래서 프랑스대대는 놀란 중공군 14명의 목덜미를 붙잡아 그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장교를 포함하고 있던 이 포로들은, 우리가 대략 30,000명이나 되는 중공군 다섯 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포로들은 자신들이 중공군 제40군단 제120사단 제359연대에 소속되어 있다고 밝혔다."

2월 14일 새벽, 중공군은 자신들의 공격을 중지하고 동쪽과 서쪽 언덕 너머로 퇴각했다. 날이 밝자, 야전 병원 텐트 두 곳에는 대략 100여명의 부상병들이 치료를 받았다. 전투 동안 모두 여섯 동의 야전 병원 텐트가 지어졌는데, 이 텐트들은 모두 철로 침목과 쌀자루로 만들어진 것이다. 두 번째 날 아침에 다섯 곳의 야전 대대 병동과 야전 병원에 대략 200여명의 부상병들이 더 치료를 받았다. 2월 15일 저녁 전투가 끝날 무렵까지, 5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헬리콥터가 중상을 입은 부상병들을 후송하였다. 마지막으로 2월 16일 정오, 제5기갑부대가 28대의 앰뷸런스와 7대의 2.5톤 트럭으로 구성된 의료수송대, 즉 스트워트(Stewart) 태스크 포스팀을 호위하면서, 250여 명의 사상자들을 곡수리에 있는 제5기갑부대 야전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전투 중 방어선 안의 23RCT 소속의 야전 병동에 후송된 부상병들 중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죽은 사람은 단지 두 사람에 불과했다.

2월 14일 동안, 단지 세 번의 공습만이 23RCT의 방어선 주변에 있던 적진에 가해졌다. 왜냐하면 지평리 동쪽의 원주 지역의 상황이 심각해서, 거의 이용 가능한 모든 항공기들이 그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이다. 지평리에 이른 세 번의 공습들은 쌍둥이 터널 지역에 집중되었다. 이곳에는 많은 수의 중공군들이 낮 동안 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군에게 필요한 보급품에 대한 공중 수송은 낮 동안 방어선 안에서 이루어졌다. 24C119 수송기는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보급품들을 이 안에 투하해주었다. 그렇지만 이 보급품들에는 중박격포 포탄과 조명탄들이 들어 있지 않았고, 또한 보급된 소총 탄알도 클립에 채워져 있지도 않았다. 이 두 번째 보급 상황은 나중 밤에 보병들이 전투할 때 큰 곤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낮 동안 지평리의 23RCT 부대원들은 방어진지를 수선하거나, 무기를 청소하고, 탄약을 분배하며, 정찰활동을 수행하고, 따뜻한 식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2월 14일 아침, 제2사단 참모는 23RCT에게 제9군단이 영국 제27연방여단으로 하여금 여주를 떠나서 23RCT의 보급로를 정리하도록 파견했다고 알려왔다. 그래야만 방어선 안에 있는 23RCT의 병력들이 동쪽 원주 방향에 있던 제9보병연대와 연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영국 여단은 지평리에 있는 23RCT로 출발할 때, 별다른 적의 저항에 직면하지는 않았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영국 여단은 23RCT 후방에 도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던 중공군 부대들과 만나게 되는데, 영국여단은 마침내 여기서 패하고 만다. 그 날 아침, 제9군단은 제5기갑연대로 하여금 여주를 떠라 곡수리를 거쳐 지평리로 가는 도로를 통해 진군하면서 그 도로를 정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해야만 지평리의 부상자들을 후송할 수 있었고, 23RCT에게 다시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여단과 마찬가지로 제5기갑연대도 중공군 부대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전진하지는 못했다. 중공군 부대들이 이미 지난 밤 동안 이 도로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의 밤 동안, 중공군들은 첫 번째 밤보다는 더 좋은 공격 계획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이 날 밤에 그들은 한 시간 가량 박격포와 야포 사격을 방어선에 무섭게 가해 왔다. 오후 7시, 언제 들어도 거북하기만 한 중공군의 나팔소리가 남쪽으로부터 강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중공군 보병 부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제2대대 양 측면에 있던 방어선을 지나는 두 도로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감행했다. 그 중 하나의 도로는 마산을 거쳐서 남쪽에서부터 G중대의 오른쪽 측면에 이르는 길이었다. 이곳에서 중공군들은 397고지에서 나온 많은 중대들로 G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중공군들은 수천의 중공군 부대들이 낮 동안 은신하였던 506고지로부터 북동쪽으로 전진해서 제3대대, 특히 K중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는 도로는 터널과 철로 임기교각에 근접한 방어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낮 동안 공중 투하된 보급품들 중에는 조명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자 아군은 그 사실이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프리만 대령은 무전을 쳐서 자신들을 돕기 위해 "파이어플라이(Firefly)"를 즉시 보내라고 요구했다. 파이어플라이는, 밤에 아군 지역을 날아서 15분간 환하게 불을 밝혀서 거의 대낮과 같은 조명을 제공해주는 커다란 조명탄을 투하하는 C47 항공기를 말한다. 이 파이어플라이들이 연달아서 전선에 투입되었다. 왜냐하면 조명탄들이 떨어질 때 다른 비행기가 앞 비행기를 대치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2월 14에서 15일 사이의 밤에, 이 항공기들은 한 밤 내내 방어선 위에 머물면서 조명탄을 투하했다. 나중에 프리만 대령은 이 항공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었다. "이 항공기들은 야간 전투를 수행하던 다른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대원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

2월 15일 오전 1시 30분, 중공군은 방어선 북쪽에 있는 제1대대로까지 공격을 확장했고, 특히 제3대대 앞에서의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중공군은 I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을 뚫었지만, 대대 지휘관은 병력 재강화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 대신 I중대 옆에 있던 L중대 소속의 한 개 소대로 하여금

I중대가 자신의 지역을 회복하는 것을 돕도록 명령했다.

다시 전투는 방어선 남쪽 원호 부분 중, 가운데 있던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에서 자정 이후부터 몇 시간 동간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다. G중대는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맡고 있던 지역을 사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2월 15일 오전 3시 15분, 몇몇 생존한 부대원들이 능선의 북쪽 면을 따라 흩어져 내려왔다. 전투는 참호 주변에서 백병전으로 이루어졌다. 제2대대 지휘관인 에드워드(James Edwards) 중령은 제1특공중대 소속의 한 개 소대와 F중대의 예비 소대를 보내서 G중대의 고지를 다시 탈환하러 보냈다. 프랑스대대의 인접했던 좌측 부대도, G중대가 자신의 고지를 잃어버렸을 때 함께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3시 30분 제2대대 참모장교인 커티스(Robert Curtis) 중위는 F중대 소속의 소대와 특공중대 소속의 소대를 한 대의 전차와 함께,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으로 파견했다. 이 때 특공중대 지휘관이 자신의 소대를 따라갔다. 커티스 중위가 G중대 지휘관 히쓰(Thomas Heath) 중위를 만나서, 적이 장악한 능선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된 그의 특공부대원들과 F중대원들을 차출했을 때, 그는 특공중대 지휘관의 반대에 봉착하게 된다. 특공중대 지위관은 자신의 부하들은 연대 사령관에게만 복종할 수 있지, 커티스 중위에게는 복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티스 중위는 제2대대 지휘관인 에드워드 중령에게 보고를 하고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에드워드 중령은 자신의 참모인 램즈버그(John H. Ramsburg) 대위로 하여금 전투를 지휘하도록 파견하였다. 램즈버그는 오전 4시에 대대를 떠나 G중대로 향했다. 그는 특공중대 지휘관에게 자신이 반격을 위해 소집된 보병부대를 지휘하겠다고 설명하였지만, 이것 역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램즈버그 대위는 뒤섞여 있는 부대원들을 분리하기 시작했다. 36명이 특공소대 소속이었고, 28명이 F중대의 한 소대 소속이었고, 4, 5명이 G중대, 6, 7명이 박격포 부대, 2명이 자동화기 부대 소속이었다. 그는 특공소대를 전선의 우측에, F중대 소대를 전선의 좌측에 배치하였다. 두 명의 자동화기

부대원들은, 아군이 고지 위로 공격할 때 능선 정상에 자동화기를 발사함으로써 그들을 엄호하도록 하였다.

램즈버그 대위가 G중대의 고지에 있는 중공군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제37야포대대로부터 제503야포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로 파견 나온 연락장교 엘레지(John A. Elledge) 대위는 G중대의 고지로부터 포대를 이탈해서 바닥에 내팽겨져 있던 M16 기관총을 도랑으로부터 꺼내서 작동시키려고 하였다. 이 기관총을 맡던 부대원들은 이것이 전혀 쓸모없는 무기라고 생각해서 내버렸던 것이다. 엘레지 대위는 가까이에 있던 전차부대원들에게 M16 기관총을 도랑으로부터 건져서 평지로 올리라고 명령했다. 왜냐하면 도랑에서는 이 기관총을 포대로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꺼내진 M16 기관총은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던 고지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네 개의 총신을 겨눌 수 있게 되었다. 엘레지 대위는 이 다연발 기관총이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아직도 상하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엘레지는 이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램즈버그 대위에게 고지 정상에 대한 사격 명령을 얻어냈다. 이 기관총의 엄호 사격 하에, 전차 한 대가 버려진 B포병중대의 위치로 접근했고, 보급텐트에 있던 부상병 16명을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M16 기관총(G중대가 버리고 간)으로 75mm 무반동총 발사를 준비하던 고지 위의 중공군들을 괴멸시켰다. 이렇게 해서 엘레지 대위와 세 대의 전차는 자신들의 화력으로 중공군들을 저지했고, 램즈버그 대위의 반격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끝내 중공군들은 F중대 소대와 특공소대를 괴멸시켜 버렸다. 그들은 여전히 G중대의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곳에 참호를 파기 시작했다.

아군의 사격이 (프랑스대대에 인접했던) 도리어 전선 오른쪽의 특공소대와 고지 밑 부분의 전차부대원들을 맞추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몇몇 보고들도 있었다. 어쨌든 이런 오인 사격은 몇몇 특공대원들이 부상을 입게 만들었다. 먼저 특공대원들이 능선의 정상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F중대 부대원들이 그곳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

다. 두 소대의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생존 부대원들은 고지를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램즈버그 대위와 히쓰 중위도 부상을 입었는데, 특히 히쓰 중위의 부상은 매우 심각했다. 결국 반격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 때 중공군들은 고지를 내려가는 생존 부대원들을 덮쳐 그들을 괴멸시켰지만, 그들은 결코 고지 정상을 떠나지 않았다.

입수된 중공군의 기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는, 실패해서 여전히 G중대의 자리를 중공군의 수중에 두게 되었던 아군의 반격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G중대가 지키고 있던 지역은 이틀 낮과 이틀 밤 동안의 전투로 중공군들이 지평리 방어선을 뚫었던 가장 치열했던 장소이며, 중공군이 오후 늦게 퇴각할 때까지 그 날 밤에서부터 그 다음 날 낮까지 계속 장악하고 있었던 곳이기도 했다. 중공군의 기록은 마산과 갑촌이라는 두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마산은 방어선에서 G중대가 위치했던 곳으로부터 남쪽 방향에 있던 15, 20채 가량의 오두막이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갑촌은 저자가 본 미군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공군 기록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평리 남쪽 끝 근처에 있던 한 무리의 가옥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제39군단 제344연대 소속의 제1대대는 진격 지점에 도착했다. 이전에 이미 19시에 제40군단, 제119사단 소속의 제356연대가 이곳으로부터 시작한 공격이 두 번이나 좌절된 적이 있었다. 제1대대도 24시에 공격을 시작했다. 우리의 화력은 충분히 조직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미군의 화력은 우리를 압도했고, 우리는 너무 공개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 번이나 공격했지만 매번 심각한 사상자들을 냈고, 결국 우리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5일 4시에, 대대는 미군과 대치하고 있던 연대의 명령으로, 동쪽에 있던 산악지역으로 이동했다. 2월 14일 21시에, 제42군단, 제126사단 소속 우리 제377연대는 다시 조직되어, 기차역 남쪽에 있는 300미터 높이의 작은 고지를 세 번이나 공격했다. 그렇지만 병력 과반수를 잃은 채 우리의 공격은 모두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제115사단, 제344연대 소속 제3대대는 1시에 개시한 공격에서는 성

공했다. 제3대대는 40분 만에 첫 번째 고지를 점령했고, 잇달아 두 번째 고지와 세 번째 고지도 점령하게 되었다. 4시 30분 전에 제3대대는 미군을 더욱 더 압박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 때 연대는 공격을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즉시 야전 진지를 재건축했으며, 15일 밤의 계속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점령한 위치를 확고하게 사수했다."

따라서 제39군단, 제115사단, 제344연대 소속의 제3대대가 바로 지평리 방어선에 있던 G중대의 위치를 점령해서 장악하고 있었고, 2월 15일 해뜨기 전과 그 다음 낮 동안에 그것을 탈환하려는 수 차례의 아군의 반격을 격퇴시켰던 것이다. 중공군 제3대대는 크롬베(Crombez)의 특수기동부대가 오후 늦게 도착했을 때까지 G중대로부터 뺏은 지역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던 셈이다.

특공부대와 F중대의 두 소대들의 공격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이 에드워드 중령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는 특공중대의 나머지 병력을 보내서 G중대의 위치를 탈환하는 것을 돕도록 명령하였다. 그렇지만 늦은 아침 연대 예비부대 소속의 B중대가 이 작전에 합류할 때까지 탈환작전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때조차도 두 연합 소대는 아침 동안 작은 성과 하나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제37야전포병대대 소속의 포병들도 고지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세 대의 전차와 M16 기관총 차량이, 제503야포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와 램즈버그 대위의 반격 부대 잔여병들을, 제37야전포병대대의 위치와 제2대대 본부, 그리고 지평리 남쪽 지휘소 도처로 퇴각시키는 데 있어 지원사격을 수행했다.

특공소대와 F중대 소대로 구성된 연합부대의 모든 노력은 2월 15일 오전 8시에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으며,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로 나타났다. 그 때부터 계속 G중대는 전투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에드워드 중령은 연대 예비부대 소속인 B중대가 방어선 남쪽 끝의 G중대의 위치를 회복하는 데 투입될 것에 동의했다. 그래서 연대 예비부대는 제2공병전투대대 소속의 B중대를 예비부대로 구성함으로써 보충될 수밖에 없었다.

치열한 전투가 G중대 위치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방어선의 다른 부대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였거나 아니면 이미 탈환하였다. 그래서 2월 15일 날이 밝자, 방어선은 남쪽의 G중대 위치를 제외하고는 견고하게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2월 15일 아침 막 시야가 트이자, 전투기들이 방어선 근처의 알려진 중공군 진지들에 공격을 가해서 그들을 소탕했다. 그러나 G중대가 맡고 있던 부분에서 바로 남쪽으로 1,000야드 거리에 있던 397고지의 중공군들은 이런 소탕작전에서 여전히 예외였다. "중공군들 중에서 가장 결의에 차서 광적이기까지 했던 이곳의 중공군 부대들은 우리와 맞붙으면서도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겠다고 작정했던 것 같다. 그들은 공중 사격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소총과 자동화기로 전투기를 공격하였다." 이 날 131회의 전투기가 지평리로 출격하여 방어선 수비를 지원해주었다.

2월 15일 대낮 이후의 방어선에서의 모든 작전은 중공군으로부터 그들이 지난 밤 동안 점령해서 지키고 있던, 즉 G중대가 맡았던 지역을 탈환하는데 모두 집중되었다. 제2대대 지휘관인 에드워드 중령은 대부분의 특공중대와 예비부대 소속의 B중대를 이 작전에 투입시켰다. 그는 반격 작전을 위한 계획을 모두 책임졌다. 에드워드 중령은 새벽에 G중대 지역으로 올라갔지만, B중대는 오전 9시 30분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왜냐하면 B중대가 부대원들을 소집하고 무기를 갖추고 자신들의 야영지로부터 방어선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중령은 특공중대와 G중대 잔여병들, 즉 G중대 제3소대를, 공격을 준비하고 있던 B중대에 모두 소속시켰다. 그리고 B중대 지휘관 프래트(Pratt) 대위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공격을 개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G중대의 제3소대와 제503야포대대 소속의 B포병중대는 제2선까지 퇴각해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에서 화력으로 아군의 공격을 지원했다. 그리고 프랑스대대도 G중대 지역에 인접한 자신들의 전선에서 퇴각해서 제2선에 머물고 있었다.

에드워드 중령은 B중대 지휘관에게 공격과 관련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상세한 상황들은 자신의 중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 그는 자신의 공격 지침을 더

명확히 알려주었어야만 했다. B중대가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공격을 감행했을 때, 이 공격은 단지 소대 규모로만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에드워드 중령이 의도했던 것은 전체 병력이 합류해서 공격이 개시되는 것이었다. 결국 중공군은 쉽게 B중대를 고지 밑으로 퇴각시켰고, B중대는 많은 사상자들을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실패는 소대 규모로 공격을 감행했던 다른 소대들에게서 반복되어 계속 나타났다. 제1특공중대는 예비부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에 결코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탈환 작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사려 깊지 않은 반격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아침에 이루어진 공격은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 채 모두 끝나 버리고 말았다.

G중대 지역에서의 작전과 관련된 미군 자료와 획득한 중공군 기록은 자주 이 지역에 있던 세 고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G중대 지역이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에 대해 몇 마디 언급하면 이 때의 전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지역은 높은 고지라기보다는 세 개의 작은 고지로 구성된 길고 낮은 능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능선은, 동서로 지평리 양쪽으로 이어져 있는 U자 모양의 지형 중 남쪽 측면에 위치해 있다. U자 모양의 지형에서 터진 부분은 서쪽을 향해 나 있다. 이 U자 능선의 남쪽 측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그 중심에 위치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흔히 고지로 불렸던 것이다. 세 개의 작은 고지 중 가장 높은 고지는 남쪽으로 마산이란 마을로 향하고 있는 지역을 내려다보고 있다. G중대는 이 낮은 능선에 자신들의 방어 진지를 구축했는데, 이 낮은 능선은 등고선으로는 100미터와 200미터 사이에 있었다. G중대는 처음에 세 개의 작은 고지에 각각 한 개 소대를 파견했는데, 제1소대는 프랑스대대의 경계선에 인접한 오른쪽, 즉 서쪽 고지에 파견되었고, 제3소대는 중심에 있는 가장 높은 고지에 파견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2소대는 F중대의 경계선에 인접한 왼쪽, 즉 동쪽 고지에 파견되었다.

중공군이 많은 병력으로 장악하고 있던 397고지로부터 시작되는 긴 박차 모양의 능선은, 북동쪽 정상으로부터 완만하게 경사져서 G중대 지역의 동쪽 끝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박차 모양의 능선은 G중대에 대한 훌륭한 접

근로를 제공한 셈이었다. 지평리 전투 내내 397고지로부터 중공군이 내려와서 G중대를 계속 공격했던 것이다. G중대 지역의 중간 고지의 정확한 고도는 저자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지도상에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고지가 200미터를 넘지 않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G중대의 전체 지역은 등고선 상으로는 100미터와 200미터 사이에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다.

정오에, 에드워드 중령은 자신이 요청한 공습이 대략 오후 1시에 곧 개시될 것이라는 전문을 받게 된다. 그는 아직도 고지 북쪽 경사면에 있던 B중대의 두 개 소대를 퇴각시켰다. 왜냐하면 그는 네이팜 폭탄이 떨어져 부대원들이 이 치명적인 무기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습은 오후 1시에 개시되었고, 오후2시까지 연달아 지속되었다. 많은 전폭기들이 G중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중공군- 제115사단, 제344연대, 제3대대-에 네이팜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습이 끝난 후 에드워드 중령은 소대 셋으로 구성된 B중대를 고지로 돌격하라고 내보냈다. 그렇지만 아직도 중공군의 저항은 여전히 완강했고, 반대편 경사면에서의 자동화기와 소총 사격이 정상으로 가는 B중대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있었다.

제23보병연대 제2대대의 밀러(Donald O. Miller) 중위는 2월 14일과 15일 사이 G중대의 고지에서의 전투에 함께 있었고, 또 이 전투에서 F중대가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F중대가 2월 15일 해 뜨기 전에 중공군에게 반격하고 있던 특공소대에 일 개 소대를 파견한 뒤에, 그는 중공군들이 박격포, 자동화기 그리고 소총으로 공격을 격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3소대와 특공부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3소대는 22정의 WIA, 1정의 MIA, 그리고 3명의 부대원들을 남겨두고 퇴각했다. 특공소대 부상자들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심한 부상 때문에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대낮 이후에 G중대는 단지 제2소대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대는 적의 공격을 이미 피하고 있었다. 밀러 중위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이 때 이 소대는 F중대에 소속되었다. 2월 15일 낮 동안, 나는

F중대 관측소에 있었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G중대 지역에 있던 중공군들을 관측할 수가 있었다. 50정의 M/G와 60정에서 80정에 이르는 박격포와 야포가 F중대 관측소로부터 중공군들에게 향해졌다. 공군이 나타났을 때, F중대 관측소는 적에 대한 공습을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이렇게 F중대 관측소는 적에 대한 모든 공습을 안내했는데, 그 결과는 놀랄만하게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대략 14시 30분에 제5기갑연대의 선두 전차가 적 후방에 나타났고, 아군을 방어하고 있던 중공군에게 혼란의 징후가 포착되었다. 마침내 중공군들은 전차, 야포, 곡사포, M/G 그리고 소총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가공할 만한 화력 때문에 퇴각하기 시작했다. 적들은 397고지나 서쪽으로 퇴각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을 낳게 되었다."

100m 등고선은 긴 능선 모양으로 지평리로부터 동쪽으로 F중대 방어선 지역의 동쪽 끝 북부에까지 이어져 있다. 관측소는 이 능선에 자리 잡고 있었고, 여기로부터 아군은 G중대의 고지를 따라 남서쪽을 관측할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부분과 반대편 경사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다. G중대가 맡고 있던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중공군들에게 가해진 모든 공격을 안내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관측소에서 공습을 적절히 안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 관측소에 의해 안내된 공격은 중공군을 괴멸시키는 데 매우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그와 함께 크롬베(Crombez)의 특수기동부대가 2월 15일 오후에 적 후방에 등장함으로써 G중대 지역에 대한 중공군의 지배력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방어선 남쪽에 포진되어 있던 적들은 고지 쪽으로 놀라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중공군이 여전히 고지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지평리 전투 동안 공중 지원에 관한 23RCT의 2월 보고서 별첨8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종종 이런 공습 동안, 네이팜탄은 아군 앞 75야드 부근까지 떨어지곤 했다. 중공군들은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한 개의 네이팜탄으로 자그마치 60여명이 죽을 수밖에 없

었다. 아군에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이루어진 네이팜탄 투하는, 무선으로 소대 지휘자들과 직접 교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중대관측소가 표적을 직접 관측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F중대 관측소의 안내를 받은 야포 사격 및 공습과 동시에, 에드워드 중령은 이제 고지를 탈환하는 핵심은 적이 장악하고 있는 G중대 지역의 서쪽을 남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에 전차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야만 아군들은 반대쪽 경사면에 있는 중공군들에게 사격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공병탄약소대를 파견해서 도로에 설치된 대전차지뢰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만 도로에 가까이 있던 중공군들은 이 부대를 물리쳐버렸다. 그러자 에드워드 중령은 공병탄약소대를 엄호하기 위해 두 대의 전차를 다시 보냈지만, 도로에 가까이 있던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는 이 전차들까지 모두 물리쳤다.

이렇게 곤궁에 빠지게 되자, 에드워드 중령은 특공중대를 이용하여 전차를 보호하고 중공군의 바주카포 부대를 괴멸시켜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그는 페리(Perry) 중위로 하여금 전차와 공병탄약소대를 책임지도록 하고, 특공중대 지휘관에게 적의 바주카포 부대를 붙잡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특공중대를 맡고 있던 중위는 자신들이 이런 식의 작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신들은 "일반 보병처럼 공격하고 수비하는 것"을 익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휘관에 따르면 그는 단지 기습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전문가였던 셈이다. 그러자 에드워드 중령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그 중위에게 확실히 말했다. 그는 이제 보병이고, 그는 내가 말한 것을 수행하든지 아니면 영창에 보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공중대는 전차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 특공중대는 이동할 때 전차 뒤에 숨기 위해서 도로의 서쪽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동쪽 면으로 이동하라고 계속 몰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중공군들이 자신들의 참호로부터 튀어나왔

을 때, 이 특공중대는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특공중대와 같은 특수부대를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나는 경험이 많은 훌륭한 보병들이 자신의 임무를 가장 잘 완수한다고 생각한다. (…) 특공중대 후방 근처에서 내 앞에 있던 페리와 톰(Von Tom)은 나와 함께, 그들을 도로 동쪽 편에 있도록 해서 절대로 전차 뒤로 숨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원들은 전차들에 사격을 가하려고 했지만, 공병탄약소대, 페리, 톰 그리고 50탄창 M/G를 탑재한 전차들은 그들을 모두 잡아버렸다. 톰은 여기서 총상을 입었지만, 자신의 45구경 권총으로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원 한 명을 사살했다."

전차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병탄약소대는 마침내 도로에서 지뢰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전차들은 (G중대 지역의 세 개의 작은 고지들인) B고지, C고지, 그리고 D고지의 경사면에 있던 중공군들에게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로를 따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다. 에드워드 중령의 말에 따르면 전차들의 사격으로 대략 200명의 중공군들이 사살되었으며, 이때 B중대가 이 작은 고지들의 정상에 도착했고, 그래서 중공군 연대의 약 800명의 잔여 병력들은 와해되어 아군의 사격 속에서 급하게 달아나 버렸다. 이 일은 오후 4시 30분에 일어났다. 중공군의 도주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첫째는 중공군이 장악하고 있던 고지의 반대편 (남쪽) 경사로에 대해 전차들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지평리를 사수하던 아군들을 구조하기 위해 전투를 수행하며 북쪽으로 전진했던 크롬베 대령의 24대의 전차들이 남쪽으로 구부러진 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또한 초기에 가공할 만한 공습도 중공군을 공포에 몰아넣게 되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 250명의 중공군들이 제1기갑사단 전차들 앞에서 달아나 버렸다. 에드워드 중령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시 나는 스웨덴 군인이 조종하던 두 대의 전차에게 중공군들과 맞서

라고 명령했다. 두 대의 전차의 화력 앞에서 250명의 중공군들은 죽어나갔다. 이것은 전체 중공군들을 공포에 몰아넣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참호로부터 나와 아군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이와 같은 광경을 본 적이 없었으며, 결코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방어선 주변의 모든 고지에서 중공군들은 일시에 도망가기 시작했다. (…) 공군은 공습을 가했고, 야포는 포사격을 했으며, 고사포대는 울부짖었고, 모든 박격포와 무반동총은 불을 뿜었으며, 모든 소총수들은 일시에 사격을 가했다. 아군의 무기보다도 더 많은 표적들이 생긴 셈이었다. 얼마나 멋진 날인가! 그것으로 우리를 에워쌌던 포위도 모두 끝장이 난 셈이다."

남쪽으로부터 전진한 제1기갑사단 전차는 5시 15분 지평리 방어선 안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지평리 전투는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여기서 방어선 남쪽에서 발생했던 이 극적인 사건의 과정에서 중공군은 이 전투의 종결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그들의 견해는 지평리의 아군들의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인용된 설명은, 2월 15일 아침에 23RCT 방어선의 남쪽 부분을 장악했던 중공군 제115사단의 기록이다.

"15일 날이 밝자,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밀집된 병력 때문에 우리 부대들에는 적의 공습과 야포 공격으로부터 많은 부상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 그렇지만 적들은 우리의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16시에 곡수리 방향으로부터 지평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진격하고 있던 20대 이상의 미군 전차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 전차들은 발견되기 전에 이미 거의 연대 지휘소 앞까지 도달했었기 때문에, 제2대대의 측면과 후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대는 즉시 제2대대를 제3대대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으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렸다. 우리의 후방과 측면을 압박해 들어오는 전차들은 매복해 있던 우리 제1대대와 제2대대의 공격을 받았고, 우리 두 대대 부대원들은 전차들 위에 있던 미

군 보병 한 개 중대를 괴멸시킬 수 있었다. 대대 지휘관[설명: 트레시(Treacy) 중령을 말한다.]과 20여 명의 미군들이 전차에서 떨어졌고, 이들은 모두 포로로 붙잡혔다. 우리는 또 4대의 전차와 1대의 자동차를 파괴했다. 기차역 남동쪽에 있던 세 고지들 장악한 후, 제344사단 소속 제3대대는 날이 밝자 그런 성공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대 소속의 제9중대로 하여금 점령한 지역을 사수하라고 명령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제9중대는 산하 소대들로 하여금 세 고지를 지키라고 명령했고, 그들에게 중자동화기를 제공했다. 그렇지만 중대의 주력은 고지 낮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미군들은 박격포 사격에 의지한 채, 8시와 13시 사이에 네 차례나 다시 반격을 시도해 왔다.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이 실패하자, 적들은 공중 사격, 공중 폭격, 네이팜탄 투하를 이용하여 13시 이후 다시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가 지키던 지역이 화염에 쌓였을 때도, 우리 부대들은 고지를 사수하며 반격하던 두 부대를 패퇴시켰다. 15시에 미군 전차들이 도착했다[설명: 아마도 에드워드 중령이 도로를 따라 G중대 고지의 반대쪽 측면으로 가라고 명령했던 2대의 전차를 말하는 것 같다]. 많은 손실을 입은 중대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체 대대는 망미리 고지 아래에 있는 신대(Sindae)를 에워싸고 있던 지역에 모이기 위해 이동했다[설명: 미군지도에는 신대는 방어선 남동쪽으로 3/4마일 떨어진 쌍둥이 터널 방향으로 보급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제 몇 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크롬베 특수기동부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부대의 전차들은 2월 15일 오후 늦게 지평리 방어선 중 가장 소모적인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 도착했었다. 지평리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중공군 제116사단은 여주로 향하는 지평리의 남쪽 도로, 즉 곡수리에 있던 도로를 봉쇄했다. 그곳에서 북쪽으로 그들은 지평리 외곽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거의 모든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23RCT를 원조하거나 구하기 위해서 한강으로부터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전진하려는 유엔군의 작전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2월 12일에 적 부대들은 곡수리에 있는 유엔군 전초 부대를 포위했고, 그에 따라 이 전초 부대는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날 제21보병 정찰대는 곡수리에 이르려고 했지만, 계획이 좌절되어 퇴각하고 말았다. 또 다시 14일에 전차를 대동한 또 다른 정찰대가 곡수리에 진입하려고 했지만, 중공군은 이들을 물리치고 1대의 전차를 부수었으며, 정찰대 보병들을 다 포로로 잡게 된다. 정찰대들은 접촉을 끊고 퇴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은 망가진 전차와 지프차 1대를 파괴한다. 아마도 곡수리에는 적 1개 대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밤 동안 제5기갑연대는 곡수리를 거쳐서 지평리로 공격해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0일 전 2월 4일에 영국 제27여단은 여주로 이동하면서 한강을 도하했지만, 그 때는 어떤 적과도 접촉하지 않았었다. 그러던 중 2월 14일 제27여단의 미들섹스대대는 23RCT로 가는 도로를 열기 위해서 보급로를 따라 지평리 쪽으로 향하게 되었다. A중대는 도로를 따라 도로 중심을 장악했고, C중대와 D중대는 양쪽 측면의 고지들에 사격을 퍼부었다. 두 시간 뒤 미들섹스 대대 선두 소대는 도로를 내려다보는 고지에서 참호를 파고 있는 중공군들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곧 이어서 이 고지대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이어졌는데, 미들섹스 대대는 여기서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그 다음 아침 2월 15일에 호주 대대가 선두에 섰지만, 그들은 단지 여주에서 북쪽으로 단지 4마일 정도까지 전진할 수 있었을 뿐이다. 2월 14일 전투에서 이미 영국 제27여단이 지평리까지 아무런 저항 없이 전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증거로는 이 제27여단이 도처에서 싸워야 했지만 몇 날이 지나도 지평리에 이를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14일 늦은 오후 이 영국 제27여단의 상황 때문에, 미군 제9군단 사령관인 무어(Bryant E. Moore) 소장은 제9구단 기갑부대 참모인 피켓(George B. Pickett) 중령에게 오후 5시에 제6전차대대 소속의 D중대를 움직여서 즉시 제1기갑사단 소속 제5기갑연대 사령관인 크롬베 대령에게 합류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동시에 무어 장군은 크롬베 대령에게도 명령을 내린다. 크

롬베 대령은 제5기갑연대를 이끌고 지평리로 가서 그곳에서 포위되어 있는 23RCT를 구해야한다는 명령이었다. 무어 장군은 크롬베 대령에게 "귀관은 오늘밤 움직여야만 하네. 나는 귀관이 이 임무를 완수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네"라고 말했다. 무어 장군은 영국 여단이 더 빠르고 좋은 길로 지평리로 가고 있지만, 그들은 적을 만나 매우 곤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어 장군은 피켓 중령에게 자신이 D중대가 반 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피켓 중령은 제6전차대대 전체를 크롬베의 부대에 합류시키라고 제안했었다. 그렇지만 이 전차대대 일부분은 제24사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속하게 소집될 수가 없었다. 무어 장군은 자신의 명령에 대한 어떤 수정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D중대만 반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재차 명령을 내렸다. 피켓 중령은 28분 안에 D중대를 도로 위에 집결시켰다. 무어 장군은 포위된 지평리 부대원들을 구하는 기동전략 계획의 실재적인 기획자였던 셈이다.

이 때 크롬베의 병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 제5기갑연대
- 제70(중)전차대대 소속의 A중대
- 제6(경)전차대대 소속의 D중대
- 제61야포대대
- 제92무장야포대대 소속의 A야포중대

크롬베의 특수기동부대는 2월 14일에 여주 인근을 출발해서 주포리에 이르는 야간 출동을 개시했다. 주포리에서 크롬베의 부대는 파괴된 교량 때문에 행군을 멈추어야만 했다. 밤 동안 공병들은 교량을 수리했고, 그 다음날 아침 2월 15일에 제5기갑연대 소속 제1대대는 중공군과 교전을 벌이게 된다. 크롬베 대령은 이때 제2대대에 있었는데, 그는 제3대대를 예비부대로 해서 후방을 방어하도록 명령했다. 많은 중공군들이 연대 앞에 있었기 때

문에, 아군의 전진 속도는 매우 느릴 수밖에 없었다. 오전 11시까지 크롬베 대령은 자신의 부대가 이 정도의 속도로는 해질녘까지 결코 지평리에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자기 앞의 중공군 제116사단은 보병의 전진이 느릴 뿐만 아니라 많은 희생을 치르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동안 무어 장군은 크롬베 대령을 방문했고 중공군의 강한 저항을 이야기했다. 이 때 제1대대는 도로 동쪽으로 전진하려고 하였으며, 그리고 제2대대는 서쪽으로 전진하려고 할 때였다.

오후 일찍 제2사단을 지휘하고 있던 루프너(Ruffner) 소장은 크롬베에게 와서 그가 당일 자신의 23RCT에 도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크롬베는 자신도 어떻게 해서든 꼭 그렇게 해서 해가 지기 전에 병력을 그곳에 도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제1기갑사단을 지휘하고 있던 파머(Palmer) 소장이 오후 일찍 특수기동부대를 방문했을 때, 크롬베는 그의 헬리콥터를 빌려서 지평리까지 가는 도로를 정찰할 수 있었다. 크롬베 대령은 곡수리 남쪽 1마일, 지평리 남쪽 6마일에서 자신의 부대가 저항에 강하게 부딪치자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즉 크롬베는 기갑 병력만을 가지고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머지 부대는 북쪽으로 전진하면서 전투를 하도록 뒤에 남겨두려고 계획했던 것이다. 이런 기습 공격을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부대를 선발했다.

- 제6전차대대 소속의 D중대
- 제70전차대대 소속의 A중대
- 전차를 타는 보병인 제5기갑대대 소속의 L중대
- 제6공병대대 A중대 제1소대 소속의 제1분대
- 전차 행렬을 따르는 4명이나 5명의 국군이 타고 있는 1대의 2.5톤 트럭(설명: 이 트럭은 크롬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5기갑연대 제3대대 지휘관인 트레시(Treacy) 중령이 나중에 추가한 것이다.)

기갑 병력에서 전차의 전체 수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23대라는 의견도 있고, 24대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이다. 크롬베 본인은 23대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평리의 23RCT 부대원들은 크롬베 부대가 지평리 근처에 이르렀을 때, 이 부대에는 24대의 전차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차를 타고 있는 L중대 보병들은 전차에 가까이 다가오는 중공군들을 사살해서 전차를 보호하라고 명령받고 있었다. 1개의 공병분대는 도로로부터 발견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있었다. 전차를 뒤따르는 2.5톤 트럭은 도로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상병들을 태우는 임무를 맡았었다.

기갑부대를 지휘했던 크롬베 대령은 조용한 장교였고 평소에 자신을 화려하게 과시하지도 않았다. 제1기갑사단 참모인 앨런(Frank A. Allen) 중장의 말에 따르면 크롬베 대령은 겸손했고 항상 전쟁을 연구했으며 전투 중 섬세하게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였다고 한다. 지평리로 부대를 몰고 가려는 그의 개인적인 결단은 적어도 이 후자의 측면을 아주 잘 입증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리지웨이 장군은 크롬베가 지평리로 떠나기 전에 전장에 도착했는데, 그는 기갑 병력을 지휘하는 크롬베의 리더십이 매우 위대한 용기를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크롬베 대령은 분명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야만 했다. 즉 자신은 지평리로 기갑부대를 이끌고 가서 이 부대를 몸소 지휘해야만 한다고 말이다. 제5기갑연대 소속 제3대대 지휘관인 트레시 중령으로 하여금 보급 임무를 총괄하게 하고, 자신이 도로에 적이 없다고 말할 때에만 보급품을 공급하라고 명령해 놓았다.

4명의 공병으로 구성된 분대는 두 번째 전차를 타고 도로에 지뢰가 있는지를 감시했으며, 만약 발견되면 그 즉시 곧 바로 지뢰를 제거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앞선 5대의 전차들에 타고 있던 부대원들은 살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160명의 L중대 보병들은 대략 전차 1대 당 10명씩 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전차 위에 있는 자동화기를 사격하도록 선발되었다. 크롬베 대령은 다섯 번째 전차를 타고 이곳에서 지평리로 움직이는 전체 전차 부

대에게 무선으로 명령을 내렸다. L중대를 지휘했던 배렛(John C. Barrett) 대위는 여섯 번째 전차를 타고 있었다. 제3대대 지휘관인 트레시 중령은 신병 10명과 함께 같은 여섯 번째 전차에 타고 있었다. 배렛이 말한 것에 따르면, 5대가 아닌 처음 4대의 전차들에는, 다른 전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병들이 전혀 타고 있지 않았었다. 그는 또한 L중대 참모인 존슨(Johnson) 중위가 마지막 전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제6전차대대 소속의 D중대 지휘관인 히어(John M. Hier) 대위는 네 번째 전차에 올라 타고 있었다. 그의 M46 전차는 90mm 캐논을 탑재하고 있어서, 76mm 자동화기를 탑재하고 있는 제70전차대대의 M4A3 전차들보다 더 우수한 방어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D중대 전차들이 바로 선두에 있었다. 그리고 드쉬바인니츠(Lawrence DeSchweinitz) 중위가 선두 전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히어 대위와 배렛 대위는 보병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계획에 동의했다. 즉 만일 전차 행렬이 멈추어진다면 보병들을 전차에서 내리게 하고, 만일 전차 행렬이 다시 전진을 시작한다면 이때 보병들을 다시 전차에 태운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다른 경우에도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전차들은 보병들을 태우지 않은 채로 출발하기도 했다. 전차가 다시 출발할 때, 보병들은 자신들이 대피한 도랑에서 뛰어나와 자신이 잡을 수 있는 어느 전차이든 올라타려고 애를 썼다. 몇몇 보병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보병들을 전혀 이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적진에 남겨져서 스스로 이동해야만 했던 것이다. 부상당하지 않은 보병들은 종종 장교나 하사관 지휘 하에 모여들었고 곡수리 근처 전선에 있던 제5기갑연대 제1대대로 후퇴하게 되었다.

크롬베 대령은 전차들에게 대량 50야드의 간격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2월 15일 오후 3시 45분, 그는 마두리 남쪽에 있는 출발지점으로 전차들을 출동시켰다. 이 출발지점은 제5기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의 전선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크롬베 대령은 전차 부대의 출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기동타격 전차부대를 조직했고 이 부대를 직접 몰아서 지평리로 가려고 하였다. 내가 출발하기 바로 전에 나는 23RCT의 지휘소[설명: 칠스 중령]에게 우리가 곧 그곳에 이를 것이지만 보급품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무전을 보냈다. 나는 단지 전차들로만 구성된 기동타격부대로 정면 돌파해야 하고 보급부대는 나중에 보내져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트레시 중령과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에게 보급로가 안전해서 전진하는 것이 용이할 때 2대의 전차와 2개의 소총소대로 호위한 23RCT로 가는 보급부대를 보내달라고 명령했다. 나는 트레시 중령에게 도로가 안전한 경우 무전으로 알려줄 때까지 나의 명령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전차들과 함께 L중대에 합류했다.

곡수리의 작은 마을 근처에 우리 전차부대는 중공군의 강렬한 소총사격을 받았고, 전차들은 결국 멈추어 섰다. 그래서 몇몇 보병들은 전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차 위에서 자동화기를 작동하고 있던 트레시 중령도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L중대의 부상병, 에버리스트(Carroll G. Everist) 상병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전차가 이동했을 때, 그와 다른 중대원들 그리고 트레시 중령은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았다. 트레시 중령은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그를 업고 근처에 있는 마을에까지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중공군들에게 심문을 받게 되엇다. 중공군들은 트레시 중령의 계급을 알고서 그를 매우 극진히 대우했다고 한다.

우리가 고갯길에 다다르고 있었을 때, 나는 나의 지휘소에 내에게서 직접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보급부대의 파견을 제지하고 있으라고 무전을 보냈었다. 또 나는 전차부대의 전진이 매우 힘들 것이며 우리도 곧 중공군의 사격 세례를 거칠게 받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보급부대는 결코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저자와 인터뷰할 때 크롬베 대령은 트레시 중령이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L중대와 합류해서 전차를 탄 것에 대해 비판하지는 않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트레시 중령은 훌륭한 대대 지휘관이었고, 자신의 대대와 관련된 작전에 어떻게라도 한 역할을 맡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L중대는 그의 대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공격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그는, 적의 화력에 완전히 노출된 자신의 소총부대원들과 함께 매우 위험한 임무라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던 그런 작전에 참여하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매우 치명적인 선택이 되었다. 우리는 『버려진 마을(The Deserted Village)』이란 작품에서 골드스미스(Oliver Goldsmith)가 오번(Auburn)의 마을 선교사에게 한 말을 그에게도 해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그의 결점들마저도 그의 미덕에 기대고 있는 것들이다."

크롬베 전차부대가 도로를 따라 북으로 출발했을 때, 제5기갑연대는 그들에 대해 직접 엄호사격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보병들이 그들의 전차들에 올라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5기갑연대는 도로 측면에 있는 고지들에 대해 야포사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고지들에서 중공군들이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면서 아군들을 공격하여 전차를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제5기갑연대 참모인 험프리(Humphrey) 소령은 무전으로 전차의 전진을 체크할 수 있었다. 그는 중공군의 사격이 심하게 가해질 때 전차 지휘관들이 크롬베 대령에게 전차를 전진시켜야 할지의 여부를 물었던 것을 세 번이나 들었다. 그러나 매번 크롬베 대령은 조용히 "앞으로 전진하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전차들은 아마 1마일 정도 전진하자 다시 적의 공격을 받았던 것 같다. 적의 공격은 곡수리 바로 남쪽에서 시작되었다. 북으로 가는 도로는 이 마을에서 급하게 꺾여진다. 여기서 중공군의 사격은 전차에 타고 있던 몇몇 사람들을 맞추었고, 적들에게 사격을 가하려는 전차의 포탑이 다른 보병들을 전차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 굽어진 도로를 돌고 난 직후에 곡수리에서 선두 전차들은 멈추게 되었다. L중대 제3소대 존스(Lloyd L. Jones) 상사는 전차에 있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있던 전차, 15번째 전

차 그리고 16번째 전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이 중 2명은 부상을 입고 있었다. 움직이는 포탑과 자동화기는 존스 상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처럼 많은 보병들이 곡수리나 그 인근에서 전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잠시 정지한 후, 전차들은 하차한 소총수들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안에서 전차의 해치를 열 전차병도 없이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미 계획했던 것처럼, 전차들은 계속 전진하려고만 했던 것이다. L중대 참모장교인 존슨(Johnson) 중위가 여기서 부상을 당했다. L중대 제2소대 소속의 많은 보병들은 300에서 400야드 앞에서 전차에서 내렸고 모두 길가 도랑으로 들어갔다. 전차 행렬이 출발할 때, 약 30명의 보병이 곡수리 인근에 남겨졌다. L중대 제4소대 소속의 콥(Hubert M. Cobb) 상병은 지평리로 향하는 길로 전진했지만, 한 번 출발한 전차를 다시 올라타기란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제2대대 F중대 지휘관인 핀리(Joe W. Finley) 대위는 자신의 중대 관측소에서 전차 행렬이 곡수리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또 다시 전진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반시간 뒤에 그는 L중대 소속의 10명 정도의 보병들이 마른 개울을 따라 F중대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다른 보병들은 늦게 돌아왔는데, 모두 30여 명이었다. 그들 몇몇은 의무병들이 곧바로 출동해서 부상병들을 구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존스 상사가 말한 것에 따르면, 전차 행렬을 따라가던 2.5톤 트럭에 타고 있던 국군들은 도로에 떨어진 부상병 3명을 트럭에 태울 수 있었다. 크롬베 대령과 전투 내내 무선 교신을 담당했던 제5기갑연대 참모인 파르지알(Charles J. Parzial) 소령은 제70전차대대 소속의 A중대의 전차를 보내서 곡수리 근처에 있던 L중대 보병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구조 전차들이 곡수리 남쪽 도로 굽어진 곳까지 전진했다고 말했다.

제6전차대대 D중대 소대장이었던 기든스(Jessie O. Giddons) 상사는 중공군의 사격이 곡수리에서 매우 치열했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전차를 타고 있던 L중대 소대장이었던 래히(Lahey) 중위는 이 때

총상을 당했는데, 이어지는 중공군의 사격으로 마침내 사망하게 되었다. 중대병력의 중공군들은 곡수리를 바로 벗어난 도로의 양측 고지들에 주둔하고 있었다. 바로 이곳에서 대부분의 아군 보병들이 전차에서 하차했고, 그들은 도랑에서 사격을 가해서 전차에 접근하려는 많은 중공군들 사살할 수 있었다. 중공군들은 소화탄, 화염병, 막대 수류탄 그리고 바주카포로 전차를 공격해 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공군과의 전투는 도로 옆 도랑에서 거의 백병전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컬랜드(Joe Kirland) 상사는 행렬 중 다섯 번째 전차, 즉 크롬베 대령이 타고 있던 전차를 지휘하고 있었다. 컬랜드의 말에 따르면 크롬베는 전차 사격병에게 사격을 명령했고, 이 전차에서 전체 전차 행렬을 통제하게 되었다. 선두 전차의 속도가 떨어지면서 멈추려고 할 때, 크롬베는 두 번째 전차로 하여금 선두 전차를 밀어서 전진하게끔 하였다. 컬랜드는 "전투 내내 크롬베 대령은 매우 침착했고 탁월하게 자신의 병력들을 지휘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L중대 제2소대 소속 4분대 소총수였던 캠프벨(Paul Campbell) 상병은 지평리로 가는 여섯 번째 전차를 타고 있었다. 그는 전차 위에 있던 50탄창 자동화기를 담당했는데, 그는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4.5마일에 걸쳐진 중공군의 방해 사격 구간에서 적을 향해 계속 자동화기를 발사해댔다. 전진하는 동안 그는 몇몇 중공군들이 배낭 폭탄과 막대 수류탄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는 전혀 보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는 전차들 때문에 도망가는 중공군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공군들은 경기관총과 자동화기 사격을 전차들에 집중했고, 배낭 폭탄과 막대 수류탄을 들고 전차들에 접근하려고 계속 시도하였다. 종종 그들은 전차로부터 50야드 거리까지 접근해 오기도 했다.

L중대 제1소대 소속의 켐프(Wayne O. Kemp) 상병은 열여덟 번째 전차에 타고 있었지만, 그는 곡수리에서 하차해야만 했다. 전차들이 다시 출발했을 때 그는 전차에 다시 올라 탈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동안 전차를 따라 뛰었고, 마침내 전차 행렬을 뒤따르던 2.5톤 트럭에 탈 수 있었다. 이

때 이 트럭은 이미 다섯 명의 부상자들을 싣고 있었다. 5명의 국군들이 트럭에 타고 있었지만, 이 트럭은 내내 적의 사격에 노출되어 있었다. 트럭은 지평리의 23RCT 방어선 1마일 남쪽 지역에서 협곡에까지 전진했지만, 여기서 중공군들은 이 트럭을 가로 막았다. 그래서 트럭 운전수와 5명의 국군들은 살해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고 말았던 것이다.

곡수리에서 지평리에 이르는 4.5마일에 걸쳐진 중공군의 방해 사격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지평리 남쪽 23RCT 방어선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마일 거리에 있었다. 여기서 서쪽의 248고지는 남동쪽 방향의 도로에 이르는 길고 완만한 능선을 내리고 있었고, 동쪽의 397고지는 서쪽으로 도로에 이르는 가파르고 짧은 능선을 내리고 있었다. 이 두 능선은 마치 안장 모양으로 서로 만나고 있었다. 여기에는 도로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50피트 정도의 협곡이 놓여 있었다. 바로 이곳은 중공군 배낭 폭탄 부대원들과 바주카포 부대원들이 능선에 숨어 있다가 전차들을 향해 자신들이 가진 폭탄이나 로켓탄을 바로 발사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바로 이 지점이 크롬베의 전차부대가 통과해야만 했던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지평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1마일 거리에 있었던 이 고갯길을 크롬베 부대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크롬베 대령이 자신의 전차부대가 도로를 따라 전진한 것에 대해 간결하게 언급한 것을 먼저 살펴보자.

"지평리까지 가는 마지막 4.5마일 동안, 우리는 계속 소총 사격, 자동화기 사격, 박격포 사격, 2.36인치와 3.5인치 바주카포 사격을 받았다. 그리고 광포한 중공군들은 막대 수류탄과 배낭 폭탄을 가지고 우리 전차들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우리 전차에 포탑한 사격수는 2명의 2.36인치 바주카포 부대원을 사살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매우 흥분한 정신 상태에 있던 중공군들을 공격할 때, 또 다른 적들이 23RCT에 대한 공격에 착수해서 이 부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였다. 곡수리로부터 지평리에 이르는 도로 양쪽 산들의 능선에 있던 중공군들은 23RCT를 구하려고 접근하는 아군들을 막으려는 생각에 용의주도하게 배치되었던 것 같다.

중공군 바주카포 부대원들로 판단하자면, 중공군들은 도로를 견고하게 방어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공군들은 결정적으로 패퇴하여 와해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나중에 확인되었던 것처럼, 모든 중공군 병력이 그 날 밤 동안 일제히 퇴각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 작전 동안 제5기갑연대는 제9군단의 작전 통제 하에 있었다."

전차들이 고갯길에 도착했을 때, 크롬베 대령은 도로나 가까운 고지에 대략 2,000여 명의 중공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두 전차가 고갯길에 이르자, 길 양측 능선 위에 있던 중공군들은 로켓, 대전차포, 막대 수류탄, 배낭 폭탄 그리고 강력한 소총으로 그 전차들을 공격했다. 드쉬바인 니츠 중위가 타고 있던 선두 전차는 아마도 2.36인치로 추정되는 로켓탄 때문에 포탑에 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차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주지는 못했고, 단지 전차 안의 승무원들에게 약간의 부상만을 입혔을 뿐이었다.

제6전차대대 소속의 D중대를 지휘하고 있던 히어 대위는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네 번째 전차에 올라 타고 있었다. 위에서 3.5인치 로켓탄이 좌측면을 맞혔고, 이 로켓탄은 철갑을 뚫고 이미 탑재한 탄약 속에서 폭발했다. 폭발과 화염은 히어 대위와 전차 사격수를 즉사시켜 버렸고 전차 전체를 화염에 휩싸이도록 만들었다. 전차 운전병이었었던 칼룬(Calhoun) 상병은 심하게 화상을 입었지만, 전차를 고갯길을 통과하도록 몰아서 도로 측면에 가져다 붙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뒤따라오는 전차들이 고갯길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히어 대위의 전차가 피격당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고갯길을 통과하면서 포탑 위에 있는 침낭과 꾸러미들이 불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운전병과 보조 운전병은 불타는 전차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고, 제70전차대대 소속 A중대 지휘관인 보이드슨(Boydson) 중위에게 극적으로 구조되었다. 제6전차대대 지휘관인 그로우든(Growden) 중령이 나중에 고갯길의 전투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는 히어

대위의 전차 옆에 3.5인치 로켓탄의 꼬리지느러미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로켓탄의 사격지점은 언덕 위라는 것이 이제 확인되었는데, 왜냐하면 이곳에는 3, 4발의 로켓탄이 발사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3.5인치 로켓탄은 미군 무기였는데, 그렇다면 히어 대위의 전차를 공격했던 것은 바로 아군으로부터 노획된 한 발의 로켓탄이었던 셈이다.

오후 5시가 되기 바로 직전, 크롬베 대령은 지평리 남쪽 방어선 바로 바깥에 있던 작은 마을인 마산에서 전차 대열을 멈추고, 그곳에 있던 중공군들을 전차의 화력으로 제거했다. 50에서 100명으로 이루어진 중공군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마른 개울로 뛰어들었고, 나머지 병력들은 23RCT 방어선의 G중대 지역의 반대쪽 경사면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했다. D중대의 90mm 고폭탄 사격은 이렇게 달아나는 많은 중공군들을 연이어 사살했다. 에드워드 중령과 제23보병연대 B중대를 돕고 있던 지평리 수비대의 2대의 전차, 그리고 특공중대는 G중대 지역에 있던 중공군들을 도로 쪽으로 몰아내서 크롬베 대령의 전차부대와 어쩔 수 없이 마주치도록 유도했다. 크롬베의 전차부대가 오후 5시 10분 지평리 방어선에 들어섰을 때, 전차들 위에는 여전히 L중대 소속의 23명의 보병들과 4명의 공병대원들이 타고 있었지만, 이 중에 13명은 부상을 입고 있었다. 부상자들 중 1명은 그 날 밤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두 번째 전차에 있던 맥스웰(James Maxwell) 일등상사가 말한 것에 따르면, 그가 지평리에 들어섰을 때, "제23보병연대 몇몇 부대원들과 프랑스대대 부대원들이 달려 나와 내 전차에 키스를 했다"고 한다. 또한 전차에서 하차한 L중대 보병부대원들 대략 100여 명은 그 날 낮과 밤 동안 곡수리에 있는 제5기갑연대로 복귀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배렛 대위의 말에 따르면 곡수리로부터 지평리로 움직이는 도중 L중대의 사상자들은 대략 전사자 20명, 부상자 40명, 실종자 20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는 기갑 공격에서 보병들이 전차에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상 적의 사격에 철저하게 노출된 오리들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탑이나 전차의 포신

이 움직이면, 그들은 전차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전차의 갑판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랜 동안 그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또 90mm 전차포의 사격 진동은 너무 커서, 만일 전차가 정면으로 사격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 있는 보병들을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마지막으로 중공군의 움직임에 맞추어 전차들의 거동을 신속하게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왜냐하면 전차들은 보병들에게 이동할 것임을 알려주어야 했고 그들이 전차에 다시 올라탈 시간도 함께 주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보병을 태운 전차의 작전을 관찰한 사람이나 이런 작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병들을 전차에 태우고 작전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는 잘못인지에 대해서 모두 동의할 것이다.

배렛 대위는 L중대 소속의 소대장인 채스테인(Chastaine) 중위가 고갯길에 이르기도 전에 전사했다고 말해주었다. 배렛 대위는 지평리 전투에서 채스테인 중위를 위해 직접 복수를 행했다. 그는 전차를 향해 달려오던 폭약통을 들고 있는 3명의 중공군들을 쏘아 죽였기 때문이다.

2월 15일 23RCT를 구하기 위해 곡수리로부터 지평리까지 전진했던 크롬베 대령의 전차부대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 전에, 작전 중에 부상당하고 마침내는 실종되었던 제3대대 지휘관 트레시 중령에 대해 약간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곡수리 근처에서 전차에서 하차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L중대 부대원들에 의한 다른 증언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탔던 전차 말고 다른 전차를 잡아 올라 탔다고 한다. 잠시 동안 그는 전차 위에서 자동화기 사격을 가했다고 한다. 후에 전차 포탑이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그는 전차로부터 떨어졌고, 전차 행렬을 따르던 2.5톤 트럭에 의해서 다시 구조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북쪽에서 어떤 병사가 도로 옆 건물 벽에 다른 몇몇 이름들과 함께 그의 이름이 휘갈겨서 쓰여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배렛 대위가 말한 것에 따르면, 그들이 지평리에 도착했던 그 다음 날, 즉 2월 16일에 고갯길에서 정지했

던 2.5톤 트럭에 타고 있던 부상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부상병의 말에 따르면 부상당한 트럭 운전병 커잔(Kerzan) 상병이 전차들이 지나간 다음 트럭을 고갯길로 몰고 있었다. 거기서 중공군들은 트럭을 습격하여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았다. 그리고 이들은 트레시 중령을 포함해서 모두 걸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가 아는 한, 트레시의 운명에 관해 그 이상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2.5톤 트럭은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두 바퀴에 바람이 모두 빠져 있었다. 2월 16일 크롬베 전차부대가 지났던 도로 가에서 876명의 중공군 사망자가 확인되었다.

크롬베 대령은 부대 전차들을, 그 날 밤 부상자들을 후송하면서 제5기갑연대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대낮의 전투 때문에, 야간 복귀는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였다. 전차들을 복귀시킬지의 여부를 논의할 때, 부상당하지 않은 L중대 부대원들 대략 10명은 보병의 엄호 하에 전차를 복귀시키는 데 참여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크롬베 대령은 야간 복귀를 행하지 않고 16일 낮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날 크롬베 대령이 L중대 부대원들에게 전차를 대동할 기회를 주려고 하자, 배렛 대위는 대령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직도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홀로 지프차로 운전병과 함께 즉시 곡수리로 복귀했으며, 그 과정에서 도로 가에 누워 있는 부상병 4명을 함께 태웠다. 그는 지평리 남쪽 고갯길에서 스트워트(Stewart) 의료 수송대를 만났을 때, 이 4명의 부상병을 앰뷸런스에 태웠주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크롬베 전차부대를 뒤따르다가 중공군 때문에 이곳에 멈추어 서게 되었던 2.5톤 트럭을 발견하는데, 트럭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었다.

23RCT의 기대와는 반대로, 2월 15일과 16일 사이의 밤 동안 지평리 방어선에 대한 어떤 중공군의 공격도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나중에 입수된 중공군 문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15일에 제115사단은 밤에 계속 공격하기로 계획했지만, 제39군단으로부터 오후에 명령을 받았는데, 16일 밤까지 제40군단과 협력하여 계

속 공격하라는 것과 부대를 다시 재편하라는 것이었다. 다음 명령이 제117사단에 하달되었는데, 자운리 CS8339를 둘러싸서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라는 것이었다. 또 제116사단에 하달된 명령은 곡수리 CS7742 남쪽으로 전진하여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적의 지원 병력을 방해하라는 것이었다. 제42군단 전체는 문막 북쪽에 있는 이호리에 분산되어, 원주로부터 오는 적의 지원 병력을 방해하고 있었다.(…)

제115사단은 다음과 같이 재편되었다.

많은 연대들은 자신들의 병력을 다음과 같이 분산했다. 제343연대는 제1대대 소속의 한 소대를 마산 CS7947로 보냈다. 연대의 중심 위치는 제1대대와 제3대대가 그 때 점령하고 있었던 곳으로 정했다. 제344연대는 제1대대 소속의 제1중대를 적을 잡으라고 파견했고, 제2대대는 조왕리 CS8345 서쪽 산악 지역으로 파견했고, 제3대대는 신대 CS8146으로 파견했는데, 제344연대의 주력 부대는 망미산에 머물렀고 연대 지휘소는 속풀에 두었다.

D. 전투중지: 1951년 2월 16일 3시 30분에 제115사단은 암호 명령문을 받았다. 즉시 부대를 이동시키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대의 열악한 조건들 때문에, 즉 부대원들이 휴식 없이 24시간을 싸웠고, 많은 사상자들이 생겼으며, 상황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즉시 부대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렇지만 날이 밝아오는 것을 생각하고, 만일 다른 아군 부대들이 퇴각했을 때 적의 포위를 생각해 본다면, 연대들에게 부대 이동을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

B. 비판.

1. 선전 활동과 전투 지휘에서 우리는 적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이 보인 이전 전투의 특성상, 우리는 횡성의 적군이 괴멸된 뒤 적들이 지평리에서 도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 상황에 친숙하지 않았다. 적들이 움직이는 요새인 전차를 가지고 방어지점들과 벙커나 철조망 등과 같은 방어 작업을 정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적들이 단순히 참호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는 통일된 명령체계 하에 공격 부대들을 조직하고 조정하지 못했다. 심지어 동일 사단의 두 개 중대도 자신들의 작전을 조정하지 못해서, '네가 싸우면, 나는 쉰다'는 태도를 낳게 되었다."

지평리에서의 작전에 대한 의외로 솔직하고 정확한 그들의 진술에 근거해서 생각해본다면, 중공군은 횡성 북쪽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횡성의 점령으로 미군과 프랑스군이 지평리로부터 도주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실제로 이런 것이 그들이 이전 한국전에서 유엔군으로부터 겪은 경험이었다. 설령 우리가 '도주'라는 말 대신에 '퇴각'이라는 수식어를 쓴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지평리는 앞으로의 유엔군 작전의 본성 자체를 변화시켰다. 처음으로 중공군은 1950년 늦은 10월에 전쟁에 개입한 이후 패배를 맛보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연대 이상의 규모로 구성된 미군과 유엔군 병력이 방어선에 주둔하면서 자신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고, 많은 중공군 병력들을 돌려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평리 전투는 한국전에서 미래에 미군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과 유엔 제8군의 사기는 하나의 확신, 즉 아군은 적을 만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응결되었다. 지평리 이후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된 것이다.

2월 16일 아침에 약간의 눈이 전장에 내렸고, 크롬베 대령은 제5기갑연대로의 복귀를 날씨가 갤 때까지로 미루었다. 12시 15분에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온 24대의 전차들 중 22대를 동반한 채 복귀하기 시작했다. 이 때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걱정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도로에는 지뢰가 없을까?' '적들이 도로를 따라 매복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출발하기 전에 지평리 남쪽 고갯길에 적의 4.2인치 박격포가 설치되지나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그는 출발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적병은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 발의 사격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전차부대는 오후 12시 45분에, 곡수리 남쪽 약 1/4마일에 있었던 제5기갑연대 소속 제2대대 전선에 이르게 되었다.

제5기갑연대는 중공군 제116사단의 부대원들과 이틀 동안의 전투를 한 후 곡수리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전 16일부터 중대 규모로 생각되는 중공군들이 곡수리 동쪽 2.5마일에서 포착되었다. 그들은 들것에 부상자들을 싣고서 북쪽과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제5기갑연대 소속의 제2대대는 정오에 곡수리로, 마을 동쪽과 서쪽에 있던 연대의 나머지 병력과 함께 들어갔다. 기갑연대는 오후 2시에 마을을 확보한 것이다.

2월 15일 이래, 스트워트 대위는 크롬베 대령으로부터 지평리로 가는 수송단이 가는 길이 안전하다는 말을 기다리면서, 이제 스트워트 기동대라고 불리게 된 부대를 멈춰 세워놓고 있었다. 이 스트워트 기동대는 제5기갑연대 후방에, 지평리에 있는 23RCT를 위한 보급품들을 싣고 있는 트럭들과 그곳의 부상자들을 수송할 수 있는 앰뷸런스로 구성되어 있었다. 2월 16일 오후에 크롬베 대령이 자신의 전차부대와 함께 돌아왔을 때, 출발해도 좋다는 크롬베의 말이 이제 떨어졌다. 그래서 스트워트는 즉시 지평리로 향했다. 전차들은 보급품을 탑재한 28대의 2.5톤 트럭과 19대의 앰뷸런스를 호송하면서 늦은 오후에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평리에 아무런 사건도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 그곳의 부상병들은 즉시 앰뷸런스와 7대의 2.5톤 트럭에 실렸고 다시 전차의 호위를 받으며 곡수리로 돌아왔다. 그들은 밤이 되어서야 곡수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지평리에서 19번이나 항공 보급이 이루어져서 23RCT는 소총과 박격포탄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항공 보급은 오후 11시 40분에 이루어졌다. 23RCT는 이제 언제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투에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평리에 머물렀던 그 다음 이틀 동안에는 더 이상 어떤 적의 공격도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지평리의 23RCT의 사상자 기록은 <표1>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지만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중공군 부대들과 이곳에서의 사상자들에 대해서는 제10군단의 기록, 제2사단의 기록, 그리고 23RCT의 기록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표 1> 1951년 2월 3일에서 16일까지의 유엔군 사상자

부대	전사자	부상자	실종자	민간인 피해	전체
23RCT 제1대대	14	70	2	25	111
제2대대	9	82	37	8	136
제3대대	18	35	3	2	58
특수부대	2	25	0	7	34
전체 23RCT	43	212	42	42	339
프랑스대대	9	47	0	9	65
전체	52	259	42	51	404

[전거: 프리만, "지평리를 거쳐서 원주까지"]

이 기록들 중 대부분은 전투 직후나 얼마 되지 않아서 만들어졌다. 몇 달이 지난 뒤 매우 중요한 중공군 기록이 확보되었는데, 이 기록에는 중공군의 전투 순서, 전장으로의 부대 이동, 대대, 연대, 사단, 그리고 군단의 작전들, 지평리에서의 그들의 실수, 그리고 심각한 사상자들을 아주 솔직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연구는 지평리에서의 중공군의 상황을 신뢰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일라고 할 수 있다. 지평리에서의 중공군의 사상자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엔군이나 미군은 대략 5,000여명의 사상자들과 79명이나 80명 가량의 포로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경험에서 나온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평가는 지평리 전체 방어선과 그 인근에서 발견되는 적군의 시체들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부상자의 수는 단지 전사자의 비율을 통해서 추정해본 부정확한 평가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공군은 대부분의 부상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중공군에는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대량의 야포, 박

격포, 치명적인 공습, 특히 네이팜탄 투하는 중공군들에게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공격에 가담한 중공군 사단들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정보가 하나 더 있다. 후에 확보된 중공군 기록들은 지평리 방어선의 많은 지역들에서 다양하게 작전을 펼쳤던 대대, 연대, 사단을 분명히 구별해주고 있다. 이 정보는 지평리 방어선 남쪽에 있었던 중공군 제39군단 소속의 제115사단에 대해서는 특히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합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공군 세 개 군단 소속의 네 개 사단들의 부대가 지평리 방어선과 관련되고, 다섯 번째 한 개 사단이 지평리 남쪽에서 한강에 이르는 도로들을 봉쇄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말이다. (<표2>를 참고하라.)

제39군단 소속의 제115사단에서는 두 개의 연대가 전투에 참여했고, 아마도 이 두 개 연대가 모든 중공군 사단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15사단은 처음에 동쪽으로 지평리를 크게 우회한 뒤에, 몇 마일 남쪽에서 선회하여 구둔에서 서쪽으로 진격했고, 지평리 방어선의 남쪽 측면을 공격했다.

<표 2> 1951년 2월 13일에서 15일까지의 지평리에 있던 중공군 병력들

지평리에 있던 군단	사단	연대
제39		
제40	제115	제343, 제344, 제345
제42	제119	제355, 제356, 제357
	제126	제376, 제377, 제378
【지평리 남쪽 도로를 봉쇄했던 군단】	제125	제375
	제116	제346, 제347, 제348
제39		

같이 움직였던 제116사단은 원래 출발할 때 동쪽으로 이동하고 마침내 지평리 남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제115사단과 동일한 궤적을 밟았지만, 서쪽으로 선회하기 전에 훨씬 더 남쪽으로 4, 5마일 정도를 더 진군했었다.

제116사단은 자음리에 있는 23RCT의 보급로에 이르러 원주와 지평리 사이에 있는 보급로를 순찰하던 미군 부대들과 이곳에서 교전을 벌이게 된다. 이 사단 병력의 일부분은 도로 가에 진지를 구축하였고, 다른 일부분은 서쪽으로 더 진행해서 여주로부터 곡수리를 거쳐 지평리에 이르는 또 다른 도로를 봉쇄하려고 하였다. 제39군단의 세 번째 사단인 제 117사단은 제115사단과 제116사단의 먼 동쪽에 있던 중공군 전진의 요충지에 있었고, 얼마 후에 횡성 전선으로 가서 작전에 참여하게 된다.

중공군 제40군단 소속의 제119사단은 북동쪽으로부터 지평리 방어선에 도달해서 방어선 동쪽 측면에서 교전을 벌였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공군 제 125사단은 제373연대와 제374연대를 함께 보내서 쌍둥이 터널에서 결렬한 전투를 벌이지만,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사상자들을 낳게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의 잔여 병력들은 지평리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거대한 506고지에 은신처를 마련하게 된다. 제125사단 소속의 제375연대만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기에, 아마도 이 부대가 지평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전투를 벌였던 유일한 부대였다고 생각된다. 비록 이 부대의 포로들이 사단의 3,000병력은 세 개의 임시 연대로 나누어졌다고 말했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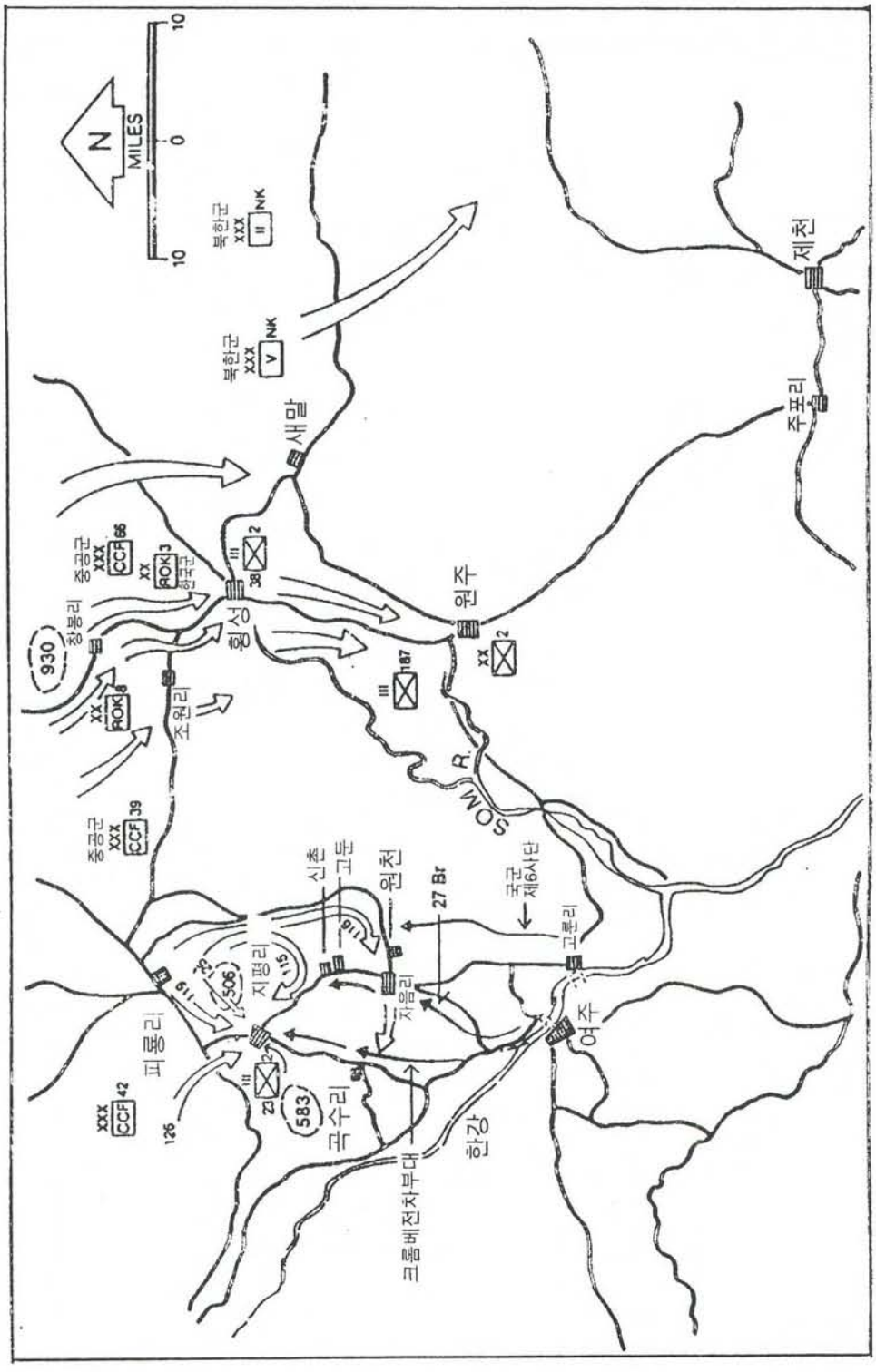
제42군단 소속의 제126사단은 북서쪽으로부터 방어선에 접근해서, 사단 소속 제377연대로 하여금 방어선 서쪽과 남서쪽 지역에서 미군과 싸우도록 명령했다. 동시에 이웃하고 있던 사단인 제125사단은 방어선 북쪽 지역을 공격했다. 우리는 이 모든 중공군 사단들의 대대와 중대들이 지평리에서 능동적으로 혹은 포괄적으로 전투에 참여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단들은 자신들의 작전을 조종하지 못했고, 이 점에서 지평리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은 총괄적으로 판단해볼 때, 별로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39군단 소속의 제116사단은 남쪽과 남동쪽으로부터 지평리에 이르는 두 도로를 따라 전투를 벌였다. 제116사단은 곡수리로부터 시작되어 북쪽으로 향했고, 여주로부터 출발하는 도로에서 크롬베 전차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제116사단은 동쪽 방향으로 지평리를 향하는 보급로에서 영국 제27연방여단의 전진에 맞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제116사단이, 앞에서 언급했던 두 도로에 있는 봉쇄지점으로 이동할 때, 2월 14일 아침 새벽에 자음리에 있던 유엔군과 만났다는 것은 기록해 둘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 전투도 실재로는 지평리 전투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미군 제2사단 소속의 제2정찰중대와 제9보병연대는 지평리와 원주 사이에 있는 23RCT의 보급로가 안전한지의 여부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고 앞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이 지역은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진행됨에 따라 전혀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다.

우선 중공군들은 횡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재빠르게 남쪽으로, 원주의 변경 부분으로 전진했다. 횡성이 점령되자, 중공군 사단들은 지평리를 포위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그래서 2월 13일에 제2정찰중대는 지평리 소속의 정찰대와 접촉할 수 없게 되었고, 고룬리와 23RCT 사이에 있는 길을 봉쇄하고 있는 많은 중공군들을 발견하게 된다. 2월 13일 중공군 부대들은 지평리 남동쪽 6마일 부근에서 정찰중대를 가로 막는다. 제2사단 제9보병연대 소속 L중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 정찰중대와 합류해서 중공군과 계속적인 교전을 벌인다. 밤 사이 어느 시점에 정찰중대와 L중대는 남쪽으로 퇴각하게 되었다. 14일에 아군 제9군단은 여주에 있던 영국 제27연방여단을, 이 보급로를 사수하라고 보내고 이 보급로를 따라 지평리로 진군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만 영국 여단이 여주로부터 단지 몇 마일도 안 되는 지점에서 중공군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진군 속도는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도2> 1951년 2월 11일에서 16일까지의 중공군의 제4차 공세

2월 17일에 호주 대대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한 후, 중공군 방어 병력은 밤 사이에 약간 북쪽에 있던 또 다른 고지대로 향하면서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고지대는 포기해버린다. 퇴각하기 전에 중공군들은 자신들이 3일 동안 잡고 있었던 30명의 미군 포로들을 석방한다. 그들은 모두 제2정찰대와 L중대 소속 부대원들이었다.

2월 13일에 제2정찰중대는 보급로에 있던 자음리에서 남쪽으로 2마일 떨어진 112고지를 점령한다. 2월 13일과 14일 사이의 밤에 중공군 제116사단은 지평리 북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평리 남쪽 도로들을 봉쇄한다. 그 날 밤에 일어났던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않았었다. 혹은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은 공식적인 군사 일지에는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 신문이 빌 보스(Bill Boss)라는 종군기자로부터 받은 급보를 신문에 실었을 때, 엄청난 소동이 벌어지게 된다. 이 기자는 보급로 선상에 있던 지평리 동쪽 4마일 떨어진 구둔이라는 작은 마을에 캐나다 패트리시아 공수연대가 도착했을 때, 이 연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보스 기자는 이곳에서 68구의 미군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한 명의 보초만 세우고 잠을 자다가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몇몇 시신들은 벌거벗은 채 있었고, 다른 몇몇 시신들은 자신의 침낭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죽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들은 참호나 어떤 방어 진지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습격한 중공군들은 그들을 아주 쉽게 사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이 신문을 리지웨이 장군에게 내던지면서 즉시 사건보고서를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검열을 지나쳐서 어떻게 신문에 보도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함께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3월 1일 즉시 자신의 제8군 감찰관에게 보스 기자 이야기를 조사하라고 명령 내렸다. 거의 2주 뒤인 1951년 3월 13일에 제8군 감찰관 호튼(Roy W. Horton) 중령은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은 23RCT 보급로에 위치한 구둔이라는 마을 남쪽 3마일 지점

에서 벌어졌다. 제2정찰중대는 지평리로부터 제10군단 좌측에 있던 이포리에 이르는 보급로를 순찰하고 있었고, 여기서 제9군단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2월 13일에 제9보병연대 제3대대 소속의 흑인부대인 L중대가 제2정찰중대에 합류하여 중공군에 대한 방어 진지를 만들었다. 제9보병연대 제3대대의 참모였던 스틴(Stine) 대위가 L중대와 같이 있으면서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다. 2월 13일 오후 6시에 제2정찰중대와 L중대는 자음리로 퇴각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방어선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공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2월 14일 그 다음날 아침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중공군들이 소총, 박격포 그리고 자동화기를 가지고 공격했지만, 사상자는 매우 경미했다. 오전 8시와 10시 사이쯤, 두 부대는 퇴각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부상자들을 싣고, 선두에 한 대의 전차와 후방에 다른 전차들과 8대의 지프차 그리고 2대의 M39를 탑재한 차량과 함께, 적의 심한 사격을 받으면서 어렵게 퇴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가장 큰 손실은 자음리 남쪽 부서진 교각에서 걷지 못하는 부상병들과 함께 6대의 지프차를 잃었다는 점이다. 이런 위기를 벗어난 몇몇 부대원들은 자신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부상병과 지프차를 구하려고 이틀 동안이나 애썼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시체들에 대한 첫 번째 정보는 영국 제27여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여단은 2월 19일 제9군단으로 다시 복귀했다.

제2사단 제 9보병연대의 전사자 등록 장교 그리고 제2사단의 참모는 현장으로 들어가 시신들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시체가 쌓여져 있던 가장 큰 곳은 자음리 남쪽 3/4마일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 시체가 있던 다른 곳은 도로에서 10피트 안에 있는 마을 근처나 혹은 마을 안에 있었다. 많은 시체들은 반지를 낀 손가락이 절단된 채로 있었고, 그들의 군복은 벗겨져 있었으며, 그들의 옷과 신발은 사라진 채로 있었다. 전사자 등록 부대는 114구의 시체를 찾았다. 제2사단 사상자 집계반은 전체 212명이 전사했거나, 부상당했거나, 실종되었거나 큰 상처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이 때 제2정찰중대의 배카(Baca) 대위도 전사했던 것이다. 중공군 제19군단 본부

에서 1951년 3월 29일에 발행한 중공군의 소책자 『전투경험의 수집』은 지평리 작전을 비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51년 2월 14일에 자음리로 진격하던 제116사단은 미군 제23연대의 두 개 중대를 괴멸시켰다."

2월 16일과 17일에 23RCT는 지평리에 남아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중공군의 움직임은 없었다. 제5기갑연대는 곡수리 북쪽에서 계속 전투를 수행했고, 영국 제27연방여단은 지평리를 향해 북쪽으로 전투를 해오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잠시 동안 지평리는 중공군들이 통제하는 바다 안에 떠 있는 승리의 섬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남동쪽으로 단지 20마일 거리에 있는 원주는 모든 방향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주에서 동쪽과 남동쪽 먼 곳에서 북한 제2군단과 제5군단은 제천으로까지 연결되는 아군 제10군단의 동쪽 전선을 깊게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만일 이 때 지평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유엔군은 원주를 사수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원주 지역으로 옮겨서 중공군의 제4차 공세가 그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끝>

Ⅳ. 중공군의 무덤 지평리

韓國戰史硏究所所長 鄭 采 浩

중공군의 2월공세 대 미 2사단의 지평리(砥平里)전투가 기록되었던 경기도 양평군은, 중공군의 제1차 춘계공세 때 사창리(화천군)에서 대패한 아 6사단이 중공군의 2차 춘계공세 때 용문산(양평군)지구에서 그 패전을 설욕하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전과를 거둔 곳이며, 또한 화천군의 서남방에 위치하는 가평(경기도)군은 중공군의 1차 춘계공세 대 영국군 27여단과 동 여단에 배속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군 부대가 아 6사단의 정면을 돌파하여 밀어닥치는 중공군 대부대를 가평천 골짜기에서 혈전 끝에 격퇴시킨 유서 깊은 격전지다. 그러므로 전투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이들 세 지역을 한데 묶어 특별히 소개할 만한 전투(작전)를 차례로 소개키로 한다.

경기도 양평(楊平)으로부터는 12킬로 동쪽, 원주로부터는 약 40킬로 서북쪽에 위치하는 지평리(양평군 지평민)는 비록 그 주위가 나직한 구릉으로 둘러 싸여 있는 작은 고을이긴 하지만, 중앙선 철도역과 지평에서 양평, 원주, 여주를 잇는 도로의 분기점 등으로 하여 중공군의 2월 공세 때 처절하기 이를 데 없는 혈전장으로 등장된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격전이 벌어진 시기는 중공군의 2월공세 기간인 2월 13일이었고, 전투가 벌어진 경위는 대충 다음과 같아. 즉 2월 1일 원주 서북방의 쌍터널 부근 전투를 마친 미 2사단 23연대가 적정 수집을 위해 지평리로 진출하여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중 2월 공세와 함께 이 정면으로 침공한 2개 사단의 중공군(39군)이 지평리의 23연대를 포위하게 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지평리로 진출해 있던 미 23연대는 제1대대를 마을 북쪽 고지(△207)의 남단에 배치하고, 2대대를 남쪽의 망미산(△397)하부 능선에, 3대대

를 동북방 212고지의 동남쪽 경사면에, 프랑스군 대대를 마을 서쪽 분지의 논 가운데와 양평으로 향하는 철도 연변에 각 각 배치하여 간극 없는 사주방어를 하고 있었으나 그 둘레가 6킬로나 되어 완벽한 사주방어 진지를 되지 못했다. 하지만 23연대는 배속된 프랑스군 대대 외에 155밀리포 1개 중대와 150밀리포 1개 대대, 전차 1개 중대 및 51문의 박격포로 편성된 화력지원부대가 배속되어 그 취약점을 보강하고 있었다.

2월 13일 밤이었다. 마치 사냥할 짐승들을 몰이하듯 횃불을 켜든 중공군의 대부대가 사방으로부터 포위망을 압축해 오자 23연대에 배속된 전 포대의 포문은 일제히 노호하기 시작했고, 중공군의 화력지원부대도 무수한 포탄을 발사함으로써 마침내 전투가 시작됨과 동시에 연대 본부에선 연대장 프리만 대령이 부상을 당하고 군수참모가 전사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다.

이윽고 그 횃불들이 원형의 아군 진지를 가까이 에워싸자 이때부터선 피아간 일진일퇴의 처절한 공방전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병력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중공군은 인해전술에 의거 간단없이 공격제대를 투입했고, 이를 저지하려는 아군은 결사적인 저항으로 그 인해전을 물리치려 했다. 첫날의 전투는 새벽녘까지 계속되었으나 날이 새자 일단 적은 물러섰다가 저녁이 되자 다시 공격을 개시했고, 주간을 이용해서 공군기의 전투지원과 공중 보급을 받은 아군은 이틀째 밤도 결사적인 태세로 적과 맞섰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조명탄이 명멸하기 시작했고, 대낮같이 밝혀진 그 불 및 아래서 연출된 피아군의 공방전은 실로 처절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러던 중 망미산으로부터 밀어닥친 적군의 사태로 인해 제2대대의 우일선 중대인 G중대의 진전을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는가 싶더니 24시경에 이르러선 지평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의 사각(死角)을 이용해서 연대 규모의 적이 일시에 쇄도함으로써 G중대의 우단 진지 일각이 붕괴되더니 급기야는 G중대의 전 진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연대장은 부상을 무릅쓰고 대대장으로 하여금 연대의 1개 예비소대와 대대의 전 예비병력(1개 소대)을 G중대에 투입하여 빼앗긴 진지를 탈환할 것을 명령했고, 2대대장 에드워드 중령은 G중대를 대대 지

휘소 쪽으로 2백 미터 정도 철수시켜 축차적인방어진을 편성하는 가운데 붕괴되지 않은 3면에서 필사적인 저항을 계속했다.

한편 지평리에서 포위 당한 23연대가 이틀째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장호원에서 전열을 가다듬고있던 미 제1기갑사단 예하의 제5기갑연대장 크롬크즈 대령은 9군단장의 명에 따라 23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14일 17시경 남한강을 도하하여 무촌(여주군)에 진출, 이곳에서 제70전차대대 A중대 2개 소대 등 도합 23대의 전차에 3대대장과 동 연대 제3대대 L중대의 장병 60명으로 돌격종대를 편성하여 지평리 남쪽 8킬로 지점의 곡수리(양평군 지제면)로 향했다.

이때 연대장 크롬크즈 대령은 제5번 전차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2월 15일 15시경 전폭기의 엄호 하에 곡수리로부터 지평리에 이르는 8킬로미터의 거리를 진격하는 동안 이 기갑부대는, 좌우고지 일대에 배치돼 있는 중공군들이 맹렬한 저지사격을 가하는 한편, 육탄 돌격을 감행하는 바람에 이를 격퇴시키느라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어야만 했고, 전차에서 뛰어 내려 적을 격퇴시키고 있던 3대대장을 비롯한 60명의 L중대장병들은 낙오하는 사태까지 빚게 되었다. 그런 끝에 곡수리에서 지평리 부근에 이르는 8킬로의 첫 관문을 돌파한 기갑부대의 돌격종대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우측 망미산의 아랫재와 좌측 282고지 사이의 접안부(接鞍部)를 뚫어놓은 140미터 길이의 마지막 협로(속칭 하오고개)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전차 1대가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는 너비에다 양쪽 절벽 높이가 15미터나 되는 그 절벽 사이의 협로에서 미군 기갑부대 장병들은 그야말로 연옥(煉獄)속의 혈전과도 같은 처절한 혈전을 치렀다.

돌격종대의 선두전차가 협로를 향해 돌진하자 대거 출동한 중공군들은 처음에는 기관총과 로켓포 및 박격포탄을 집중시키며 선두전차를 공격하더니만 전차들이 강력한 화력으로 맞서며 계속 돌진해 오자 이번에는 유류와 화약 등을 넣은 드럼통을 굴러 내린 다음 그것을 사격으로 폭발시키기도 했고, 또 각종 포탄과 지뢰 등을 터뜨리며 결사적으로 선두전차를 공격했다. 따라서 절벽속의 그 협로는 순식간에 무서운 불길에 화하였고, 그 속으로 돌진하는 그 선두전차는 어느새 만신창이가 된채 연옥의 불길과도 같은

그 기름 불길 속을 미친 듯이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 쳤다. 적어도 그 선두전차에 탑승한 승무원들은 누구나 그 선두차가 주저앉게 될 경우 뒤따르는 전차들도 길이 막혀 주저앉게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포위 당한 지평리의 23연대는 전멸을 당하리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따라서 막중한 사명감과 필사적인 돌격정신으로 무장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기어이 이 혈로를 타개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으로 선두전차에 가해지는 a수한 총포탄의 세례와 불벼락에도 불구하고 전차를 성난 멧돼지처럼 몰고 나가기만 했으니 불길 속을 맥진하는 그 선두전차의 모습이란 실로 불사조와도 같은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두고 넘어갈 것은 중공군들이 그 협로로 미군들의 전차대가 접근해 오리라곤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때문인지 전투 전이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도 대전차지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미군들로서는 실로 천행을 얻은 셈이었다.

그리하여 결사적인 혈로의 타개로 천신만고 끝에 그 악몽과도 같은 마의 협로를 앞장서서 뚫고 나온 선두전차는, 마치 염라대왕의 분신과도 같은 모습으로 포탑을 휘둘러 대다간 후속 전차들을 공격하고 있는 서쪽 절벽의 적을 향해 포탄과 기관총탄 세례를 퍼부음으로써 후속 전차들의 돌진을 엄호했다. 그러는 사이에 후속 전차들은 속속 화염과 초연으로 가득한 그 마의 협로를 뚫고 나왔던 것인데, 1500미터 길이로 늘어선 그 23대의 전차대가 그 협로를 완전히 벗어난 시각은 17시경이었고, 돌파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15분이었다.

한편 구사일생 지평리로 진출하는데 성공한 제5기갑연대의 전차종대는 망미산의 서쪽 기슭을 포격중인 23연대의 전차대와 연계하여 망미산의 적진을 향해 분노의 포문을 연 끝에 마침내 G중대의 진지를 점령중인 중공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는데, 이때 지원부대의 내도를 학수고대하며 악전고투를 계속하고 있던 제2대대장 에드워드 준령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5기갑연대장 크롬크즈 대령에게로 뛰어가선 「오 주여!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시다니…」하며 양팔을 벌였고, 그를 맞이한 크롬크즈 대령도 안면에 희색을 띄우며 「오 주여! 저로 하여금 이 친구를 구하게 해주시다

니…」 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그러나 이날 밤 지평리의 23연대 진지에선 다시 한번 처절한 공방전이 벌어져 그 다음날 동이 텄을 무렵에는 아군의 방어선 주변엔 수천을 헤아리는 중공군의 시체가 곳곳에 작은 구릉을 형성하고 있었고, 지평리 주변의 산허리는 온통 선혈로 물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14일)밤의 일이었다. 5기갑연대의 홈베스 특공대는 옥현리(망미산 기슭)의 사각지대에 구축된 중공군의 지휘소와 그 부근의 포대를 기습하여 적에게 막심한 타격을 주었으나 그 지휘소에서는 무전기의 고장과 유선의 절단 등으로 그런 사실을 예하부대에 신속히 알리지 못했을 뿐더러 전투부대의 보고사항을 적시에 처결하지 못함으로써 작전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간에 걸친 처절을 극했던 지평리의 전투가 끝난 것은 이날(15일) 16시경이었다. 15시 30분경 전폭기 편대가 망미산의 적 진지를 공격하고 있을 때 부원 직후부터 날이 샐 때까지 막강한 화력으로 적진을 공격하고 있던 제5기갑연대의 전차종대가 남쪽으로부터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며 충격을 가하기 시작하자 이틀 간의 인해전에 막심한 피해를 입었던 중공군은, 더 이상 전투를 속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 스스로 포위망을 풀고 퇴각하고 말았다. 프리만 대령이 지휘하는 미 2사단 23연대와 배속부대인 프랑스군 대대 장병들이 3개 사단의 적 포위망 속에서 부원군이 당도할 때까지 사투를 거듭하며 끝까지 사주방어 진지를 고수했고, 미 9군단에서 급파한 제5기갑연대의 전차부대가 끝내 그 마의 협로를 뚫고 위기에 처해 있는 우군을 구원함으로써 비로소 끝이 났던 이 지평리의 대혈전은, 중공군의 2월 공세 기간 중 유엔군에 의해 수행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성공적인 방어전이었으며, 동시에 이 전투는 중공군의 2월 공세를 결정적으로 마무리짓게 한 전투로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지평리 전투를 보도한 일본의 아시히(朝日)신문은 지평리를 가리켜 「단순한 한국의 농촌명이 아니라 중공군의 묘지명이라」 고 했으며, 「이곳에서 중공군은 인해전에 있어서 최초로 미군에게 패하였고, 미군과 중공군은 우연히도 지평리란 곳에서 「결전장」을 유발하여 3일간에 걸친 전투 끝에 중공군이 전략적인 패퇴의 첫장을 피로 물들였다」 고 기술했다.

미 육군의 전사와 프랑스군의 전사에 길이 빛날 이 지평리 전투에 참가했던 이 수복씨(50세·주한 프랑스대사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용감한 프랑스군 장병들은 노도같이 밀어닥치는 중공군과 처절한 백병전을 마친 뒤 그 참담한 중공군의 시체더미 속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여유를 보였다고 하며, 옷에 달라붙은 네이팜탄의 기름불을 떨칠 길이 없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고 있던 수많은 중공군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한 그는 또한, 전투가 끝났을 때 그 지평리의 원형진지 안팎은 끔찍스럽기 짝이 없는 중공군의 시체 유기장으로 화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고교생(대구 계성고교)이었던 이 수복씨는 지평리 전투가 끝난 직후(51년 3월) 프랑스군에 현지입대하여 휴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일선에서 근무했고, 휴전 후에는 미 8군에 잔류하고 있던 프랑스군 연락장교단에 소속되어 있다가 65년 7월 동 연락장교단이 본국으로 철수할 때 하사의 계급으로 제대한 이래 줄곧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금년(82) 늦가을 지평리를 방문한 필자는 지평면장 이 원재씨(50세·지평출신)를 통해 소개받은 방 홍규씨(54세·지평리 490번지)의 안내로 잠시나마 유서 깊은 옛 격전지를 답사할 수 있었는데, 6.25 때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5사단 36연대에서 복무한 바 있었던 방 홍규씨는 일서(日書) 「제국일본의 최후」에 수록돼있는 내용, 즉 2300명의 일본군이 옥쇄한 그 아쓰쓰도(島)의 고전장에 「야마사끼(山崎) 육군 대좌 이 땅에서 전사함」이라고 새겨놓은 비가 미군에 의해 세워져 있다는 인상 깊은 내용에 언급하면서 은연중(물론 상황은 전혀 다르겠지만) 수천명의 중공군이 전몰한 이 지평리의 옛 싸움터에도 미군들이나 프랑스군에 의해 그런 비가 세워진다면 그 유서(由緖)를 더욱 깊게 하는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같은 것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공군의 무덤으로 화했던 그 지평리 329의 1번지에는 그 날의 대혈전을 기념하기 위한 전적비(57. 7. 15 육군 제5사단에서 건립)가 건립되어 있다.

Ⅴ. 전황을 반전시킨 지평리 전투

문화원 향토사료조사위원
지평의병정신선양회 회장 방 흥 규

중공군 개입과 미국의 비상선언

1950년 방어전선이 힘없이 무너지고 남으로 밀리고 밀리던, 7월과 8월 유엔군 4개 사단이 투입되면서 한국군은 재무장되었다. 재무장한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과 인천에서 동시 공격작전을 폈다. 협공작전에 놀란 괴뢰군은 13만5천 병력 중 2만54명만이 살아서 돌아갔고, 이에 상승세를 탄 유엔연합군은 압록강까지 북진을 계속, 한국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되자 중공은 10월 30일(1950년 11월 4일 한국전 참전을 공식 발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6·25발발당시 괴뢰군 제1사단, 제3사단, 제4사단은 중공군에 소속된 조선족으로 구성된 1개 연대가 각각 포함되어 있었다. 괴뢰군 제2사단 장교는 중공군 출신이 많았고, 제5사단은 중공군 제164사단 병력이 기간으로 편성되었으며, 제6사단은 중공군 제166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제2사단은 중공군 제139사단, 제140사단, 제141사단, 제156사단에서 차출한 병력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6.25동란 후에는 12사단으로 개칭되었다.

한편 중공군에서 북한에 외교사절로 초대대사가 김일성에게 신임장을 제출한 것은 낙동강에서 피아(彼我)의 공방전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중순이다. 이것은 유의하여 볼만하다 또한 임표(林彪,1907-1971) 예하의 중공군 제4야전군이 6·25직전인 1950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중국 남부로부터 만주방면으로 갑작스레 이동 배치된 사실은 6·25동란을 사주한 증거로 충분하다.

그것은 당시의 중공으로서의 중요한 군사목표는 '대만'과 '티베트'의 소위 그들이 말하는 해방지구였고, 또한 중공 남부에는 국부군의 '게릴라'와 반동분자의 평정이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증거를 남긴 모태동(毛澤東,1893-1976)과 주은래(周恩來,1898-1976)는 전쟁도발의 보상 책임이 두려워 30만의 병력을 투입하여 유엔연합군을 포위 섬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이제까지의 치안확보를 위해 치렀던 전쟁은 전면 전쟁으로 확대되어 가게되자 유엔은 12월 14일 정전을 회담을 제의했다. 그러나 중공은 협상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유엔군의 중국 철수를 요구했고 대만에서의 미국 방어선의 철수 또한 협상 조건으로 삼았다.

만약 유엔연합군이 중공군을 국경까지 격퇴시키는 데에 실패한다면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를 승인하거나 소련과 핵전을 치르거나 혹은 사퇴하거나 하는 기로에 서게된 트루먼 대통령은 무력침략의 위협에는 '무력으로 응전하겠다'는 단호한 힘에 의한 '평화'결의를 구체화하였다. 트루먼은 워싱턴시간으로 12월 15일 오후 10시 30분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하는 뜻을 방송하고, 다음 날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서언(誓言)에 서명하였다. 한국시간으로는 각각 12월 16일 오후 0시 30분, 17일 오전 0시 20분이 된다.

"……전략… 미합중국 대통령 트루먼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이 비상사태는 우리들이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모든 위험을 격퇴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육, 해, 공군 또한 민간방위기구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강대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 선언 공표는 전시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고 미국의 국민기구를 전시태세로 전환하는데 효과를 갖는다.

"……한국 또는 그밖에도 최근의 사태는 세계평화에 중대한 위험을 주고 …… 세계의 곳곳에서 침략군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제국주의에 의한 세계지배에 있다 ……"

라고 언급한 트루먼 대통령의 서언은 한국동란을 직접 대상으로 하게된 것이 육군참모차장 리지웨이 중장 등 군사정책 입안자가 주장하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으로부터의 대비책의 일환으로 미국이 제3차 대전을 원하지는 않으나 필요하다면 '사양치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것이었다. 또한 178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 가결과 1951년 6월말까지 육군병력을 3백만으로 증원하는 계획. 전력물자 비축계획 그리고 새로운 핵병기 생산공장의 가동 등이 '선언'에 따라 발표되자 세계 각국은 이 '선언'은 결국에는 새로운 대전쟁의 의미로는 볼 수 없고 다만 한국에서 만의 국한된 전쟁의 진전으로 유럽에 발생을 염려한데서 오는 전문의 저지력이 될 것을 기대로서 환영하고 있었다.

이때 한국의 전황은 홍남 지구에 있는 미 제7사단, 제3사단은 철수준비 중이었고 제1해병사단의 철수는 성공하고 있었다. 제8군도 38도선의 남쪽으로 철수를 거의 끝내가고 있었으나, 중공군은 공격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전술적으로는 패배를 기록하였다고는 하지만 유엔연합군의 기간병력은 유지되어 있었다. 이것은 오히려 유엔군 섬멸을 목표로 한 중공군의 포위공격이 실패로 끝났다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계속될지언정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트루먼이 한국을 계속 방어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선이 한국에 국한되고 병력이나 장비를 전면 가동시키지 않은 까닭에 제한전쟁이란 말이 생겨났지만 이때 혹한의 산골짜기에서 혹은 황량한 들판에서 때로는 얼어붙은 참호에서 싸우다 죽어 가는 병사들에게 전쟁은 결코 「제한전쟁」일수는 없었다.

신임 리지웨이 오다

미 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되자(1950년 12월 22일) 그 후임으로 1950년 크리스마스날 그때 막 미8군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동경

에 온 리지웨이 중장이(중공군은 이날 38도선을 넘었다) 12월 26일 오전 9시 제일생명 빌딩의 유엔 총사령부로 부임 신고차 출두하고 있었다. 신고 형식은 동서간에는 별 차이가 없다.

맥아더 원수 앞에 부동자세로 "미합중국 육군중장 맥튜 B. 리지웨이는 제8군사령관으로 부임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라고 절도 있는 억양과 거수경례를 받은 맥아더 원수는 "부임을 축복하오" 악수를 청하면서 정중하게 신고식이 끝났다. "야! 맥튜 오랜만일세! 비행기 여행은 어떠하던가?"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와 같은 인사가 끝난 후 리지웨이 중장과 맥아더 원수와에 회담이 시작되고 참모장 히키 소장이 동석하게 되었다. 리지웨이 중장이 육군사관학교 시절에 맥아더 원수는 교관이었다. 히키 소장은 제2차 대전 말기에 유럽전선의 부하의 관계였다. 당시 55세로서 30여년 동안 수 차례의 전쟁에 참전했던 리지웨이는 2차대전시는 82공수사단을 지휘했으며 부하 낙하산병과 함께 낙하에 참여한 적도 있었다. 그는 대머리의 억세 보이는 코와 꿰뚫는 듯한 푸른눈의 소유자로 독수리란 별명을 가진 그는 주위사람들을 걱정시킬 만큼 모험을 즐겼고 의회공로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회담은 부드러운 분위기로 시종 되어 가고있었다. 리지웨이 중장은 미리 준비된 질문에 대하여 맥아더 원수는 소상한 대답으로 전황에 대하여도 명확한 의견을 말하여 주었다.

"서울은 될 수 있는 한 고수할 필요가 있소, 군사적인 의의도 크지만 특히 심리적,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러하오"

"우리 군은 동계작전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못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들은 혹한의 전선에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아세요"

"공군의 전술적 지원공격은 믿을 것이 못되고 있소, 대량의 병력과 물자가 압록강의 다리를 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오. 이것을 막는 단 하나의 길은 우리공군의 파괴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압록강 다리를 파괴하여 적의 진출을 가로막아야하는데 워싱턴은 허가하여 주지 않는 거요"

"중공군은 통로를 피하여 험준한 산의 능선과 계곡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였소. 또한 종심적인 공격을 하고 이동이나 전투는 야간에만 감행하여 온다는 것이요"

맥아더는 자기의 최종목표는 "지금과 같은 혼미 전국을 하루빨리 수습하여 한국의 안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리지웨이 중장에게 말했다. 또한 그러면서 어떠한 판단이 되건 귀관 자신이 내린 작전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리지웨이 중장은 맥아더 원수의 말이 끝나자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 "소련이 참전하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의 물음에 맥아더 원수는 "그때는 8군은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

둘째, "적의 남하공격이 격화되어 또 다시 철수할 때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던 끝까지 한국을 지킨다는 사실을 한국국민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에 대해서 맥아더 원수는 "옳은 말이요" 라고 찬동했다.

끝으로 "만약 본직이 찬스를 잡고 공격을 결심하였을 때는 각하께서는 반대하시겠습니까?" 8군 작전권에 대한 질문이 리지웨이 중장의 입에서 나왔다. 맥아더 원수는 미소를 지으면서 "제8군은 귀관의 것이요. 귀관이 최선이라 여길 때는 공격을 하시오" 라고 하여 리지웨이는 감동하였다. 맥아더 원수의 말은 빨랐으나 최고의 신뢰가 피력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의미말고도 지휘권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8군사령관이었던 고 워커 중장 때는 제10군단을 맥아더 원수에 직속 제8군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었으나 리지웨이 중장을 맞고서는 제10군단이 제8군에 편입되었다. 제8군은 한국에 있어서 유엔연합군 병력이라면 신 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명실공히 한국전선의 총지휘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것은 워커 중장이 공격 수비 후퇴의 어느 것 하나 결정하는데도 맥아더 원수의 허가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전체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백지위임'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확인을 동경에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제8군은 귀관의 것이다'라는 책임 있는 맥아더의 말은 중장의 입장을 보증하게 되

었다.

한편 히키 참모장의 주선으로 극동공군사령관 죠지 E 스트래트, 메이어 중장, 극동해군사령관 C 터너 죠이 중장을 위시한 유엔총사령부 참모들은 나를 위해 회의실에 모여주었다. 나는 내가 준비했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과 그들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리지웨이는 용약 동경 '하네다' 공항을 떠나 오후4시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에는 제8군사령부가 있었으나 리지웨이 중장은 다음날은 12월27일 B27폭격기로 서울에 도착했다.

제8군의 전투력

리지웨이 중장은 매우 긴장하고 있었다. B27폭격기 부 조종석에 앉아 창에 비쳐오는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며 지도에서 익혀온 한국의 산야를 확인하면서 서울에 도착하였다. 곧바로 제8군 前戰사령부로 들어선 리지웨이 중장은 "여러분! 나는 공격하러 여기에 왔소" 라며 뒷말을 했다. 중장은 제1군단장 존 프랭크 W 밀번 장군과 제9군단장 존 B 콜더 장군 제8군 참모장의 보좌관 윌리엄 A 콜리어 대령의 세 사람을 사령관실로 들어오게 한 후 우선 공격을 시사하였다.

리지웨이는 '반격'만을 가슴 깊이 새겨놓은 결의에 찬 말문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양 군단의 연계사항은 우익에 9군단과 한국군 3군단의 연락은, 대전차 및 대인지뢰의 보유량은 진지 조명용의 서어치라이트는…」 마치 몰아붙이듯 질문을 퍼부어 대던 리지웨이 중장은 세 사람의 대답이 끝나자 어쨌건 공격준비를 급히 서울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관저를 방문하기 위하여 전방사령부를 나섰다.

곁에 따라나선 주한 미대사 무초씨는 차안에서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할 것을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노대통령 이승만(李承萬,1875-1965) 박사의 염려를 예비지식 겸 귀띔을 해주었다. 경무대(현 청와대)에 도착한 리지웨이는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바른손을 가볍게 받아 쥐고는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 "각하의 나라를 찾아 뵈옵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각하! 나는 한국에 남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노대통령(老大統領)이 기다리고 있던 단 한마디의 반가운 말이었던 것이다.

그때 노대통령 이승만의 안면은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따뜻한 웃음으로 변해있었다. 두 손으로 중장의 바른손을 잡은 그대로 접견실로 인도되자 부인 프란체스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리지웨이 중장은 감격적인 억양으로 "제8군은 한국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공격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에 감동한 이승만대통령은 활짝 웃으면서 만족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리지웨이도 감투정신을 표하는 거수경례로 작별인사를 하고 경무대를 떠났다. 돌아오는 차안에 동승한 무조 대사는 말을 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중장에게 말을 건넸다. "무관인 내가 군사상의 의견을 말하여도 될는지요" 리지웨이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다. "좋습니다 대사의 전략 또는 전술적 지식에 대하여는 여러 번의 보고서 내용에 의하여는 익히 알고있습니다"

"장군께서는 대통령에게 공격을 약속하셨습니다. 본 대사가 보는 바로는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하기에도 힘에 부친 것이 현재의 8군의 전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리지웨이 중장은 무의식중에 가슴에 달린 수류탄을 잡아 쥐면서 눈이 휘둥그래졌다. 제8군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중장도 잘 알고는 있었다.

이때에 미 제8군 병력의 일선배치는 미제1군단의 24사단과 제9군단에 25사단 그리고 한국군 8개 사단뿐이었다. 미2사단과 제1기병사단은 청천강변의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너무 커 11월말에는 전투력을 잃은 것으로 선고받아 병력을 보충하고 장비를 갖추기 위해 서울서방에서 재편 중이었고 서울수비는 영국 29여단과 영국 27여단이 맡고 있는 형세였다.

제10군단은 제1해병사단이 마산에 도착하였으나 남은 제3사단과 미제7사단은 아직도 동해안을 남하 수송 중이었다. 몇 일 안에 10군단이 마산, 부산지역으로 집결될 것으로 기대되나 전선도착에는 시일을 요한다. 한국의

7사단은 원주부근에서 재편 중이었고 영국29여단은 새로이 한국에 도착한 신참부대였다. 그 위에 한국 제2, 제5사단은 새로이 창설된 부대로서 전투경험이 없었다. 기타의 사단은 예외 없이 손해가 막심하여 그 전투능력은 3분의1로 감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병들은 거듭되는 전투로 피로에 지쳐 있었다.

일방 38도선의 이북에는 중공군28개 사단 28만6천73명, 북괴군 12개 사단과 게릴라를 합하면 16만7천2백83명, 모두 45만3천4백56명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었다. 그 중에 중국과 괴뢰군 16만 명이 제1선에 배치되어 새로운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참모장은 다음과 같이 전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연일 적의 새로운 부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병력을 집결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져 언제 또다시 공격하여 올지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전선은 죽은 듯이 평온하니까요" 리지웨이는 참모장의 설명에 더욱더 공격의 필요를 느끼면서 반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유엔연합군에 보병병력은 적에 비하여 열세일지 모르나 제공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력 또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참모장의 보고를 검토한다면 적을 전진배치 전개과정중이라고 판단되었다. 지금까지의 승세를 타고 높아진 그 기를 일시에 꺾어 놓는다면 전세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감이 서있었다.

리지웨이는 동경에서 굳게 마음먹은 반격의 결의를 대구에서 새로이 다짐하면서 더욱더 전의를 굳힌 그대로 서울에서 반격개시를 시사한 것인데 무초 대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장군! 지휘관들의 얼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는 두 사람의 군단장은 공격지시에 무엇인가 망설이는 눈치였다고 생각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다 반격은 한 조각의 명령서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전력에 상응하는 전의와 사기도 배양되어야 한다. 또한 지휘관에 대한 신뢰와 사명감이 장병의 가슴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전투라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리지웨이 중장은 입 속으로 중얼대면서 제8군 전방사령부로 돌아오자 즉시 제1선부대 시찰에 나섰다.

'제8군은 귀관의 것'이라던 맥아더 원수의 말이 떠올랐다.

'그 8군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무초 대사의 경고를 계기로 제8군의 전력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리지웨이는 제1군단사령부 영국 29여단, 미25사단, 미24사단, 예하의 27보병연대, 한국군 제1사단사령부 등 경비행기 헬리콥터와 찝차를 번갈아 갈아타면서 쉴 사이 없이 일선부대를 순방하였다. 이제 리지웨이 중장은 2일간의 일선 시찰에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나의 8군은 공격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그들의 눈 그들의 거동 하나 하나가 군인으로서의 뒤틀려진 정신은 하사관으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휘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다. 전의가 왕성한 부대에서 보여주는 독특한 생기 민첩한 경계심과 공격정신은 어디에서도 발견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군대로서 가까운 장래에 반격한다는 것은 무리다. 맹장 워커에게 통솔되었던 제8군이 어째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리지웨이는 머리를 쥐어뜯고 싶도록 애가 닳았다. 과거를 돌이켜볼 여유도 없다. 다만 현실에 대처할 뿐이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바라보는 미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담하기만 하다.

전의를 잃은 군대의 운명은 뒷말의 전사가 명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리지웨이 중장은 12월29일 밤 맥아더 원수에게 비밀의 전문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하고 한국군은 제주도에서 저항하는 사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감에 젖은 듯한 보고서였다. 맥아더 원수도 일선의 사정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원수는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의 비밀전문을 받자 곧 워싱턴에 타전하였다. "전쟁의 확대가 '중공연안봉쇄, 중공의 군수기지 폭격' 이 시도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택은 전선을 축소 부산까지 후퇴하여 다시금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다."

결국 이 전보에 내재된 맥아더의 의향은 한국으로부터의 철수에 있는 것

이 아니다. 원수로서는 불패의 미 육군전사에 자기 자신이 패배주의적인 기록에 휩쓸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현지 지휘관 리지웨이의 국경을 대조하여 패배를 꺼린다면 증원된 군사력을 즉시 파병하라는 뜻이 담긴 증병 요구의 전문과 다름이 없었다.

워싱턴의 합참본부도 원수의 의향을 용이하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12월30일 회신된 것을 요약한다면 현 수준 그대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취지문이었다.

12월31일은 일요일이었으나 이날 아침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대구의 사령부를 떠나 서울로 향했다. 입수된 정보에는 중공군의 총공격의 절박함을 알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괴뢰군의 일요일 아침에 전쟁도발을 택한 것이 휴일인데다 바로 내일이 정월초하루가 되는 설날이 되기 때문에 12월31일 밤이 가장 위험한 시간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내 예감으로는 오늘밤 적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모래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돌아오겠다." 리지웨이는 참모장 알레 소장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오전9시 반에 김포비행장에 내려 서울의 제8군 전선사령부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채 안된 시간이었다. 점심을 끝내자 또 다시 전선 시찰에 나섰다.

시찰은 괴로웠다. 특히 많이 이용한 찝차 시찰은 55세의 중장에는 고행이었다. 지붕이나 좁은 창이 달린 차로서는 전선시찰은 불편하였기 때문에 시계가 넓은 찝차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고집에 따라 중장은 '호로' 없는 짚차로 달렸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노 지휘관이 자기들과 같이 눈보라 속으로 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장병의 사기 또한 고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중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낡은 전투복을 착용하였을 뿐 모자에는 귀 가리개가 없는 것을 쓰고 방한용 장갑도 없이 눈보라치는 강풍 속을 약2시간 걸쳐 전선의 각 부대를 순시하였다.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 했다.

찝차로 지나치는 주변 촌락은 예외 없이 전화(戰火)로 폐허가 되었다. 전

쟁이 가져다준 황폐 감으로 고독하고 쓸쓸한 심정으로 빠져들게 했다. 전선은 2백km가 넘는 긴 방어선으로 인하여 각 사단은 평균담당 전면이 20km에 이르러(통산 1개 사단의 방어 전면을 18km) 어는 사단이고 거점진지를 연이어 놓였을 뿐 예비병력은 없었다. 어지간히 주의하지 않으면 병사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방어선이 대지에 빨려 들어간 느낌마저 든다. 아마 한곳을 적에게 돌파 당한다면 온 전선을 붕괴 당할 만큼 엷게 포진되고 있었다.

리지웨이가 서울의 전방사령부에 돌아온 것은 오후2시가 지나서였다. 겨울 해는 짧다 오후4시 반이 되자 어둠이 서서히 서울을 덮어왔다. 북풍이 밤을 알리는 것처럼 하늘을 울리며 빠져나갈 때 중공군과 괴뢰군은 '정월공세'를 개시하였다.

'적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의 '루트'를 타고 공격으로 나왔다. 그 공격은 우리들이(8군) 대항할 수 있는 한도를 넘고있었다' 라고 리지웨이는 기술하고 있다.

중공군은 공격을 고랑포와 의정부 전면에 주력하고, 조공(助攻)은 춘천방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조공에는 괴로군 2개군 10개 사단과 중공군 2개군 6개 사단이 담당하였고, 중공군 5개군 15개 사단은 주공격 병력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서울을 겨눈 주공격은 중공군 3개 사단으로 고랑포의 제1사단을 돌파하여 북한산으로 향하고 다른 1개군 3개 사단은 미 24사단 전면에서 연천-동두천-의정부 쪽으로 나오고 있었다. 한편 다른 1개군 3개 사단은 한국6사단을 격파하여 포천 - 의정부 길을 따라 서울로 향했다.

나머지 2개군 6개 사단은 한국군2사단을 공격하여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지점(양수리)으로부터 한강을 넘어 광주로 우회 서울을 포위하려는 작전계획이라는 사정이 판명된 것은 후의 일이었다. 최 좌측의 터키군 여단과 임진강 하류의 미25사단, 동해의 한국군 수도사단 만이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 외의 일선부대는 일제히 '정월공세'에 휩쓸리고 있었다. 인해전(人海

戰)의 공세를 받는 동안은 워낙 사정이 급박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어리둥절케 하는 '얼을'빼는 전법으로 어지럽게 두들겨대며 떠들썩하게 밀고 나오는 강습이었다.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면서도 너무 많은 병력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부대에 정황은 모두 같았다.

해가 지면서 유엔군의 전선일대에는 피아(彼我)의 총공격으로 격렬하여져 갔다. 약 한시간 정도의 폭격전이 지났을까, 이번에는 땅 밑으로부터 끓어 솟아 나온 듯이 호적소리 꽹과리와 피리소리 나팔소리에 사방이 포위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했다. 가냘프게 들려오는 피리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번에는 배후에서 시끄럽게 징소리가 울린다. 순간 바른쪽에서는 고막을 찢는 꽹과리 동시에 소름이 끼치는 나팔소리……. 유엔군 전선은 어느 틈에 중공군 선봉대에 돌파 당하였다. 돌파한 적의 일부는 후방 깊숙이 침입하여 지휘부를 습격하고 있었다.

한국군도 미군도 영국군도 응전 분전 그리고 용전하였다. 있는 것 전부의 야포 탄환을 발사하였고 소총, 기관총 바주카포, 심지어 권총의 방아쇠도 당겨야만 하였다. 그러나 전후좌우에서는 적의 소리패(軍樂隊)들이 징, 꽹과리 등을 난타하여 날뛰는 데는 심신을 초조와 공포심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사방으로부터 쏟아지는 폭탄과 수류탄은 각 부대간의 통신망을 갈기갈기 끌어놓았고 지휘계통을 혼란시켜 놓았다.

유엔군은 집중포화를 퍼부어 대고 있었으나 그래도 밀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명탄이 터질 때마다 섬광이 미치는 전장의 산과 언덕에는 중공군으로 꽉 덮여 있었다. 그 산을 넘고 능선을 따라 중공군은 거센 파도와 같이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흡사 '사람의 바다'처럼 보인다.

곧이어 유엔군의 전 초선은 중공군의 사람의 바다에 밀려 차례차례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산을 흔들면서 밀려오고 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공격에는 지휘관이나 병사나 함께 느끼는 것은 공포심뿐이었다. 그러나 기를 쓰고 방아쇠를 당기고 열심히 탄환을 재고 있었으나 한 사람 한 사람 쓰러져 가야만 하였다.

미24사단 전선이 무너지자 한국군1사단 일부와 6사단 전면의 일부가 무

너지고 그 자리를 보충할 병력이 없었다. 이로 인해 제8사단의 전면은 약 10㎞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제8군은 문자 그대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적의 대군을 정면으로 하고 배후에는 한강에 끼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 한강은 반 동결 상태로 하류에는 얼음덩어리로 덮여져 가고 있을 정도의 심한 밀물이 한강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따라서 오직 도강(渡江)할 수 있는 곳은 임시로 가설한 두 개의 부교뿐이다. 만약 중공군이 총공격을 하여온다면 8군으로서는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마저 의문이 되었다. 리지웨이 중장은 저항할 수 있는 능력껏 싸워 적에게 손실을 입하고 다음의 진지로 후퇴한다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적공포증에 걸쳐 후퇴만을 생각하고 있는 전선부대에 대하여 시기를 놓쳐 잘못된 후퇴 명령을 하달한다면 당치도 않게 혼란만 야기 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리지웨이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더욱 없었다. 1월2일 아침해가 밝아오자 중부전선의 위험이 잇따라 전하여 왔기 때문이다. 아니 위기라기보다는 이미 전선은 붕괴직전에 놓였었다.

춘천지역 전면을 수비하던 한국군 3사단은 괴뢰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나 동시에 이미 직배에 잠입한 괴뢰군 10사단이(북괴군 10사단은 1950년 말에 게릴라 병력으로 유엔군 전선 후방으로 잠입한 부대였다) 배후에서 협공을 가하여 왔다. 한국군 3사단과 춘천 좌측의 8사단 5사단도 중공군의 포위공격을 받으며 필사적으로 분전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제3사단 구원을 위하여 출동한 한국군 제7사단은 도처에서 불의의 습격을 당하여 연락망이 토막토막 끊기여 나가고 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때 리지웨이 중장은 제10군단장 알민드 소장에게 미2사단을 원주방면으로 전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상식적 兵理로 볼 때에 제10군단의 主力(미1해병사단 미7, 미3사단)이 런던 도착 전에 중부전선을 돌파한 괴뢰군이 대건 또는 대구로 향하여 쏟아져 들어 닥친다면 제8군은 동서로 분단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미2사단

을 급히 원주방면으로 전진시킬 것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리지웨이는 1월2일 오후 군단장, 사단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지휘관들은 여하간 저항은 한도에 달하였다는 절망적인 대답들이었다.

"후퇴를 할 때다. 나는 마지못하여 또다시 한국의 고도 서울을 적의 손에 건네 주기로 결심하고 1월3일 아침 한강 남쪽으로 후퇴를 하명하였다"

리지웨이는 미25사단으로 하여금 뒤를 엄호케 하여 서울외곽에서 저항하고 있을 때에 미제1, 미제9군단을 수원, 양평의 진지로 포진케 하고 한국3군단(한국 2, 5, 8사단)은 양평-홍천으로 저지선을 확보케 하였다.

한국군 제1군단(수도사관 9사관), 제2군단(제3사단, 7사단)은 홍천1주문진을 보전케 하고 미제1기병사단을 안성으로 전진케 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후퇴라고 한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한강의 다리다. 6·25초기의 사례를 상기할 것도 없이 한강다리는 군대와 시민의 운명을 좌우한다.

리지웨이는 제1기병사단장 대리 찰스 D. 파머 준장을 교통담당관으로 임명하여 다리 확보를 위하여 전권을 맡겼다.「필요하다면 어떠한 명령도 나의 이름으로 하달하시오. 어떠한 명령이라도 말이오」

중장은 다음으로 주한 미국 대사 J. 무cy를 통하여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피난을 권고하였다.

'오후 3시까지는 시민의 도강을 인정한다. 그러나 오후 3시에 단1분의 여유도 없다. 그 후에는 군의 관리하에 놓인다.'

1·4 후퇴

한강의 부교는 오후3시에 시민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후는 군이 사용하게 되어있었다. 리지웨이는 그 날 오후 3시를 기하여 개시될 군의철수 작업을 시찰할 계획이었으나 시민의 피난은 아직도 끝없이 밀려 나가고 있었다.

중장의 눈에는 부교를 이용치 못하게된 피난민이 얼음위로 가고있는 행렬이 띄었다.

'현대의 인류의 대 비극의 하나'라는 표현으로 중장은 그 광경을 기록하고 있다.

한강의 수면은 시기적으로 아직 완전히 결빙되지 않는 때라 잘못 디디면 깨여지기 쉬운 곳도 있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피난민 남녀노소는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한강의 얼음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는 그 행렬에는 한 젊은 남자의 등에 노인이 업혀가고 있다. 그 옆에 따라나선 부인은 아이를 업고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 또한 얼음 위에서 끌고 밀며 피난보따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어릿하게 비쳐오고 있다.

손수레를 밀고 또한 소달구지 위에는 짐과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시민도 있으나 결빙된 사정을 알고있는 리지웨이는 조마조마 마음이 죄여들기 조차하는 한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음이 꺼지고 물 속으로 빠지는 큰 황소가 보였다. 태연히 걸어가던 소가 별안간 얼음이 꺼지면서 물 속으로 빠져들자 뒷다리를 허우적거리더니 외마디 신음소리와 함께 그 모습이 물 속으로 사라졌다. 황소의 신음소리는 중장의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렇게 슬픈 눈동자를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난민의 대열은 그 깨진 지점을 피할 뿐 잠시도 정체되는 일 없이 연이어져 나가고 있었다.

넘어진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두 손에는 무거운 피난 보따리가 쥐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처절한 역경 속에서도 흐느껴 우는 사람이 없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한 보이지 않는다.

눈을 밟는 발소리만이 허덕인다. 한숨만을 남긴 채,. 피난민은 문자그대로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만 있을 뿐이었다. 부교위로는 트럭, 포차, 도열한 군인전차의 대열로 쉴 사이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광경은 나만이 아니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처절한 광경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리지웨이는 생각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다리난간에 기대선체 생각에 잠겨있던 리지웨이 중장은 또 이런 생각도 했다.

'서울마저 포기한 현실은 패색만이 짙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 한 주민 남

녀노소 누구나 강인하게 공산군을 피하여 자유와 정의의 길을 스스로 열어 가는 민주시민들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란 진실로부터 차단된 탓으로 감정이 잔인하고 배신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적지(赤地) 3개월(1950년 6월 28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체험에서 느껴온 시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중장에게로 부관이 다가서며 재촉하는 바람에 그때서야 찝차에 올라타고 다리를 건너 영등포의 전투지휘소로 들어섰다. 그 처절한 피난민 대열은 리지웨이 중장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다음날 1월4일 중장은 특파원들에게 자기가 목격한 광경을 말하고 이 사실을 세계 자유민에게 보도하여 주기를 바랬다. 리지웨이가 강조한 것은 '한국 피난민 대열이 극도의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버티며 찾는 것은 자유뿐이라는 것을 온 자유민은 이해와 동정으로 자유인 연대(連帶)의 인류애를 보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만약 혹한이 한창일 때 적의 공격의 위협을 받아 인구 2백만의 도시에 철수 명령이 내린다면 과연 미국인들은 어떤 사태가 될 것인가!'

'MP(헌병)가 통로를 차단하고 도보로 산을 넘으라고 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하면서도 고집만은 대단하여 자기중심만으로 살아오는데 버릇이던 미국인이 과연 이와 같은 고생에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리지웨이 중장은 부인과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남겨놓고 부임하였다. 그래서 그는 눈 속을 허둥지둥 가고있는 피난민 모자의 모습을 보고 고국의 부인과 아이를 연상할 지도 모른다.

한편 한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白善燁) 준장은 후퇴하는 도중 안양의 미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 군단장 밀번 소장에게 질문하였다.

"장군은 이 전쟁의 앞으로의 전국(戰局)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요. 나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요. 전쟁방침의 책정은 워싱턴의 권한에 속해 있소. 워싱턴은 국제정치 또는 국제적 요인의 중요한 두 변수를 놓고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는 군단장 정도에게 물어본들 아는바가 없소. 하지만 중공군은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떤 결의와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 가에 따라 중공군 대 유엔군의 전국(戰局)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도 군단장으로서는 아직 알지를 못하오"

턱을 치켜들고 좌우를 살피다가 밀번은 "그렇지만 상대는 부산을 공략할 힘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하면서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유엔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가능성도 있소"라고 하였다.

이때 어떤 예감이 백선엽 준장의 뇌리를 스쳐지나 갔다, 군단장의 부질없는 겉 모양새가 아니라 하나의 본질로 간주되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군단장은 빈번히 초점 잃은 눈동자를 좌우로 돌려 무엇인가에 쫓기는 초조한 태도로 응대하더니 백 준장에게 반문했다.

"만일에의 경우지만 그렇게(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 된다면 장군은 어떻게 하겠소?" 그 순간 백 장군은 끓어오르는 피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분에 떨었다.

"나는 한국사람이오. 여기가 조국이기에 최후까지 싸우겠소. 미군이 일본으로 철수한다면 나 또는 우리 한국군은 온몸을 던져 기사회생(起死回生)의 일전을 선용하여 암울하고 혼미한 이 전국에 한줄기 활로를 트여 보이고야 말겠소"

유창한 영어로 공격적으로 응대하는 백준장은 몹시 섭섭한 표정이었으나 그 찬란한 안광(眼光)에는 핏발이 서린 눈으로 군단장 밀번 소장을 응시하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많은 부하의 사상을 보았을 때는 억누를 길 없는 격한 감정이었으나 전후생각 없는 행위로 나가는 일은 없었던 내가 아니었던가? 격전지 다부동 전투에서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단을 지휘하여 온 나다. 하루종일 수천 발 이상의 포격을 받으면서도 동요 없이 포화(砲火)속을 뛰던 내가 왜 미군이 철수한다는 데는 심신이 동요되는 것일까'

'아! 모순은 크고 번뇌는 깊게만 하구나. 그러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애

틋한 조국이 아직은 있다는 것만이라도 나에게는 그래도 행복하다.'

백준장과 밀번 소장 회담이 끝날 때는 해질 녘이 지나서였다. 이때 서울은 완전히 '무법의 도시'로 변했다. 8군의 최후위로서 영국군 제29여단이 남아 있었으나 동 여단이 철수를 끝내자 중공군의 척후가 교외에 출현하고 있었다. 이 시기를 1·4 후퇴라고 한다.

중공군의 진의

1월6일 제8군은 예정대로 평택, 원주, 삼척을 잇는 37도선에 연하여 방위선을 완성하였다. 미1군단의 제25사단 한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9여단은 평택에서 안성으로 이르는 선에 포진하고 그 우익에는 미9군단 죽산에서 상호원 동쪽에 걸쳐서 미24사단 한국군 제6사단, 영국군 제27여단을 배치하였다. 각 부대의 배치를 재촉하여 그 날 대충의 포진이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리지웨이는 즉시 전투태세로 들어갈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의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다. 의문은 중공군의 동정이다. 중부전선에 대한 북괴군의 공세에 이어 서부전선에도 적의 공세가 가하여 지치라는 추리었으나 중공군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

1월 4일 서울을 철수한 이후 리지웨이 중장은 매일 중공군의 진미(進尾)를 예상하여 그 보고를 고대하였으나 5월 6일, 7일, 8일 서부전선 정면에서 오는 보고는 한결같이 '이상 없음' 또는 '적 발견 못함'이라는 두 종류로 동일 되어 있었다. 조바심이 난 리지웨이는 미 25사단 27연대 오산까지 북진을 시켜봤으나 2대대장 마첼 중령의 보고에도 변함 없이 '서부전선 이상 없음'이었다.

전술적 병법에서 볼 때에 중공군이 서부전선 쪽으로 공격이 없는 것과 중부전선으로 압력이 가하여 지고 있는 현실을 판독한다면 서부로 유엔군 주력을 끌어들인 다음중부를 돌파하여 직배(엽구리)를 찌를 전술적 작전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중부에 공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북미군 뿐이라는 점에 주목한

다면 중공군은 서울 점령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전선전면에 중공군의 주력이 존재치 않은 것은 서울부근에서 대공세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리지웨이 중장은 그 어느 쪽이 '중공군의 진의'였는지 판별할 수는 없으나 그의 입장으로서는 중공군이 어떤 태도를 보이던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하여만 했다. 그러하면 어떻게 하여야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이었다.

우선 중부전선의 북괴군의 공세와 중공군의 전략과의 관련을 보기 위하여 그 반응을 본 후에 판정하기로 하였다. 리지웨이 중장은 수일간의 징후(徵候)를 판별한 후 서부전선 전면에 위력정찰을 제1군단장 밀번 소장에게 지시하였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한국군의 사기였다. 중부전선에 위치한 한국군 제2, 제3, 제5, 제7, 제9사단은 확실한 이유 없이 4일 또는 5일에 걸쳐서 급속하게 후퇴하여 6일에는 원주서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한국육군본부의 작전 명령에 의해서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미 제2사단은 북괴군에 포위되는 현상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군의 이동은 유엔군을 불신하고 또한 사기저하 현상이라고 여겨졌다.

서울을 떠날 때에 안양에서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의 한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과의 대화가(미군 일본으로 철수) 장병들에게 누설되어 그것이 한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의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떠돌고 있는 풍문으로는 한국군 장병들이 비탄과 좌절로 사기마저 저하되어 있다는 보고였다.

백선엽 준장은 한국군 장군 중에서 가장 신뢰받고 인기 있는 장군의 한 사람이다. 유엔군이 일본으로 철수하더라도 단독으로 조국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겠다던 백장군의 말이 장군의 우국충정을 입증하는 군인의 기품임을 보증하는 일화인 것이다. 리지웨이가 알고있는 백장군의 훌륭한 애국심의 증거를 속으로 떠올려 보았다.

1950년 6월25일 아침 북괴군이 2개 사단과 탱크40대로 제1사단 정면으로 기습공격 하여왔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연안 개성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1개 연대를 임진강으로 물리고 예비병력 1개 연대를 서울 부근으로부터 북

상케 하여 임진강을 주 저항선으로 하는 결전이 시작되었다. 임진강 철교 폭파는 실패하였으나 집중사격과 육탄공격으로 탱크의 돌진을 저지하고 사단이 한 덩어리가 되어 반격을 반복하였다. 서울이 함락된 28일까지 서울 서북 25km 전선에서 북괴군의 공격을 막는 고통스러운 지면작전을 계속한 것이 백선엽 사단장이었다.

또한 지난날 대구 북쪽 20km 지점의 다부동 전투에서 약 15km 전면의 산지를 방어하게 되어 있을 때는 빈약한 화력을 가지고 고지군의 15km 전면을 방어하기란 지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도 사단장 자신이 돌격하는 장병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그 투혼과 불퇴전의 결의로 전선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백선엽 장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지휘관 자신이 유엔군을 체념하였다는 생각에서 리지웨이 장군은 더욱 놀랐다. 그러나 한국군 장병들의 마음속에는 미군에 대한 깊은 불신과 좌절감과 함께 한국군단독으로 싸우겠다는 비감 어린 옥쇄론(玉碎論)으로 꽉 차 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어떠한 전략이나 작전을 용의주도하게 짜더라도 중공군과 북괴군의 공세를 저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리지웨이는 고개를 갸웃 둥했다.

워싱턴과 맥아더

리지웨이 중장은 1월8일 맥아더 원수에게 우려되는 사정을 보고하고 그리고 한국군 장병들의 좌절감과 초조감을 시원스레 치유하지 않으면 제8군의 존립은 위험하다고 의견을 말하면서 한국군 장병의 우려를 말끔히 떨쳐버릴 수 있는 성명을 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성명은 발표치 않고 리지웨이의 보고에 다음과 같은 논평을 보태어 워싱턴으로 타전하였다. 리지웨이가 원하는 성명은 정국 '레벨'의 명확한 정책이 결정되지 않는 한 또한 결정될 때까지는 성명의 발표는 불가능하다는 데서였다. 맥아더는 일선의 심리적 위기의 원인이 워싱턴에서 자신의 전사

정책을 지지하여 주지 않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지웨이 중장의 보고와 구신(具申)을 워싱턴 비판의 근거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맥아더 원수는 워싱턴에서의 명쾌한 해답을 고대하고 있었다. 원수의 전략에 대한지지 회신이었다.

이제가지 워싱턴에 되풀이 진언한 대도 한국의 전쟁을 승리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남하하여 오는 '중공군의 붉은 파도'를 밀어붙이는 방책으로 첫째 국부군의 투입. 둘째 중공연안의 봉쇄. 셋째 중공본토 공격 이와 같은 세 가지의 헌책(獻策)을 채택치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철수는 부득이 하다고 워싱턴에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의 전략적 방침을 「워싱턴」은 동의하여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를 한다면 철수명령이 내려 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은 오지 않았다. 혹은 유엔군이 또다시 부산 교두보에 밀려났을 때에는 워싱턴은 결단을 내릴 것으로 원수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총사령부 민사처장 호이터니 준장은 이렇게 회상한다. 맥아더는 한국전쟁의 위급한 전황을 워싱턴에 강조하면서도 철수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작전처장 라이트 소장에게 지시하여 전군을 일본으로의 철수계획을 검토케 함으로서 라이트가 '하루 2백만톤의 인원과 자재를 수송한다 하더라도 50일이 소요된다'는 계획안을 보고하였으나 철수계획은 무산되었다. 또한 한국의무장관 임병직(林炳稷,1893-1976)씨와 주미대사 장면(張勉,1899-1966)씨가 국민방위군 50만명 무장에 필요한 소화기의 공여를 미국정부에 요구했다. 국방장관 마이샬이 승인한 것에도 현지 총사령관 맥아더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며 반대로 나왔다.

맥아더는 "만약 유엔군이 부산 또는 그 이상으로 후퇴한다면 그 무기는 일본경찰 예비대(1950년 7일 동경의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일본정부로 하여금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창설케 하여 이것이 오늘날의 상육자위대) 증강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철수냐? 공격이냐?의 명확한 전략적 방침이 선결"이라고 고집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 군인의 속셈을 노정(露呈)시키고 있는 맥아더는 1월 8일의 리지웨이 중장의 의견을 이용하여 워싱턴에 '철수냐 확전이냐'의 태도 결정을 강요하고 있었으나 맥아더의 주장을 트루먼 대통령은 '시야의 좁은 편견의 판단의 산물'이라고 회고록에서 기술하고 있다.

워싱턴은 준비증강을 준비하면서 첫째도 염려되는 것은 제3차 대전의 발생이었다. 제3차대전의 방아쇠가 되고 있는 것은 1950년 2월 14일에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이었다. 이 조약의 중소양국 또는 어느 한쪽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침략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중소양국의 상호이익에 중요한 관계를 가진 지역에 대한 공격에는 무력을 발동한다는 내용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공은 소련의 지령에 의하여 한국전에 개입하였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미·중공전'으로 한정한다면 제3차 대전까지는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소우호동맹상호권조조약'은 중공과의 싸움은 자동적으로 소련이 개입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맥아더 원수가 내세운 한국전쟁의 승리의 필수조건으로 중공연안봉쇄, 國府軍의 투입, 국부군의 중공대륙반격, 만주를 포함하여 중공본토공격 등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이중에서 국부군투입, 국부군의 대륙반격은 국부군 42만8천명의 병력에 소총은 두 사람의 한 자루라는 장비의 빈약한 사정이어서 너무나 현실성이 없었고 결국 미군에 의한 '중공본토공격과 연안봉쇄라는 결과는 명확한 위험신호일 수밖에 없었다.

워싱턴의 합참본부는 이상의 깊은 고려를 기초로 하여 1월 9일 맥아더 원수에게 회신하였다. 전문의 내용은 '중공연안 봉쇄'는 영국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중공본토공격도 미군은 한국이외의 지역에서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귀하는 귀하의 지휘하 부대의 안전과 귀하의 기본적 임무인 일본방위를 제일의로 고려하여 적에게 가능한 한 타격을 가하면서 한국방위를 마땅히 계속해야 한다. 한국으로부터의 철병에 대하여는 귀하의 판단으로 인원과

지재의 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수라고 판단되면 일본으로의 철병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전문에 대하여 맥아더는 즉시 반문과 반박의 전문을 워싱턴에 타전하였다.

'현재 자신에게 부여된 명령은 한국에서 하나의 발판 유지와 일본을 외적으로부터 지키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자명한 사실이다.'

'나의 군대는 본래부터 북괴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에 파견되었다. 당시 중공군과의 싸움이 예견되었어도 파견하였을 것인가?'

'한국에서 특정의 교두보를 어느 한도의 기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손해 없이는 할 수 없다.'

'장병들은 긴 세월 고난의 전투로 지쳐있다. 만약 모든 생명을 걸고 지구전을 해야만 한다는 정책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사기 또한 저하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어디까지 한국의 거점을 유지할 용의가 있는가에 있다. 한국에서의 지반의 유지도 소련과 중공군 병력을 못을 박아 두자는 것이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첫째의 전략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방침과 군사적 이익에 주장이 엇갈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어떠한 손해도 일본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감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휘상의 제한이 가해지고 명확한 정책이 존재치 않은 상태로서는 한국에 있어서 우리군의 지위는 유지 불능이 된다고 본다.

'현재의 미국의 정책은 한국의 군사적 기반을 무기한으로 확보하려는 것인가? 혹은 한정된 기간인가? 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철수하여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가?'

'본관은 명확한 정책이 없다면 전술적으로 가능한 시기에 빨리 철수할 것을 진언한다.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지시가 있다면 완전한 부외가 있을 때까지 지구전을 하겠다.'

이상과 같은 맥아더의 반문을 요약한다면 한국에서 진실로 싸울 것인가? 그럴 의사가 있다면, 자기가 제안한 전략을 채택하라. 그렇지 않으면 곧 철

병을 허락하라는 내용이다.

이 때의 한국전선은 의연하게 조용하였다. 중부전선에서도 원주를 점령한 북괴군은 한숨을 돌리려는 기색이 보일 뿐이다. 다만 제천, 안동, 영주에서 적의 '게릴라' 책동이 심하여 리지웨이 중장은 1월 11일 미 제1해병사단과 한국해병연대를 안동일대와 제천 영월지역의 게릴라 소탕에 임하게 하였다.

리지웨이는 한국에서 계속 싸워야 할 사명을 장병에게 이해시킬 필요를 느꼈다. 그 외에는 전의를 집착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리지웨이는 이점에 대하여 자신이 8군사령관 취임의 명을 받은 그 날부터 생각해온 데서다. 막힘 없이 술술 훈시의 기안작업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첫째 우리는 왜 이역만리 이곳에 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간단 명료하다. 우리는 우리 합중국 정부의 입헌적 권위의 명령에 의하여 한국에 와있다. 우리들의 충성심은 이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여서 결정적이다.

둘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가? '그것은 한국의 도시나 마을이라는 부동산 때문에도 아니요 한국의 자유의 문제에 한정한 것도 아니다. 결국은 공산주의냐? 한국의 자유냐?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수없이 목격하고 있다. 공포에 지친 피난민의 행렬 그 행렬을 저지하여 안주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까지 이르렀다.'

리지웨이는 훈시문안이 작성되자 예하 부대에 1월 21일 부로 전 부대에 발송 할 것을 명하였다. 한편 그는 한강 연안 남쪽지역에는 중공군 병력이 존재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쨌든 '선더볼트' 작전은 위력 탐색전으로부터 5개 사단을 병렬하여 북상하는 반격작전으로 변신시켰다. (51년 1월 25일) 미 제1군단에 미 3사단 9군단에 미 제1기병사단을 편입시키고 제1군단은 좌로부터 터키 여단 제25사단, 제3사단 그리고 한국군 1사단은 예비로 하고, 미 1군단 우측의 9군단도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제1기병사단, 제24사단 영국27여단을 배치하고 한국군 6사단은 예비로 하였다. 이 배치는 리

지웨이 중장이 『지쳐있는 한국군』을 휴식케 하기 위한 고려에서였다.

포위 속의 반격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은 2월1일 중부전선의 한국군 5·8사단을 진격케 하였다. 진격하는 양 사단에 대하여 북괴군의 저항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에 반하여 순조롭게 전진하고 있다는 전황보고를 받자 '라운드업' 작전의 발동을 리지웨이는 결심하였다. 제10군단과 한국군 3군단을 병렬로 북진케 하여 양평-홍천-강능을 잇는 선으로 진출케 하는 작전이었다.

이 작전명령은 '라운드업'을 서부전선의 '선더볼트' 작전보다는 현실적인 작전이라고 생각되었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홍천부근에는 북괴군 제2, 제5군단이 집결되며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괴뢰군 5군단은 1월 공세에서 전력손실이 극심하여 소속된 3개사단 중 제12사단은 홍천부근에서 재편 중이었고 나머지 제6, 제7사단의 병력과 전력은 감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운드업'작전이 진전된다면 그대로 북괴군 부대를 38도선 쪽으로 몰아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또한 서쪽의 '선더 볼트'와 동쪽의 '라운드업' 작전을 연결하여 진격한다면. 제8군은 한강연안으로부터 강릉에 이르는 선으로 진출하여 서울탈환의 태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선은 또다시 새로운 전세의 변화를 맡게 되었다. 리지웨이 중장은 2월 1일 프리맨 대령의 23보병연대를 척후로 담당케 하여 진격케 하였다. 그 연대의 3개 대대에는 18문의 105mm 야전지원포대와 1개 공병중대 그리고 14대의 중형 '셔어만-탱크'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특수 게릴라 훈련을 맡은 유격1개중대가 포함되었다.

미 23연대는 평양을 거쳐 청천강 연안을 끼고 군우리를 지나 북진하고 있을 때 별안간 중공군의 강습이 몰아 닥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유린되는 패배의 쓴잔을 맛보았던 바로 그 부대였다. 군우리에서의 유엔군의 체험은 가혹하였다.

그때 미2사단은 1950년 11월 30일 원리 - 비호산의 도로로부터 조통곡(槽桶谷)을 거쳐 순천으로 포위망을 뚫으면서 나가려 하고 있었다. 한국군1사단 예하의 3연대와 미9연대를 선발대로 출발시키고, 미2사단 예하의 38연대 포대, 공병대 사단 지원대 그리고 프리맨 대령이 지휘하는 23연대는 미25사단 한국1사단 일부 병력과 함께 안주 쪽으로 포위망을 뚫고있었다. 정찰대의 보고는 「많아야 일개대대」의 적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충만된 중공군의 협공을 당하여 그 참상은 미 육군 전사에 일찍이 없었던 패배였다. 예전 미국 개척시대 인디언과 이주자와의 항전 때 인디언들이 포로 처형에 독특한 방법으로 즐겨왔던 그 방식과 흡사한 일방적인 공격을 당했었다. 이열종대로 늘어선 인디언들은 그 사이를 걸어나가는 포로를 양쪽에서 채찍으로 두들겨 패며 최후까지 걸어나가는 자만을 방면한다는 방법이었다.

미2사단은 조통곡(槽桶谷)을 통과할 때 양쪽 산에서 인디언의 태형(笞刑)과 같은 치열한 사격을 받으며 빠져나왔다. 이때의 전투에서 다수의 고참병들이 전사하였기 때문에 23연대는 3명중 하나는 아직 20대전에 신병으로 되어있었다.

대부분의 그들은 지원병이었는데 미국의 남부와 서부의 농장출신이거나 작은 마을 출신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를 통해서 신속하게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에 그들은 사기와 용기가 충전되어 있었다.

23연대는 지평리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다. 그때 23연대는 중공군과 조우하였고 적의 소규모 부대에게 일제히 사격을 가하자 허둥대면서 퇴각했다. 어떤 때는 가슴까지 차는 눈 속을 헤집고 험준한 산을 넘기도 하면서 북진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지평리에서 동쪽으로 6km 지점에 있는 소위 '쌍둥이 터널'(무왕리)이라고 불리는 골에서 약1만병의 중공군 정예사단과 부딪치게 되었다. 원한에 찬 23연대는 치열하기 이를 데 없는 전투로 중공군의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주위의 산들은 또다시 고요하였고 황량했으며 전진을 계속한 전투단은 2월 3일 반파된 작은 교차로 마을 지평리에 진입하였다. 수색대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8개 능선에서 몇 명의 중공군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소총사격을 가해 격퇴시키는 가벼운 전투를 하였다.

당시 프리맨 대령은 미8군 초병부대로부터 정면 15마일이나 떨어진 돌출된 위치에 진출되어 있었으나. 8군사령부는 연대장에게 현 위치에서 중공군 주력부대가 발견 될 때까지 능선을 정찰하라는 작전명령이 하달되었다. 2월 3일 저녁때쯤 프리맨의 3개 대대 소총병들은 지평리에서 야영을 했다.

다음날 아침 막강한 프랑스 1개 대대 병력이 가세함으로써 5천여 명으로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용기와 사기가 유엔 동맹군을 고무시킴으로써 수적증가 이상의 또 다른 의의를 지녔다.

당시 약 3천명의 주민이 살고있었던 지평리는 원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폭풍 전야와 같이 고요하기만 하였다. 원주민들은 모두 피난을 갔고 흑심한 전화로 시가지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파괴된 시가지 중심부는 약 반 마일 길이의 얼어붙지 않은 시냇물을 따라서 뻗어 있었고 여기저기 반파된 학교 방앗간 향교와 불타버린 집과 몇 채의 벽돌 초가집만이 남아있으며 마을 서북쪽에는 논들이 평원을 이루고 있었다.

프리맨 대령은 마을중간에 지휘소를 설치 한 다음 (현 면사무소 앞) 지평리가 공격을 당하였을 때의 최선의 방어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령 자신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평리 동쪽 6km지점 '쌍둥이 터널'에서의 중공군 1개 사단과의 전투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결과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임표의 도깨비 부대'

임표(林彪,1907-1971)는 중공군의 최연소 장군이었다. 지평리 주변 산골짜기에는 임표 휘하의 제4야전군이 매복하고 있었다. 18개 중공군 사단으로 거기에 13개의 북괴군 사단들이 소속되었다. 거의 30만에 달하는 숫자였다. 이 제4야전군으로 청천강 군우리 전투에서 또는 장진호에서 유엔군

을 패배시킨 것도 임표 부대였다. 이 부대는 유명한 '도깨비부대'로 호칭되어 있었다.

1월 4일 서울을 재점령하고 완전에 가깝도록 종적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의 생존마저 의심케 했던 바로 그 부대였다.

유엔군이 한달 내내 수색정찰을 해도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었다. 임표는 주력부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숨어 있다가 밤에만 나타나 끔찍한 공격명령을 내리곤 하였다.

임표는 작고 호리호리하여 촌뜨기처럼 생겼고 많은 중공군 장성들처럼 '왕포아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소련 군사학교를 나왔다. 그는 일찍이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 대항한 군대를 지휘했던 정통 군사교육을 이수한 자였다.

그는 1934년 청년장군으로서 역사상 유래 없는 연안 대장정에서 남중국 공산당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민당 정부군에 포위된 임표와 그의 부대는 남중국 평원에서 또는 연안산악지대에서 은신처까지 무려 6천마일(2만5천리)을 퇴각했는데 8개의 산맥과 24개의 강을 건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휴식 없이 강행군한 군대다. 근접하기 어려운 연안의 산악 속에서 안전하게 중공군 생존자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개석의 정부군도 일본 군대도 그의 부대를 섬멸시키지는 못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군대가 훗날 훈련받은 60만 중공군의 핵이 되어 국민당 정부와의 3년에 걸친 전쟁에서 국민당 정부를 전복시키고 전 중국을 정복하였다. 그 군대의 병사들은 덩치가 큰 북중국 출신의 농민군이었다.

급식이 원활했고 방한성(防寒性)식품으로 마시는 콩기름 한 병씩을 휴대하고 있었다. 또한 혹한에서도 견딜 수 있는 커피색 바탕에 겨자색 푸른 무늬가 있는 솜의 누비옷과 짐승의 털로 된 방한모를 쓰고 눈 위에서도 몸을 숨길 수 있는 흰 위장복을 걸친 자도 있었다.

중공군은 계급 없이 사령관에서부터 분대장까지가 지령원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지휘관과 참모의 복장은 상의에 옷깃과 소매 그리고 바지 솔기

에는 붉은 또는 푸른색에 줄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여러 날 계속하여 험준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강을 건너며 모든 식량 탄약 등 보급품을 트럭 대신 등에 지고 오직 밤에만 활동하였다. 오후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30마일을 행군할 수 있었으며 동이틀 무렵에는 종적을 감추곤 했다.

비행기 소리만 나면 마치 얼어붙은 듯이 꼼짝하지 않았고 소수의 정찰요원만이 움직였다. 무기는 소제 7·622mm P·P·Sh 자동소총과(일명 따발총) 41경기관총 국민군대에서 빼앗은 미제 톰프스 소총을 지니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게서 노획한 중화기와 많은 수류탄을 휴대하고 식량은 어깨에 걸머지고 행군했다. 한편 이들은 소련이 제공한 82mm와 120mm 박격포로 장비 되고 있었는데 이 무기들은 폭파반경이 낮고 폭파각도는 높았다.

임표는 1951년 2월초 서울동부에 위치한 지휘소에서 작전을 짰다. 그의 목표는 유엔군의 후미를 공격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탄약과 휘발유를 대량 소모하는 기계화 부대에 타격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번 포위되면 인해전술(人海戰術)의 공격으로 파도처럼 사체를 보루로 삼아 전투를 하는 것이었다.

중공군이 사용한 전술은 기습과 포위를 기본으로 하는 모택동 '십육자전법(十六字戰法)'의 실천이라 하지만 본래를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공기무비(攻其無備) 출기불의(出其不意) 일이노지(佚而勞之) 강이피지(强而避之)」 즉, 싸울 준비를 갖추지 못한 적은 공격하고, 적이 싸울 의지가 없는 사이에 선제공격하며, 적이 편안하면 괴롭혀 피로하게 만들고, 적이 강하면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손자병법을 그대로 모택동과 임표가 팔로군(八路軍) 시절부터 발휘한 유격전술에 불과했다.

또한 일본군이 즐겨 사용한 넓은 'V자' 모형의 진형을 짜야 밀고 오면서 일제사격을 가하여 취약지점이 발견될 때까지 형세를 관망하다가 그 틈으로 병력을 들이밀어 후방에 있는 지휘소를 공격하여 혼란과 공포를 야기시

키는 전술도 썼다. 단순한 듯 보이는 이 전술은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에서는 완벽하게 적중하여 고립된 소규모 부대가 전멸당하곤 했다.

「夏不征南 冬不征北」이라는 손자병법도 응용되고 있다. 이것은 여름에는 남쪽 정벌에 나서지 않고 겨울에는 북쪽 정벌에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즉 추위에 약하고 월동준비가 불충분한 유엔군에 대하여 중공군 '시이(時利)'를 얻은 공격방법이었다.

그런데 임표의 전술은 불리한 점을 지니고 있었다. 유엔연합군을 격파하려면 병력의 수보다도 많은 화력의 군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탄약과 장비가 부족한 만큼 결국 부족량만큼의 중공군병사의 생명을 대상으로 지불하여 싸우지 않으면 안될 숙명적인 군대였다. 공산주의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성경시의 가치관에 따라 임표는 1951년 2월 4일 다시 한번 자기 병사들을 희생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공격방어진과 전수방어진

'라운드업'작전은 예정대로 2월5일 오전 8시에 개시되었다.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1월 15일 중장으로 진급) 앞날을 낙관하였다. 작전의 주지는 지휘하의 한국군 제5사단, 제8사단을 홍천지역으로 전열 하여 북상시키고 좌측에 미 제9군단의 진출선에 연이어 놓는 선으로 진격케 하는 것이었다. 미 제2, 제7사단은 조공병력으로 하여 한국군 제8사단의 좌측 방면으로 진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2사단 예하의 23연대는 먼저 2일전에 목표지 지평리에 진출되어있었다. 좌우의 안전이 확보된 형세이기 때문에 알몬드 중장을 작전성숙의 장애는 없는 것으로 관측하였다.

공격 바로 전 유엔 공군은 중공군이 홍천지역 서방에서 횡성으로 물결치고 있다는 보고와 서부전선의 중공군의 일부가 중부전선으로 이동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내도 중공군 50군단 주변에는 북괴군 제8, 제47사단이 집결되어 공격의 기미가 보인다는 보고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이와 같은 정찰과 첩보를 분석한 결과 주 전투장은 동쪽의 중부전선으로 이전되어있고 서울방면은 뒤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략의 요로서 동쪽 원주방면(原州方面)에는 공세방어 서쪽에는 지평 전수방어(전수방어는 불퇴전)의 진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수방어에는 23전투단을 지명하게 된 것이다.

전수방어는 희생과 고통이 가혹하게 따르기 마련이다. 하나 전략은 전술에 우선하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엔 공군은 지평리 북쪽과 서쪽의 능선을 정찰비행하고 있었지만 적이 너무도 능숙하게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중공격은 불가능했다. 오직 지상전투에 의해서만 그들을 저지할 수가 있었다.

리지웨이는 지평리 15마일 동쪽 회성 근처에서 진격하고 있는 한국군 제3군단에게 전진을 중지시키고 현 위치에서 방어진지 점령을 명령하였다. 미 2사단 예하의 제38보병연대는 제3군단의 지원병력으로서 그 후방에 배치되었다. 38연대에는 1개 네덜란드 군대대가 배속되어 있었다. 105mm 곡사포로 장비한 미 포병 1개 대대가 측면 지원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다.

공군관측통은 대규모의 중공군이 지평리의 동서양면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왔으나 프리맨 대령은 공격하지 않았고, 점차 중공군 전위대에 포위되고 있었다. 그때까지 남쪽의 보급로를 점검하였으나 아직 뚫려 있었고 차단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달 4일부터 10일까지 7일내 8군사령부는 유엔군의 공세를 지연시켰고 그러는 동안 중공군의 엄청난 병력이 유엔군 전선을 넘어 남진하였다. 리지웨이는 23연대의 노출된 진지를 염려하여 특수포대를 지평리에 배치시켰다. 제503야전포의 포병 1개중대의 155mm 곡사포 6문이 2월 9일 교차로에 배치되었다. 82대공포대의(M19) 포병중대와 37야전 지원포대(105mm) 및 51문의 중 박격포로 편성된 화력지원부대 병력 절반과 함께 그의 지휘소 외곽방어의 임하게 하였다. 총 병력은 5천 6백명으로 증원되었다. 매일매일 뒷산을 정찰하도록 명령한 그는 중공군이 공격해 오기만을 기다렸다. 5일에서 10일까지 수색대는 점점 증강된 중공군을 만났고 이따금 소규모 전투

도 벌였다.

작전을 짜고 있던 프리맨 대령은 걸어서 반시간도 안 걸리는 파괴된 마을 주변에 직사각형을 그려 넣었다. 주변에는 평균 250보지의 8개의 능선으로 둘러 쌓여 있다. 그 능선을 따라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면 유리하나 그리하려면 원형진의 진격이 3~4마일 주위가 12마일에 이른다.

도저히 4개 대대로서는 충분한 긴축된 원형방어 진지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대장은 지휘하의 4개 대대를 직경 1마일의 원형에 배치하였다. 이로 인한 밀집된 방어진지에 떨어진 포격을 염려하여 그의 방어선에 발생할지도 모를 취약지점을 결코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그는 제1대대 병력을 북쪽능선에 배치시켰다. 3대대는 지평리 동쪽 고지대 잠호안에 은폐하고 있었다. 막강한 프랑스 대대는 남서쪽으로부터 282고지, 226고지, 248고지, 211고지, 194고지를 전면으로 하여 옛 토성을 따라 교통호를 팠다. 프랑스군에 배속된 한국병 1개중대(카투사)와 프랑스군 제2중대는 서쪽에 345고지 밑에 꽁꽁 얼어붙은 논의 개활지로 배치시켰다. 에드워즈 중령의 제2대대는 지평리 남쪽의 망미산 397고지 하부 구릉에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되어 있었다.

방어선이 정비되었다. 그 둘레가 6킬로나 되어 사주방어 진지로는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4개 대대가 방어선을 따라 포진하고 방어선 안에는 특수훈련을 받은 유격증대와 공병 중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병에 버금가는 전투요원들이었으나 게릴라전에 임하고 지뢰제거나 교량폭발을 위해서였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어떤 방향에서 전투가 일어나는가를 훤히 알 수 있는 장소에 위치했다. 외곽방어 진지에 배치된 4개 보병대대 지휘관들은 중대와 중대소대와 소대간에 그 독특한 지형으로 인한 전선방어뿐이 아니고 어느 방향으로나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조직된 참호를 구축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때 정규적으로는 약 2백명을 보유해야 할 각 소총중대들은 심한 병력부족에 처해 있었다. 23보병연대의 각 중대는 TO병력의 경우 75% 정도였

다. 이와 같이 전투요원 부족은 방어임무를 어렵게 했지만 계획은 치밀하게 마무리져 졌다.

중대별 진지가 구축됨에 따라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원형톱날과 비슷하였다. 75mm 「로케트」포 LNG30중기관총 CLB5. 82대공자동화기(MP) 탱크포의 포신 등이 사방으로 뾰족하게 톱날처럼 돌출한 그런 모습으로 포진하여 전면방어를 하게 되어있었다. 2인1개조가 들어갈 수 있는 참호 속에 좌우 앞뒤 어디에서나 사격을 가할 수 있게끔 자동화기가 교차되어 설치된 까닭에 밀려오는 중공군을 두 군데서 동서 포착할 수 있었다. 소총이나 기관총 또는 직사화력이 미칠 수 없는 사각지대는 박격포의 가늠자가 지켜보고 있었고 그 뒤로는 포병대가 지원사격 태세를 낮추고 있었다.

방어선의 중간지점에서 프리맨은 취사병, 행정병, 운전병 등으로 보강한 내부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들은 소화기와 기관총으로 무장되었고 만일 외곽진지가 돌파 당할 때에는 지평리의 마지막 방어를 책임져야 했다. 또한 프리맨이 직접 근호에까지 방어용 가시철조망과 지뢰를 매설하도록 명령한 것은 서로 고안해낸 인상형(鱗狀型)의 종심진지(終審陣地)로 인해전(人海戰)에 대비한 공고한 방어진지형(防禦陣型)이 되기 때문이다.

2월 10일 23연대의 병력은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참호 속에 누워있거나 발을 구르며 적의 공격에 대비하는 장병들은 긴장과 초조감으로 피가 마르듯 긴박한 시각을 보내면서 다가올 사태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다.

미끼를 달은 덫

지평리 동쪽 15마일 횡성에서 임표의 군대는 은폐지를 빠져나왔다. 2월 11일 오후 '하치시키' 부대가 한국군 3개사단을 향해 간헐적인 사격을 가해왔다.

정확한 판단을 소유한 임표를 첫 번째 타격 목표로 한국군을 잡았다. 한국군은 용감했으나 훈련이 너무나 부족했고 더구나 훈련되고 경험 있는 고참병과 초급장교들은 전해에 거의 전사했기 때문에 지금은 신참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중공군의 인해 물결이 닥치자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이미 부대는 겹겹이 포위되어 중대와 소대간에는 토막토막 끊기여 나가게되자 혼란과 참상은 극에 달하였다. 이로 인해 유엔군 전선의 구멍이 뚫리게 되었다. 이때 후방에서 한국군 3개 사단을 지원하도록 배치된 미제2사단 예하의 38보병연대와 그의 배속된 네덜란드 군대대가 곧 중공군에게 포위 당하였다. 막강한 적에 대항하여 그들은 항복하기보다는 남쪽으로 혈로를 뚫고 있었다. 2월 12일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네덜란드군 대대장 딘-오든 중령과 그의 참모들이 안전한 도피로에 도착하였을 때 미제 군복을 입고 미제 소총을 휴대한 약 40명의 병사가 접근 말을 걸어왔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이들은 영어를 지껄이며 자기들은 전투 중 탄약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덩치가 큰 공수부대 출신인 오딘 중령은 그가 나눠줄 수 있는 여분의 탄약을 그들에게 나눠주자 한국군으로 생각되었던 그들은 탄약을 받아 몇 발 자국을 가는체 하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사격을 가해왔다. 딘-오딘 중령은 벌집이 되어 쓰러지고 한국군을 가장하고 도망치던 중공군들은 길가에 있는 짚더미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꽃은 네덜란드군 대대지역을 정확히 에워싸고 있었고 그 불빛에 표적이 되어 중공군의 박격포의 세례가 비 오듯 쏟아졌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군이 거의 전멸했고 미 제38연대 생존자들과 도망치다가 원주를 지키고 있던 유엔군 부대와 합류했다. 따라서 전선의 중심부가 횡성에서의 유엔군 참패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되었다. 중공군은 여기저기서 홍수처럼 밀려들었고 격전 3일째인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유엔군은 중부전선에서 25마일 후퇴해야만 했다.

북한 땅에서 당했던 참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만일 그랬다 면은 남한 전체는 임표의 소망대로 공산군에게 먹히고 유엔군 또한 파멸되었을 것이다. 지평리 주둔 23전투단은 중공군의 포위망 속에 고립하게 되었다. 항공정찰대로부터 지평리 근처 골짜기 주변에는 적의 1개 사단이 은신해 있음을 프리맨 대령에게 알렸을 때 프리맨은 급박한 상황을 사단사령부에 보

고하였다. 정오라면 맥아더 원수가 수원비행장에 도착할 시간이었으나 미2사단장 루널 소장(주11월 14일 제10군단 참모장에서 전보)으로부터 지평리의 긴박한 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헬리콥터로 지평리 전황을 시찰하였다. 23연대장 프리맨 대령이 보고하는 전황설명에 끄덕이는 알몬드 중장에게 우익이 한국군3군단이 붕괴된 지금 중공군과 교전하기에는 너무나 미력하니 후퇴를 진언하자. 「한다면 후퇴시간은」 「내일 아침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몬드 중장은 자기는 승인하겠으나 중대한 작전 변경은 군단장 단독으로 적당히 결정할 수 없으니, 리지웨이 사령관의 추인을 구하라고 프리맨 대령에게 이르고 헬리콥터에 올랐다.

알몬트 중장으로서는 고립된 23연대에게 진지고수를 명할 수 없었다. 적당한 시기에 철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리지웨이 중장은 맥아더 원수를 전선으로 안내하고 있었기 때문에 10군단장이 8군사령관에게 전화연락이 된 것은 맥아더가 서부전선에서 점심을 할 때인 오후 1시 30분 경 이었다. 그 조금 전에 23연대장 프리맨 대령으로부터 미2사단사령부에 긴급연락이 전하여졌다.

여주에서 북상하여온 2사단 수색중대는 지평리 동방 약 6km지점인 곡수에서 적 중공군과 조우 소규모 접전 끝에 철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적이 지평리를 포위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증거였다. 내일이 아니라 당장 철수하여만 한다는 것이다.

미 2사단장 러후닐 소장은 즉석에서 10군단장 알몬드 중장에게 프리맨 연대장의 의향을 전달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8군사령관 리지웨이 중장의 명령이 하달되어 있었다.

'후퇴는 허가할 수 없다' 십자로(十字路)마을 지평리가 적에게 탈취 당한다면 제8군의 작전계획은 허물어진다.

리지웨이는 알몬드에 진언을 듣는 즉시 반대하였다. 지평리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에 경계지점이었다. 지평리를 내어놓는다면 적은 단숨에 동쪽의 여주와 장호원 방면으로 쐐기를 박은 듯이 밀려들 것이다. 그리되면 제

8군은 동서로 양분단 되면서 와해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지평리를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상대방 알몬드 중장에게 질타(叱咤)라는 형용 그대로의 강한 어조로 엄명하면서 일그러진 눈매로 참모장 알렌 소장에게 말했다.

지평리를 적에게 빼앗기면 이쪽 서부전선에 내린 '선더 볼트' 작전이 역으로 적의 '선더 볼드' 작전이 되어 우리들이 역수로 격파 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평리를 보존하는 한 중부전선으로 밀어닥친 적이 후방의 안전을 염려하여 용이하게 8군 주력의 제10군단과 제1군단(이때 영등포와 김포비행장을 확보하였음)의 배후에 진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의 요충지 지평리를 잃는다면 「유엔」군은 막대한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중부전선 아니 전 한국의 국운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10군단장 알몬드 중장은 8군사령관의 명을 받자 즉시 결심을 변경하여 제2사단장에게 지시하여 기갑지대를 편성하여 지평리 구원에 향하게 했다. 그러나 기갑지대는 1월 말 '쌍둥이터널' 의 재발처럼 '터널' 앞의 453고지에 매복하고 있던 북괴군의 불의에 습격을 받아 전진을 저지 당했을 뿐 아니라 역 포위를 당할 사항이어서 후퇴를 하고 말았다.

원래 '라운드업' 작전의 목표는 적의 인적소모에 기점을 두고 전황을 호전시키는데 성공한 전투였다.

리지웨이 장군은 그가 계획한 전선으로 임표의 군대가 유인되면 막강한 공군력과 화염으로 중공군에 병력의 괴멸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지평리에 덫을 설치했던 것이다. 23연대는 미끼였고 적 사령관은 23연대에 배후에 있는 막강한 전력과 덫을 감히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중공군은 그 덫을 파괴하기 위해 대량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리지웨이는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할 사람은 프리맨과 23보병연대라는 것을 알아왔다.

「끝까지 맞서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 리지웨이는 이와 같이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수임 받은 프리맨 대령은 혀를 차며 마음속으

로는 욕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심을 변경하였다. 아니 진지 고수의 명령에 응한다는 결심변경 보다도 각오를 새로이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찰의 결과는 지평리를 포위하는 중공군은 적어도 2개 사단 아마도 3개 사단을 보유한 1개 군단으로 탐지되고 있었다. 5개 사단과 4개 대대의 전투다. 미 육군전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력한 방어전이었다. 그 결말은 용이하게 추리할 수 있을 전술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싸울 뿐이다」

비장한 음성으로 결심을 말한 프리맨은 "우리들은 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구원은 꼭 올 것이다. 그때까지 몸 성한 사람들은 재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 회의에서 훈시와 주의로 방어진을 강화하여 적의 공격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2월 13일 처음으로 능선을 기어다니는 중공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찰대가 귀대하면서 대동하고 온 주민 하나가 「수천 수만의 중공군이 남서쪽에 우글거리고 있다고」 알려왔다. 땅거미가 질 때 주변의 산꼭대기에서 중공군의 신호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지평리는 완전히 포위 당했던 것이다. 기온은 영도로 떨어졌다. 뒤죽박죽이던 참호 안에서 프랑스군 장교는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무수한 별과 함께 밤이 찾아왔다. 나는 여기가 운명의 지점이라는 것을 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가 깃들고 병사들은 이 세계가 아닌 영혼을 생각하는 듯 했다.'

포위공격-한밤의 호적소리

총소리가 났다 지평리의 포위공격이 시작되었다. 전초선 참호 속에 있던 병사들의 눈이 빛나고 귀가 솟구친다. 기민한 동작으로 소리 없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들 후방에는 원거리 적들에게 폭탄을 퍼부을 포대가 있었

고 사수들은 기관총과 소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전 전선에는 적의 폭탄이 이곳 저곳에 폭음과 섬광이 암흑을 진동한다. 이에 맞서 아군에 포화도 적을 향하였다. 생과 사의 처절한 격전은 전개된 것이다. 그런데 만일 중공군이 폭격에도 살아남아 아군을 공격한다면 그때는 육박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순간 병사들은 탄소봉으로 대검 끝을 날카롭게 갈았다.

매서운 바람이 국방색 바지와 방한파카 잠바를 뚫고 시리게 와 닿는다.

병사들의 발은 투박한 군화 안에서 마비되어 있고 벙어리 장갑 속의 손가락은 점점 얼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적의 주변이라 섣부르게 따듯한 것이 그리운 불을 피울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연대 전 병력 중에서 반 이상이 밤을 지새는 경계에 임하고 있어야만 했다. 이날이 2월 13일 밤 중공군은 리지웨이 장군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다. 임표는 지평리 고지로 9만의 병력을 투입했는데 적군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고 꼭 유엔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야간 행동을 강행하고 공격속도를 한층 가속화하여 지평리를 속히 탈취하라는 명령을 39군 사령관 吳信泉에게 하달되어 있었다. 39군의 주력인 115, 116사단으로 기각지세(掎角之勢)의 적을 앞뒤로 몰아치는 공격은 개시된 것이다.

하오 9시 59분 그 밤은 죽음과 함께 왔다. 10시쯤 돌연 박격포탄 한발이 전초선 안으로 날아들었다. 그것은 붉은 불꽃을 내고 폭발했고 섬광의 검은 포연은 별이 빛나는 밤을 흐려놓았다. 잠시 칠흑 같은 어둠이 뒤를 이었고 아군병사들은 눈을 크게 뜨고 어둠 속을 주시했다.

한발의 박격폭탄이 병사들을 긴장시켰다. 소총수들은 MLRC(주저항선)를 따라 Mi소총을 움켜잡았고 기관총 사수들이 노리쇠를 재점검했다.

그때였다!!

62mm 박격폭탄이 쉭쉭소리를 내며 날아와 날카로운 파편을 날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82mm와 120mm폭탄이 밝은 오렌지 불빛을 내며 강철파편을 사방으로 튀겼다.

방어선 안은 한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었다. 연대 지휘소건 대대 지휘소건 가릴 것 없이 벙커의 모래주머니들을 갈기갈기 흩어놓고 있었다.

부상병사들을 치료하는 구로소 안도 폭탄이 쏟아지고 있었다.

초가집을 변경하여 제3대대 지휘소로 쓰고있던 곳도 불길에 휩싸였다. 이 불길이 조준점이 되어 중공군의 곡사포와 75mm 직사포는 쉴 사이 없이 퍼부었고 능선 뒤에서는 마을 중심부로 집중사격을 가하고 있었다. 포복으로 폭탄을 피하던 병사들은 눈을 밟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는데 폭격중에 이미 중공군들은 살금살금 접근했던 것이다 그때 '에드워즈'중령의 2대대는 남부를 견제할 최대의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공군은 대낮에 지평리 들판에 방어진지를 정탐하여 가장 취약지구로서 「토마스-헤드」의 G중대를 골라 놓았던 것이다. 그 중대는 단97명의 병력으로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제1소대, 제3소대, 제2소대 순으로 엷게 배치되어 있었다. 제1소대와 3소대는 야드 막한 능선에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양 소대간의 연계지점에는 낮은 골짜기가 되어 자연의 경계선으로 나있는 오솔길을 따라 논두렁을 거쳐 작은 마을 마산부락으로 가는 길이었다. 또한 제3소대의 전면은 망미산에서 연달아 내려온 완만한 능선이 전개되었다. 제3소대는 전면에 전초를 내보내 적의 기습에 대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제1소대는 곡수를 나가는 도로를 경계로 불란서대대와 인접되어 있었다. 연대장 프리맨 대령은 중공군은 우선 망미산에서 능선을 따라 마산부락을 걸쳐 제2소대 경계지점으로 공격을 가하여 방어진지 내부로 일부 병력을 진입케 하여 지휘계통을 교란시켜 놓은 다음 사방에서 총공격을 시도 할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래서 제1소대의 전면의 통로 가장자리와 제3소대 전면의 논에는 각각 드럼통을 매몰하여 놓았다.

적이 공격하여 올 때는 2개의 드럼통 기름을 연소하여 적을 조명하기 위해서였다. 지평리 일대는 깊은 눈에 쌓여 바람은 한기를 더하여 기온은 여하 22~23도로 내려가고 있다.

적의 폭격이 중지되고 곧바로 아군병사들은 이북땅 군우리 전투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그때 들었던 무서운 소리를 들었는데 밤바람 따라 들어오는 소름끼치는 중공군의 호적소리와 꽹과리 나팔소리였다.

그때 G중대와 E중대의 병사들은 어두운 하늘로 치솟아 오르던 한 불꽃을 보았는데 뒤를 이어 계속 떠오르는 그것은 공격신호였던 것이다.

박격폭탄 세례에 작렬하는 포음이 적중에서 들려왔고 그 사이로 꽹과리 소리, 호적소리, 나팔소리, 휘파람소리, 징과 북소리를 요란하게 내면서 중공군 특공대가 선봉에서 G중대 전면으로 돌격해 오는 것을 화망구성(火網構成)이 잘 잡힌 화력으로 공격을 가했다. 어떤 중공군은 가까이 와서 자동소총을 휘둘러댔다. 그들은 꺼져 가는 조명탄이 사라지자 도깨비같이 검은 그림자를 눈 위에 남긴 채 다가왔으나 방어용 철조망의 미궁에 갇혀 속속 지뢰를 밟았다.

아군진지에서 포성이 들렸고 기관총구는 연신 불을 뿜었다. 중공군 시체가 조우지 중대의 낮은 고지위로 쌓여가고 있었다. 그 밝은 예광탄의 붉은 빛과 포음 속에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중대명칭은 알파벳에 의해 명명되어 있다. 이를테면 Afle은 A중대 Baker는 B중대 Easy는 E중대 george는 G중대 Loue는 L중대 등으로…… 공격의 범위가 넓어졌고 중공군 39군의 주력인 115, 116사단에 2만 병력이 사방에서 공격을 가해오고 있었다. 23연대 베테랑 소총수들은 중공군의 선두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격을 가해 적의 돌격을 막았고 지평리 북쪽전선에서는 중공군들이 꽁꽁 얼어붙은 능선으로 벌떼처럼 우글거리며 올라왔지만 1대대의 코앞에서 쓰러져 갔다.

동쪽에서는 적의 소총과 따발총 사격이 3대대 k중대를 에워싸고 있었다. 적의 포화가 너무 치열하여 k중대장은 점점 늘어나는 부상병들을 후송시킬 수조차 없는 긴박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다.

북쪽에 1대대 c중대 전면에서는 중공군이 앞에서 공격하던 병사가 지뢰를 밟아 작열(炸烈)케 하여 후속병이 그 사체를 밟아 뒤를 잇따라 지나쳐 다가온다. 철조망도 자기 몸을 던져 그 뒤에서 오는 병사로 하여금 돌파케 하는 현상이다. 유엔군은 포화를 집중 쏘아 올리고 있었으나 포탄의 작열하는 빛과 조명탄에 비치는 전면의 산과 능선은 중공군으로 덮여있다. 그 산을 넘고 능선을 넘어온 중공군은 등성이마다 사람으로 꽉 매워 밀려오고

있는 것이 마치 해일이 밀려 닥치는 것만 같다. 제1파가 쓰러지면 제2파, 제3파 계속되는 공격으로 c중대를 직면에서 지원하던 탱크1대가 적의 직사포에 파괴당하는 처절한 공방전은 계속된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M19(대공 자동화기)에서 결렬하게 쏴대는 화력은 적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피 어린 전선

한편 서쪽에서는 불란서 병력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직업군인들이었고 1950년 크리스마스 때 23연대의 밀부가 되어 전쟁동료로서 종군해 왔던 부대다. 지휘관은 58세의 뿔테안경을 낀 공수장교 라오올-몽끌라 중령이었다. 몽끌라 중령은 그가 프랑스 외인부대에 부임하기 몇 년 전에 자기본명 '마르렝-배른네리'란 이름을 버렸다. 그의 새 이름 몽끌라가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몽끌라는 프랑스가 낳은 가장 용감하고 뛰어난 지휘관으로 세계 2차대전에 참전하고 일곱 번이나 부상을 당하고 열 한번이나 무공표창 명단에 올랐었다. 그는 프랑스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하여 다시 한번 소총전투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프랑스군 중장계급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중공군은 프랑스군 200야드 전면능선에 포진했는데 프랑스군들은 눈 속에 난 그들의 장화자국으로 거리를 측정하여 호적소리와 함께 덤벼드는 그들을 총검으로 대항했다.

프랑스군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그만 휴대용 사이렌을 갖고 다녔는데 적들이 덤벼들자 한 젊은 병사가 사이렌을 울렸다. 그 소리는 적들이 내는 소름끼치는 호적소리와 거친 꽹과리소리를 압도하였다. 그때 몽끌라 대대장은 용감한 소대장 로뵈리에르 중위에게 공격해오는 중공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

'총검 꽂아! 공격!' 착검한 프랑스군은 단20여명의 병력으로 돌격해 나갔다. 그 충격 효과는 대단하였다. 프랑스군이 왁살스럽게 돌격하자 중공군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겁에 질리고 당황한 중공군은 머뭇거리다가 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쫓아가 목덜미를 잡고 끌고 와서 심문 받는 포로는 15명이나 되었다. 이 전투에 1987년 공화연합소속 하원의원인 '로베르-앙드리엥비비앙'은 상사로 참전하였었다.

중공군은 그 날밤 이 프랑스군 지역으로는 심한 공격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런데 G중대는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었다. 해드 대위는 많은 병력을 잃었고 고지는 더욱 약화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진지후방에 있던 포병중대에 구조요청을 했다. 503포대의 브라보 중대 지휘관 아더로크 노브스키 중위였는데 그는 그의 할애할 수 있는 병력을 지원했다. 그들이 몇 발자국 앞으로 갔을 때 소나기 박격포 세례를 받아 거의 원위치로 되돌아온 그들은 보병훈련을 받지 않은 병력이었다. 남은 5명의 그들은 50구경 기관총을 헤드대위의 가장 취약부분에 설치했는데 이것이 G중대방어 임무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이 방어선은 포화 속에서도 적의 공격을 격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평리의 모든 방어진지는 적의 박격포탄으로 풍지박산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공군의 공격은 날이 밝자 끝났다. 그러나 한번의 야습만으로 볼 때 중공군의 의향을 판별할 수가 없었다. 위력 탐색전이 아닌가? 프리맨 연대장의 감상이었다. 그러나 G중대장 헤드 대위는 경계심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경 제3소대장 맥기 중위로부터 보고하여 온 것에 의하면 제3소대 전면의 도랑에는 약40명의 중공군의 잠복을 발견하자 지체 없이 로켓트포와 기관총으로 섬멸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맥기중위는 가까운 마산부락까지 정찰을 시도하였으나 도중 약 18명의 중공군의 시체를 발견한 외에 교묘히 위장한 적의 경기관총 진지로부터 사격을 받자 철수하였다는 보고였다.

제37야포 지원대대의 관측장교 엘레리 대위는 G중대의 1소대와 불란서 대대의 경계의 남방 약 4백m 전방독립가옥에 주목하였다. 중공군의 공격거점에 이용된다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엘레지 대위는 제5분대 포대에

사격을 유도했다. 분대장 웨이브 중사는 백전소위탄을 사용하여 폭격하는 제3탄이 명중하여 초가집이 화염에 쌓이게 되니 약 15명의 중공군이 도망치는 것을 불란서대대에서 기관총으로 8명을 쓰러뜨리고 남은 중공군은 도망쳤다.

G중대장 헤드 대위는 엘레지 대위의 폭격성과와 맥기 중위의 보고를 종합하여 제2대대장 에드워드 중령에 판단을 구하였다.

"짱코라가(중공군의 경멸칭) 오늘밤에 또다시 공격하여 온다면 우리 G중대 전면을 겨냥한 주공(主攻)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헤드 대위는 중공군이 어젯밤의 계속된 공격에 뒤이어 잠복한 사정은 타 대대 또는 타 중대 전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특이한 현상은 특별의 의미가 없다면 발생치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도 헤드 대위에 동의합니다. 어젯밤 중공군은 전 방어선에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유독 헤드 대위에 G중대 전면만을 되풀이 공격하였습니다. 우리의 폭격 또한 철저히 적의 위협한 것에 대한 특별한 흥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온 엘레디 관직장교도 헤드 대위의 견해를 지지하고 나서자, 제2대대장 에드워드 중령은 바른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턱을 받치고 '글세?'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고는 "귀관들은 G중대 증강을 바라는 모양이지만 병력에 여분이 없다는 사실은 귀관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중공군에 공격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젯밤 가공할 폭격과 격렬한 사격의 위력을 크게 맛보았기 때문에 공격치는 못할 것이다」 혼자 합의점을 말하던 에드워즈 중령은 주위의 사람들의 동정을 살핀다.

지평리를 둘러싸고 있는 능선을 어젯밤 한바탕 스치고 간 폭격의 상처위로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2월 14일 새벽 2시 30분 수 차례의 간헐적인 전투가 있은 뒤 전선 남쪽 능선에 대규모 공격이 가해져왔다. 화염이 줄을 이었고 기관총과 소총이 불을 뿜어 여러 차례 수 천명의 중공군이 나뒹굴었다.

새벽 3시 30분 적은 다시 공격을 감행해왔는데 남쪽의 G중대와 E중대 북쪽의 A중대와 C중대는 겹겹이 포위 당해 있었다.

한국군 1개 중대와(프랑스대대에 배속되었음) 우측에 프랑스군 2중대도 거의 동시에 새로운 맹 반격을 가했다. 이때 한국군 중대는 서쪽 터널 안을 향해 로겟트포를 퍼부었다. 이 수평공격이 은폐되었던 군수물자에 명중되어 하루종일 연기를 뿜어대는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C중대의 기관총 사수들은 총구가 휘어지도록 사격을 계속하던 중 적탄에 기관총이 박살났다. 그는 조수에게 새 기관총을 가져오라고 소리질렀다. 그동안에 그는 45구경 자동소총으로 계속 쏘아댔다. 그의 참호 앞에는 26명의 중공군이 죽어 넘어졌고 진지는 사수되었다.

전초선 동쪽 측면에 위치한 12중대는 계속해서 중공군에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포위망에 고립되어 지원요청을 할 수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23연대의 박격포와 야포가 밤새껏 연속사격을 하고 있었지만 사수들 또한 적의 사격을 받아야만 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중공군이 횡성에서 국군으로부터 노획하여 지평리 전선으로 가지고 온 많은 박격포와 곡사포의 세례마저 받아야만 하였다.

잇단 폭발에 의해 지평리의 모든 가옥과 건물들은 전파되고 말았다. 벽은 모두 무너져 나가고 초가지붕은 석가래만 앙상하게 남은 채 그 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있었다.

도로 위에 있는 트럭과 찝차 등도 폭격에 날아가 버렸고 그 잔해는 연기를 뿜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황 중에도 취사병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참호 속의 병사들에게 뜨거운 커피를 끓여주느라고 분주했다.

새벽 4시 30분 끔찍한 살육전이 조금 완화되었다. 총소리만이 K중대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쪽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때에 남쪽에 G중대 전면에는 중공군 1개 대대의 병력이 '만세'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 그들은 방어진지의 중심전이라 할 수 있는 G중대를 향해 완만한 능선을 타고 개미떼처럼 돌진해왔다.

그들은 접안부(接鞍部)인 두 소대 사이 〈1소대와 3소대〉를 박격포탄으로 공격하여 왔는데 이것이 가장 격렬한 공격이었다. 이번 공격이 동트기 전에 밤의 전선을 깨뜨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397고지의 망미산으로부터 인해의 물결은 시체의 산을 이루며 몰려오고 있었다.

텍사스-커미벌 출신의 열여덟 살 먹은 커치스-토우디스 하사는 최전방에서 자동소총 분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의 20여명의 전초부대는 2개중대의 중공군과 참호 위에서 육박전을 해야만 했다. 그의 조수가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로우디스는 혼자 총을 쏘았다. 연발 시속사격으로 일개분대 열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잠시 숨을 돌린 순간 죽은 척 가장했던 중공군 2명이 살금살금 기어와 그에게 덮였다.

그중 한 명이 로우디스의 자동소총을 낚아챘고 로우디스는 참호 밖으로 뛰어나와 부상당한 동료의 카빈소총을 집어들자 중공군의 머리를 대검으로 찔렀다. 그대 카빈의 목부분이 부러져 나갔고 총신을 휘둘러 두 번째 중공군도 때려눕혔다. 다시 자동소총을 잡고 고지 아래로 사격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이 전초선에 걸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완강한 저항으로 방어선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버티어 내고 있었다.

바로 이 무렵 120mm 중폭탄이 연대지휘소 안에 떨어졌다. 그때 연대 작전과장 스맨-마기 소령이 전사하고 연대장 프리맨 대령이 파편으로 다리를 관통 당했다.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대령은 개의치 않고 지휘를 계속한 보람으로 새벽이 되면서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패주한 것이다.

하룻밤을 꼬박 새운 야간전투에서 중공군 39군사령관 오신천(吳信泉)은 단현 2개 사단으로 방어진을 사방으로부터 필사적으로 강습을 결행하였으나 유엔방어진은 좁은 특수한 지형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부대를 공격대형으로 전개 할 수 없는 혼전으로 손해만 더하였을 뿐 돌파는 어림도 없었다. 외로운 중공군의 호적소리가 슬프게 조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언제 그들이 또 공격을 해올 것인가!?

아침이 밝아오자 중공군은 23전투단의 통신망을 차단했다. 정찰비행기가 계속 떴지만 중공군은 멀리 철수하지 않았고 지평리의 야포 사정거리 밖으

로 벗어나 산간지대에서 병력을 재 규합하고 있었다. 아군 또한 부상 병 치료와 장비손실과 전황평가 등으로 완전히 지쳐있었다.

야간전투에서 적에게 큰 손실을 입혔는데 정확한 적 박격포와 야포공격에 비하면 23전투단의 자체손실은 놀라운 만큼 가벼웠다. 여기에는 프리맨 대령에 탁월한 병술(兵術)의 진가의 덕분이었다. 프리맨은 일반적인 병술을 가지고는 도저히 인해전(人海戰)을 저지하기에는 많은 병력을 희생하여만 했다. 전쟁기술이 숙련된 고참병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의 신병은 인해전의 공포와의 대결에서 야수화 된 중공군을 설명하는데는 이렇다할 새로운 병술(兵術)을 고안해 낸 것이 고기비늘형 종심진지(縱深陣地)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의 접근을 사격으로 격퇴할 수 있도록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깊은 참호와 은폐 된 교통호를 파게 하였다. 이는 '거점파리전술'을 택하고 있는 중공군의 인해전에서 맞서 한 거점이 무너질 경우 닥쳐올 '사람의 파도'를 막기 위해서도 그 뒤 직면에 은폐된 참호에는 강력한 화력들로 장비 된 M19(50구경 4문으로 장비 된 대공포)와 탱크가 버티고 있는 방어진이 중공군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군과 불란서군 사상자들은 중공군과 백병전에서 발생하였다. 아무리 가벼운 손실이라도 다시 피를 흘릴 기력은 없었다. 사상자가 생겼다는 것은 공포의 어둠이 깃들 때 총을 잡을 손이 부족함을 의미했다.

2월 14일 아침 이상한 정적이 지평리 골짜기에 감돌고 있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총소리와 둔탁한 박격포 쏴대는 소리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병사들은 편하게 휴식을 하려고 했으나 기온은 영하의 추위라 개인호 속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프리맨 대령은 붕대를 감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부근 야산고지를 샅샅이 수색하라고 순찰병에게 명령하였다. 수색대는 중공군 시체더미 속에서 부상병들을 몇 명 발견하여 응급치료를 하여 주었으나 중공군 대부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프리맨은 매시간 공군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폭격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원주 근방 강변골자기에 중공군이 대량 집결해 있었고 원주에 공격방어가 최고의 당면과제였기 때문에 지평에 항공기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하여왔다.

정오가 다가서올 무렵 수송기들이 낙하산으로 보급품이 투하됐으나 프리맨이 필요한 보급품들은 아니었다.

105mm, 155mm 화약이 다량으로 투하됐으나 23전투단에게는 충분한 화약이 되지 못했다. 음료도 투하됐지만 시냇가에 푸짐한 물은 공병중대가 맡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23전투단은 박격포탄 소총탄화 기관총탄이 대단히 필요했으며 그것들은 야간전투에 다량을 소모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공중투하 된 보급품목에는 없는 것들이었다.

헬리콥터가 아주 심한 부상병들을 후송해갔다. 이 헬기는 적의 대공사격을 받으며 이 착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다행히도 피해는 없었다.

적, 녹, 백색에 매달린 보급품들이 속속 투하되고 있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떨며 프랑스군은 이 보급품을 수비하느라고 분주하였다.

프랑스군은 고지 위에서 관측할 수 없도록 낙하산으로 도랑사이든지 언덕 위에 작은 텐트를 만들어서 위장설치 하였다. 훗날 2대대장 에드워드 중령이 말한 것처럼 전 프랑스 후방진지는 울긋불긋한 색채로 꼭 집시들의 캠프처럼 보였다.

리지웨이 지평리 전선에 오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서 잠시 돌다가 연대지 휘소 후미에 기착했다. 방한모에 별 셋을 번쩍이며 장군 한사람이 내렸다. 병사들은 그가 리지웨이 장군임을 알아내었다. 그의 등록상표인 잠바에 달던 두 개의 수류탄을 보고 확신했다.

리지웨이는 프리맨 대령에게 '지평리 작전이 전 한국전선의 사활을 건 전투로서 오직 싸우라고' 명령한 이유를 설명하러 혼자 찾아왔던 것이다. 장군은 23전투단의 핸디캡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프리맨과 그의 병사들은 헛되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망각

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을 프리맨이 인식해 주기를 장군은 바랬다. 그리고 프리맨 대령에게 「하룻밤만 더 견뎌주시오」 명령조로 부탁했다.

이에 연대장은 전투기 공격지원이 충분치 못함을 알고자 했다. 그러나 리지웨이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날은 다른 전투지역에 우선 지원하였으니 23전투단이 하룻밤만 더 지탱해낼 수만 있다면 유엔군의 동원가능한 전항공기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미 제1기갑부대에게 내일 날이 밝기 전에 지평리의 포위망을 뚫고 연결하라고 명령했음을 전했다. 그는 아군이 효율적으로 야간사격을 할 수 있게끔 '개똥벌레 작전'을 지시하였는데 그 작전은 비행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는 것이었다.

또한 남쪽주둔(여주) 중장거리 포대가 포위된 진지에서 보내는 무선유도에 따라 지원사격을 하게끔 되어있었다. 리지웨이 장군의 출현으로 23전투단에는 잠시 활기가 돌았지만 기뻐하기에는 여전히 너무나 불리했다.

그 즈음 프리맨 대령이 다리를 부상당했다는 전갈을 받은 제10군단 참모부는 그에게 헬리콥터를 타고 밖으로 나와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리맨 은 이 명령을 즉시 거부했다. 명령에 따를 것을 권유하는 에드위즈 중령에게 「병사들을 여기 사지로 데려온 것도 나요! 밖으로 데려가야 할 책임도 나에게 있는 거요」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프리맨 이하 전 상병들은 죽는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끝이 없는 듯한 그 기다림이야말로 무엇보다 더 처절하다. 1951년 2월 14일 '발타인'날인 늦은 오후 차스 중령은(2사단작전 참모) 부상당한 프리맨 대령을 구출하기 위해 지평리 전선에 투입되었다. 동시에 많은 탄약도 경비행기(L19)로 수송되었다. (이날 프랑스 방어선 안에 급조된 활주로가 완성되었음)

프리맨은 그 자신이 사지에서 구출되었다는 그것보다는 그의 다리에 부상을 입힌 박격폭탄이 그의 텐트에 쌓아놓았던 품질 좋은 '그라무 위스키'를 남김없이 모두 파괴해 버렸으나 그것보다 훨씬 값이 싼 '쉐덜위스키'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데에 화를 냈다. 화를 낸 그 의미는 지휘관이란 부하의 정신적 장치로서 각박한 전투장에서 절망을 딛고 서로가 서로를 위

로하며 싸워온 부하들의 찌든 마음을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주위에 친근감을 주고 부하들에게는 인자하게 대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다.

지휘소 밖에서는 지난밤 적의 포격으로 흩어진 모래주머니들을 다시 구축하고 있는 작업병들은 최후의 방어작전에 대하여 절망에 찬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은 진퇴양란의 공격에 처해있었으며 그들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프리맨 대령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그들 특유의 유머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고통스럽게도 추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남쪽에서는 은은한 포성이 들려왔다. 그곳에서는 영국부대가 악전고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월 14일 저녁 땅거미가 찾아오자 지평리 사방으로 흰 불꽃이 솟아오르고 나팔에 공격신호가 동시에 사방으로 소름끼치게 울려 퍼져왔다.

오후 7시 중폭탄이 전초선에 날아들었고 파괴된 마을은 또 한번 불길에 휩싸였다. 피로에 지친 병사들은 몇 번이고 무기와 탄약을 점검했다.

호적소리가 들린 지 채 못되어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 밤 전투에서 지평리 점령 실패를 크게 통분한 임표는 타지역에서 전투중인 부대에서 새로이 중공군42군 주력인 125, 126사단과 한선초(韓先楚)가 지휘하는 40군 예하의 119사단과 포병대를 수반하고 있는 3개 연대를 보강한 임표의 9군에 이르는 중공군들은 벌떼처럼 지평리로 몰려들어왔다.

또한 40군 예하의 118, 120사단으로 하여금 지평리 남방 18km 한강변 24사단 방어선에 가압공격(加壓攻擊)을 가하기 시작했다. 아군과는 20대 1의 공격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화력뿐이었다.

중공군들은 북쪽에 A중대와 예비대인 B중대가 공격을 받았다. 불란서군 중대지역을 침투하였고 도처에서 중공군의 특수기습부대가 야간공격에 선봉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체고제인 브랜권총을 휴대하고 참호폭파형 방장이 수류탄을 매달고 있는 덩치 은 병사들로 방어용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 고도의 폭파반경을 지닌 폭약통은 1.5파운드 TNT를 채운 소위 파괴통(破壞筒)이라 하여 그 파괴통을 껴안은 채 아군방어용 철조망에 뛰어들

어 자신과 함께 폭사한다는 육탄공격이었다.

많은 살상자를 내면서 기습부대 몇 명은 육탄으로 파괴된 철조망과 지뢰밭을 통과했고 그 뒤로는 다수의 중공군 소총병이 시체를 넘고 넘어 덮쳐오고 있었다.

야포와 박격포 공격에 의해서 혹은 지뢰폭발과 철조망에 걸려서 또는 불을 뿜는 기관총에 의해서 수없이 중공군들이 죽어갔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은 무려 다섯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참호에까지 용케 다가온 중공군은 아군과 육박전을 벌였다. 처절한 싸움에서 아군 또한 많은 전사자를 내었다.

미군이나 불란서군 또한 한국군이 쓰러진 그 자리에는 보충할 병력이 없었지만 참호 한 개도 빼앗기지 않았다. 중공군은 공격지점을 충분히 선정한 것으로 보였다.

남쪽에 2대대 G중대는 병력이 가장 적은 반면 공격은 가장 심한 곳이었다. 제1소대와 제3소대의 연계점의 골자기로 중공군 공격부대가 진입하였다. 제1소대의 참호 두 곳에 그 파괴통(破壞筒)이 장치된 폭약통이 폭파하면서 참호의 병사들을 날려버렸다. 이때 노획 당한 기관총으로 중공군은 제1소대 진지 내에 도치카를 구축하자마자 제3소대의 측방으로 맹렬히 사격하여왔다. 이것이 3소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제1소대장은 소대방어선으로부터 떨어진 중대본부와 가까운 호에 위치하였다. 소대저항선에 나가보는 일 없이 소대방어선 최우측 호에 있는 소대선임하사 D-스치밀 중사와 야전전화로 상황을 보고 받을 뿐이었다. 3소대장 맥기 중위는 3소대의 우측 방으로 날아드는 총탄으로 제1소대에 이변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었던 G중대장 헤드 대위에게 제1소대의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려왔다. 중대장은 제1소대장에게 야전전화로 전황을 책하라! 1소대장은 D-스치멜 중사에게 전화문의를 하였다. 선임하사는 적이 진입한 반대방향인 불란서군과의 연계지점에 위치되어 좌측의 사태를 알지 못한 중사는 '이상 없음' 이라고 소대장에게 답하였다.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중대장은 3소대장 맥기 중위에게 회답하였다. 그러

나 맥기 중위는 의혹이 가시지 않았다. 중공군의 침입이 없다면 어째서 제3소대 배후로 사격을 가하는 것일까? 이때 3소대의 사격이 잠시 뜸해지자 중공군은 G중대 1소대지역 전면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암흑 속에서 돌맹이 투성이의 땅바닥을 스치는 적의 군화소리로 겨우 적의 존재를 탐지할 수 있을 뿐이었다. 중공군은 3소대 저항선을 표적으로 포화가 진동하였고 자동화기 소총사격으로 콩볶는 듯한 소음 속에 G중대병사들은 쓰러져가고 있었다.

맥기 중위는 당시의 심금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다. 머리를 들 수 없는 죽음의 지대에 땅을 파고 몸을 숨길 수만은 없다. '전투다'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무용담의 일화가 이때 생겨났다. 한 부상당한 불란서 장교는 응급구호소에서 치료 중 자기중대지역이 중공군에게 돌파 당한 것을 느낀 그는 비록 한쪽 팔을 부상으로 쓸 수 없었지만 다시 전선에 복귀할 것을 간청하였다. 군의관은 거절은 물론 구호소 안에서 꼼짝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군화를 벗겼다.

그러나 그 불란서 용사는 미친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양말만 신은 맨발로 얼어붙은 눈 위를 절름거리며 자기중대로 뛰쳐나가자 전선을 돌파한 중공군들이 어둠 속에서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비록 한쪽 팔은 삼각붕대로 묶여있었지만 성한 한쪽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고 쏘아대기 시작했다. 불의에 총격으로 몇 명의 살상자가 생기니 중공군은 퇴각하였다.

최대의 위기에서

플레이-맥기 중위의 3소대는 1소대 좌측으로 흘러내린 망미산(397)능선을 따라 달려드는 중공군과 벌인 백병전은 세계 전사상(戰史上) 어떤 보병전투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불가사의하고 잔인한 전투로서 그대로 미국인의 강한 '끈기'를 보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다.

전선위로 높이 뜬 '개똥벌레' 비행기들이 낙하산에 매달린 조명탄을 투하시켰다. 그때에 방망이 수류탄을 든 중공군들이 덤벼들 때 6, 7명의 G중대

병사가 전사했다.

1소대로부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맥기는 손나팔을 하고 소리질렀다 '1소대! 1소대! 그 누구 없는가?' 그러나 오직 침묵뿐이었다. 다만 중공군에 기관총 소리만이 대답되어 들려왔다.

맥기는 접근하는 15명 가량에 검은 중공군 그림자를 보자 엎드리면서 즉시 자동소총을 긁어대었다. 결렬한 사격으로 소총이 고장났다. 중위는 주머니칼을 꺼내 총을 고치려 했지만 얼은 손에서 칼은 미끄러지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칼을 찾으며 헤맬 때 중공군이 약 10피트 전방에서 그를 향해 총을 쏘아댄다.

맥기는 반사적으로 자동소총을 내동댕이치고 참호 속에 기대놓았던 카빈총을 잡았다. 그런데 추운 날씨로 인해 노리쇠에 기름이 얼어붙었는지 노리쇠가 당겨지지 않는다. 그때 그는 미친 듯이 군화발로 노리쇄 손잡이를 쾅쾅 걷어차니 다행히도 노리쇠가 움직이며 탄약이 장전되었다. 맥기는 황급히 중공군을 향해 연거푸 네발을 쏘았다. 어둠 속에서 적이 거꾸러지는 것이 보인다. 맥기는 너무나 경황이 없어 등뒤로 다가온 3명의 적은 보지를 못하였다. 그들은 맥기를 생포하려는 순간 바로 그때 맥기 부하 한명이 적병을 발견하고 총을 쏘아 거꾸러뜨렸다. 그때 뛰어오던 3소대전령 클레티스-인몬 일병은 적탄을 맞았다. 그의 눈에서 나오는 피가 얼굴을 피범벅으로 만들었다. 「맞았습니다. 제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의 절규에 맥기가 대답했다. 「지금은 데려갈 시간이 없다. 계속 사격하라!」 그러나 그 병사는 장님이 되어 사격은 못했지만 맥기 중위의 카빈총탄을 장전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무용담은 전선 곳곳에서 일어났다. 한데 맥기 소대의 병력손실은 점점 더하여 갔다. 맥기 소대장은 중대장 토마스-헤드에게 야전전화로 병력지원을 요구했다. 해트 중대장은 지원포대에 병력보충을 요구했는데 이때 관측장교인 엘레지 대위가 십 여명의 포대 탄약수들을 소집하여 저항진지로 나가고 있었다. 겁겁이 포위 당한 것을 안 엘레지는 카빈총을 거머쥐고 좌절하지도 않고 쏘아댔다. 중공군 한 명이 머리를 관통 당하고

쓰러졌다. 그러나 뒤에 있던 또 한 명의 중공군이 엘레지를 향하여 수류탄을 던지자 오른팔이 떨어져나가는 치명상을 입은 엘레지 대위는 고지 아래로 후송되고 있었다.

맥기 소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가 데리고갔던 십 여명의 포병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제3소대의 중앙으로 중공군은 진입하기 시작한다. 이에 놀란 소대장 맥기는 중대장을 통하여 대대장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대대장은 G중대의 동쪽에 인접한 F중대에서 1개 분대의 파견을 명하였다. F중대에서 온 K. 카리 하사의 1개 분대는 가장 치열한 전선에 보충배치 된 그들은 십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들 모두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었다. 중공군은 이미 제1소대의 방어선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G중대의 좌익 제3소대의 동쪽에 포진한 제2소대도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덕분으로 제3소대와 제2소대간에는 빈틈이 생겨 그 틈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이젠 끝이다. 클루즈 중사!」 3소대장 맥기 중위는 소대선임하사관 B-클루즈 중사에게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하기 전에 '짱골라'를 처치하여야 합니다」 클루즈 중사에 응답이었으나 오전 3시경이 되자 맥기 중위는 있는 것 전부의 수류탄을 투척하여 물러서라」 제3소대의 잔여 병력이라야 4명에게 전하여 방어선을 포기하도록 명령했다.

맥기 중위는 용감한 청년장교였다 그는 넌더리나는 피의 살육전에서 이틀 간을 압도적 다수의 적을 격퇴시켰다.

더 이상 살상의 효과가 없자 그는 생존자들과 함께 교통호를 따라 고지 아래로 기어내려 가면서 적을 향해 계속 쏘아댔다.

맥기 중위가 반대편 언덕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생존자는 겨우 두 명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수하를 해온다. 이날의 암호는 'Blae Moon' 이라고 대답하자 상대는 중대장 헤드 대위였다. 맥기 중위는 G중대 방어선이 적에게 파괴당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포대에서는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망미산과 그 하부 골짜기를 향하여 치열하기 이를 데 없는 맹렬한 포격을 간단없이 감행해 내고 있었다.

G중대 진지가 파괴되자 지평리 중심부로 향하는 길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다.

헤드 중대장은 에드워즈 대대장에게 이 위급한 참사를 전화로 보고했다. 항공기의 지원이 예상되는 새벽녘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있었다. 만일 중공군이 무너진 방어선 일각으로 충분한 병력을 투입한다면 방어선은 어디이고 간에 적 기습으로부터 견디어 낼 곳은 없었다.

에드워드 중령은 놀라서 프리맨 대령에게 보고하고 있을 때 중공군은 프리맨이 우려한대로 도처에서 방어선을 돌파하고 있다는 보고였다.

이번에는 동쪽에 3대대 K중대 지역에서는 총검에 백병전이 불꽃을 튀겼다.

프리맨 대령이 예비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부대는 1개 유격중대와 1개 공병중대뿐이다. 이 두 개 중대는 일단 전선이 무너진 이상 적의 대량 돌파를 저지할 능력은 갖고있지 못하였다. 프리맨 대령은 유격중대의 1개 소대와 탱크한대를 에드워즈 대령에게 지원 배치케 하였다. 그것이 충분치 못함을 그는 잘 알고 있었지만 동쪽에 3대대에 긴박한 전황의 전개과정 때문에 전 예비대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에드워즈 중령은 응원부대를 G중대 지역으로 가도록 명령했다. 그들이 맥기 중위가 잃었던 고지 배사면에 도달했을 때 G중대 전선은 도랑을 따라서 12명에 병력이 산개해 있을 뿐이었다.

이 지점에서 G중대장 해드 대위는 자기후면에 있는 제503야포대의 곡사포를 적으로부터 엄호하려고 악전고투라는 표현이 적절한 고전을 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맹렬한 사격으로 세찬 총탄을 뒤집어쓰고 있었지만 개인호를 팔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다. 병사들은 얼어붙은 맨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응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은폐물이 없는 지형에서 아군병사들은 죽어갔다. 그러나 G중대장 해드 대위는 방어선의 핵심이 되는 이 진지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러할 때는 죽음을 걸고 임무를 수행할 책임감! 이것은

평범한 군인으로서의 자각에서 오는 성실한 임무였다.

엎치락뒤치락 전쟁

존-램스버그 대위는 중대장을 지낸 2대대 참모장교였다. 그는 유격 1개 소대와 겨우 28명의 F중대의 2개 분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들 모두가 대대예비대의 잔여 병력이었다.

맹렬하게 반격을 하면서 그들은 빼앗긴 G중대에 고지의 배후언덕으로 공격케 하였다. 유격소대는 착검을 하고 힘껏 고함을 지르며 선봉에서 고지능선으로 진격하면서 중공군과 육박전을 전개하였다. 뒤죽박죽 뒤엉켜서 찌르고 쏘아대면서 선봉에서 적을 선제하자 잠시동안 적이 후퇴하는 듯 했다. 그러나 반격하는 아군은 너무도 수적으로 열세였다. 유격소대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중위 한 명이 전사하고 렘스버그 대위도 심하게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다. 반격에 가담한 헤드 대위 역시 적탄을 맞았다.

고지능선을 따라 치열한 전투에서 유격소대의 5, 6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 F중대 28명중 22명이 전사했던 것이다.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고지 아래로 퇴각하고 말았다.

중상으로 의식을 잃은 헤드 중대장은 한쪽 팔이 파편에 맞아 너덜거리게 되자 한 병사에 의해서 안전지대로 운반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실패한 반격작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적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지평리 심장부 우측방으로 새로운 중공군이 대량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이 예기치 못한 반격이 중공군의 의표를 찌를 새로운 절수이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혼란에 빠진 것이다. 또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G중대 진지에 쇄도해 들어간 중공군도 자기들 사령부에 그들이 유엔진지 돌파를 보고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통신수단은 그들의 나팔수와 전령만 가지고 연락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전사하자 전방에 전투부대는 전황을 전방사령부에 보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후방이 분리돼 전황을

혼미한 상태에서 독단으로 전투를 하여야만 하였다. 또한 팀웍은 엉망이었다. 망미산 뒤쪽 골짜기에 적의 지휘부는 저항진지에 새로운 병력을 투입시키고 있었으나 압도적인 폭격에 의한 '산가리' 전법의 화공 앞에서 순간적으로 중공군은 증발하여갔다. 이와 같은 전황의 혼선은 현지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가 미치지 못하자 중공군은 혼란과 무질서의 군상으로 변하여 막대한 피해만을 보고있었다.

G중대 지역에서는 겨우 12명의 병사들이 6문의 155mm 중포와 탱크 2대 그리고 MIP(40mm 대공기관포)의 지원으로 남부진지를 사수하고 있었다.

동쪽에서는 K중대가 L중대의 지원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프리맨 대령은 각 대대에서 올라오는 전화통신과 무전기로 보고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그는 다른 지점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선은 남쪽의 위험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했다. 그는 나머지 예비대의 전 병력과 B중대를 남쪽의 에드워즈 중령에게 보냈다. 그리고 에드워즈에게는 새벽녘에 반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거의 이와 동시에 서쪽 프랑스군 진지에 웅크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아주 기묘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횃불을 들고 끝없이 긴긴 중공군의 대열이 그들을 향해 고지능선에서 내려오고 있다. 그 군상들은 그들의 사격의 표적이 되고도 남았다. 불빛에 비친 중공군은 시체사이에서 부상병을 수색하여 큰 개들이 끌고있는 썰매에 싣고있는 적의 위생병들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중공군에 시체를 헤치며 생존자를 찾아내서는 눈덮인 능선너머로 운반해 가고 있었다.

프랑스군은 죽고 죽이는 냉혹한 절대성을 지닌 격전장에서는 보기 드문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려 사격을 중지하고 바라보고만 있는 이! 정경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그 인간의 인간다운 정감의 훈훈함에 감격을 더해주고 있었다.

2월 15일 아침 솟아오르는 햇빛이 눈 쌓인 능선을 비추고있었다. 그때까지 G중대의 마지막 생존자 5명은 부상한 몸을 이끌고 저항선에서 싸우고

있었고 램스버그 대위도 부상을 당했지만 계속 지휘소에 그대로 남아 전투를 지휘하고 있었다.

지평리에서 중공군을 섬멸시킨 것은 보병들의 소총보다도 후방에 버티고 있던 거대한 155mm~105mm곡사포의 기점사격이 잘 잡힌 막강한 화력의 위력이었다. 그 폭탄은 공기에 기화되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타는 '백린폭탄'을 쏘아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폭탄은 물 속에서는 기능이 정지되었다가도 햇빛과 공기에 다시 기화되어 지글지글 거리면서 타는 무서운 '백린탄'이다. '백린액'은 확 퍼지면서 중공군의 군복을 뚫고 살에 들러붙었다. 백린 폭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중공군은 아군에 전초선을 돌파할 수 없게 하였다.

아군이 빼앗긴 3개 능선으로부터는 완전히 퇴각시키지는 못하였으나 해가 높이 떴을 때. 남쪽의 G중대 구역에만 병력을 잔류시켜 공격의 거점을 확보한 중공군은 사각지대로 피신하였다.

유엔군 비행기가 폭격을 가하는 대낮에는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던 중공군이었다. 왜냐하면 리지웨이 장군이 지평리 전선을 방문시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짝이는 유엔 전폭기들이 계속 적진위로 쌩쌩 날아가서는 퇴각하는 중공군에게 '네이팜탄'과 근접 기총소화를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지평리의 온 산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전초선 안에 프리맨 대령은 부상한 몸인데도 새로 부임된 「찰스」 중령에게 지휘권을 인계치 않고 예하 대대장과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만일 우리에게 지평리 사수의 기회가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날 밤(2월 14일) 중공군에 공격부대를 전멸시켜 버려야 하는 것뿐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23전투단은 탄약이 거의 바닥났고 무엇보다 병력손실이 너무나도 극심하였다. 방어선에 구멍이 뚫린 지금 적의 대공세에 하룻밤을 더 지탱하여 살아남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연대장 프리맨 대령은 예하 2대대장 에드위즈 대령에게 빼앗긴 고지탈환 명령을 하달했다.

공중지원과 탱크와 지원포대의 도움을 받으며 적을 격퇴하기 위하여 2개 중대를 지원 받았다. 그러나 혹한과 수면부족에 밤낮 없는 전투로 아군 또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중공군들의 단말적 저항 때문에 뜻대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때 8군 수뇌부는 부상당한 프리맨 연대장에게 23전투단 지휘권을 「찰스」중령에게 인계하고 명령대로 즉각 그 지역을 떠나려고 계속 명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리맨 대령은 계속 후송을 거부하고 있었다. 프리맨 대령을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시키겠다는 수뇌부의 협박에 잠시 숙고했다.

그리고 남쪽전선에서 돌아온 에드워즈 중령에게 물었다. 당신 지역의 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소. 에드워즈 중령은 만일 연대장이 아군에 반격이 실패하여 연대가 큰 위협에 봉착하였음을 알면 그가 후송을 거부할 것을 뻔히 알고서 말했다. "연대장님 별 걱정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프리맨 대령은 그를 후송시키려온 헬기에 올라탔다.

서로 부임된 찰스 연대장이 (1960년 미2사단장) 반격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제 오후가 되었다. 오후 3시경 결국 보병만으로 남부전선의 중공군을 격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짧은 겨울 낮은 빨리도 저물어 가고 있었다. 찰스 연대장은 각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탱크를 남쪽전선으로 이동, 중공군진지 후방으로 우회하여 배후에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탱크가 이동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아군이 매설한 지뢰밭에 부딪혔다. 연대장 찰스는 지뢰제거를 공병대에 명령했다. 수십명의 폭발물 처리병들은 적의 총격을 받으며 하나씩 하나씩 대검으로 심지어는 맨손으로 지뢰를 파내야 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지뢰밭은 중공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매설한 것이 아군의 작전에 장해물이 되었다. 매분, 매시간 상호간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만약에 중공군 주력부대가 어둡기 전에 꺼지지 않으면 지평리를 사수하고 있는 23전투단은 3일째 생지옥 같은 밤을 맞아야만 했을 것이다.

크롬베즈의 전차대

2월 15일 새벽 제5전차연대를 지휘하는 마르셀 크롬베즈 대령은 지평리에 포위된 23전투단을 구조하기 위해 여주로부터 북진을 시작했다.

노란 목도리를 즐겨 매는 덩치가 크고 매부리코의 크롬베즈는 에드위즈 중령(2대대장)과는 절친한 전우였다.

북진하는 제5기갑부대는 갑자기 예기치 못한 적과 조우하였다. 진견로를 따라서 중공군 떼거지가 우글거렸다. 그들은 도로에다 나무토막과 바위 돌 또는 대전차 지뢰로 장해물을 설치하여 간단하게 뚫고 나갈 수 없었다.

무언가 새로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개된 전황으로 보아서는 본의 아니게 리지웨이 사령관의 명령을 지연하게 되었다. (작전명령은 오전내에 포위망 돌파). 크롬베즈는 작전을 변경했다. 엄호작전으로 나온 영국27여단의 후속을 위하여 후보리와 곡수리 간선도로에 정찰요원 몇 명만 남겨둔 채 23대의 탱크와 165명의 일개보병중대로 특수기동대를 편성하였다.

노란 목도리를 바람에 날리며 5번째 탱크' '포다'위에 서있는 크롬베즈와 함께 특수기동대는 전폭기의 엄호 하에 교전하면서 진격을 감행했다.

전자포는 적 앞뒤를 강타했고 기관총은 공격하여오는 적을 연선 쓰러뜨리고 있었다. 중공군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차를 정지시켜야만 했는데 폭발물을 들고 스스로 탱크궤도에 몸을 던지는 소위 인간폭탄 작전을 폈다. 이때 탱크의 '캐터필러'에 깔려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가는데도 육탄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후 3시경 곡수리(지평 남쪽 8km지점)를 간신히 벗어나게 되자 또 다른 중공군들은 바주카포로 사격을 가해 왔는데 이로 인해 두 대의 전차가 폭파되고 다른 전차들이 움직일 수 없게끔 도로는 협소하였다. 이때 많은 포로가 생겼지만 구출할 수가 없었다. 한번 대열이 정지하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차대열이 사격권내를 벗어나는 것 같았다. 몇 명의 보병만이

탱크 위에 남아있었다. 만약에 크롬베즈가 어둡기 전에 아군 전초선에 진입하지 못하면 23전투단은 모두 생포되어 전멸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다.

악전고투 끝에 크롬베즈는 바로 앞에 폐허가 된 교차로 마을 지평리가 있음을 알았다.

크롬베즈의 특수기동대가 21대의 탱크를 가지고 중공군의 측면에 다가갔다. 그곳에는 적의 탄약고와 지휘소(현옥현 1리) 그리고 지원부대가 위치해 있었다. 크롬베즈의 탱크가 불을 뿜었다. 경악한 중공군들이 도주했고 장해물을 모두 제거한 23전투단의 탱크부대도 크롬베즈 부대 공격에 가세했다. 약 2천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중공군 수뇌부의기간 요원들이 줄행랑을 쳤고 아군의 탱크포는 벌겋게 달아있었다.

이처럼 돌발적인 기습은 중공군 후방부대를 여지없이 깨뜨린 심리전술이었다. 임표의 병사들은 용맹하게 전투에 임했지만 탱크공격과 공중폭격이 치명적이어서 수 천명의 포병마저 참호와 포대를 포기하고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도주하는 적은 크롬베즈의 특수기동대에 의하여 사살되어갔다. 에드위즈 중령이 크롬베즈 대령에게 뛰어갔다. '오! 주여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다니...' 크롬베즈가 웃으면서 '오! 주여 내가 자네를 구조해 주다니'라고 외쳤다.

크롬베즈의 보병 165명중 23명이 생존했고 그들 중 13명은 부상당해있었다. 두 대의 탱크를 잃었고 탄약의 5분의2를 써버렸다. 오후 5시 15분해가 지기 전 몇 분전에 극적인 도착과 더불어 극적인 구조를 한 셈이다.

탄약도 충분치 못한 21대의 전차와 생존한 23명의 보병만으로도 원군은 원군이다. 포위망에 갇혀있던 23전투단은 우군과의 연락확립 바꾸어 말하면 「생명의 안전보장」의 상징으로 위기는 극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괴이한 현상이 전 중공군진지에서는 일시에 대 혼란이 일어났다. 방어진지의 남쪽뿐만 아니라 전역에 걸쳐 교묘히 은폐하고 있던 그들의 진지를 버리고 일제히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 눈앞에서 산골자기를 향해 마구 뛰는

것이다.

그들은 완전히 와해(瓦解)된 무리로 돌변하여 떼지어 도주한다. 중공군 지휘관들의 악을 쓰는 독전의 명령은 허공에 질타한다. 패주하는 병사들 또한 상관이 안중에 없다. 허둥지둥 도주하는 인간에 살고자 하는 집착 너무 참담함에 말이 끊긴다.

수천 수만의 중공군이 도주하다 죽고 도주하는 적을 공격하는 유엔군들은 대 살상극을 벌리고 있었다. 지평리에 길게 늘어진 중공군의 시체 위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G중대 고지에만 중공군 1천5백구의 시체가 있었다.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공방전에 하나인 지평리의 포위망은 벗겨졌다. 리지웨이에 모험은 완전히 끝났던 것이다. 이틀밤 낮 동안 일개 전투단 병력 5천 6백명이 9만명의 중공군의 포위망에서 갇혀있었고 그들을 괴멸시켰던 것이다.

유엔군 처 중공군에서 처음 승리한 전투로 전사는 기록하고 있다.

중공군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분지로 유엔군은 겹겹이 포위 사방 어디에서나 유엔군 진지를 조감할 수 있다는데서 용이하게 저격 또는 총 포격을 가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었다. 그 포위망을 압축하려는 멀쩡한 미군은 도망하는 것이 정석이었다고 생각한 임표였다. 그러나 지금은 의외에도 「대륜형진(大輪形陣)」을 형성하여 강력한 방어전투를 전개한다. 그 방식은 세계제2차대전시에 대 일본전에서 영국이 고안한 '린데부스-스쓰뎁'으로 외곽의 요소에는 전차와 중화기를 배치하고 원내는 자동차를 가지고 기동한다. 보급은 공수로 한다는 입체전이다.

이 린데부스-스쓰뎁에 대하여 인해전술이란 동요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임표에게 심어주었다. 임표의 득의의 전술 인해전이 리지웨이 전법 전술은 그 기초를 화력에 두고 전략은 그 기초를 기동에 두었다. '기동은 병참에 의존한다'에는 그 가치를 반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중공군 전국전체(戰局全體) 위에서 볼 때 무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대전투가 지평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재정비된 유엔군 부대가 속속 모여들었다. 원주 근교 섬강 계곡에 중공군 대부대가 침투했을 때 정찰기

안내를 받은 미포대는 임표의 4개 사단을 파멸시켰다. 여기서 6천명의 중공군의 사사되고 약 2만5천이 부상을 입었다.

기력을 상실한 임표의 도깨비부대는 북으로 도주해갔고 한국전 참전이래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유엔군이 한국을 지켰는가?! 또는 중공군이 후퇴했는가?! 하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못된다.

1951년 2월 15일 한국전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 해 4월과 5월 중공군은 재정비하여 재치 공격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때 양상은 똑같았고 임표의 전력이 승리할 희망도 결코 없었다. 지평리 전투에서 재기불능의 참패를 당한 뒤 4개월 이내에 중공군 최고사령부 휴전협상을 제의해 왔다.

한국전쟁은 처음 시작된 선에서 한마디의 사격중지 명령에 의해 종식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된 채로 남아있다. 문제해결은 공산주의와 민주진영의 냉전이 종식되는데 있을 뿐이다.

지평리 대전투에서 전사한 사람을 빼놓고는 귀국하고 폴-프리맨은 사성장군이 되어 유럽주둔 미군사령관으로 발탁되었다.

한국전은 어렵고도 잔인한 전쟁이었다. 장엄한 면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나 지평리 전투에서는 막대한 희생을 통하여 자위의 보루가 지켜졌던 것이다. 〈끝〉

Ⅵ. 지평리전투 유엔군 전사자

A. 지평리 전투 미군 전사자 명단

With your kind indulgence I would now like to read the final roll call of those brave American soldiers who made the ultimate sacrafice and gave their lives here on the blood soaked hills of Chipyong-ni. They died so that we, and the South Korea people, may live free.

Regimental Headquarters
MAJ Shoemaker, Harold W.
SFC Budd, James

Able Company
PFC Dodson, Kenneth
PFC Klein, George, D.

Baker Company
CPL Burch, Louie F.
M/SGT Rubio, Benjamin
SGT Davis, Robert C.
SGT Doran, Bernard
PFC Gapinski, Lawrence
PVT Griffith, William S.
PFC Harless, William A.
PVT May, Melvin C.
SFC Nabozny, Engene L.
SFC Woodard, Earle L.

Charlie Company
PFC Early, Lawrence P.

Dog Company
SFC Klein, Charles M.
PFC Perry, Frank W.
CPL Sherwood, Charles W. (Awarded Distinguished Service Cross)

Easy Company
CPL Faulconer, Floyd N.
PFC Willis, Frank
CPL Byron, William

Fox Company
PFC Barela, Juan M.
PVT Santistevan, Herman

George Company
PVT Armstrong, Wilson
PVT Baker, Paul E.
CPL Blosser, David F. (MIA-died in POW Camp)
PVT Broyles, Bruce M.
PFC Clarno, Edward W, (MIA-died in POW Camp)
PFC Corrigan, Frank (MIA-died in POW Camp)
PVT Edwards, Frank D. (MIA)
PVT Enger, Albert H.
CPL Evans, Dudley L. (MIA-died in POW Camp)
SGT Hood, Charles E.
CPL Howe, Jack D. (MIA-died in POW Camp)
PVT Mace, Burl L.
CPL McGovern, Engene H.
CPL Newton, Earle G. , Jr. (MIA-died in POW Camp)

PVT Orig, Bruno R.
SGT Ottesen, Eugene L. (MIA-died in POW Camp)
PVT Patton, Delmar
SGT Potter, Harry E.
PVT Ragone, Frank P.
PFC Scott, Wilmer O.
PVT Stamper, Paul
CPL Stephey, Dallas W.
PVT Svitek, Richard L.
CPL Thompson, Harwood H. (MIA-died in POW Camp)
PFC Zecchini, Palph E. (MIA-died in POW Camp)

How Company
PFC Mon, Arnold L.
PFC Pederson, Marvin W.
PFC Reevis, Herbert L.

Hqs Company, 3rd Battalion
PFC Molter, Marvin L.

Item Company
PFC Murray, Raymond M.
SGT Winkle, Frank N. , Jr.

King Company
CPL Ingram, Glenn R.
PFC Rodriguez, Alfredo
PFC Shimabukuro, Shingo
SGT Vanderburg, Vernon

Love Company
CPL Lee, Yukkay D.

PVT Woodruff, Charles

Mike Company
CPL Hopkins, william E.
SFC Sitman, William S. (Awarded the Medal of Honor)

There were also some gallant French soldiers who gave up their lives here at Chipyong-ni. I regret that I don't have a list of their names also.

My fallen comrades, today marks my final roll call with you.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when I cross that last bridge of no return, my final thoughts will be with you, the 23rd Infantry Regiment, and the 2d Infantry Division. May God bless you and keep you in the palm of his hand. Good-bye.

B. 지평리 전투 프랑스군 전사자 명단

※ 지제면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군 전사자 10명.

SCHEIDT Rene, caporal, 2°Cie, 8-2-51.
BILLON Marcel, 2°classe, 3°Cie, 13-2-51.
CLODIC Francis, 2°classe, 1'°Cie, 13-2-51.
THIERRY Andre, 1'°classe, C.C.B., 13-2-51.
LE FUR Roger, 2°classe, C.C.B., 13-2-51.
BARDINAL Georges, 1'°classe, C.A., 14-2-51.
LEVREY Marius, 2°classe, 1'°Cie, 14-2-51.
MONROIG Raymond, 2°classe, 1'°Cie, 16-2-51.
SEMELER Maurice, sergent-chef, 1°Cie, 15-2-51.
FLOURAC Louis, sergent, 3°Cie, 13-2-51.

※ 지제면 무왕리(옥리봉) 전투 프랑스군 전사자 5명.

COOUELLE. Henri, 2°classe, 3°Cie, 12-1-51.

BONNET Jean, caporal, 1′°Cie, 12-1-51.

CORRE Georges, 2°classe, 2°Cie, 13-1-51.

PAVIA Antoine, 2°classe, 3°Cie, 23-1-51.

SAMSON Pierre, 1′°classe, 3°Cie, 12-151.

※ 지제면 쌍둥이 굴 전투 프랑스군 전사자 10명.

LE MAITRE Andre, commandant, C.A..,1-2-51.

SERRE Leon, capitaine, 3°Cie, 1-2-51.

NICOLAI Ange, lieutenant, 3°Cie, 1-2-51.

RAYNAL Georges, sergent-chef, 3°Cie, 1-2-51.

CALVEZ Marcel, sergent_chef, 2°Cie, 1-2-51.

JAFFRE Roger, sergent. 1′°Cie, 1-2-51.

BURTON Maurice, sergent, 3°Cie, 1-2-51.

DUBREUIL DE LA GUERONNIERE Ythier, sergent, 3°Cie, 1-2-51.

HERMANN Alphonse, caporal-chef, 1′°Cie, 1-2-51.

FELIO Pierre, caporal-chef, 1′°Cie, 1-2-51.

※ 지제면 무왕리 전투 프랑스군 전사자 17명.

BORDINAT Roger, caporeal-chef, 1′°Cie, 1-2-51

GUY Pierre, caporal, 2°Cie, 1-2-51.

SAVARD Bernard, caporal, 3°Cie, 1-2-51.

BERENI Rene, caporal, 3°Cie, 1-2-51.

MALARD Maurice, 2°classe, C.A., 1-2-51.

CHASSEROT Andre, 2°classe, C.A., 1-2-51.

HUGUES Louis, 2°classe, C.C.B., 1-2-51.

BLANC Albert, 1′°classe, 1-2-51.

MATHIEU Daniel, 2°classe, 3°Cie, 1-2-51.
BORST Moise, 2°classe, C.A., 1-2-51.
HUGUES Rene, 2°classe, 3°Cie, 1-2-51.
SALVI Primo, 2°classe, 2°Cie, 1-2-51
COURRIC Francois, 2°classe, 1'°Cie, 1-2-51
TESSONNEAU Yves, 2°classe, 1'°Cie, 1-2-51.
MOUTHIER DE CORBERON Daniel, 2°classe, 1'°Cie, 1-2-51.
LE BIHAN Elie, 2°classe, 1'°Cie, 1-2-51.
BRETON Gerard, 2° classe, 3°Cie, 1-2-51.

계 42 명